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8

- 임자면 편 -

---

2006. 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 안 군



##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신안군의 연구지원을 받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가 2006년 1월부터 2006년 9월에 걸쳐 수행한 『島嶼 文化遺蹟 地表調査 및 資源化 學術用役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의 최종 성과품 중 임자면 편이다.

지금까지 신안군 도서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 민속학 관련 현지조사를 정리한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전남 편)』(1969)가 있고, 1970년대에는 도서지역의 인문사회 관련 통계를 정리한 『도서지(島嶼誌)』(내무부, 1973) 등을 통해 부분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87년에 비로소 신안군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성과는 『新安郡의 文化遺蹟』(목포대학 박물관·신안군)으로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신안군의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으나, 19세기 이전에 조성된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근현대의 문화자원이 누락되어 다소 제한적인 연구였다.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한 본 작업은 신안군의 모든 읍면과 부속도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연대 제한 없이 모두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문화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원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런 목적의식 아래 본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지표조사의 성과를 그대로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문화재’를 뛰어 넘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문화에 주목한 까닭은 문화재는 자연의 공공재들과 함께 권역과 ‘자연-인간’의 총체성, 즉 문화에 바탕을 두고 보존·활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삶과 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거나 소멸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개발의 논리에 밀려 문화자원 역시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 심지어 무엇이 의미 있는 문화자원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리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방관과 포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선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집·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를 지역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자원의 보존을 쉽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투자의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지표조사는 “문화자원을 보존하며 동시에 활용하고”, “활용하며 동시에 보존하는”, 이른바 <보존과 활용>의 상승효과를 올리는데 주목하였다. 이는 대립 개념인 ‘보존과 개발’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해냄으로써 신차원의 개발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섬만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 해양의 시대에 각광 받는 문화관광지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풍부한 섬의 문화자원이 있다 해도 그저 흩어져 있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이번 작업은 그런 점에서 흩어져 있는 구슬들의 존재를 파악해서 이를 가장 아름답게 꿰어 그 상품가치를 최대화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업은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해 주는 일이었다.

지표조사는 먼저 자연 및 생태자원, 선사 및 역사문화자원, 민속생활문화자원, 사회문화자원, 문화관광자원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요 자원을 선별하고 각 분야 나름의 특성을 반영한 활용방향을 제안하였다. 그 다음 이런 지표조사의 결과 및 제언을 수용하여 문화유적의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특히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이번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번 작업은 주로 인문 분야에서 행하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이번 작업은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섬들의 문화적 차이와 특징을 뚜렷이 비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독창적인 자원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이 신안군 전체의 문화관광 계획을 새로운 차원에서 일신하는 토대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신안군 측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책임을 맡은 김경옥 교수를 위시로 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이끌어낸 공동연구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린다.

2006년 9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장 강봉룡

---



# 목 차

책을 내면서 ——— 3

연구개요 ——— 9

I. 자연자원 ..... 13

1.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 13

1) 지형 및 경관문화자원 목록 ——— 13

2) 지형 및 경관문화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 13

2. 생태문화자원 ——— 24

1) 생태문화자원의 목록 ——— 24

2) 임자도와 부속도서의 자연자원 ——— 26

3) 생태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방안 ——— 37

II. 선사 및 역사문화자원 ..... 38

---

1. 선사문화자원 ——— 38

1) 선사문화자원 목록 ——— 38

2) 선사문화자원 현황 ——— 38

3) 매장문화재의 자원화 방안 ——— 41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 44

1)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목록 ——— 44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현황 ——— 44

3)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활용방안 ——— 51

3. 유교문화자원 ——— 57

1) 유교문화자원의 목록 ——— 57

2) 유교문화자원의 현황 ——— 58

3) 유교문화자원의 활용방안 ——— 64

Ⅲ. 민속생활문화자원 ..... 74

- 1. 어로문화 —— 74
  - 1) 임자도 파시 —— 74
  - 2) 임자도 젓중선과 새우잡이 —— 84
- 2. 설화와 민요 —— 101
  - 1) 설화와 민요의 목록 —— 101
  - 2) 설화와 민요에 대한 해설 —— 105
  - 3) 설화와 민요의 활용방안 —— 157
-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 162
  - 1)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목록 —— 162
  - 2)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현황 —— 164
  -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활용방안 —— 233

Ⅳ. 사회문화자원-파시와 포구- ..... 243

- 1. 사회문화자원 목록 —— 243
- 2. 사회문화자원 현황 —— 243
- 3. 사회문화자원 활용방안 —— 255

Ⅴ. 임자도 문화관광 진흥방안 ..... 256

- 1. 임자도의 개요 —— 256
- 2. 관광자원 현황 —— 257
- 3. 관광자원화 방안 —— 263

□ 전체 문화자원 분포도 —— 269

## 연구개요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점차 소멸되어 가는 신안군의 각종 유·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표조사를 수행하여 문화유적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리하여 디지털 자료화한다.

#### ○ 도서 문화유적의 자원화

총체적으로 파악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자원화하여 장·단기 관광자원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한다.

### 2. 연구의 기본방향

-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헌조사, 현지방문조사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파악한 자료를 D/B화한다.
- 기존의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연자원을 초기에 면밀하게 문헌, 지표,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여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의 집중화를 기한다.
- 수집된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보존 및 관광상품화를 통해 신안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21세기 바다의 시대, 해양의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다도해 문화관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연구 대상지역은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이다.

###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유·무형문화재 관련 문헌 및 도서(읍면) 현장방문 지표조사
- 유·무형문화재 구전기록 및 현장 영상기록(사진, 영상 디지털화) 보존 병행
- 조사된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승·보존 계획 수립

- 조사가 완료된 읍면의 유산 중 학술적 가치나 전송 및 보전이 필요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국가, 도, 향토자료로 지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장단기 전송·보전 계획 수립한다.
- 관련 자료의 매뉴얼화 및 CD-ROM, 스크랩 제작을 시도한다.
- 유형문화, 구비전승, 굿, 당제, 고인돌, 독살, 해조류 번식지, 어구어법 등의 모든 자료를 원형대로 디지털 자료화한다.
- 문화관광지도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수집된 문화자원의 위치도를 지도에 표기한다.

○ 조사된 문화자원의 장·단기 관광상품화 계획 수립

- 도서(섬)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 국민 스스로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테마별로 기획하여 상품화한다.
- 문화관광 상품 및 자원을 대외에 홍보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나 학술토론 등을 개최한다.

4. 연구의 의의

○ 문화유적의 현황만을 파악하는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다른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

- 지표조사의 성과는 그대로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로 활용한다.
- 섬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콘텐츠 위주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문화재를 뛰어 넘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한다.
-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한다.
-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한다.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행해 왔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문화적 창조성을 지닌 자원화 기본구상을 제안한다.

○ 지표조사의 집중화·체계화·디지털화

- 기존 조사와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화자원에 대한 철저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조사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히 수행한다.
-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하도록 시도한다.
-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제적 응용 및 디지털 자료화로 구축한다.

5. 기대효과

- 신안군내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계승·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 문화관광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안군의 문화 역량 강화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한다.
-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개념을 조화시킴으로써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시킴으로써 문화론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토대를 제공한다.

6.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김경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역사학전공)
- 공동연구원 문병채(전남대 지리학전공 겸임교수, GIS전공)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생태학전공)  
이현중(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고고학전공 교수, 고고학전공)  
최성환(신안문화원 사무국장, 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역사학전공)  
홍순일(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구비문학전공)  
나승만(목포대 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민속학전공)  
이윤선(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민속콘텐츠전공)  
김 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사회학전공)  
김형서(대불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관광경영학전공)
- 연구보조원 이은정(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역사학전공)  
송기태(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민속학전공)

최미영(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기록관리학전공)  
박정원(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생물학전공)  
이혜연(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고고학 전공)  
조원중(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사회교육전공)  
정홍일(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 역사학 전공)  
이수미(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 고고학전공)  
송장선(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 고고학전공)  
양나영(목포대 국어국문학과 4, 국문학 전공)  
이혜숙(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김해미(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최유미(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김찬희(목포대 국어국문학과 3, 국문학 전공)  
조인경(목포대 역사문화학부 3, 문화인류학 전공)  
최영민(대불대 관광경영학과 3, 관광경영학 전공)

# I. 자연자원

## 1. 지형·지질·경관문화자원

### 1) 지형 및 경관문화자원 목록

구분	번호	자원명	주소(위치)	규모 및 사양
지형과 지질	1	임자도의 원지형	임자도 전역	면적 29.94km <sup>2</sup>
	2	조선시대 임자도 모습	"	면적 37.55km <sup>2</sup>
	3	임자도 간척지 모습	"	면적 46.60km <sup>2</sup>
	4	임자도의 자연특색	"	
	5	기암괴석 '용난굴'	이흑암리 옥암마을 어머니	높이 8m, 길이 150m
	6	대둔산(한동산)	이흑암리	높이 280m
	7	대광해수욕장	임자도 북서쪽 해안	길이 12km, 폭200m
	8	어머리해수욕장	이흑암리 앞 바다	길이 1.7km, 폭50m
	9	은동해수욕장	대둔산 남쪽 은동마을	길이 1km, 폭20m
	10	도찬리갯벌	도찬리 앞 바다	
	11	오아시스 '모래치'	임자도 전역	약 15여개
	12	기암괴석 '군바우'	재원도에 위치	
경관자원	13	진리마을 풍경	면소재지	
	14	전장포구 풍경	전장포	
	15	새우젓굴 풍경	전장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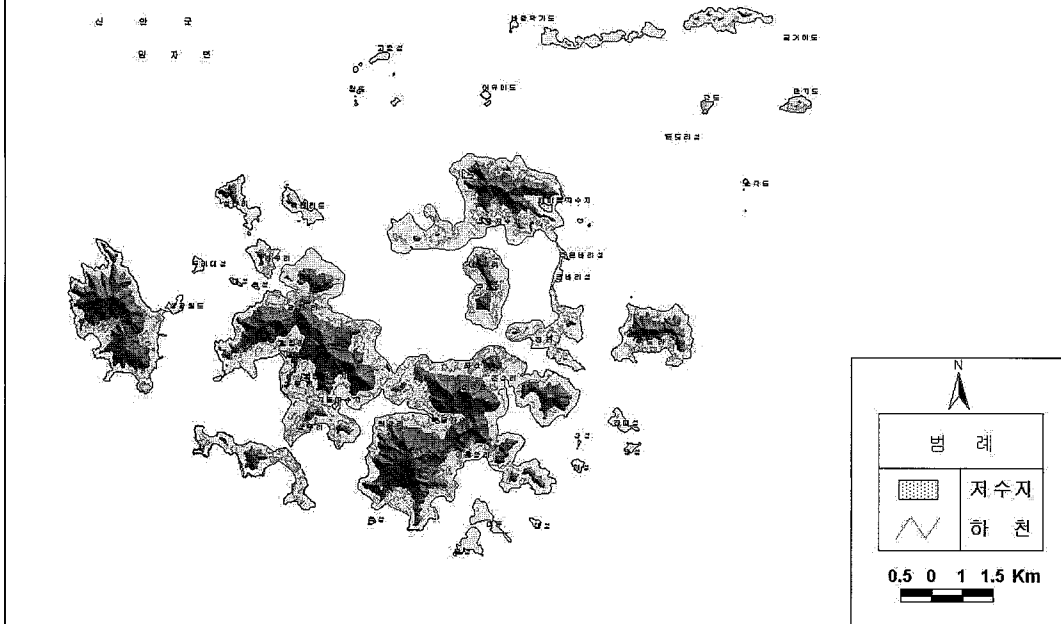
### 2) 지형 및 경관문화자원의 현황과 활용방안

#### (1) "삶의 터전"의 시대별 원형

임자도의 삶의 터전 즉 생활공간 변화는 크게 2가지 힘에 의해서 변화해왔다. 해수에 의한 모래퇴적 등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와 간척사업과 같은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의 변화가 그것인데, 특히 주민이 거주하면서부터 이루어진 변화는 간척활동에 의한 변화가 매우 컸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과거 간척기술(제방축조 형태 및 기술)을 알 수 있으며, 시기별 섬면적, 해안선모습, 해류와 조류 흐름, 해로, 어장형성 및 변화를 짚어볼 수 있으며, 시대별 거주지(마을형성) 위치와 포구(선착장) 위치 및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① 임자도의 원래 모습

## 임자도 원지형



임자도는 약 15,000년 전에는 전남 내륙과 연륙(連陸)되어 있었고<sup>1)</sup>, 그 후 해수면 상승과 함께 약 2,000년 전에야 비로소 현재와 같은 섬으로 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sup>2)</sup>, 육지와 연륙되었던 임자도가 해수면의 상승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섬으로 변한 후, 이 지역 주변은 조수의 영향을 받아 6천년 전 얼마간은 해발 10m 정도까지 미쳤고, 석기시대 이후는 10m 이하로 점점 내려가다 고대 사회로 들어와 농경사회가 되면서 5m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조차를 고려해 보면 임자도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간석지의 범위는 대략 해발 5~10m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GIS에 의해 초기경관(지금부터 2000년 전의 임자도 모습)을 시물레이션 했다. 그 결과는 아래 지도와 같았다.

원래의 임자도 모습은 북쪽의 자갈한 구릉성 섬, 그 아래 삼학산을 증양으로 한 섬, 그 아래 구산리 섬, 그 오른쪽에 진도 등이 있었고, 그 아래로 체도인 본섬이 놓여 있는 상태였다.

이 때의 임자도는 약 29.94km<sup>2</sup>로 현재(46.60km<sup>2</sup>)보다 17km<sup>2</sup>가 작은 섬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현재

1) 해수면 상승은 후기갱신세 마지막으로 추었던 시기인 15,000여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2) 김경수(2001: 4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추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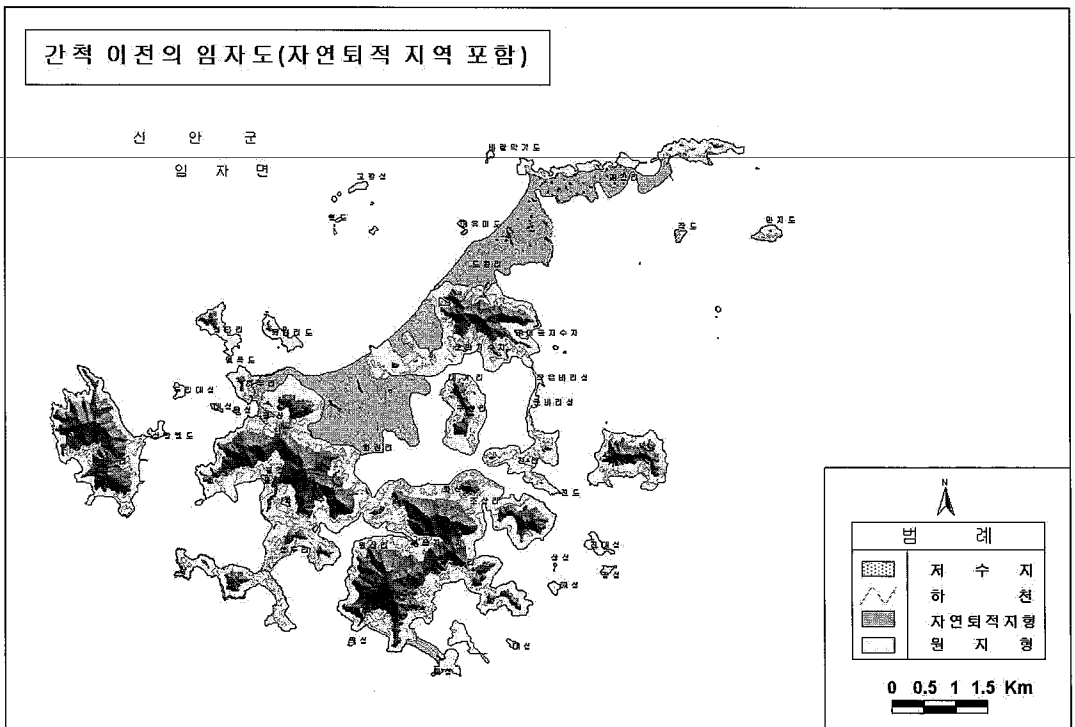
의 대략 2/3규모). 그러나 당시 해안선은 매우 구불구불해 현재보다 훨씬 길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당시의 해안선 길이 141.27km).

## ② 조선중기까지의 '임자도 모습'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북서쪽 해양에서 조류와 파도에 의해 쌓여 퇴적된 모래언덕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 이들 크고 작은 섬들이 서로 연결되어 아래 지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다.

풍랑과 바람에 의한 북서해안의 모래퇴적은 주위의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거의 하나로 연결시켰지만 남동쪽으로는 거의 퇴적이 일어나지 않아 내륙 깊숙이 만(灣)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현재 넓은 들판인 회산리쪽은 당시에 큰 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시기의 임자도 면적은 대략 37.55km<sup>2</sup>, 해안선 길이는 147.36km 정도 되었던 규모였던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따라서 원지형에 비해 약 7.61km<sup>2</sup> 정도가 자연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퇴적물이 주로 모래인 것으로 볼 때 최소한 이 면적만큼이 순수한 모래지형임을 알 수 있어, 과히 임자도를



지도 2. 간척이전의 임자도 모습(자연퇴적 지역 포함)

모래의 섬이라고 부를 만 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자연퇴적은 섬들을 상호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주가능한 낮은 구릉지 형성, 경작지 조성 가능 등을 가져오게 되어 선사인들의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작용이 되었다고 보겠다. 따라서 자연퇴적은 선사시대 유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게 해 이러한 분야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곳은 아마 천혜의 피난처와 경제적인 풍부함, 거주가능 공간 등의 기반을 갖춘 장동 일대에서 구석기 유물을 찾아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들이다.

### ③ 수많은 간척활동과 임자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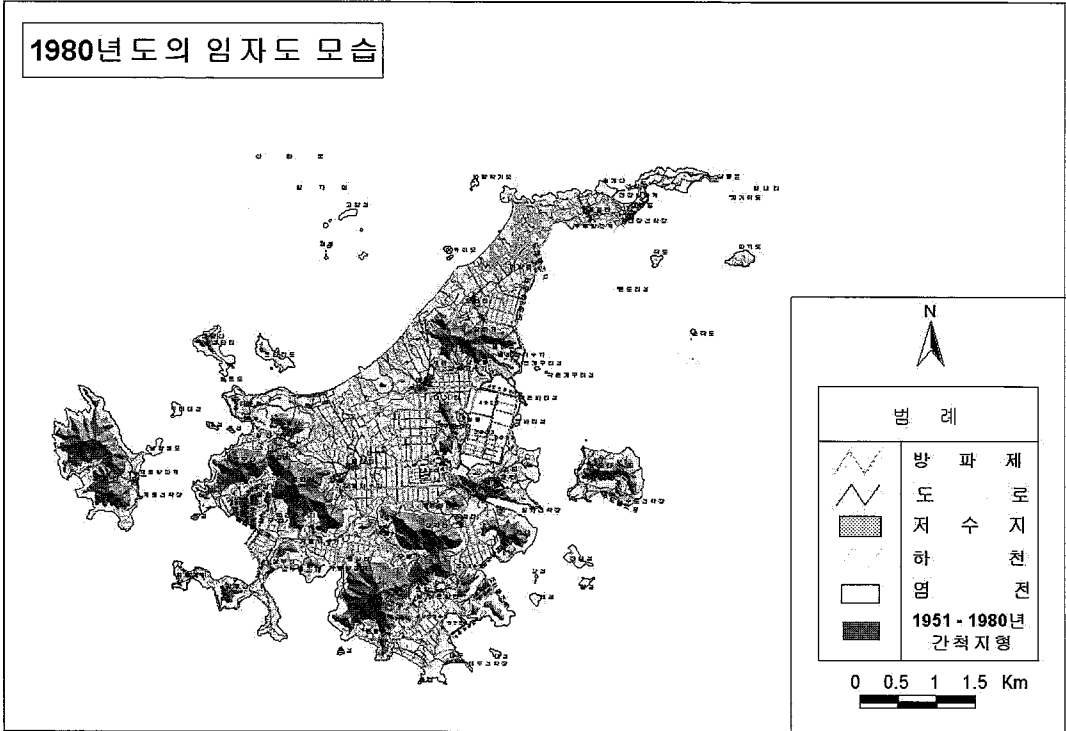
임자도 지역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하였다는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경지의 개척과 촌락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후기 대중향로 개척과 때를 같이 하지 않는가 한다.

조선 중·후기에 들어서 주민의 급격한 증가와 在地土族의 촌락지배,<sup>3)</sup> 중앙정부의 세수확보와 간척 유도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간척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sup>4)</sup>. 특히, 인조에서 정조에 이르는 160년 간은 조선시대 치수사업의 부흥기였다(김의원, 1985 47~56). 이와 더불어, 일제시대에는 현대적 토목공법이 발달하여 대규모 간척사업이 훨씬 가능해졌고, 또한 간척사업에 관한 법령·제도 등이 마련되는 등 체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임자면은 본격적인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해방 직후 경제적 불황과 국가의 재정난 등으로 잠시 미진했으나, 6·25 동란 이후 UNKRA, FAO 등의 외원에 힘입어 간척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민간차원의 소규모적 간척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섬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왔으며, 임자도가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게 했다.

3) 16~17세기의 在地土族의 촌락지배는 대부분 제인과 보의 축조로 인한 농지의 확대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이혜준, 1996 : 288~290).

4) 조선 후기, 왜구의 침입이 없어지고 임자·병자의 양대 전란을 겪고 난후부터는 매우 활발하게 간척활동이 이루어졌다. 농업경제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의 정부로서는 황폐화된 경지를 복구하여 농경지를 확대시키고 농민을 안주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양전사업(量田事業)과 개간사업(開墾事業)이었다. 정부의 개간정책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신호철, 1981 : 62~63). 하나는 토지를 개간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또는 「경작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 개간된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 혹은 감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개척 장려는 임자도 지역의 간척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도 3. 1980년도의 임자도 모습

## (2) 임자도의 지형지세

임자도의 지형은 중동에서나 보는 사막의 지형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곳 임자도를 못 사람들은 한국의 유일한 사막이라 부른다.

임자도는 유인도 4개 무인도 60개로 이루어진 섬으로 예전에는 임자본도 또한 여섯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 육섬이라 불렀다. 한동산(대둔산 280m), 함박산을 중심으로 개요지도, 재원도, 삼막산(163m)에 대기, 쾌길도, 면소재지가 있는 진도, 구산마을 갈미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재원도 외 나머지 섬들은 24개의 방조제로 하나의 섬으로 연육되었다. 임자도의 대부분의 농지는 해수면보다 낮다.

중앙에는 한동산, 함박산, 삼막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평야인 장포만과 북으로 완만한 모래사막 구릉지대인 도찬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으로 거친 물살과 험한 산세의 한동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삼십리 은모래길 대광해수욕장의 모래해변과, 도구포 인근 지도와 맞닿은 동편에는 썰물에 바닥이 드러나는 넓게 드리워진 갯벌지대로 소금이 생산되는 염전이 자리 잡고 있다.

### (3) 반대쪽 출구로 뚫린 '용출암'

이흑암리 옥암마을 (어머리) 앞 남쪽해안(남쪽 약 1.7km의 해안)에 위치한 용난굴이 있다. 교통은 임자면소재지에서 이흑암리 방향 승용차으로 25분 소요된다.



이 굴에서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다. 굴은 높이 8m, 폭 7m, 길이가 150m나 되는 천연동굴이다.

유난히 곱고 미세한 모래들로 구성된 백사장과 용난굴(용출암)이 이곳의 자랑거리이다. 아직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아 입장료가 따로 없다. 현재 광주 사레지오 중·고등학교 수련장이 있기도 하다. 용난굴을 중심으로 은동리 해수욕장을 조금만 개발(야영장, 샤워장 등을 설치)하면 좋은 관광지로 자리잡을 것 같다. 해수욕장에서 위로 보이는 대둔산(한동산)은 산책로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 (4) 다도해가 한 눈에 들어오는 '대둔산'

흑암리에는 다도해가 한 눈에 조망되는 대둔산(280m)이 있다. 조망권이 멀리까지 확보되어서인지 정상에 산성이 있다. 높이 1~1.5m 둘레 약 100m 폭 2.5~3m의 규모를 지니고있으며 현재 신안군 향토자료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당시에는 꽤 유명한 산성인 듯 하다. 테피식 산성으로 조선 숙종 37년(1711년) 임자진이 설진될 당시에 초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자진 지도에는 봉수대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산성은 봉수대를 겸한 돈대 규모의 산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현존 유구를 볼 때 조선시대 "물림쌓기" 방식에 의해 구축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둔산성의 초축은 조선조 숙종 37년 임자진의 설진시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유물이 없다. 현재는 정상에 헬기장이 조축되어 있어 성축의 훼손 정도가 심하다. 대둔산성의 서쪽으로 재원도, 동쪽으로는 지도, 남쪽으로는 바다, 북동쪽으로는 진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대둔산정에서는 이들 섬들이 한눈에 조망된다.

### (5) 한국 최대의 '모래해안'

### ① 삼십리에 이르는 “대광해수욕장”

임자도의 자랑인 대광 해수욕장은 지난 90년 국민 관광지로 지정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고 깨끗한 해수욕장이다. 백사장의 길이가 12km나 되고, 폭이 200m가 넘는 광활한 곳으로 걸어서 3시간이 소요되며 확트인 수평선 위에 크고 작은 섬이 점점이 펼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송림이 울창하여 아름답고 서정적인 정취를 자아낸다. 비금도의 명사십리, 도초도의 시목해수욕장, 암태도의 추포해수욕장과 더불어 신안의 4대 해수욕장중의 하나. 백사장 길이가 12km 폭이 3m가 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넓은 해수욕장이다. 걸어서 1시간 20분 자전거로 30분이나 걸린다.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바닷물이 흰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고 주위의 경치가 좋아 해마다 피서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곳은 해수욕에 안성맞춤은 물론 어느 곳에서든지 모래찜질을 할 수 있다. 백사장은 바로 옆에는 해당화가 자생하고 주변 야산에는 아카시아 숲이 우거져 해마다 꽃철이면 향긋한 꽃 내음이 온 해변에 진동한다. 대광 해수욕장은 천연적 여건을 자랑하는 것은 해변에서 바다속으로 1km쯤 경사가 겨우 5도 안팎이며 인접한 곳에 광산(光山) 대기(大機) 등 2개의 저수지가 있어서 민물 샤워장으로(현재는 샤워장이 따로 시설되어 있음) 이용하기도 하여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자면 대거리와 광산리 뒤편에 펼쳐진 대광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넓고 깨끗한 해수욕장이다. 백사장의 길이는 12km나 되고, 폭이 3백미터가 넘는다. 해수욕장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서는 1시간 20분, 자전거로도 30분이나 걸리는 광활한 백사장이다. 이러한 넓은 백사장 너머로 보이는 수평선 또한 서정적이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임자 대광해수욕장은 지난 90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샤워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앞으로 2001년까지 17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집중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예전에는 목포에서 여섯 시간이나 걸리는 뱃길 때문에 왕래가 어려웠으나 무안 해제-신안지도간 연육교가 세워지고 지도읍 점암과 임자도를 잇는 철부선이 운항하면서 승용차로 당일로도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코스가 되었다.

### ② 아담한 정취가 느껴지는 어머니해수욕장

물고기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해수욕장이다. 백사장 길이 1.7km에 불과해 대광해수욕장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해변이나, 그럼에도 어머니를 찾는 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 아담함이 주는 정취 때문이다. 해변 양편의 바위산과 백사장 앞에 떠 있는 작은 조각 섬은 어머니

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섬의 좌측 끝자락에는 용난굴이 어머니의 보석처럼 자리한다. 높이 5m에 폭 2m의 용난굴은 ‘용이 태어난 흔적’이라 한다. 썰물 때는 50m의 굴이 그 문을 열어 사람들을 맞는다. 동굴의 어둠 속으로 이 따금 흘러드는 빛은 여름철에 더욱 흥미롭다. 물때를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피서객이 많이 찾지 않아 해수욕 시설이 열악하다.

### ③ 낙조가 아름다운 은동해수욕장

임자도의 숨은 비경은 은동해수욕장이다. 어머니해수욕장과 마찬가지로 개발되지 않은 천연 해수욕장인데 붉은 기둥을 뿜어내는 낙조와 함께 풍광이 매우 이국적이다. 1km도 안 되는 길이의 작은 해변이지만 백사장의 폭이 넓고 임자도 특유의 고운 모래가 발끝을 간질인다.

은동해수욕장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낙조 때문이다. 바다를 물들이는 해 질 녘의 붉은 기운은 섬 그림자와 어우러져 마음을 사로잡는다. 다만 접근성이 좋지 않다. 사유지를 경유해야 해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해수욕장 뒤편에는 대둔산 등턱까지 이어지는 임도가 있어 임자도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해수욕을 위한 기본 시설은 없다.

### (6) 오염되지 않은 “도찬갯벌”

대광해수욕장이 임자도 서편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동편은 도찬갯벌이 주인공이다. 도찬리, 특히 마방촌에 이르면 앞 해안에, 해안선을 따라 길다랗게 쪽 펼쳐져 있는 생명의 토인 황토로 된 갯벌이 나타난다. 바닷물이 빠지면 흑갈색으로 드러나고 석양을 받아 반짝 반짝 빛을 내는 아프리카 흑인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생활의 터전”이며 “생명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빨 것들(생물)이 살아 꿈틀거리고, 수십만 마리의 철새의 털갈이와 부화모습을 볼 수 있는 새들의 낙원이다. 손상되지 않은 태곳적부터 내려온 자연 그대로의 지형과 생물학적 변화가



살아 있는 곳이다.

그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다. 검푸른 흙을 가르며 뻗어나간 갯고랑과 그 위에서 꿈지락거리는 게, 갯지렁이, 쟁뚝어 등의 생태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따로 도구를 빌려주는 곳이 없으니 갯벌 체험을 하고 싶다면 장화나 호미 등을 직접 챙겨 가야한다.

날씨가 좋으면 제방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배를 타고 갯벌연안을 따라가며 새와 식생을 관찰하고, 썰물이 되면 직접 갯벌을 걸으며 자연을 느끼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개발의 기본방향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첫째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며 오염 없는 갯벌’로 접근해 무조건 인간의 접근을 막는 방법보다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야할 것이다.

둘째 갯벌보존회를 구성하고, ‘갯벌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안좌도 서남해안 갯벌은 보존가치가 크다. 손상되지 않은 태곳적부터 내려온 자연 그대로의 지형변화와 생물학적 변화를 살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개펄나지, 개펄석화, 전통고기잡(독살 등), 가무락조개, 통죽물, 피뿔고동, 물레고동, 홍합, 진주, 담치, 뱀뱀이, 망둥어, 봉장어 등이 갯벌 고기 및 패류잡이 학습체험장으로 개발이다.

---

둘째 해양식물이 자라고 있고 새끼와 알을 낳아 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생태학습장이 필요하다.

셋째 개펄도 성분에 따라 급을 달리하는데 진흙갯벌, 모래갯벌, 자갈갯벌 등 여러 형태의 갯벌체험 학습장이 만들어지면 좋을 듯하다.

넷째 염생식물체험장 조성이다. 염생식물단지는 크게 갯벌식물과 사구식물로 나누고, 다시 갯벌식물은 해안성식물과 기수성식물 단지로 나누고, 해안성식물은 염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포단지를 만든다. 그리고 각 소단지는 세부적인 식물별로 조성되도록 한다. 또한 별도로 약용식물(예, 함초 등)단지를 조성한다.

다섯째, 특산물 가공단지 조성과 상품판매장터를 조성한다. 함초 등으로 비빔밥이나 약초를 만들며, 갯벌로 화장품 등도 만들어 판매토록 한다.

#### (7) 사막의 오아시스인 ‘모래치’

예전에 “임자도 처녀들은 모래 서 말을 먹어야 시집간다”라는 말이 있었다. 임자도에는 그만큼 모

래가 많아서 바람에 날려 입에 들어오는 모래가 많았다는 소리이다. 임자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사막이다. 섬 전체가 잘디잔 먼지 모래로 덮여 있다. 산도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밭도 모래밭이다. 눈은 물을 가두기 위해 개별을 파다가 모래땅에 객토를 해야 한다. 갯바람이 몰아치면 눈과 밭은 하룻밤 사이에 사막으로 바뀐다. 민가 마당들도 모래가 쌓여 작은 사막이 된다.

그리서 임자도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한 오아시스가 있고 이를 이용한 ‘오아시스농업’이 잘 발달해 있다. 임자도의 오아시스는 모래가 머금고 있던 물을 끌진 곳으로 쏟아내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둠병(작은 방죽) 보다는 크고 저수지 보다는 작은 이 오아시스를 임자도 사람들은 ‘물치’ 또는 ‘모래치’라고 부른다. 그리고 움푹한 곳을 파고 모래치를 만드는 일을 “뿔을 친다”고 한다. 이 모래치 오아시스의 물은 농사물로 쓰이지만 해수욕객들의 ‘갯물 씻김물’로도 그 만이다. 임자도의 모래치는 임자도의 생명수인 것이다.

임자도 바닷가에는 모래언덕이나 산중턱 또는 들 가운데에 이런 오아시스가 열대여섯 개나 있다. 그 중 길이가 500~600m, 폭이 8m가 넘는 것도 3개나 있다.

이 오아시스의 물은 불투수층의 갯벌층 위에 약 2~3m 두께로 덮고 있는 모래층의 지질구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모래층에 물이 아래의 갯벌층을 침투하지 못하고 고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자도에서는 이 오아시스 물을 경작지 곳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로 물을 뽑아 올려 대파나 양파를 경작하고 있다.

#### (8) 재원도의 ‘군바우’

임자도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유인도인 재원도에는 기암괴석이 유난히 많다.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는 위치적 특성으로 활발한 파도작용의 결과 해수에 의해 침식된 결과 이루어진 결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갖가지 기암괴석 중 유달리 눈에 띄는 것이 마치 불에 구운 것같이 붉으스름하게 보이는 바위이다. 주민들은 이를 불에 구운 바위라하여 ‘군바우’로 불리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반대쪽으로 관통하고 있는 상당히 큰 굴이 있는데, 거북이 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 물이 빠지면 고래의 꼬리 모양으로 바뀌어 흥미로움을 준다. 위쪽에 오랜 세월을 견뎌내며 자라고 있는 섬향나무는 운치를 더해 주고 있다.

#### (9) “진리마을” 풍경

임자면 진리의 중심지는 초기에는 면사무소 등의 관공서와 선착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현재

는 도로개발과 협소한 시가지 확장을 위한 간척사업이 영향력이 높다.

시가지 변화의 단초는 1968년 진리에서 이흑암리로 가는 노두가 없어지고 다리가 시공되면서 소금과 양곡을 실어 나르던 선착장이 폐쇄돼 진리항으로 통합되면서 시작된다. 폐쇄 이후 주변상업시설이 쇠락하고 시가지가 위축된다.

또한 당시까지 면사무소 앞과 해수로 주변을 관통하던 시가지 관통로가 70년대 들어 일부 노선이 변경되면서 시가지 위축에 가속도가 붙고 1990년 간척사업 등으로 생긴 유희지 등을 거쳐 지방도가 새로 건설되면서 주로 간척지로 이뤄진 신 시가지 A지역으로 중심상업지역은 옮겨가게 된다. 비슷한 시기에 간척이 이뤄졌음에도 반대편 D지역 배후지 발달이 지체된 것은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유치에 적극적인 신 시가지 A지역과 달리 반대편 D지역은 잦은 토지분쟁이 상존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리마을은 다른 예사 농어촌과는 달리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 섰다. 또한 인구부양율과 노령화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대광해수욕장 등 관광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와 대파농사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공공시설은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반경 200m 내에 분포하고 있고, 주택이 가득차 있는 구마울과 가게 등 상업시설이 놓여있는 신마을로 확연히 양분되어 있다. 따라서 구마울 집들은 폐가와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스텔트와 기와지붕이 많은 반면 신시가지는 철근콘크리트와 시멘트(블록)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는 도로는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이어진 구마울과 깔끔하게 정비된 시마을 도로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신마을은 개발수효에 비해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는바 연접한 구역에 대한 주거지 개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마울의 균형발전과 회생을 위해 연접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할 것이며 이는 진리항과 연계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0) 전통어촌이 느껴지는 “전장포구”

시간이 멈춰 있는 곳,

담장과 나란히 나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면,

골목으로 쏟아지던 햇볕에 취해 까무룩해지던 날이 떠오르는 곳이다.

어릴 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만 같던 그 골목길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을 오가며 치마와 담벼락과 대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창살 하나 대문 하나에서도 빛바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사투리로 쓰여진 간판, 글자 받침이 떨어져 나간 간판은 영화세트 같지만, 엄연히 영업을 하는 가게, 초라함보다 낡고 오래된 물건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곳이다.

골목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가깝고 따뜻하고 익숙하지만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곳…,

어민들 애환을 담은 포구, 사람 냄새가 온전히 배어 있는 공간…,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개발로 현대화된 공간을 벗어나,

우리네 작은 일상들로 이뤄진 장소를 만날 수 있는 곳,

### (11) 새우젓과 토굴

임자도는 대광해수욕장과 함께 전장포 새우젓으로도 유명하다. 임자도의 북쪽 맨 끝 동네 전장포는 우리나라 새우젓의 대명사이다. 전장포에서는 해마다 1천여톤의 새우를 건져내 전국 새우젓 어획량의 60%를 차지한다. 맛과 질에서 품질이 뛰어난 임자도 근해에서 음력 6월에 잡은 신선도가 좋은 새우를 잡아 배 위에서 바로 소금으로 절인다. 잡아서 물으로 가져와 젓갈을 담그면 그동안 신선도가 떨어져 맛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드럼통에 넣어 물으로 가지고 나와 섭씨 5℃가 되는 굴속에 보관하면서 저온상태에서 덜 짜고 비린내가 없을 때까지 장기간 숙성시킨다. 새우젓 본래의 순수한 맛이 날 때, 인공첨가제나 소금으로 만든 염수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자연숙성된 국물만을 사용하여 만든다. 새우젓 중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전장포에서 5월과 6월에 잡히는 살쥔 새우젓은 각각 ‘오젓’ ‘육젓’이라고 하여 맛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김장 때 전장포 새우젓을 사용하면 맛이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나며, 김치가 쉽게 시지 않는다.

전장포 마을 뒤 솔개산 기슭에는 길이 1백 2미터, 높이 2.4미터, 넓이 3.5미터의 말굽모양 토굴 네 개가 있다. 이것은 새우젓 저장시설로 이곳에서 저장된 새우젓은 김장철에 맞춰 비싼 값으로 팔려간다.

## 2. 생태문화자원

### 1) 생태자원의 목록

구 분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 모 및 사 양	
섬의 모습	위치와 지리	전남 신안군 입자면	E126° 6' N35° 5'	사양토질이어서 들깨가 많이 난다하여 입자도라 지음.	
	모양과 형태	신안군 최북단	목포에서 40.3km, 지도에서 해상 2.5km에 위치함	면적 39.18km <sup>2</sup> 해안선 56.5km	
지형과 기후	유名山	대둔산	입자면 이흑암리	319m., 지도읍에서 가장 높은 산.	
	해안지형	리아스식 해안, 사빈해안	동서쪽 북서쪽	동서쪽의 톱니모양의 절벽과 북서쪽의 단조로운 해수욕장	
	유명섬	수도	지도와 입자도 사이	면적: 1.45km <sup>2</sup>	
		재원도	입자도의 북단	입자도에서 1.1km 면적: 3.03km <sup>2</sup>	
	토양	적색토 게르마늄 사양토	입자도 전지역	입자도 전지역	
	기후	해안성기후	서해안 기후	평균온도 약 22도	
산림	소나무-참나무 혼합림	대둔산일대	대둔산일대와 그 밖의 해수욕장		
지역산물	특산물	새우젓	전장포와 하우리	전국어획량의 약 60%로 생산	
	수산물	민어, 농어, 병어, 새우	입자도 근해	병어 223톤 민어 298톤 농어 149톤 새우 1,990톤	
보호수	농산물	쌀, 양파, 고추, 마늘 등	입자도 전지역	기타} 소금: 32,000톤	
		노거수	입자 쾌길마을 노거수(소나무)	입자 쾌길마을 동산	소나무 1수
			입자면 농협 노거수	입자면 진리	벗나무 1수
			입자면 파출소 노거수	입자면 진리	팽나무 1수
			입자 부동마을 노거수	입자면 부동리 173번지	은행나무 2수
			입자 부동마을 노거수	입자면 부동리	동백나무 1수
			입자 면사무소 노거수	입자면 진리 466-2	팽나무 1수
			입자 대길리 노거수	입자도 대길리 마을	이팝나무 2수
	입자 이흑암리 노거수		입자도 이흑암리	은행나무 2수	
	숲	재원도 당숲	입자도 재원리 마을	팽나무 7수	
		재원도 陳씨 선산	입자도 재원리	동백나무 8수	
입자도 용난굴해수욕장 방풍림		입자도 이흑암리	소나무 (흑송) 군락		

## 2) 임자도와 부속도서의 자연자원

### (1) 자연과 낭만이 깨같이 쏟아지는 모래의 섬 “임자도”

면적 39.18km<sup>2</sup>, 인구 4,076명(1999), 해안선길이 56.5km이다. 최고점은 대둔산(大屯山: 319.5m)이다. 사질토(砂質土) 토양에서 자연산 깨가 많이 생산되어 임자도라고 하였다. 목포시와의 거리는 66.6km로 신안군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수도(水島) · 재원도(在遠島) · 부남도(扶南島) · 갈도(葛島) 등의 부속도서가 있다. 섬 지형을 보면 가장 높은 산은 대둔산(319.5m)이고, 원래 대둔산 및 삼학산(三鶴山) · 불갑산(佛甲山) · 조무산(鈞舞山) 등 여러 산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연안조류(沿岸潮流)와 파랑(波浪) 등에 의해 산지가 침식되고, 흘러내린 토사가 퇴적하여 하나의 섬을 이루게 되었다. 동·서쪽 해안은 지절(肢節)이 다양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북서쪽 해안은 단조롭고 긴 사빈해안을 이루는데, 해안사구가 파괴되면서 섬 지형이 많이 변화되었다.

임자도 서쪽에 자리 잡은 대광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넓은 해수욕장으로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백사장이 장장 12km에 달하며 해수욕장 끝에서 끝까지 걸어서 1시간 30여분이나 걸린다.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은 1990년 국민관광지로도 지정되었다. 완만한 경사와 따뜻한 수온, 광활한 백사장에 넓은 야영장과 천연잔디 운동장 체육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단위의 피서객은 물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M.T 및 운동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도 사랑받는 곳이다.

해수욕장 앞으로 떠있는 대태이도, 혈도, 어유미도, 바람막기도, 고깔섬, 육다리도, 오유미도 등 이름도 아름다운 수많은 크고 작은 유무인도가 낚시꾼을 유혹하며 떠있다.

이곳 섬에서는 농어, 돔, 장어, 민어 등이 잘 낚이는 낚시터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줌으로써 해수욕장의 바다는 언제나 잔잔하다. 또한 이곳은 신안군의 군화인 해당화가 대규모로 자생하고 있는 곳이다.

예전과 달리 무안해제-신지도간 연육교가 세워지고 지도읍 점안과 임자도를 잇는 철부선이 운항되며, 승용차로도 다녀올 수 있다.

### (2) 신안군 북부지역의 가장 높은 산 임자도 “대둔산”

임자도의 남서쪽, 섬에서 보기도쁜 높은 산이 보인다. 대둔산은 해발 319.5m로 이쪽



〈사진 1〉 대둔산 임산도로와 식생

암리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둔산의 식물생태는 학술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있어 환경부와 산림청 등 국가 기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산이다.

대둔산에서는 주로 서해안성 식물인 줄사철나무, 섬향나무, 병아리꽃나무, 음나무, 종가시나무 등이 분포하고, 남사면 주계곡의 해발 170m 지점에 군생한다. 고로쇠나무, 뽕잎피나무, 물푸레나무의 그늘 밑에 줄사철나무, 송악, 보리밥나무와 함께 자란다. 생육지는 여기저기 크고 작은 바위가 노출된 전석지에 가까우며 그늘지고 습기가 많아서 이끼류가 바위 표면을 덮고 있다. 대둔산 전반적인 식물생태는 곰솔과 소나무, 리기다소나무와 참나무류가 혼합림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대둔산 150m 능선에 땅귀개와 이삭귀개 등 약 50여 개체가 확인되는데 보호식물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 (3) 국민관광지 입자도 “대광해수욕장”

서해안에서 제일의 해수욕장을 꼽으라면 안면도, 변산 등 유명한 해수욕장을 선택하겠지만 입자도를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나 전문가들은 모두들 입자도의 대광해수욕장에 반해버린다.

이름만큼이나 길고 멋진 사변이 있는데 무려 길이 12km에 달하며, 폭은 300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넓은 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을 이 끝에서 저끝까지 가려면 걸어서는 1시간이 넘고 자전거로 30분정도 걸리는 정말 광활한 해수욕장이 아닐수 없다.

백사장의 모래는 유리의 원료로 쓰이는 규사토로서 입자가 아주 곱고 부드러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물 빠진 해변은 더욱 장관이다. 폭 300m의 황금빛 모래사장이 파란 하늘과 어울려 멋진 풍경을 선사한다. 경사도 거의 없어 평지처럼 보인다. 그 해변에서는 빨밭의 개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몽땅 모래다. 그 모래는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도 있다. 드넓은 모래벌판은 축구장도 되고 족구장도 된다. 아이들에게는 모래성 쌓는 놀이터다. 아침이면 싱그러운 바람과 함께 산책하기에 좋다. 저녁이면 고갈섬 너머로 지는 해넘이와 멋진 노을을 바라보기에 좋다. 해변에 친 그물에는 하루 두 번 썰물 때마다 고기가 걸린다. 그 고기를 떼어 내 저녁상에 올리는 한가로운 어촌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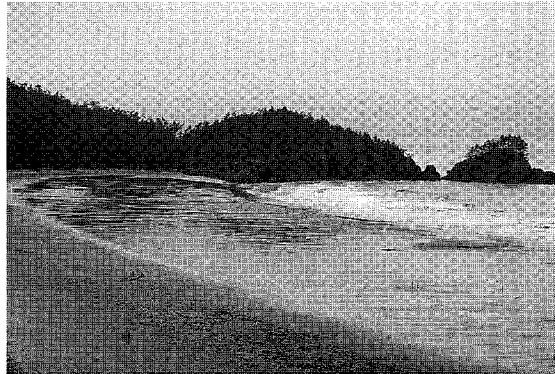
〈사진 2〉 입자도 대광해수욕장

경도 만난다.

백사장 뒤로는 해당화, 해송, 아카시아 나무가 숲을 이루어 야영장 및 한낮의 폭염을 식혀 줄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제공하고 있어 비금도 명사십리, 암태도 추포, 도초 시목해수욕장과 더불어 신안의 4대 해수욕장으로 손꼽힌다.

#### (4) 임자도 이흑암리 어머니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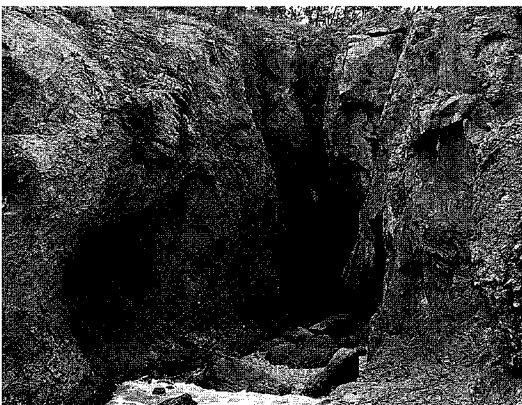
임자도의 이흑암리에는 백사장을 낀 소규모의 해수욕장이 몇 개 있다. 그 중에서 백사장 길이가 1.7km인 어머니해수욕장은 물고기의 머리 부분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머니해수욕장은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의 약 8분지 1수준이지만 대둔산 자락에 위치한 어머니만의 특유한 정취와 조용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발이 끊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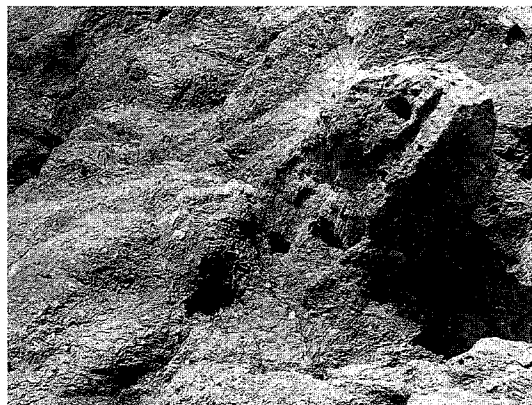
〈사진 3〉 이흑암리 어머니해수욕장

해변 양편의 바위산과 백사장 앞의 떠다니는 배처럼 두리둥실 떠있는 모양의 작은 조각섬들은 어머니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을 더욱 낭만에 적시게 한다. 또한 어머니해수욕장은 생태적으로 충분히 보호할 만한 가치에 있는데 바로 해수욕장을 두루는 해송 방풍림이다.

#### (5) 리아스식 해안이 낳은 웅장한 해안 절벽과 특이한 절벽해안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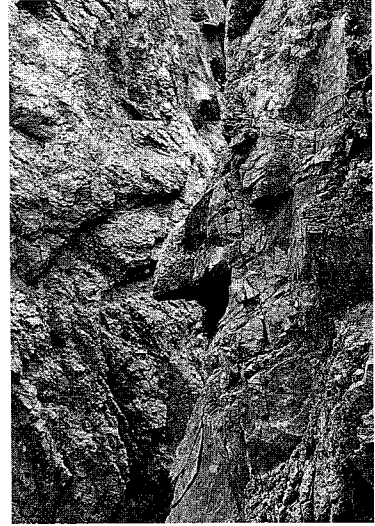


〈사진 4〉 임자도 이흑암리의 용난굴



〈사진 5〉 용난굴 근처의 두꺼비바위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것은 육지의 침강 또는 해수면의 상승에 의해서 육지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이루어진 해안을 일컫으며 침강하기 전에 하천의 침식으로 산지와 골짜기가 발달하여 많은 기복면을 이루었을 경우에는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이루게 된다. 즉, 본래 산이었던 부분은 섬으로, 산등성이는 바다에 돌출하여 곶을 이루고, 골짜기는 만(灣)을 이루어 해안선이 톱니 모양의 복잡한 굴곡면을 이루게 된다.



〈사진 6〉 용난굴 근처의 인면바위와 해국

에스파냐 북서부 비스케이만(灣)에는 이와 같은 해안이 많으며, 이 지방에서 이러한 만입(灣入)을 리아(rias)라고 하는 것에 연유하여 굴곡이 심한 해안을 리아스식해안이라고 한다. 리아스식해안은 만입이 깊고 물도 잔잔하여 선박의 대피에는 유리하지만, 후배지(後背地)가 적기 때문에 큰 항만의 발달에는 불리하다. 그러나 수산물의 양식·양어에는 유리하다. 미국 동부의 체서피크만(灣)과 한국의 다도해 해안·서해안은 좋은 예이다. 이미 육지쪽 리아스식은 간척사업 등으로 많이 훼손되어있으며 그나마 관광단지가 조성된 곳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해안 특히 임자도 부근에선 예전 그대로의 사람손이 닿지 않은 절경의 리아스식해안을 볼 수가 있다. 임자도 이흑암리의 용난굴은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 용난굴은 높이 8m, 폭 7m 길이 150m나 되는 큰 규모의 굴이다. 이 역시 리아스식해안절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썰물 때 볼 수가 있다

이렇듯 서해안 특히 임자도와 부속도서에는 절벽해안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식물생태가 특이사항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7월경 피는 참나리 군락은 여름에 바다를 찾은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준다. 또한 해국, 땅채송화, 갯까지수영, 부처손, 갯장대, 사철쭉 등 해안절벽 초본과 줄사철나무, 모감주나무, 삼나무, 섬향나무, 곰솔 등 식물생태가 비교적 사람 손에 닿지 않아 보호가 잘되어 있어 생태관광으로도 손색이 없다.



〈사진 7〉 절벽해안에 자생하는 식물자원 (용난굴)

### (6) 야생화의 진한 향기가 느껴지는 섬 “수도”

지도 점암 선착장에서 임자도 진리선착장까지 가는 딱 중간에(약 7분소요)에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다. 수도라고 불리는 섬인데 면적은 약 1.45km<sup>2</sup> 정도 이고 인구가 약 50여명인 작은 섬이다. 섬 이름 유래는 임자도에 사는 봉씨가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가고 있는데 이 섬에 1년이면 두 번씩 하늘에서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선녀를 만나기 위해 이 섬에 건너와 살았으나 2년을 기다려도 선녀가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던 섬이라고 하여 우도(宇島)라 하였다 한다. 그 후 섬에 민물이 풍부하여 수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수도에 막 닿으면 어디선가 진한 꽃 향기가 나는데 그 주인공은 노린재 나무이다. 노린재 나무가 섬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데 여름이면 그 향기가 섬 전체를 덮힐 정도의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수도는 해안에서부터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사구에는 갯메꽃과 나문재, 해당화, 갯그렁 등이 있으며 바



〈사진 8〉 수도의 소나무 군락



〈사진 9〉 수도숲에서 발견된 백선

로 위에서 부터 특이하게 엄나무(엄나무)군락이 자리 잡고 있다. 엄나무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안군 섬에는 당숲에 팽나무와 함께 엄나무를 식재하기도 한다. 엄나무는 식용으로도 널리 사용하는데 나무껍질은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식당에서 엄나무를 이용한 닭요리를 판매하기도 한다. 수도에는 특이하게 엄나무군락이 많으므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 뿌리가 봉황을 닮아 봉삼이라고 부르는 백선이 발견되고 있다. 이 식물의 뿌리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침, 천식, 간염 등에 탁월한 약효가 있다고 한다. 기타 수도에는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관광으로 특히 숲과 야생화의 관찰로를 조성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7) 고깃배도 쉬어가는 섬 “재원도”

임자도 점암 선착장에서 약 1시간 가량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재원도는 임자에서 거리는 멀지 않지만 교통편이 부족하여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섬이다. 섬면적 3.03km<sup>2</sup>이고, 섬 주민은 150여명 정도이



〈사진 10〉 재원도의 거북이머리 초원



〈사진 11〉 재원도 초원에서 자연 방목하는 흑염소

다. 해안선길이 약8.5km이며, 최고산 정상의 해발은 243.5m이다. 목포시에서 북서쪽으로 45km정도 떨어져있고 목포에서 재원도까지 가는 배편은 없다. 임자도에서 서쪽으로 1.1km 해상에 자리잡고 있다. 본도인 임자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재원도라고 불렀다 한다. 북부와 북서부 및 여러 곳에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해식애가 발달하였는데 암석절벽 군데군데 붉은색 벽옥이 맥을 드러내고 있어 절경을 이루며, 재원리 마을 뒤로 올라가보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아름다운 초지경관이 있어 섬 전체를 관광단지조성을 할만해도 과찬을 것 같은 생각이다. 남·북쪽에는 산괴가 있고, 중앙 안부의 동·서쪽에 해안 저지대가 있어 각각 안락한 마을을 형성하였다. 동쪽 중앙부 해안에 인접한 부속도서 상항월도(上項越島)는 돌을 쌓은 징검다리로 연결되어 육계도처럼 되어 있다. 운치가 있어 관광객들이 모이기 쉬우나 접근하기 어려워 매우 아쉽다.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며, 부근 수역은 어족 회유가 많은 어장인데도 어로활동은 미미하다. 그러나 어로활동 보다는 부근의 어선들이 7~8월이 되는 시기에 재원도로 몰려와 고깃그물 손질과 배 손질 등 어획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기위해 재원도로 몰려 작은 섬에 식당이 2개나 있고 노래방, 당구장등 어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예전에 어선들이 많을 때는 성행 했지만 지금은 겨우 한달여 정도 손님이 드나드는 실정이라고 한다. 재원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아름답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해식애라던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사면도 있고 초지경관도 뛰어나나 접근하기 어렵고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 (8) 마을숲과 보호수

### ① 임자도의 방풍림

해수욕장을 에워싸고 있는 방풍림은 모래 바람이나 강풍으로부터 마을이나 과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조림수이다. 어머니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시원한 해송나무 아래에서 산림욕과 함께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더욱 행복하다. 해안가 마을 앞에 만들어진 곰솔은 섬이나 바닷가에 사람이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면서 바람과 모래를



〈사진 12〉 임자도의 방풍림 소나무 (어머니해수욕장)

막기 위해서 심어놓은 경우가 많다. 농촌에서도 마을의 뒤와 양쪽에 산이 있고 움푹진 곳에 마을이 자리하면 마을 입구가 뚫려 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들 숲이 자라면서 마을 숲을 형성해 방풍림, 방사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마을 숲의 풍수적으로 수구막이라고 하여 해와 살을 막고(防害, 防煞), 바위나 산이 바로 마을에 기운을 미치는 것을 막는(防岩, 防山)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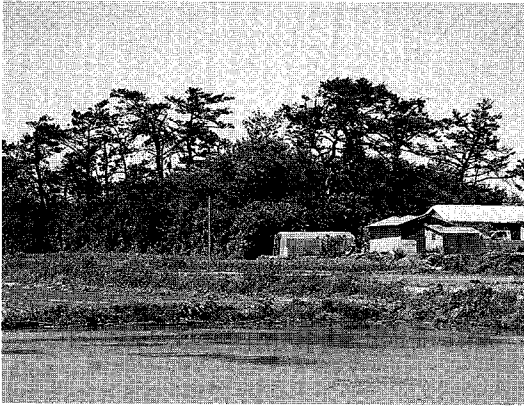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 섬에서 돌과 나무로 만들어 담장처럼 쌓아 올린 ‘우실’이라고 불리는 돌담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졌다. 예로부터 우실은 ‘바람과 모래를 막고’, ‘마을 경계를 표시하고’, ‘풍수지리적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임자도의 경우 풍수지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바람과 모래를 막고 마을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송 주변에 모래사구가 발달하면서 해수욕장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민가와 외지 관광객의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 동안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곳이 없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철조망으로 막힌 ‘군사지역’이나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는 ‘섬’은 마지막 남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이들 지역들이 개발되고,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외딴 섬과 바다를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그 보고도 무너지고 있다.

## ② 임자면 패길리 당숲

임자면과 근처 부속도서는 다른 신안군 북부 섬들보다 비교적 노거수나 당숲의 훼손이 덜 심한 편이다. 현재 당이나 기타 제를 지내고 있는 곳은 적으나 최근까지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그밖에 관리되지 않는 것들은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 상태에 두고 있다. 이 중에 임



〈사진 13〉 임자면 패길리 당숲 (소나무숲)



〈사진 14〉 패길리 소나무(수고 20m, 둘레 140cm, 수령 500여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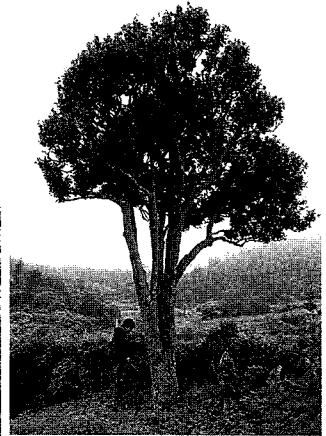
자면 패길리에 소나무숲이 있는데 마을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로 약 500여년 된 이 숲은 아이를 못 가진 부부가 와서 이 숲에 있는 나무에 체를 모시면 아이가 생긴다는 전설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 소나무(곰솔)은 현재 방치되어 있으나 20여년 전에는 당을 모셨다고 한다. 이 나무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성이 느껴지며 앞으로 추후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 마을 주민은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임자면 부동마을 노거수

부동마을 173번지 김연례씨 집에 있는 120년 수령의 은행나무 한그루가 있다. 부동마을에 유일하게 보이는 교목이고 아마 랜드마크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을보호수로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에는 수령 200년의 동백나무가 있는데 수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을 노인들에게 매우 친숙하며 정다운 수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을 보호수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사진 15〉 임자면 부동마을의 은행나무 노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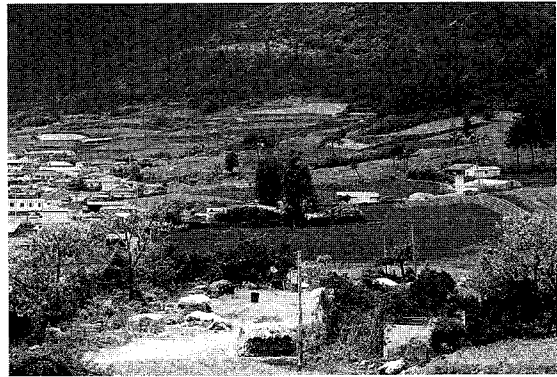


〈사진 16〉 임자면 부동마을의 동백나무 노거수

### ④ 임자 이흑암리 부부나무

이흑암리 마을을 가기위해서 진리

에서 높은 대둔산 자락을 넘어가야 하는데 언덕을 넘자마자 저 멀리 마을 중턱에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다. 200여 년전 마을에서 결혼하였던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영원히 후손에 남기기 위하여 함께 은행나무(암나무, 숫나무)를 나란히 심었다고 한다. 수령이 12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각각 30m, 27m, 흉고직경 63.5cm, 65cm정도 상당히 큰 노거수 이다. 마을 어린이들에게 가족의 화목을 가르치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 주거지에 거주자가 없는 관계로 택지와 함께 훼손되고 있어 시급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하다.



〈사진 17〉 이흑암리 부부나무 (마을 가운데에 서 있는 은행나무 2주)

#### ⑤ 재원리 당숲

재원리 선창작에서 마을 입구로 바로 들어오면 마을의 당숲이 있다. 이 당숲의 전설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이 숲을 지나면서 담배를 피우면 산할아버지가 담뱃불을 꺼버렸다는 설화가 있어서 <당할아버지숲> 이라고도 불린다. 이 당숲은 현재까지도 당을 지내고 있고, 마을에서 비교적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이다. 7수의 팽나무가 있으며 비교적 크다. 흉고직경은 각각 104, 51.9, 112, 89.5, 62.4,



〈사진 18〉 재원리 당숲(팽나무숲)

50.8, 38.5cm이고 수고는 약 30m정도이며, 수령은 제일 큰 나무가 약 500여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숲의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을 하였으나 이것을 수목성장에 매우 안좋은 것이라 지도관리 할 필요가 있다. 신안군의 보호수로 지정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 ⑥ 재원리의 陳씨 선산숲

재원도 재원리의 陳씨네 선산이 있는데 중앙 묘지를 두르고 있는 동백나무숲이 있다. 흉고직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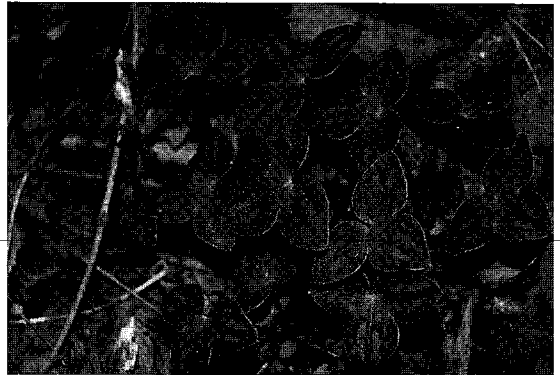
60cm정도 되는 동백나무가 10여그루 있는데 수령은 40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크고 오래된 동백나무숲은 신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생태학적 연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관리와 관찰이 요구되는 숲이다.



〈사진 19〉 재원리의 陳씨 선산숲 (동백나무)

### ⑦ 재원도 계곡숲

재원도에 최고 높은 산이 해발 243.5m정도인데 최고봉을 지나면서 예미재라는 곳에서 약50여미터 떨어진 계곡에 습지형태의 숲을 볼 수가 있다. 섬의 다른 곳은 암반이 많아 토양이 척박하지만 이 곳은 유출된 토양이 모이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비교적 토질이 양호하다. 또한 계곡의 특성상 토양수분이 높아서 육상의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세뽕석위, 마식줄 등과 함께 새끼노루귀 군락이 상당히 큰 군집을 이루며 서식하고 있다. 새끼노루귀는 주로 남해안(제주도)의 도서지역에서 발견되는 식물로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재원도는 계곡이 많은 편이고 계곡식생도 비교적 잘 발달하고 있어 특이한 식생을 이루며 다량으로 분포한다고 여겨진다.



〈사진 20〉 예미재 계곡의 새끼노루귀

### ⑧ 임자 진리의 노거수들

정월 대보름날 제관이 밤 11시부터 12까지 면사무소앞 팽나무(당제할머니)에 마을의 평안과 무사를 기원하는 당제를 지냈으나 6.25때 북한군에 의하여 사당이 파괴되면서부터 지내지 않았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동반바위나 노거수에 기원한 후 자식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면사무소 앞뜰의 팽나무는 흉고직경 115cm, 높이 20m이며, 임자파출소의 팽나무는 흉고직경 75cm, 수고 12m, 농협 앞의 벗나무는 흉고직경 59.6 cm, 높이 10 m이다. 노거수는 계속하여 임자교회에 까지 이르는데 이러한 팽나무, 소나무, 노거수가 숲 띠의 특성을 띠며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오래된 숲길로 이어

진 당숲이나 우실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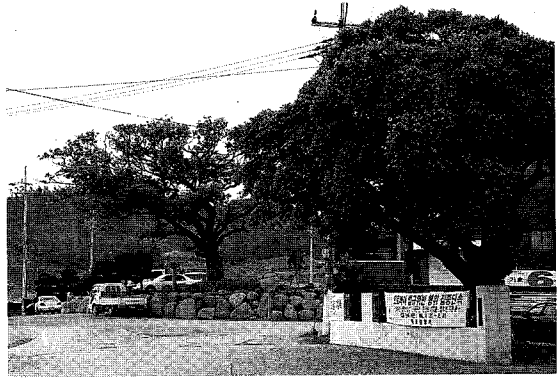
## (9) 생산물

### ① 새우젓과 기타 젓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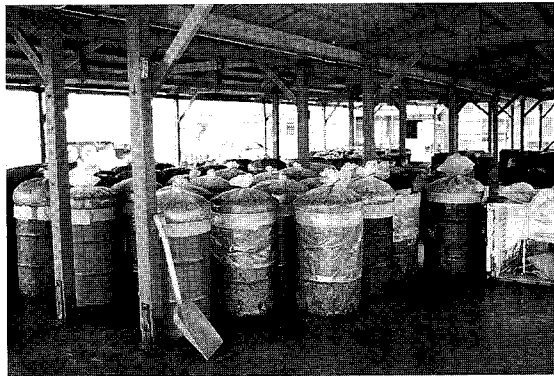
임자도는 대광해수욕장과 함께 전장포 새우젓으로도 유명하다. 임자도의 북쪽 맨 끝 동네 전장포는 우리나라 새우젓의 최고의 생산지이다. 전장포에서는 해마다 1천여 톤의 새우를 건져내 전국 새우젓 어획고의 60%를 차지한다. 맛과 질에서 품질이 뛰어난 임자도 근해에서 음력 6월에 잡은 신선도가 좋은 새우를 잡아 배 위에서 바로 소금으로 절인다. 잡아서 물으로 가져와 젓갈을 담그면 그동안 신선도가 떨어져 맛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드럼통에 넣어 물으로 가지고 나와 섭씨 5℃가 되는 굴속에 보관하면서 저온상태에서 덜 짜고 비린내가 없을 때까지 장기간 숙성시킨다. 새우젓 본래의 순수한 맛이 날 때, 인공첨가제나 소금으로 만든 염수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자연 숙성된 국물만을 사용하여 만든다. 새우젓 중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전장포에서 5월과 6월에 잡히는 살찐 새우젓은 각각 ‘오젓’ ‘육젓’이라고 하여 맛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장포 마을 뒤 솔개산 기슭에는 길이 1백 2미터, 높이 2.4미터, 넓이 3.5미터의 말굽모양 토굴 네 개가 있다. 이것은 새우젓 저장시설로 이곳에서 저장된 새우젓은 김장철에 맞춰 비싼 값으로 팔려간다. 김장 때 전장포 새우젓을 사용하면 맛이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나며, 김치가 쉽게 시지 않는다.

### ② 재원도 섬향나무 재배

재원도에는 섬향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섬향나무는 원예수목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나 실제로 자연상태에서 온전하게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신안에서는 많지 않다. 식물생태학적인 차원에서 재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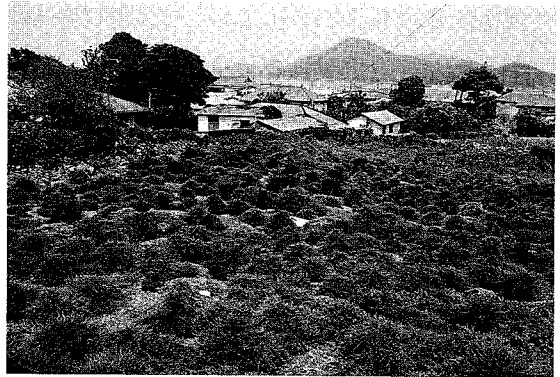


〈사진 21〉 임자 진리의 노거수 띠숲



〈사진 22〉 임자 전장포 새우젓

의 섬향나무군락 분포는 매우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전관리가 중요하다. 주민들은 섬향나무의 유목을 채취하여 마을에서 재배를 하여 시판하고 있다. 자원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이용의 차원에서 서식지를 보전하면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진 23〉 재원도 섬향나무 재배

### 3) 생태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방안

임자도는 대광해수욕장과 전장포구를 비롯하여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역사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기존의 임자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아마도 해수욕장과 새우젓에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많은 설화를 담고 있는 마을숲을 비롯하여 노거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암절벽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러한 기암절벽에는 생물학적으로 독특한 식물과 동물들이 분포하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임자도의 대둔산과 이흑암리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는 그야말로 자연보전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둔산의 실정은 대둔산의 허리를 가로 질러서 임도가 개설되고 있어서 그나마 남은 자연생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임도에 의해 병아리꽃나무 자생지와의 접근이 쉬워지게 되는데, 자칫 자생지의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임도가 아직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생태관광은 인간편의적인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의 입장에서 인간이 적응해 가면서 생태를 즐기는 것이다.

대광해수욕장과 전장포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문화유적을 비롯하여 마을숲을 소개함으로써 아름다운 임자도의 새로운 모습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임자 부동마을이나 쾌길마을의 노거수처럼 마을 주민들이 의지해 온 마을숲의 경우는 전통마을숲의 복원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복원하여 새로운 생태문화자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쾌길마을의 소나무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보호수 지정 등의 관계당국의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는 반드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전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재원도 당숲이나 임자 쾌길리의 노거수를 비롯하여 학술적 가치가 많은 노거수를 발굴하여 등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재원도의 새끼노루귀군락이나 섬향나무군락처럼 신안 도서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자연자원은 특별히 관리하여 보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귀중한 생물자원의 보전은 미래 신안 도서의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II. 선사 및 역사문화자원

### 1. 선사문화자원

#### 1) 선사문화자원 목록

번호	유적명	위치	사진번호	비고
1	대기리지석묘가군	대기리는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	1	
2	대기리지석묘나군	대기리 지석묘 가군에서 북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	-	
3	화산리지석묘군	화산마을 김기씨집 마당과 뒷터	2	
4	구산리지석묘	면소재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3·4	
5	대흥패총	박관일씨집 마당으로부터 마을회관 앞까지 분포	5·6	
6	교동패총	구산지석묘에서 남쪽으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	7·8	
7	진리유물산포지	진리마을의 동쪽구릉사면에 자리	9~12	
8	대흥유물산포지	대흥마을의 북동쪽에 자리	-	
9	화산유물산포지	마을의 북쪽 구릉사면에 위치	13~16	
10	대기유물산포지	대기마을의 서쪽에 위치	17~19	

#### 2) 선사문화자원 현황

##### (1) 지석묘

임자도 내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지석묘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자도에서의 지석묘는 3곳에 분포하고 있다. 대기리와 구산리, 화산리에 총 11기가 분포하고 있다. 7기는 대기리에 분포하며, 3기는 화산마을에 분포하고, 1기는 구산리에 분포하고 있다.

##### ① 대기리지석묘 가군(사진 1)

대기리는 면소재지에서 북쪽으로 3km떨어진 지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기마을의 앞쪽에는 넓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지석묘는 대기마을의 서쪽에 위치하며, 의령남씨세장산비 옆에 2기가 자리하고 있다. 1호 지석묘는 비를 세울 때 원위치에서 움직인 듯 상석이 비스듬히 경사져 있고, 2호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 ② 대기리지석묘 나군

대기리 나군은 대기리 지석묘 가군에서 북쪽으로 200m 떨어진 대망산에 의령남씨와 김해김씨 선산의 경계지점 서쪽에 자연석과 함께 5기의 지석묘가 남북방향으로 1열로 위치하고 있다. 풀섭에 묻혀 있어 관심을 기울이고 두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

### ③ 화산지석묘군(사진 2)

화산마을은 임자면의 남서쪽에 위치한다. 지석묘군은 화산마을 김기지씨집 마당과 뒷 터에 지석묘 3기가 있다. 일명「개구리돌」이라고 불리는 상석은 6·25전쟁 당시 깨졌다고 하는데 흔적을 확인할 수가 없다. 1호는 김기지씨집 마당에 위치하며, 마당을 보수하면서 하부가 매몰되었다. 2호와 3호는 김기지씨집 뒷 터에서 확인되며, 하부가 매몰되었다.

### ④ 구산리지석묘(사진 3)

구산리는 면소재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108.7~80.2m의 낮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다.

<표 4> 임자도의 지석묘

유적명	번호	상석(cm)			상석형태	장축방향	지석수
		높이	너비	두께			
대기리 지석묘가군	1	290	30	110	타원형	동-서	1
	2	180	210	55	동-서	타원형	3
대기리 지석묘나군	1	60	200	145	원형	동-서	·
	2	160	40	100	동-서	장방형	·
	3	140	110	90	타원형	남-북	2
	4	50	60	400	남-북	방형	·
	5	110	60	250	삼각형	동-서	·
화산리 지석묘군	1	50	290	100	남-북	타원형	·
	2	30	120	200	원형	남-북	·
	3	140	65	140	남-북	타원형	·
구산리 지석묘	1	80	150	80	장타원형	동-서	1

마을 앞에는 벌판들로 불리는 들이 펼쳐져 있고, 유적은 마을의 동쪽 구릉사면의 발에 자리하고 있다. 이 구릉 상에 1기의 지석묘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지석묘 상석과 유사한 자연석이 10여 개가 분포한다.

## (2) 패총

패총은 사람들이 사용으로 이용한 패각, 짐승뼈, 생선뼈 등이 일정한 지점에 투기된 것이 층위를 형성된 것을 가리키며, 조개무지 혹은 조개무덤으로 불리진다. 흔히 패총을 ‘쓰레기장’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로만 보아서도 안 된다. 경남 통영군 연대도패총과 산등패총에서와 같이 패총 내에서 무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장에 무덤이라는 형태는 바다에서 많은 양의 패류를 채취하여도 다음해에도 많은 양의 패류가 다시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패총을 형성한 사람들은 패총에 대한 사람을 매장함으로써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여 재생산의 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건수, 2004).

임자도에서는 2개소의 패총이 확인되었다. 기존에는 3개소였으나 다시 확인을 하였을 때는 삼두리 패총이 이미 멸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① 대흥패총(사진 4)

패총은 대흥마을 박판일씨집 마당으로부터 마을회관 앞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나, 마을포장공사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되었다. 현재는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발에 패각류와 토기편들만이 확인되었다.

기존에 조사에서 대기리패총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대흥마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대흥패총으로 정정하였다.

이곳에서는 참굴을 중심으로 한 패각류와 회색경질토기 동체부편이 확인된다.

### ② 교동패총(사진 5, 6)

교동패총은 구산지석묘에서 남쪽으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또한 패총의 남쪽에는 임자중학교와 임자중양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교동마을의 남창식씨 집 뒤에 위치하며, 패각층은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유물은 석기 1점이 확인되었다.

## (3)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는 유물이 단순히 채집된 곳이 아니라 주거지나 유물포함층이 있었던 곳으로 생각되는

곳을 말한다.

① 진리유물산포지(사진 7, 8)

임자석창장에서 면소재지 방향으로 0.8km 정도 가면 진리마을에 들어선다. 유물산포지는 진리마을의 동쪽구릉사면에 자리하며 현재 밭으로 대부분 경작되고 있다. 유물은 경질토기편들이 밭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② 대기유물산포지(사진 9, 10)

대기마을의 서쪽에 위치하며, 지석묘 가군이 자리하고 있는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유물산포지의 남쪽에는 궁계들로 불리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현재 이곳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유물은 경질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③ 대흥유물산포지(사진 11, 12)

대흥마을의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흥패총이 산포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 경질토기편과 패각류 등이 확인되었다.

---

④ 회산유물산포지(사진 13, 14)

회산마을은 면소재지의 북서쪽에 자리하며, 해발고도 23.5m의 낮은 구릉을 끼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대광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유물산포지는 마을의 북쪽 구릉사면에 위치하며, 현재 밭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다. 유물은 경질토기편 등이 확인하였다.

3) 매장문화재의 자원화 방안

매장문화재는 그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여 보존하고 복원하는가에 따라 자원화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매장문화재 지점으로 알려진 유적과 유구가 파괴되어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매장문화재는 외형으로 보여 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유적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논, 밭, 집안에 위치하여 사유재산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보존만 외칠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는 각 지역마다 가장 오래된 역사의 단편을 말해 주는 키 스톤이 되고 있을 뿐 아

나라 각 시기별 기층문화에서부터 상류층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로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내륙과 섬의 관계 속에서 이동과 정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남겨진 인류의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장문화재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확인된 유적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사라져가고 있는 패총유적과 유물산포지는 경지정리나 농사짓기, 주거지역의 확대 등의 과정에서 파괴되어 그 규모가 날로 작아져 긴급히 발굴하지 않으면 그 오래된 역사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 파괴사례는 적지 않다. 대흥패총은 마을 포장공사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되었다 현재는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밭에 패각류와 토기편들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파괴되는 알려진 유적들은 발굴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그 이유는 유적 보존이후 추후 필요에 따라 발굴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유적들은 사정이 급하다. 현재 파괴되는 속도로 보아 조사지역의 패총과 유물산포지가 살아남아 있을 기간은 그다지 오래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남은 최소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나마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일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발굴이 수행될 때 관에서는 이 발굴을 이벤트화하여 선사문화자원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각 섬에서 연차적으로 긴급 발굴을 하되 그 발굴기간을 사전에 발굴기관과 합의하여 섬에 찾아드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발굴이라는 문화체험과 그 발굴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그 유적의 성격을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발굴이 수행되지 않는 유적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표지판과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경고문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파괴되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모든 신안의 주요 섬들과 부속 섬들의 역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며 모든 섬이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조사된 지역에 대한 자원화에 필요한 고고학의 내용은 몇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 (1) 거석문화

전라남도에는 거석문화의 보고이다. 그러나 이 거석문화가 얼마나 널리 확산되어 나아갔는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않다. 신안군에서 위의 패총이나 지석묘가 흑산도에 까지 이르는 것은 이미 신석기시대 이래 바다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먼 섬까지 자원확보 영역으로 확대해 나아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 중간 기착지들인 신안군의 여러 섬 특히 임자면의 거석문화는 내륙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통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즉 그 문화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2) 철기시대의 해상루트

조사지역에서는 철기시대의 패총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그 인근지역에 유물산포지가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전라남도에서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해남 군곡리유적이다. 이 유적은 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와 같은 선사시대로부터 기원 후 3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주민이 살았던 대단위 유적이다. 이 유적은 삼천포의 늪도패총과 연관이 있으며, 최근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발견으로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제지세력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위의 유적과 비교 검토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유적은 중국-우리나라-일본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 즉 바닷길의 중요성을 밝혀주고 있다.

임자면에서 확인된 대흥 패총과 대흥 유물산포지 등 철기시대와 연관된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앞으로 이 유적들에 대한 계획 발굴의 결과는 신안군을 통과하는 다양한 해상루트와 당시 주민들이 섬 지역에 살면서 남겨놓은 다양한 문화적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즉 이러한 자료들은 이 지역 역사의 한 단면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텍스트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안군 임자면에 남아있는 매장문화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조사지역의 매장문화자원은 크게 거석문화의 확장과 해상 실크로드 등이다. 이러한 문화자원과 역사적 맥락들이 지역의 수려한 경관과 웰빙에 걸 맞는 음식, 쉼의 공간들을 활용하고, 매장문화자원에 대한 시굴 또는 발굴을 통해 무한한 '교육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유적들의 파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교육자원으로 활용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 우선 보존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 매장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숨겨진 많은 기층문화의 역동적인 문화상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걸로 보이는 물질자료와 역사자료 뿐일 것이다. 이 자료들은 인류가 신안군의 부속 섬들에 머물며 남겨놓은 수많은 시공간적 사건들에 비하면 미세한 흔적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

### 1)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의 목록

도서명	번호	유적명	소재지	비고
임자도	1	임자도진(지)	임자도 진리	
	2	대둔산성	임자도 삼두리 산15	
	3	전장포	임자도 도찬리 전장포	
	4	새우젓 저장토굴	임자도 도찬리 솔개산 기슭	
	5	용난굴	임자도 이혹암리 어머니 해수욕장	
	6	조희룡 적거지 및 기념비	임자도 이혹암리	
	7	청나라 불서(佛書)	임자도	
수도	8	장조단	임자도 수도리	

### 2)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의 현황

#### (1) 임자도진(지)(사진 15)

• 소재지 : 임자면 진리

• 유적현황 : 임자진은 임자면 진리에 설치된 水軍僉使鎭이다. 1711년에 설치되었다가 1896년에 폐진되었다. 임자진에 관한 내용은 『여지도서』에

(임자진은) 영광현의 서쪽 바다 10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목장이 있고, 수군첨사 겸 감목관이 있다.

軍官 21명, 吏胥 19명, 知印 8명, 使令 24명, 牧子 22명이 있으며, 숙종 신묘년(1711년)에 설치되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임자진은 숙종때 설치되고, 90여명이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895년에 감행된 『임자진지』에

(임자진은) 강희 신묘년(1711년) 巡撫御使의 書啓에 의해 설치되었다. 첨사가 감목관을 겸하며, 나주목장 소관의 慈恩島 토지 및 인민을 임자진에 소속시켰다. 갑오년(1714년) 우수영의 보고에 의거하여 내륙의 함평·영광 소재 珍下山面이 임자진에 소속되었고, 자은도는 나주목장에 반환되었다. (중략) 주변 3섬을 中峰(현, 대둔산)에서 조망할 수 있다. 城堞은 없다. (중략) 전선은 署宇戰船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며, 군병은 舟師軍 209명, 旗羅卒 41명, 관군 30명, 鎭撫 30명, 사령 15명이 있다.

라고 하여 임자진의 설치 당시의 사정과 관할지역, 그리고 戰船과 軍卒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

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임자진의 입지적 조건은 다음의 기록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 1723년(경종 3) 전라감사 황이장(黃爾章)이

호남 海路에서 가장 큰 요해처인 우수영을 지나 柴河의 큰 바다를 건너면, 임자도라는 또 하나의 큰 요해처가 있습니다. 임자도에서 칠산바다를 건너면 고군산이 또 하나의 큰 요해처가 되는데, 대개 임자도와 고군산은 모두 사면이 둘러 안고 있으므로 배를 정박하기에 적당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海船이 모두 이 곳에 정박합니다. 마땅히 (임자도에) 重鎭을 두어 방수해야 할 것이니, 지금 헐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여, 임자도의 지리적 조건이 고군산과 연결하는 바닷길의 길목으로 중요한 요해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의 관찬자료에 나타난 임자진에 관한 기록은 대동소이하다.

한편 19세기의 임자진 관련자료들을 살펴보면, 1896년 폐진되기 이전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임자진은 영광군)의 서쪽으로 水路 10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목장이 있다. 수군첨절제사 겸 감목관(무관 3품) 1명, 軍官 21명, 吏 19명, 知印 8명, 使令 24명, 牧子 22명이 있다.

즉 19세기 임자진은 창설 당시에 설치되었던 목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임자진의 인원은 95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임자진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임자도의 부속도서인 鎭島가 임자진터였다고 전해올 뿐이다. 鎭城에 관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2) 대둔산성(사진 16, 17, 18)

· 소 재 지 : 임자면 삼두리 산15

· 유적현황 : 대둔산성(大屯山城)은 이흑암리 대둔산(280M)의 정상에 위치한 산성(山城)이다. 대둔산의 정상 봉우리를 에워싼 150m 정도의 테피식(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둘러싼 방식)으로 자연석과 암벽을 이용하여 축성하였다. 산성의 규모는 둘레는 약 100m, 높이 1~1.5m, 폭 2.5~3m정도 되며, 현재는 대부분 도괴된 상태이다.

산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조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 『임자진지』에 대둔산성에 봉수대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11년(숙종 37)에 설치된 임자진(荏子鎭)과 관련된 산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현존하는 대둔산성의 잔존 형태가 ‘물림쌓기’ 형태로 구축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음 축조된 시기는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산성 유적과 대둔산성이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보다 훨씬 윗대까지 올라간다. 대둔산성은 압해도의 송공산성과 최근 무안군 해제에서 발견된 봉대산성과 유사한 입지 조건과 축조양식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초축 시점이 고려 이전으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송공산성-대둔산성-봉대산성은 고려 이전에 서남해 바닷길을 수호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①압해도 앞 바다와 ②임자도-지도 사이 바다, 그리고 ③지도-해제반도 사이 바다는 고대~고려시대에 서해안 바닷길의 주요 길목이었다. 송공산성은 ①의 바다 요충지를, 대둔산성은 ②의 요충지를 봉대산성은 ③의 요충지를 수호하는 군사거점에 해당한다. 실제 이 서해안 바닷길은 송의 사신 서공이 복상하여 개경에 이른 길이고, 왕건이 남하하여 견훤과 해양쟁패를 벌인 길이기도 하다.

또한 서해안 바닷길에서 수많은 도자기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대둔산성에서 남쪽으로 한 눈에 바라다 보이는 중도면 도덕도 인근해역에서 유명한 송원시대 도자기 무역선이 인양된 것을 보면, 이 해역이야말로 국내 뿐 아니라 국제 교류와 통상 및 패권쟁탈의 요충지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고대~고려시대 대둔산성의 중요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대둔산에는 고대산성의 흔적이 있을 뿐 아니라, 송원대의 '신안 무역선'이 발굴된 고대~고려시대의 바닷길과도 인접해 있어, 중요한 해양 역사문화벨트를 이루고 있다. 실제 대둔산성에서 주변을 내려다보면, 동쪽에 지도(智島), 서쪽으로 재원도(在遠島), 북쪽으로 임자도 진리(鎭里)를 조망할 수 있다.

임자도의 해양사적 위치를 반영하는 중요유적이며, 2000년 1월 31일 신안군 향토자료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 (3) 전장포(사진 19)

· 소 재 지 : 임자도 도찬리 전장포

· 유적현황 : 임자도의 북쪽 맨 끝 동네 도찬리에 속한 한적한 어촌마을이다. 도찬리는 대부분 낮은 산지와 평지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곡거리섬, 까치섬, 만지섬, 풍막도 등이 속해 있다. 자연마을로는 마방촌, 만지섬, 전장포 등이 있다. 그 중 전장포(前場浦)는 섬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전통 포구의 흔적을 간직한 곳으로, 전장포 새우젓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임자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숙이 구비지고 불갑산 밑자락까지 파고든 곳을 장포만(場浦灣)이라

고 한다. 예부터 임자도 사람들은 이 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장포를 통해 외지와 소통하였다. 장포는 섬과 외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장포의 옛 포구는 장동 영사재 전방 100여 미터 앞에 있었다. 밀물 때면 앞바다에서 그 곳까지 바닷물이 밀려왔다. 나룻배들은 장포만에 길게 이어져 있는 ‘장개’라는 수로를 타고 들어와 그 곳 장포 포구에 정박하였다. 오늘날의 전장포는 장포의 앞(前)에 있는 포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종의 신장포(新場浦)인 셈이다. 전장포는 일명 ‘앞짱굴’로도 불린다.

전장포에서는 해마다 1천여 톤의 새우를 건져내 전국 새우젓 어획고의 60%를 차지한다. 특히 전장포에서 5월과 6월에 잡히는 살진 새우젓은 각각 ‘오젓’·‘육젓’이라 하여 가장 맛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장포의 새우잡이 배들은 일명 ‘멍텅구리배’로 불려졌다. 이 배는 돛이 없는 배이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지 못해 ‘멍텅구리’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한다. 큰 배(동력이 있는 배)가 새우잡이가 잘되는 곳에 멍텅구리 배를 실어 주면 그곳에서 새우를 잡고 만선이 되면 큰 배가 다시 멍텅구리 배를 전장포로 데리고 왔다. 지금은 현대식 선박으로 교체되어 멍텅구리 배에 얽힌 여러 가지 일화들이 이제는 추억속의 한 장면이 되고 있다. 더불어 불편했던 교통도 발달되어 굳이 전장포로 되돌아와서 말리는 것보다 저장시설이 잘 되어있는 목포나 영광 등에 가서 바로 팔아버리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도 전장포의 모습은 만선을 꿈꾸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들의 모습으로 분주하다. 잡아온 새우를 작은 저장창고에 보관하면서 가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물 보여주듯이 전장포 새우젓의 맛을 보여주는 섬 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 참조자료: 전장포 지명유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글을 참조함.

김영희, 《섬으로 흐르는 역사》, 동문선, 1999.

#### (4) 전장포 새우젓 저장토굴(사진 20,21)

· 소 재 지 : 임자도 도찬리 솔개산 기슭

· 유적현황 : 임자도 전장포는 우리나라 새우젓의 대명사이다. 임자도 근해에서 음력 5~6월에 신선도가 좋은 새우를 잡아 전장포에서 바로 소금으로 절였다. 이것을 드럼통에 넣어 나와 섭씨 5℃가 되는 저온상태에서 짜고 비린내가 없을 때까지 장기간 숙성시킨다. 이렇게 해서 전장포 새우젓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임자도 근해에서 잡은 새우를 물으로 가져나가 젓갈을 담으면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장포는 자연스럽게 새우잡이 어선들로 활기

가 차고, 새우젓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서 성장하였다. 이후 시대가 발전하고, 전장포 새우젓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우젓 숙성을 위한 대형저장 창고가 요구되었다.

도찬리 솔개산 기슭에는 1970년 주민들이 새우젓을 저장하고, 숙성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4개의 토굴이 남아 있다. 현대로 오면서 선박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입자도 근해에서 잡은 새우를 도시로 곧바로 내다보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는 전장포에 대규모의 저장창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4개의 토굴을 조성한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동굴 내의 온도가 높아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 이후 동굴만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전장포 마을 뒤 솔개산 기슭에 길이 1백2미터, 높이 2.4미터, 너비 3.5미터의 말굽모양 토굴 네 개가 남아있다.

#### (5) 어머니 해수욕장 용난굴(사진 22)

· 소 재 지 : 입자도 이흑암리 어머니 해수욕장

· 유적현황 : 이흑암리는 어머니 해수욕장 맨 끝에 있다. 이흑암리는 검은 바위 두 개가 있어 이흑암리라 불려졌다고 한다. 조희룡이 입자도에 유배 와서 남긴 글에 용난굴과 관련된 설화가 등장한다. 마을 사람들이 용이 승천한다고 소리치자, 자신도 용 구경을 하기 위해 쫓아나갔더니 이미 용은 승천하고 난 뒤였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굴을 용난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물이 빠지는 시간이 다른데, 물 때를 잘 맞추면 걸어서 용난굴의 내부까지 동굴탐사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어머니 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한 용난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육지지만 나가는 출구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어머니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즈넉한 분위기에 더해진 용난굴의 존재는 매우 큰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연환경과 설화, 역사 기록이 한 데 어우러진 활용성 매우 높은 자원이다.

#### (6) 조희룡 유배 적거지와 기념비(사진 23, 24)

· 소 재 지 : 입자도 이흑암리

· 유적현황 : 조희룡은 조선후기 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룬 문인화의 대가이다. 1789년 5월 서울에서 태어나 조선후기 매화도와 목란도에서 고유의 화풍을 확립한 화가로 1847년 벽오시사를 결성, 후배화가들을 이끌고 문인화단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추사 김정희 등이 도입한 중국 남종 문인화로부터 이념미를 배제한 조선적 감각을 가미한 화풍의 세계를 열었던 사람이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

씨가 서로 번갈아 가며 세도정치를 하던 시기에 활동한 조희룡은 예송논쟁에 휘말려 1851년 임자도로 유배를 오게 된다. 유배초기에는 임자도의 낮은 환경 속에서 공포를 느꼈던 그의 심리는 그가 그렸던 그림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섬에 사는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에 애정을 느낀 그는 “만마리 갈매기가 우는 집”이라는 뜻의 ‘만구음관’이라 이름 지어 놓고, 그림 그리는 데 더욱 전념하게 된다. 임자도 유배 시기 조희룡의 기량은 이론의 정립과 기량의 완속으로 절정의 경지에 올랐다. 또한 임자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은 저술로 남겨놓아 비록 임자도에 머문 기간은 불과 2년 여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임자도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853년 조희룡은 3년간의 임자도 유배생활을 마감하고 서울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그는 후배 양성과 은거생활을 계속하다가 1866년 7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조희룡의 임자도 유배시절 초가집인 ‘만구음관’은 지금은 터만 확인되어 있고, 그 당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적거지에 ‘적거지 유희비’를 유배지였던 이흑암리 마을회관 뜰에는 ‘조희룡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 (7) 임자도에 전해진 청나라 佛書

삼국시대에 중국을 통하여 불교가 전래된 이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불교 교류는 대단히 활발했다. 두 나라 왕실은 불경과 불상 등을 선물하며 불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수많은 승려들이 직접 유학하거나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를 서로 주고받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가 배척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불교교류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중국과의 불교 교류가 단절됐으므로 중국 불교계의 동향이나 새로 간행된 불교서적들이 국내 불교계에 전해질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불교계와 접촉하여 침체된 불교교학 연구에 새바람을 불려온 사건이 17세기 후반 신안군 임자도에서 발생했다.

1681년 어느 날 중국 배 한 척이 태풍에 떠밀려 임자도에 표착하였는데, 배 안에는 중국에서 간행한 불교문헌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당시 순천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던 백암성총(栢庵性聰) 선사는 이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임자도로 달려가 이 책들을 수습하였는데 거기에는 화엄경과 금강경, 대승기신론의 주석서들을 비롯하여 선종과 정토종 관련 주요 문헌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책들 중에는 종래 우리나라에 전래되지 않은 것이 많았고, 예전에 전래됐어도 이미 구해보기 어렵게 된 책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성총선사는 이 책들을 토대로 불교사상을 새롭게 정리하여 강의하는 한편 낙안의 정광사와 하동의 쌍계사에서 15년간에 걸쳐 모두 새롭게 판각하여 간행하였

다. 그리고 이 책들은 곧바로 조선의 대부분 사찰에 퍼져서 많은 승려들에 의해 읽혀지게 되었다.

임자도에 표착한 배에 어떤 사정으로 불교서적들이 실려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역 불정책과 중국 불교와의 단절로 극도로 침체되어 있던 조선의 불교계에 이 책들이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다. 성충선사는 조선후기 불교교학 활성화를 주도한 핵심적 인물로서 그의 노력을 통해 교학 특히 화엄경에 대한 연구가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자도에서 습득한 중국 문헌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 출처: 최연식(목포대학교수), 광주일보 2006년 6월 9일자 전라도 이야기.

#### (8) 장조단(莊祖壇)

· 소 재 지 : 임자면 수도리 뒷산(무산)

· 유적현황 : 임자면 수도(水島) 뒷산에는 사도세자를 모시는 단(장조단)이 있어 주목된다. 1908년에 작성된 지도군지(1908년)에 장조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화가 상세하게 남아 있다.

군에서 서쪽으로 10리를 가면 수도가 있다. 이 수도에는 舞山이 있으며, 형세가 鉅人의 큰 덕과 같이 근엄한 모습으로 아래를 굽어보는 모습이다. 무산의 산정에 莊祖皇帝(사도세자)를 모시는 龕이 있다. 1777년 10월 어느날 밤에 촌민 이관중, 김석정, 채후천 등의 꿈속에 사도세자가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팔도를 둘러보아도 안심하고 거처할 곳이 없었는데 이곳이 점차로 조용하고 평화롭게 되니 내가 이곳을 湯沐邑(천자, 제후의 영지)으로 삼고자 한다. 너희들은 이를 유념하여라”하였다. 그러나 세 사람의 촌민이 깊게 믿지를 않자 다음날 밤 꿈속에 나타나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기지 않으면 後浦에 2필의 철마가 있으니 가서 보아라. 이것은 곧 나의 신표다. 이 철마로서 증표를 삼아 糶을 쌓고 한잔 玄酒(술 대신 올리는 찬 물)와 정성을 다하여 청결하게 제사를 지내되 충족하게 차리지 말 것이니 백성의 폐가된다.”하였다.

세 사람이 몹시 두려워 잠이 깨었다. 세 사람이 모여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세 사람 다 한결 같이 똑같았다. 이에 즉시 후포에 가서 보니 과연 철마 2필이 있었다. 곧 2필의 철마를 가지고 돌아와 석단을 쌓고 단 아래에 철마를 모셨다. 세 집안의 자손은 대대로 매년 길일을 정하여 사도세자의 빈 위패를 모시니 虛主를 제사지내는 위패로 한 것으로 정성과 공경으로서 제사 지내기를 오늘에 이르렀다. 이처럼 제사를 지내니 바다가 고요해지고 풍량이 없고 또한 만약에 이처럼 제를 모시지 않고 정결하지 못하다거나 공경을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증험이 나타나 사람들은 엄히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이 서로 합심하여 정성을 다하여 제를 모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장조단은 현재 수도리 뒷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당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당집 같은 것은 남아 있지 않고 현재는 담장을 두르고 그 가운데 돌로 된 상이 있다. 권수종씨의 증언에 의하면 어릴 적에는 녹슨 철마를 본 기억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사라졌다고 한다.

외딴 섬마을에 사도세자와 관련된 제단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지 매우 흥미롭다. 아마도 사도세자와 관련되어 유배되었거나 그 계통에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이 인근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서 이러한 풍습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수도와 인접한 무안 지역에도 사도세자를 모신 사당이 남아있어 더 관심을 끄는 자원이다.

### 3) 해양문화와 유배문화자원의 활용방안

#### (1) 조희룡 관련 유배문화자원

조선 문인화의 영수 우봉 조희룡의 임자도 생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① “조희룡과 임자도의 만남” 주제가 있는 문화관광코스 개발

조선 문인화의 영수 조희룡은 임자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꽃피웠고, 임자도에서 겪은 생활상을 토대로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가 거주했던 이흑암리 유적지와 어머니 해수욕장 용난굴 탐방코스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임자도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문화관광코스 활용한다.

##### 가) 스토리텔링 창출

조선후기 최고 화가였던 조희룡의 임자도 유배생활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의 흥미로운 테마로 만들어 낸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따라 이흑암리 일대 조희룡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탐방하는 코스로 개발하고 활용한다. 조희룡문집에는 임자도 유배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고, 구체적인 지명과 인명, 마을 풍습 등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이를 활용하여 조희룡과 임자도의 인연을 문화관광의 대상으로 삼는다.

##### 나) 조희룡 탐방로 개설

조희룡이 남긴 작품과 기록에 등장하는 임자도, 임자도 사람들과의 교류 등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지명과 장소들을 선별하여 조희룡 탐방로를 개설한다.

다) 조희룡 적거지의 정비, '만구음관' 복원

조희룡이 유배시절 사용했던 이흑암리의 거처 '만구음관'을 복원하여 탐방객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만구음관은 단순한 적거지 건물의 복원 뿐만 아니라 미술관, 체험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라) 용난굴 활용

용난굴은 조희룡의 유배 적거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어머니 해수욕장에 자리하고 있는 해안 동굴이다. 이곳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설화가 전해오며, 이름이 용난굴이라 불리게 된다. 일반 관광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원이다. 조희룡이 남긴 임자도 시절 글에 이 용난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이흑암리 일대와 대둔산 등산로 등에 조희룡 탐방로를 개설하고, 실제 조희룡의 문집에 등장하는 '용난굴' 설화에 얽힌 내용을 강조한다며 관광객들의 방문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용난굴의 물이 들고나는 시간대를 맞추어 관광객들이 동굴 내부까지 직접 탐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

마) 주요 탐방코스 활용

현재 대광해수욕장 위주의 관광객 수용의 한계를 벗어나 이흑암리 일대의 조희룡 유적지를 문화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탐방코스: 대광해수욕장-전통한선 전시장-이흑암리 마을-조희룡 기념비-조희룡 적거지-조희룡 우물-용난굴

② “조희룡 체험관”을 건립, 이흑암리 조희룡 테마마을로 활용

조희룡의 예술세계와 임자도 사람들과의 교류 관계 얽힌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한다.

가) 조희룡 미술관

조희룡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소규모의 미술전시 공간을 조성하여, 조희룡의 예술세계를 임자도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희룡의 작품을 수집하거나, 복사품을 진열하여 활용한다. 특히 가능하

다면, 조희룡이 임자도 시절에 그렸던 작품이나 임자도를 그린 그림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곳 미술관의 독자성과 상품성을 구축한다.

#### 나) 조희룡과 임자도 사람들

조희룡과 임자도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재로 한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한다. 조희룡이 임자도에 유배 왔을 때의 심정, 임자도의 자연을 보고 남긴 글 등을 소재로 여러 가지 전시물을 만들어 낸다.

#### 다) 수석 전시관

조희룡은 주로 매화를 많이 그렸으나 임자도에 유배 온 이후 임자도의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수석을 자신의 새로운 작품 소재로 활용했다. 이에 착안하여 조희룡이 그린 그림과 함께 임자도와 신안섬에서 발견되는 수석을 수집 전시하는 공간을 만든다.

#### 라) 조희룡 미술세계 체험관

조희룡 매화그림, 묵란도 등을 그리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조희룡의 대표작품을 목판으로 만들어서 이를 관광객이나 청소년들이 탁본으로 영인해 갈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소재로 한 체험관을 만들고, 주변의 이혹암리와 연계하여 조희룡을 소재로 한 테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조희룡 테마마을은 문화관광부에서 육성하는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체험마을 조성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이는 임자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역사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부여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 (2) 대둔산성 해양 전망대와 봉수대 복원

대둔산 일대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해양 등산로로 개발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때는 반드시 주변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해안경관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정점에는 대둔산성이 있어야 한다. 대둔산성이 있는 곳에서 주변을 바라보면 서쪽으로 재원도, 동쪽으로 지도읍, 남쪽으로는 바다, 북동쪽으로는 진리가 보인다. 즉, 이 산성의 위치가 주변의

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한편의 시를 통해 전장포와 임자도, 신안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시의 현장에 관련 시비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 전장포를 찾는 방문객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전 방식으로 새우를 잡는 멧터구리 배의 모습이다. 현재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야외 전시장에는 멧터구리배가 전시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배를 보존 또는 복원하여 멧터구리배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장포 일대에 전시해 놓으면 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새우젓 저장동굴을 체험장으로 활용

도찬리 솔개산 기슭에는 주민들이 새우젓을 저장하고, 숙성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4개의 토굴이 그대로 남아 있다. 비록 역사가 오랜 된 장소는 아니지만 동굴이라는 것 자체가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새우젓을 저장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파 놓은 공간이라는 점이 섬 주민들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주변을 정비하여 안내문을 설치하고,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전장포에서 새우젓 동굴로 연결되는 이동 동선을 표시해 줘야 한다. 현재는 주민들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찾아가기 힘들게 되어 있다. 전장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후 이곳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4개의 동굴을 각기 용도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중 특정 동굴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동굴의 총길이가 10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색적인 체험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

#### (4) 임자도와 조선불교 안내문 건립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중국 청나라에서 배에 실려 바다에 실려 보낸 수많은 불교관련 서적들이 우연이지만 임자도에 닿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임자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서남해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자연스럽게 반증한다. 중국에서 뱃길을 따라 임자도로 선진 문화가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실제 표류인들이 임자도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임자도에 도착한 불교서적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고 당대 명승이었던 백암성총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도 임자도 주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반영한다. 만약 그 서적들을 발견한 섬 주민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리거나 불태워 버렸다면 한국불교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중국의 불교서적들은 한낱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을 지도 모른다. 이 시기에는 불교가 억압되고 있

던 터라 중국을 통한 불교 서적의 반입이 그리 쉽지 않았던 때였을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지만 그러한 정보가 육지에 있는 승려에게 전달되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임자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임자도에는 이렇다 할 사찰이나 불교유적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 임자도에 이런 불교관련 설화가 전해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 설화는 단순히 구전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불교관련 비문에 언급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더한다. 임자도가 차지하는 지리적 특성, 해양사적 위치, 그리고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 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임자도 선창가 등에 세워야 한다. 방문객들에게는 임자도의 역사로 홍보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자기 고장에 대한 애郷심을 고취하게 될 것이다.

### 3. 유교문화자원

#### 1) 유교문화자원의 목록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기념비	金亨培紀念碑	진리 면사무소 앞	1931년	기존
2	추모비	金鍾熙追慕碑	진리 농협 옆	1980년	"
3	열녀각	晋州姜氏烈婦碑閣	대기리 삼막마을	壬戌年	신규
4	齋 閣	崇慕齋	대기리 삼막마을	1980년대	"
5	유허비	南起元遺墟碑	대기리 신명마을	1993년	"
6	효자각	新安朱氏三孝子碑閣	대기리 대흥마을	연대미상	"
7	齋 閣	永思齋	대기리 회산마을	1942년	"
8	壇	道林壇	대기리 회산마을	1975년	"
9	유허비	金斗厚遺墟碑	대기리 회산마을	1966년	"
10	열부비	南陽洪氏烈婦碑	광산리 광산마을	1954년	"
11	의적비	任東宣懿蹟碑	광산리 광산마을	1982년	"
12	효열비	錦城羅氏孝烈碑	삼두리 필길마을	1960년	"
13	유허비	鄭炳源遺墟碑	이흑암리 은동마을	1977년	"
14	齋 閣	永慕齋	이흑암리 육암마을	1998년	"
15	열행비	延日鄭氏烈行碑	이흑암리 화산마을	1990년	"
16	壇	華山壇	이흑암리 화산마을	1918년	향토자료제8호

## 2) 유교문화자원의 현황

### (1) 金亨培紀念碑(사진 25)

· 소재지 : 신안군 임자면 진리 면사무소 정원 내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면사무소 정원에서 있다. 비석의 주인공은 前 議官 金亨培이다. 이 비석은 1931년에 섬주민들이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 공의 행적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4행 15자인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공은 기유년(필자 : 1909년) 3월과 4월의 춘궁기에 가난한 주민들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구휼하였다. 계축년(필자:1913년)에는 주민들의 세금 납부를 위해 찬조금 500원을 후원하였다. 이에 섬주민들이 김공의 구휼에 대해 칭송하였다. 또 주민들은 김의관의 공적을 후세에 영구히 전하기 위해 기념비를 건립하였다.”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뒷면에는 大正 20년이라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비석이 1931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8cm, 너비 50cm, 두께 20cm이다.

### (2) 金鍾熙追慕碑(사진 26)

· 소재지 : 신안군 임자면 진리 농협 옆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김중희의 추모비이다. 1980년 4월에 임자단위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일동이 김중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비문에 따르면, “서기 1969년 7월 15일에 임자단위농협 설립부터 1972년 9월 1일까지 초창기 농협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열과 성을 다해 근무하시다 순직하신 공을 추모하기 위해 함께 일해 온 농협 임직원과 조합원이 뜻을 모아 삼가 추모비를 세웁니다.” 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64cm, 너비 90cm, 두께 20cm이다.

### (3) 晉州姜氏烈婦碑閣(사진 27)

· 소재지 :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삼막마을 마을회관 옆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진주강씨 부인의 열행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열부 진주강씨는 司評公 姜鶴孫의 후예이자, 姜在允의 따님으로 태어났다. 장성하여 임자도 대기리에 거주하던 金顯詢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진주강씨는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남편의 쾌유를 매일 저녁 하늘에 축원하였다. 그러나 끝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강씨 부인은 남편의 뒤를 따라 목숨을 버리려 하였으나, 시부모님과 어린 자식 양육 문제로 인해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강씨부인은 남편의 3년 상을 모셨다. 이에 마을 주민들

이 강씨부인을 “하늘이 내린 효부”라 칭송하였다. 이에 석축에 새겨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열부비각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0cm, 너비 47cm, 두께 18cm이다. 비석 주변에는 석축으로 축조된 비각이 조성되어 있다. 비석의 뒷면에 임술년에 吳駿善이 찬한 비문(17행 32자)이 새겨져 있다.

#### (4) 崇慕齋(사진 28)

- 소 재 지 :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삼막마을
- 유적현황 : 이 재각은 김해김씨(京派)의 문중재각이다. 건립 시기는 1980년대 말엽으로 추정된다. 송모재 인근에 김해김씨 문중 선산이 있다. 김해김씨 문중은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문중시체를 모신다. 문중 시체는 선산을 순회하며 지낸다. 시체를 지낼 때 만약 비가 올 경우 송모재에서 합동으로 제사를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송모재에서 문중 회의를 개최한다. 재실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외삼문은 솟을삼문과 붉은 벽돌로 조성되어 있고, 그 주변에 시멘트 담장이 둘러져 있다.

#### (5) 南起元遺墟碑(사진 29)

- 소 재 지 :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신명마을 앞 도로변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의령 南起元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1993년에 세운 것이다. 남기원의 본관은 의령, 字는 永才, 號는 斗峰이며, 1866년에 대기리에서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품행이 단정하고 총명하였다. 공의 나이 10세가 되었을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성장하여서 松沙 奇宇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비문은 鄭河均이 撰하였고, 후손 南重鉉이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72cm, 너비 63cm, 두께 32cm이다. 관련자료로는 유허비 바로 옆에 <小峰 宜寧 南廷哲> 과 그의 부인 <配孺人 密陽朴氏> 의 묘비가 있다.

#### (6) 新安朱氏三孝子碑閣(사진 30)

- 소 재 지 :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대흥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3효자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비각의 주인공은 신안주씨 3형제인 朱洛仁·朱洛信·朱洛律 등이다. 3형제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순후하고 서로 화목하여 우애가 깊었다. 이들 형제는 10세를 전후하여 『효경』과 『소학』에 통달하였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

극하였다. 그런데 부친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3형제는 壇을 쌓아 놓고 아버님의 쾌유를 하늘에 기원하였다. 또 손가락을 단지하여 부친에게 수혈함으로써 아버지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간병하였다. 3형제의 나이 겨우 弱冠에 불과할 때의 일이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3명의 효자가 나왔다고 하여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러한 효행사실이 비문에 새겨져 있다. 비문은 14행 39자이며, 丁斗七이書하고, 梁會甲이撰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0cm, 너비 52cm, 두께 26cm이다.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며, 석축으로 조성되어 있다. 외삼문은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석축으로 출입구 형태만 조성되어 있고, 그 주변에 철재 담장이 둘러져 있다.

#### (7) 永思齋(사진 31)

· 소 재 지 :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회산마을

· 유적현황 : 이 재각은 김해김씨 문중에서 1942년에 건립하였다. 재실의 상량문은 회산 김두후가 작성하였고, 부동마을의 이학재가 「永思齋記」를 찬하였다. 김해김씨 문중에서는 매년 음력 3월 13일과 10월 16일에 각각 문중 시제를 모신다. 초창기 영사재를 건립할 때 기와를 목포에서 구입해 와서 건축하였다고 한다. 현재 재실의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이다. 건물 내부에는 3기의 현판이 걸려 있다. ①「永思齋事實記」(壬午年, 金性厚 書), ②「永思齋上樑文」(壬午年, 金斗厚 撰, 金東寬 書), ③「永思齋記」(壬午年, 李鶴宰 書) 등이다. 또 재각 뒤편에는 도림단이 조성되어 있고, 壇 위에 <道林壇享碑> <松沙奇先生> <農山金先生> 의 비석 3기가 서 있다. 壇 주변에 벽돌담장이 둘러져 있다.

#### (8) 道林壇(사진 32)

· 소 재 지 :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회산마을

· 유적현황 : 도림단은 회산마을과 장동마을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다. 도림단은 松沙 奇宇萬과 農山 金斗厚를 배향하는 곳이다. 도림단 바로 앞에 김해김씨 문중 재각인 영사재가 위치하고, 도림단의 좌측에 김해김씨문중 선조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도림단에는 <道林壇享碑> <松沙奇先生> <農山金先生> 등 3기의 비석이 서 있다. 기우만은 문장가로 영재를 많이 배출하였다. 농산 김선생은 송사 기우만의 문하생이다. 농산선생은 義理從容하고 효를 근간으로 삼았다. 이러한 내용이 3기의 비문에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모두 높이 132cm, 너비 47cm, 두께 20cm이다.

#### (9) 金斗厚遺墟碑(사진 33)

· 소 재 지 :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회산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회산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 비석을 지나 직진하면 광산마을로 연결된다. 이 비석은 金斗厚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1966년에 세워졌다. 김두후의 본관은 김해이고, 字는 元淑, 號는 農山이다. 공은 1879년에 태어났다. 공은 천성이 순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효성이 지극하였다. 성장하여서 松沙 奇字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朴華亭·李松山 등 향리 사람들이 공의 비석을 건립하고, 壇을 조성하였다. 도립단 바로 앞에 김해김씨 문중 재각인 永思齋가 위치한다. 도립단에는 松沙 奇字萬과 農山 金斗厚가 배향되어 있다. 유허비의 규모는 높이 182cm, 너비 54cm, 두께 29cm이다.

(10) 南陽洪氏烈婦碑(사진 34)

· 소 재 지 :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광산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남양홍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단기 4287년(필자:1954년)에 건립되었다. 남양홍씨는 洪鍾益의 딸로 태어났다. 성장하여서 풍천 任英宰와 혼인하였다. 그런데 혼인 이후 시부모를 봉양하며 생활하던 중 갑자기 남편이 중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홍씨는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정성으로 간호하였다. 이러한 부인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무안지역 유림들이 열부로 천거하였다. 이러한 부인의 행실을 널리 기리기 위해 풍천임씨 문중에서 남양홍씨의 열부비를 세웠다. 비문은 12행 29자이며, 장손 任東宣이 썼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5cm, 너비 40cm, 두께 20cm이다.

(11) 任東宣懿蹟碑(사진 35)

· 소 재 지 :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광산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광산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비석의 주인공은 守菴 任東宣이다. 이 비석은 1982년에 건립되었다. 선생의 문하생 金昌年 외 143명이 비석 건립에 참여하였다.

공의 諱는 東宣, 號는 守菴이며, 府院君 任子松의 후예이다. 공은 1892년에 광산마을에서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영특하였으며, 詩書에 능통하였다. 그러나 활동시기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보다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공은 향리 아동들을 위해 학문을 가르쳤고, 기미년 독립운동 때 주민들을 위한 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선생은 1960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문하생들이 의적비를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 <수암 풍천 임선생 의적비> 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 공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18행 18자이며, 郭元永이 撰하였다. 비석 측면에는 <유림 및 문하생>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2cm, 너비 54cm, 두께 24cm이다.

(12) 錦城羅氏孝烈碑(사진 36)

- 소재지 :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필길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필길마을 초입 도로변에 서 있다. 효열부 금성나씨는 監察 羅仁成의 따님이다. 금성나씨는 장성하여서 시집을 갔으나, 남편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인의 나이 겨우 24세 때의 일이다. 그 후 나씨부인은 남편과 사별하였지만, 시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하면서 문중을 수호하다가 76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향리에서 나씨부인의 열행사실을 성균관에 천거하였고, 부인의 행적을 널리 기리기 위해 비석을 건립하였다. 이 비석은 단기(檀紀) 4293년(서기 1960년)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9행 30자이며, 任東宣이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4cm, 너비 53cm, 두께 24cm이다. 비석 주변에는 철재 담장이 둘러져 있다.

(13) 鄭炳源遺墟碑(사진 37)

- 소재지 :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은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은동마을 뒤편 구릉에 서 있다. 비석의 주인공은 栢村 鄭炳源이다. 정병원의 본관은 慶州, 字는 子和, 號는 栢村이다. 선생은 고려 때 平章事 文正公 鄭仁祚의 후예로, 1882년에 은동마을에서 태어났다. 공은 10세에 訥軒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으며, 이후 松沙 기우만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에 입문하였다. 공은 巨儒로 성장하였고, 향리에서 훈장으로 활동하다가, 1962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향리의 문하생들과 경주정씨 문중에서 1977년에 공의 유허비를 건립하였다. 비석 뒷면에 비문 12행 40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郭元永이 撰한 것이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0cm, 너비 53cm, 두께 24cm이다.

(14) 永慕齋(사진 38)

- 소재지 :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육암마을
- 유적현황 : 영모재는 이흑암리 육암마을 앞 들녘에 서 있다. 이흑암리는 면소재지에서 남쪽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흑암리는 마을 뒤편에 대둔산이 위치하고, 그 아래에 육암마을이 입지

하여 다른 지역보다 일찍 어둠이 찾아온다고 하여 ‘이흑암리’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옥암마을은 대둔산 남쪽 아래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다. 영모재는 남평문씨의 문중재각이다. 1998년에 이흑암리 남평문씨 門會에서 건립하였다. 재각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이다. 이흑암리 門會에서 건립하였다.

(15) 延日鄭氏烈行碑(사진 39)

· 소 재 지 :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화산마을 초입에 서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연일정씨이다. 부인의 열행 사실을 널리 기리기 위해 1990년에 건립되었다. 연일정씨는 處士 鄭溍의 후예이자, 監役 鄭基源의 딸이다. 연일정씨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순후하였고, 장성하여서 진원박씨문중의 朴重彦과 혼인하였다. 혼례 이후 정씨부인은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훗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예를 갖추어 장례를 모셨다. 그런데 신해년에 남편이 중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정씨부인은 남편의 쾌유를 빌며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정성으로 간병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부인의 나이 29세의 일이었다. 당시 슬하에 1남 1녀가 있었다. 이에 부인은 남편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가문을 지키며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정씨부인은 85세까지 가문을 지키며 홀로 살았다. 이에 부인의 행실을 널리 기리기 위해 무안 유림들이 열부로 천거하고 열행비를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는 <孺人 延日鄭氏 烈行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뒷면에는 16행 41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金淳祥이 書하고, 곽원영이 撰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2cm, 너비 54cm, 두께 22cm이다. 비석 주변에는 붉은 벽돌 담장이 둘러져 있고, 철재 출입문이 있다.

(16) 華山壇(사진 40)

· 소 재 지 :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 유적현황 : 화산단은 이흑암리 화산마을 뒤편 야산에 위치한다. 화산단은 1918년에 華西 李恒老, 盧沙 奇正鎭, 重菴 金平默 등을 봉안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그 후 1961년에 任行率와 朴宗鉉을 추배하여 현재 5위가 봉안되어 있다.

이항노는 조선 말기 성리학자로, 본관은 碧珍, 初名은 光老이다. 공의 자는 而述, 호는 華西이다. 30세 때 공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하여 청년들이 모여 들었으나, 세속을 피하여 쌍계사와 고달사 등지의 사찰에서 기거하였다. 1840년 휘경원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향리에서 강학에만 전념하였다.

한말의 위정척사론자로 유명한 최익현, 김평묵, 유중교 등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66년에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동부승지의 자격으로 입궐하여 대원군에게 주전론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 후 대원군을 비판한 병인상소와 만동묘 재건에 관한 상소문을 작성하여 대원군의 노여움을 사서 삭탈관직당한 뒤 낙향하였다. 공의 심전주리론은 魯王攘夷의 春秋大義라는 윤리와 임금을 사랑하기를 아버지처럼 하고, 나라를 걱정하기를 내집처럼 한다는 애국사상과 자주 의식을 강조하였다.

기정진의 본관은 행주, 초명은 金賜, 자는 大中, 호는 蘆沙이다. 1828년에 향시에 응시하고, 1831년에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공의 명성이 조정에 알려져 1832년에 관직에 나아갔다. 임술민란이 일어나자, 『壬戌擬策』을 써서 삼정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또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서양세력의 침투를 염려한 끝에 외침에 대한 방비책으로 <六條疏>를 썼다. 이는 후에 위정척사론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김평묵의 본관은 淸風, 자는 穉章, 호는 重菴이며, 이항노의 문인이다. 24세에 이항노를 찾아가 배웠다. 1874년에 스승의 『華西雅言』을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1881년에 위정척사를 부르짖다가 섬에 유배되었다. 저서로는 『重菴文集』 『近思錄附註』 『大谷問答』 등이 있다.

임형제는 임자도 광산리에서 출생하였다. 공의 자는 德明, 호는 訥軒이다. 화정 박중현과 함께 시대의 선각자로 활동하였다. 공의 저서로는 『눌헌유교집』이 있다. 임형제와 박중현은 이항로, 기정진, 김평묵의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尊華懷夷”라는 글을 암벽에 새겨 일본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다. 임형제는 임자도 서편에서, 박중현은 임자도의 동편에서 쌍벽을 이루며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화산단은 1918년 유림들에 의해 壇이 건립되었다. 설립 당시 李恒老·奇正鎭·金平默 등을 배향하였으나, 1961년에 임형제·박중현·이학재 등을 추가로 배향하여 현재 6위가 봉안되어 있다.

관련유적으로는 화산단 앞에 <華山壇享碑> 와 <華山壇追享碑> 가 서 있다. 화산단은 2002년 1월 31일 신안군 향토자료 제8호로 지정되었다.

### 3) 유교문화자원의 활용방안

1) 현지답사결과 도서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특징은 木造建築보다 石造建築 양식이 더 많았다. 이러한 석조건축물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자.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도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역사유적의 경우, 건립 소재가 木造보다 石造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왜냐하면 섬은 海風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목조보다 석조를 선

호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효자각이나 열녀각과 같은 기념물의 경우, 대체로 목조건축 양식을 모방한 석조물로 조성되어 있다. 또 건축비의 경비 문제도 있겠지만, 건축물을 축조하기보다 비석으로 대체하는 경향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유교문화자원의 석조 건축물, 민속신앙 의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입석과 장승 등의 문화자원과 상호 연계하여 지역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2) 조성시기에 제한 없이 모든 역사문화자원을 전승하고 보존하자.

현전하는 유적의 건립시기가 20세기에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역사문화자원으로 전승하고 보존하자. 왜냐하면 최근에 건립된 비석에 새겨진 비문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 혹은 해당 인물의 역사 배경과 변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석의 조성시기가 올라간 경우 시대의 흐름 속에 비문이 마모된 예가 많고, 또 건립된 이후의 변화 내용이 비문에 누락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 혹은 문중에서 새 비석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비석을 조성할 때 舊碑를 땅에 매장하는 습속이다. 또 지금까지 각 지역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체로 1910년 혹은 1945년을 하한으로 하여 그 이전에 제작된 문화재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최근에 건립된 비석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본 조사팀은 역사문화자원의 건립시기에 제한없이 해당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모든 유형문화자원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도서지역 주민들에 의해 제작된 유형문화자원은 그 자체가 도서문화를 전달해 주는 매개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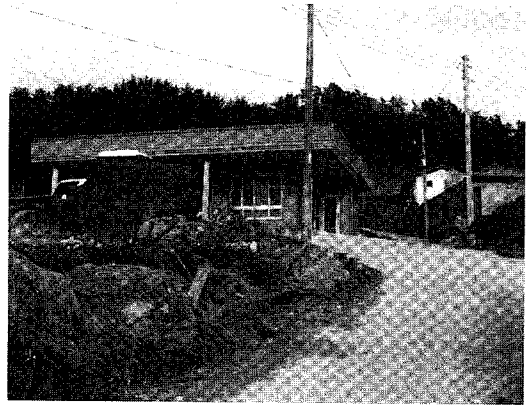
### 3) 역사문화자원과 마을을 연계하여 “팸 투어” 공간으로 활용하자.

지금까지 역사문화자원은 전승과 보존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때문에 문화재는 접근보다는 멀리서 관찰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다. 예를 들면, 재각의 경우 문중 시체를 모시기 위해 1년에 1~2회 정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방치된 상태로 전승된다. 이러한 공간을 직계 후손들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자 체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자. 또 유형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연로한 어르신들이 육지로 이주하여 현재 섬에 비어 있는 가옥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어린이의 부재로 인해 폐교가 된 초등학교 분교가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이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민가와 폐교를 외지인 혹은 학생들의 “팸 투어” 공간, 또는 지역문화를 전달하는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자. 여기에 각 마을 어르신들의 마을사, 개인별 생애사, 해당

지역의 민속생활사, 섬이라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바다와 갯벌, 염전과 모래밭, 그리고 섬마을의 오일장 등을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자체가 교육 자료이고, 새로운 체험공간이 될 것이다.



<사진 1> 대기지석묘 가군



<사진 2> 화산지석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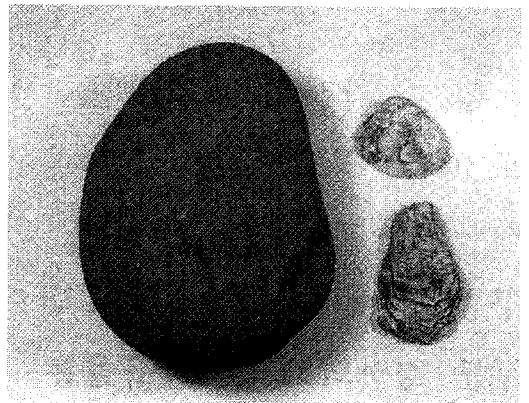
<사진 3> 구산지석묘 근경



<사진 4> 대흥패총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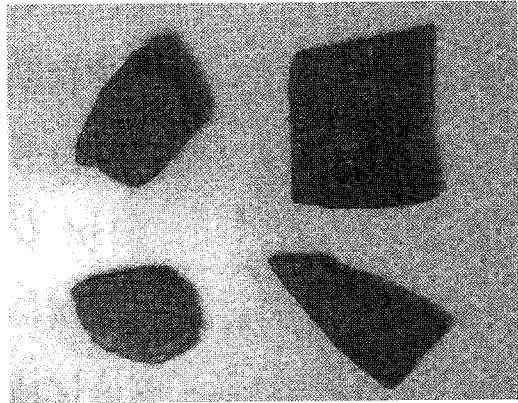
<사진 5> 교동패총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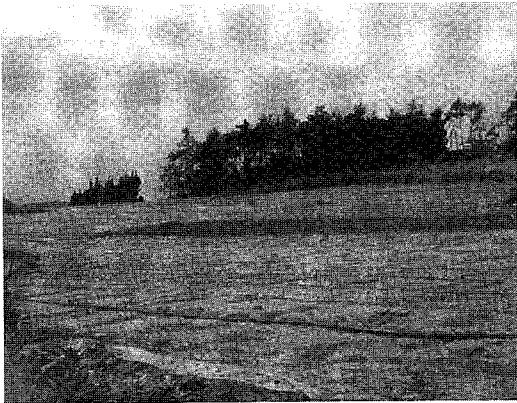
<사진 6> 교동패총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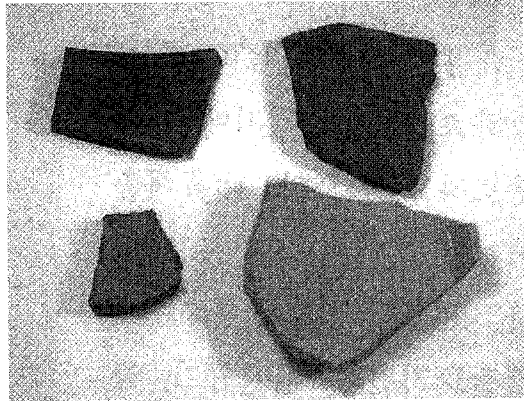
<사진 7> 진리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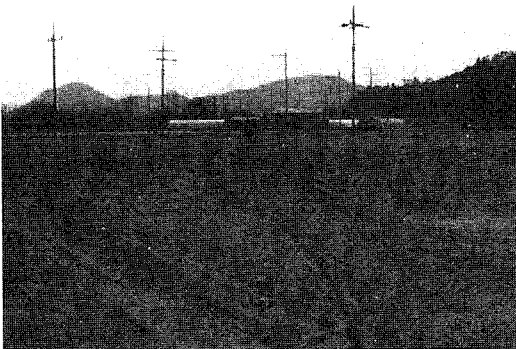
<사진 8> 진리유물산포지 수습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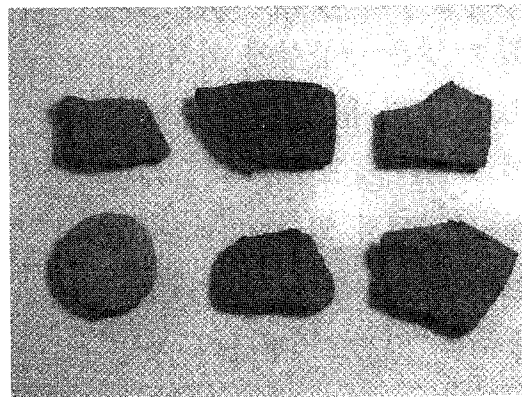
<사진 9> 대기유물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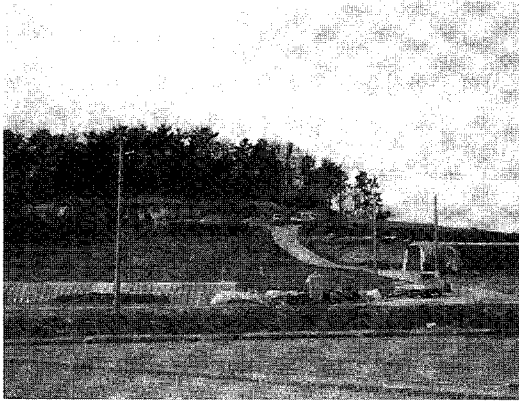
<사진10> 대기유물산포지 수습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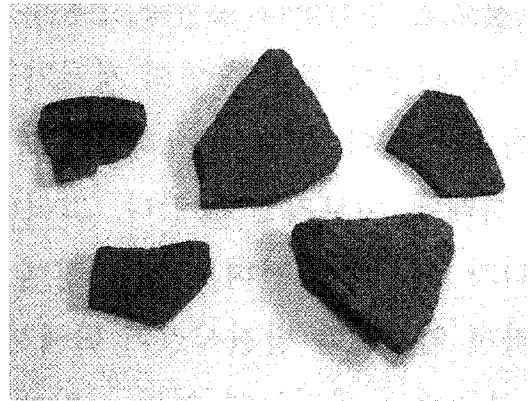
<사진11> 대홍유물산포지 전경



<사진12> 대홍유물산포지 수습 유물



<사진13> 회산유물 산포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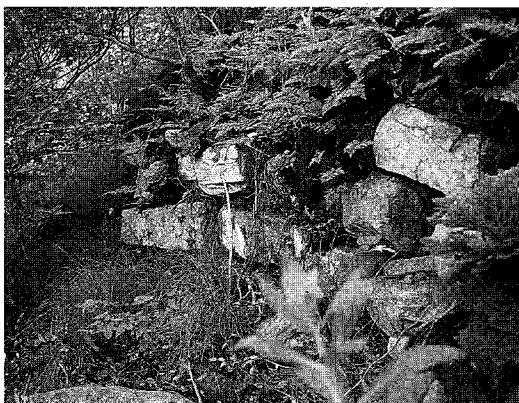
<사진14> 회산유물 산포지 수습 유물



<사진15> 임자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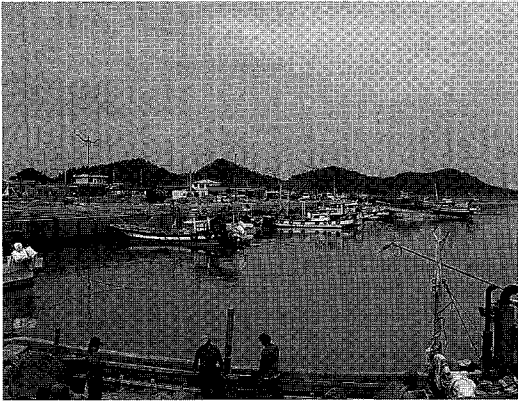
<사진16> 대둔산성지



<사진17> 대둔산성지 성벽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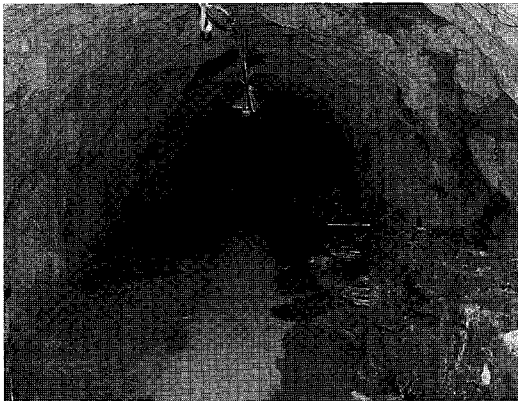
<사진18> 대둔산성지 성벽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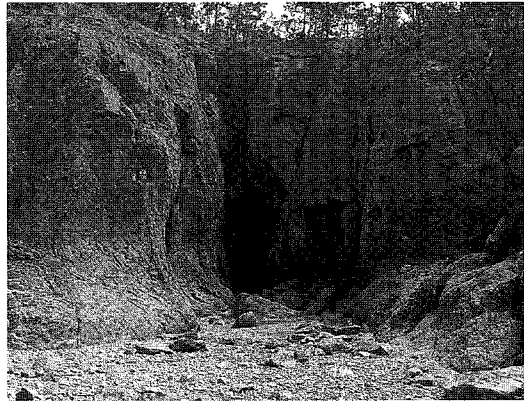
<사진19> 전장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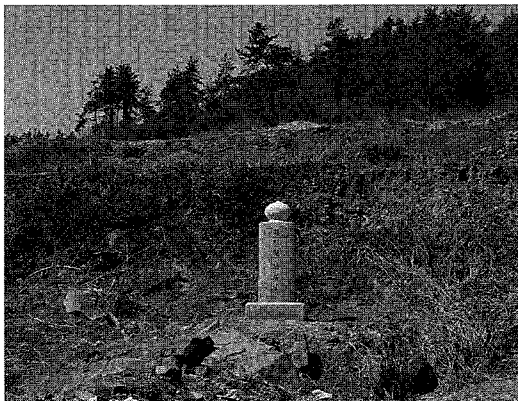
<사진20> 새우젓 저장 토굴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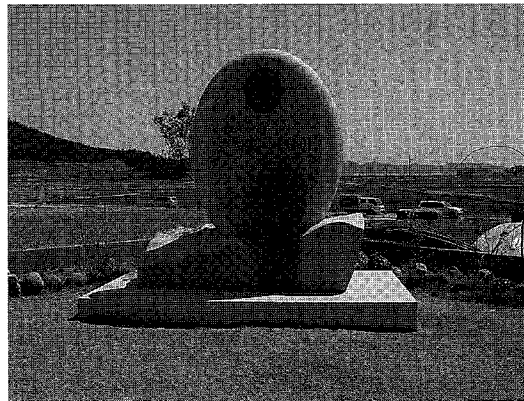
<사진21> 새우젓 저장 토굴 내부



<사진22> 용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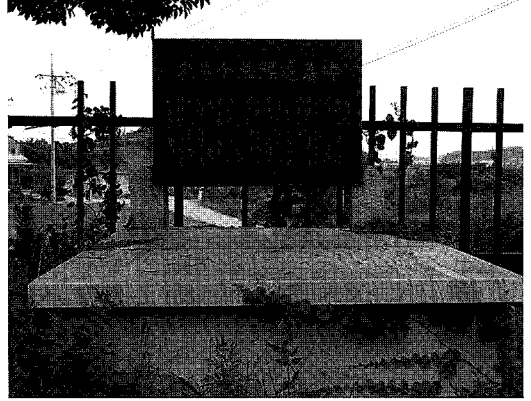
<사진23> 조희룡적거지 유허비



<사진24> 조희룡기념비



<사진25> 金亨培紀念碑



<사진26> 金鍾熙追慕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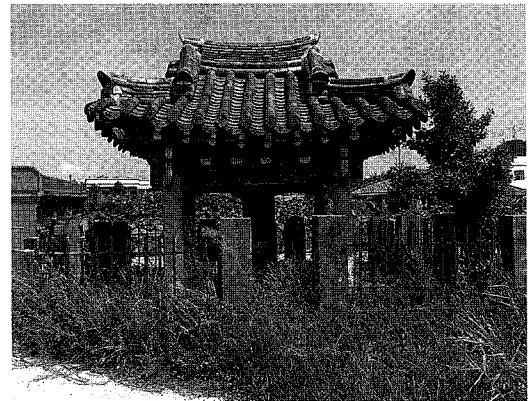
<사진27> 晋州姜氏烈婦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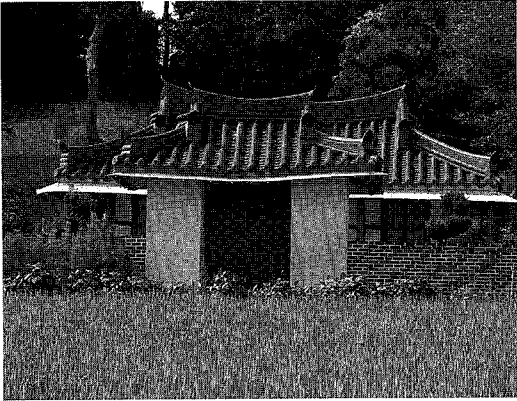
<사진28> 崇慕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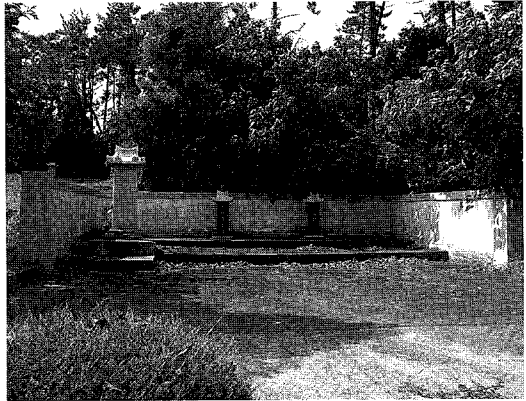
<사진29> 南起元遺墟碑



<사진30> 新安朱氏三孝子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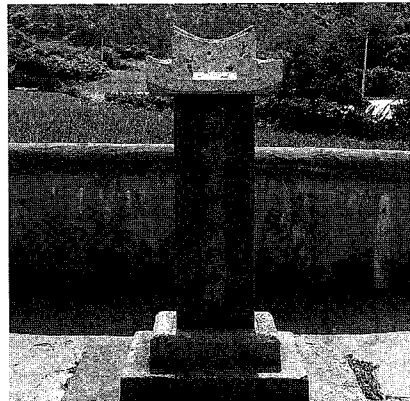
<사진31> 永思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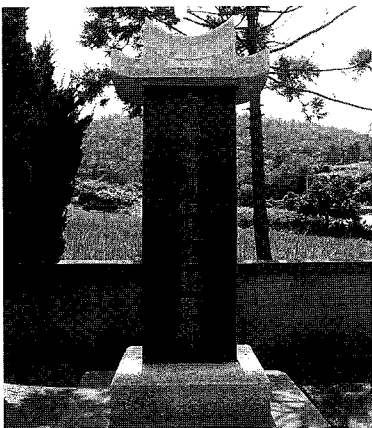
<사진32> 道林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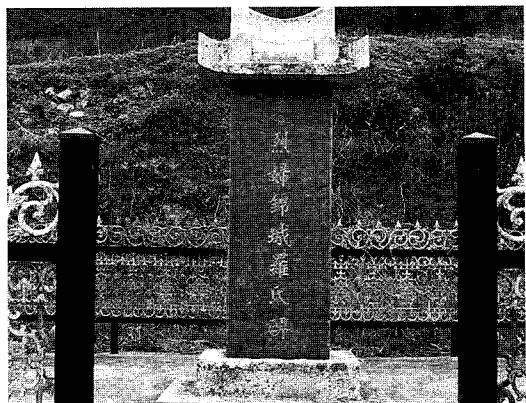
<사진33> 金斗厚遺墟碑



<사진34> 南陽洪氏烈婦碑



<사진35> 任東宣懿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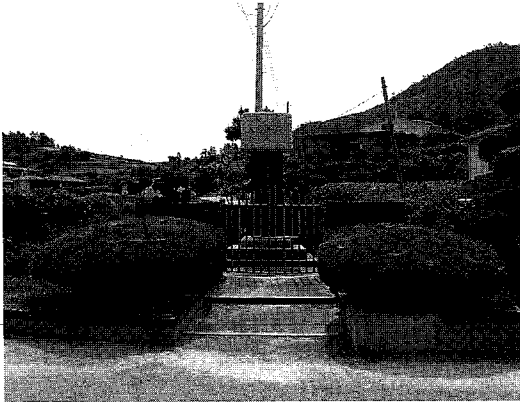
<사진36> 錦城羅氏孝烈碑



<사진37> 鄭炳源遺墟碑



<사진38> 永慕齋



<사진39> 延日鄭氏烈行碑



<사진40> 華山壇

### Ⅲ. 민속생활문화자원

#### 1. 어로문화

번호	제목	제보자	제보지역	제보일시	비고
1	임자도 파시	허영식(남, 1929~) 주옥순(여, 1926~) 장승부(남, 1940~) 탁정기(남, 1927~) 고삼용(남, 1928~)	하우리 " " 이흑암리 진리	2004. 6. 28~30	『도서문화』24집
2	임자도 젓충선과 새우잡이	박항휘(남, 63세)	목포	2005. 3. 28	『도서문화』24집

#### 1) 임자도 파시

##### (1) 서해안의 파시와 임자도 파시

파시는 해류의 이동, 어군의 회유에 따른 조업 조건과 그 생태적 배경에 따라 형성되었다. 서해와 남해에는 계절에 따른 조류의 흐름에 맞춰 곳곳에 거대한 어장이 형성되며, 어종도 조기, 고등어, 삼치, 갈치, 전갱이, 멸치, 새우, 홍어 등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풍어기에는 이곳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상선 사이에 어획물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거래가 이루어지던 바다(어장)를 파시라고 한다.

파시는 회유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해온 서해안의 어로 활동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회유해온 고기를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잡고, 다른 어장으로 이동해서 조업을 해야 하는 생태적 조건이 파시를 성립시켰다고 할 수 있다. 고기잡이의 생태적 조건 때문에 상설 시장이 서지 못한 대신 어장 인근 어촌에 임시 가옥이 들어서면서 파시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파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유해오는 안정적인고 풍부한 어족자원이 전제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서해안의 조기다. 서해안에는 조기의 회유로를 따라 계절별로 남쪽의 칠산어장으로부터 북상하면서 죽도어장, 연평도어장, 대화도어장이 형성되었다. 조기를 잡는 어민들은 단시간 내에 많은 조기를 포획하기 위해, 조업에만 집중할 뿐 어획물을 직접 운반하고 판매하지 않았다. 시간 절약과 어획물의 선도 유지를 위해 대부분 어장에서 상고선(商賈船)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어획물을 상고선을 통해 해상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각종 생활용품이나 어구, 식량, 식수 등은 인근 포구에

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장 가까이에 있는 포구나 어촌은 성어기에 어선이 집결하여 크게 번창하였다. 일정 시기에 모여든 어부들을 위한 음식점, 주점 등 각종 위락 시설이 갑자기 번성하여 한가하던 어촌이 불야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파시였다. 서해안의 여러 파시 중에서 위도파시, 연평도파시, 흑산도파시가 3대 파시로 꼽힌다.

서해안의 파시는 대표어종인 조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옛기록에서 볼 수 있는 파시의 모습 역시 조기와 관련된 것이 많다. 파시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 및 『숙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지도군총쇄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가) (조기는) 군의 서쪽 파시평(波市坪)에서 난다[봄·여름 사이에 여러 곳의 어선이 모두 이 곳에 모여 그물로 잡는데, 관청에서 그 세금을 받아서 국용(國用)에 이바지한다].<sup>5)</sup>

(나) 전라 감사(全羅監司) 민진원(閔鎭遠)이 치계(馳啓)하여 궁가(宮家) 소속인 파시평(波市坪)의 어세(漁稅)를 진민(賑民)의 물자로 보충하여 쓰고, 감영(監營)에서 그 값을 궁가(宮家)로 보내겠다고 하니, 호조(戶曹)에서도 그렇게 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으니, 중외(中外)에서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sup>6)</sup>

(다) 파시전(波市田) : 군 북쪽 20리에 있는데 조기가 생산된다. 매년 봄에 경외(京外)의 상선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판매하는데 서울 저자와 같이 떠들썩한 소리가 가득하다. 그 고깃배들은 모두 세금을 낸다.<sup>7)</sup>

(라) 법성포의 서쪽 바다에는 배를 댈 곳이 없고 이 곳에 있는 칠피라는 작은 섬들이 위도로부터 나주까지의 경계가 되는데 이곳을 통칭하여 칠산바다라고 한다. 서쪽 바다는 망망대해로서 해마다 고기가 많이 잡혀 팔도에서 수천 척의 배들이 이 곳에 모여 고기를 사고 팔며 오고 가는 거래액은 가히 수십만 냥에 이른다고 한다. 이때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조기로 팔도에서 모두 먹을 수 있었다.<sup>8)</sup>

(마) 본 군의 칠산도에서는 매년 봄에 조기 어장이 형성된다. 본래 칠산 어장은 바다 폭이 백여 리나 되어 팔도의 어선들이 몰려온다.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배가 근 백여 척이 되며 상선 또한 왕래하여 거의 수천 척이 된다.<sup>9)</sup>

5) 『세종실록 지리지』 제151권, 전라도 영광군.

6) 『숙종실록』 제38권, 숙종 29년 12월 11일(임오).

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6권, 영광군, 산천조.

8) 『지도군총쇄록』, 1895년 5월 13일자.

9) 『지도군총쇄록』, 1897년 2월 26일자.

(개)와 (다)에는 파시의 시기가 나오고 (래)와 (매)에는 파시의 떠들썩한 분위기와 거래 규모가 나온다. 그리고 (나)에는 파시평이 궁가(宮家) 소속인데, 전라 감사가 파시평의 어세(魚稅)로 구휼 물자를 보충하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관련 내용이 이후 수차례 논쟁적으로 반복<sup>10)</sup>되는 것으로 보아 왕실에서 파시의 경제적 이윤에 집착했음을 알 수 있다.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은 파시의 어세·어염세(魚鹽稅)·선세(船稅) 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래)와 (매)는 지도(智島) 군수로 있던 오횡묵(吳弘默, 1833~?)이 남긴 일기체의 정무일지다. 칠산파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칠산파시에 “수천 척의 고깃배, 상선들이 모여 고기를 잡아 사고판다고 했으며 그 거래액이 수십만 냥에 이른다.”고 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18세기 후반 칠산파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서해안의 조기파시는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조기가 안정적으로 잡히던 경제 어종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조기 파시가 서해안 전역의 주요 어장에서 쫓던 것과 달리, 일부 어종은 특정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된 까닭에 그 경우의 파시는 국지적 양상을 띤다. 거문도·청산도·흑산도의 고등어 파시, 추자도의 멸치 파시, 비금도의 강달어 파시, 임자도의 민어 파시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고등어 파시의 경우 남해안을 따라 횡으로 퍼져 있어 종으로 분포하는 조기 파시와 대비된다.

임자도 타리파시는 전국 제일의 민어 파시로서 명성이 높았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타리파시는 일본인들이 활발하게 진출했으며, 수백 척의 선박이 몰려든 타리 항구는 정박한 어선들의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루었다고 한다.

< 표 > 1925년 타리파시 업종 현황(동아일보 1925. 8.11)

구분	계	잡화상	육탕	세탁	이발	음식점	요리점	선구상	병원	증개업
계	116	14	1	4	5	61	18	6	2	5
조선인	110	6	1	4	4	61	14	4	1	5
일본인	16	8			1		4	2	1	

당시 신문보도를 인용해 김영희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sup>11)</sup> 1925년 7월에 166척의 선박이 조업 중이었고 684명의 선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부와 고기를 사러 온 어상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

10) 『속중실록』 제38권, 29/12/25(병신)에서 논쟁적인 비판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호남(湖南)의 이른바 파시평(波市坪) 문제는 전하께서 윤택하지 않으셨는데, 이 일은 민폐(民弊)를 없애고 본관(本官)에게 백성을 구제할 밀천을 보태어 주게 하는 것으로, 또한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인데도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시니, 다른 것이야 의논해 무엇하겠습니까?”

11) 김영희, 『섬으로 흐르는 역사』, 동문선, 1999, pp.296~309.

는 조선인 상점 100개, 일본인 상점 16개가 있었다고 한다. 상점 중에서 61개가 음식점, 18개가 요리점으로 대부분 유흥업이었는데, 이곳에 몸담은 타리기생은 일본 창기를 포함하여 1백여 명이 기거했다고 한다.

타리파시는 해방 후 해체되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민들이 새우잡이에 주력하고 민어잡이에 무관심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타리파시가 일본으로 반출되던 민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 사회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타리파시가 사라진 뒤 1960~1980년대에 재원도에 파시가 형성되었다. 재원파시는 1990년대 초까지도 일부 기능이 남아 있었으며, 지금도 파시촌의 흔적이 약간 남아 있다.

## (2) 타리 파시와 파시 사람들

타리파시는 입자도 서북부 하우리 서쪽의 모래사장과 건너편 섬(섬타리도, 물타리도) 사이에 섰다. 타리섬의 이름을 따서 타리파시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민들은 모래사장 왼편에 있는 너른 바위를 ‘나박바우’, 그 등성을 ‘나박바우 잔등’이라고 하고, 파시 이름을 ‘나박바우 파시’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나박바우 동쪽으로 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파시가 섰다. 지금은 모래사장만이 남아 있을 뿐이지만 파시가 한창일 당시에는 가건물 수십 채가 들어섰다. 1930년대 후반에 타리파시를 관찰한 일본인 櫻田勝徳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모래사장에 가건물 이동부락파시가 2, 30채 늘어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타리섬이라는 지명을 따서 ‘타리파시’라고 부른다. 파시는 선술집, 여관[遊女屋], 요릿집, 잡화가게, 이발소, 선구집, 소금가게, 목욕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타지 어부를 상대로 장사하고 있는 것 같다.<sup>12)</sup>

櫻田이 본 1939년 타리파시의 규모는 앞서 제시한 1925년 통계보다 적은 수치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에 갑자기 규모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필자가 만난 제보자 허영식(남, 1929~)씨 내외가



〈사진 1〉 타리파시 풍경(朝鮮多島海旅行覺書)

12) アチック ミュゼウム 編, 朝鮮多島海旅行覺書, 1939, p.36.

1942~1943년경에 보았다는 기억에 의하면 100~120호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술집이나 요리집 이외에 주재소와 보건소 등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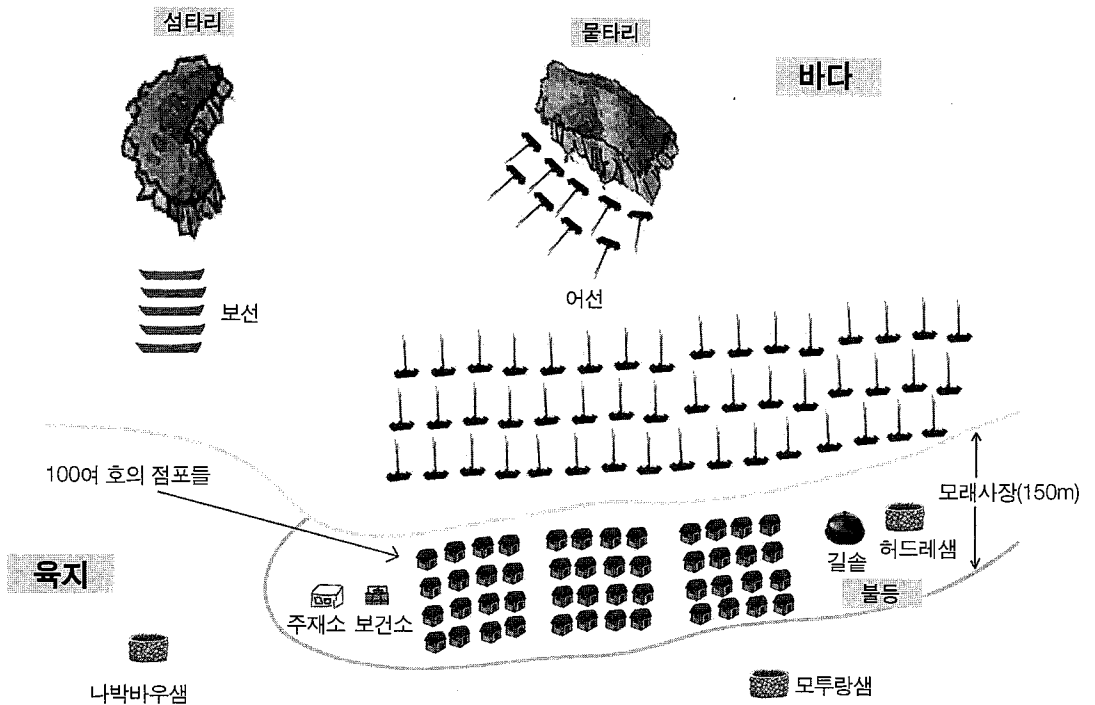
파시가 왜정 때에 한 100호 이상 됐어요. 술집만 있었던 것 아니고. (하우리에서 나박바우 쪽으로) 길 막 내려가면 지서가 먼저 있었고, 그 옆에 보건소가 있었고. 또 옛날에 보선이 많으니까 고기잡는 하꼬짜 있잖아. 하꼬를 여기서 전부 제작을 했어. 거기서부터는 전부 집이 있어. 막도 있고, 판자로 전부 해서 만들었던 말이에요. 큰 잡화 가게들은 물건 훔쳐가니까 판자로 해서 하고. 민속촌에 가든 마람 엮어서 만든 그런 집이 거의 많았고. [조사자:집들이 바다쪽으로 몇 줄이나 있었어요?] 7~8줄 이상 되었다니까. 한 마을이 들어 앉았다니까. 도시와 마찬가지로. 집이 겹나. 우리 밭(제보자 소유의 밭) 머리에 정의수(우물)가 있거든. [조사자:일본 사람들이 판 우물이에요?] 응. 그 물인데 이 물 가지고 적으니까 또 여그 마을 위치에다 정의수 하나 파고, 모투랑샘이여. 또 여그서 요렇게 넘어와가지고는 허드렛물이 있었어. 일본사람이 판 샘은 나박바우샘이라고 했었고. [2004.6.28 입자면 하우리, 제보자:허영식(남, 1929~), 주옥순(여, 1926~)]

허영식 씨 내외가 기억하는 타리파시의 풍경이다.<sup>13)</sup> 그들의 구술에 의하면 타리파시에 “한 마을이 들어 앉았다”고 하며, 200여m에 걸쳐 임시 가옥들이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 또 ‘나박바우샘’과 ‘모투랑샘’이 식용 우물로 이용되었고, 백사장 쪽에는 ‘허드렛샘’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물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민들이 물을 길어다 파시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한다. 허영식 씨의 구술을 바탕으로 타리파시의 공간 구성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사람들은 몰라도 일본에서는 타리라고 하든 압니다. 요 뒤 나박바우가 민어가 유명하거든요. 그 민어 낚을 때 보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든 고기 잡아서 저장하는 배어요. 그 보선이 뜨른 사람이 건너갈 정도요. 보선이 지금으로 치면 한 3, 40톤 되죠. 근게 고기를 잡어다 저장했다가 일본으로 바로 실어가죠. 보선은 저장하는 배고, 그런게 각 어선이 잡어오면은 그 보선에다 저장을 해요. 저장 해 놔다가 일본으로 운반해 가요.

대한민국 선박들이 거즘은 다 타리로 모여요. 그런게 배하고 배 사이에 사람이 걸어갈 정도란 말이에요. 근디 강원도까지는 모릅니다만은 인천, 군산 이 세 개 항에 있는 배는 전부 여기 집결해 있었어. 이 목포, 여수까지. 타리에서 민어를 잡으니까 민어 잡기 위해서 전부 집결해요. 이 타리로. [2004.6.28 입자면 하우리, 제보자: 허영식(남, 1929~), 주옥순(여, 1926~)]

13) 허영식 씨는 하우리에서 출생 살고 있는 본인데, 어린 시절 마을 곁에 있는 타리파시에 수시로 드나들며 구경을 했다고 한다. 또한 그의 부인 주옥순 씨는 피길리가 고향이지만 10살 무렵 아버지 따라 파시를 구경한 적 있고, 16세에 동생 치료 때문에 타리파시 병원에 다녀간 적 있으며, 18세에 허영식 씨와 결혼해 하우리에 시집와 살면서 파시를 구경했다고 한다.



〈사진 2〉 타리파시의 공간 구성

주민들은 타리가 일본에까지 잘 알려져 있었다고 말한다. 어선들이 잡아온 고기를 보선에 저장했다가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배들이 대여섯 척 있었다고 한다. 회사마다 보선을 갖고 있었으며, 보선에 저장한 고기를 운반선이 이틀마다 일본으로 실어갔다고 기억하고 있다.<sup>14)</sup> 櫻田이 “타리섬에는 수산과 아야시가네(林兼) 회사 소속의 생선 창고를 가진 ‘일본수산’의 선박이 있고, 이 배에서 살아 있는 물고기를 얼음으로 채워 도다(일본 후쿠오카현 북구슈 戸畑區) 등지로 운송하여 보내고 있다.”<sup>15)</sup>고 말한 것과 통하는 설명이다.

타리파시에서 수산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보선이라고 불리는 배에 고기를 냉장 저장해서 일본으로 직송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여럿 있었다. 또 인구가 많고 크고 작은 사건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주재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물자와 유동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목포와 타리를 오가는 여객선이 하루에 두 차례씩 운행될 만큼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여객선은 ‘남영호’와 ‘조영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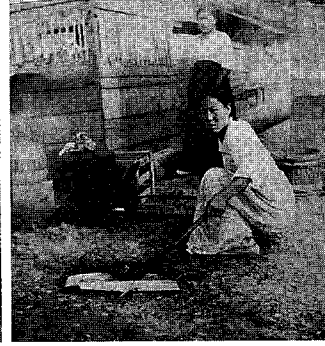
14) 보선은 동력을 갖고 있지 않은 큰 배였다고 하는데 보선은 지금의 톤수로 볼 때 30~40톤 정도이며, 운반선은 20톤 정도였다고 한다. 주옥순 씨는 보선의 크기에 대해 “보선은 산당어리처럼 크드만”이라고 표현했다.

15) 앞의 책, p.36.

~5월에는 위도 조기파시, 6월에는 연평도 조기파시, 7~8월에는 임자도 민어파시를 찾아 다녔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흑산도에 가을 파수를 보러 다녔다. 상인들은 대부분 외지인들이었고, 현지 상인은 숫자가 많지 않았다. 임자도 현지상인은 4~5명의 이름이 확인된다. 상인 중에는



요리집



요리집 여인들

일본인도 있었는데 사진자료 중에 ‘御料理’라는 간판이 붙은 가게도 보인다.

요리집에는 여자들이 있어 손님들을 접대했다. 주민들은 요리집 여자에 대해 ‘기생’, ‘화류계 여자’ 등으로 부른다. 1925년 통계를 보면 조선기생, 일본 게이샤들이 100여명 이상 있었다고 한다. 파시에 모인 기생들에 대해 “해당화가 피고, 기생들이 옷 빨아서 널어놓으면 옷인지 꽃인지 모른다.”는 낭만적인 풍경으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뱃사람들을 상대로 한 가무와 매춘이었다.

타리에는 ‘에라 노아라 못놓겠다’는 조선 기생의 양산도 가락이 장구소리에 실려 왔고 ‘조센 도 시나 도노아 노사가이’ 하는 사미센(三味線) 섞인 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시와 노래와 술과 춤이 외진 황해의 바닷가에서 어우러지던 곳, 그곳이 타리파시였다.<sup>18)</sup>

파시에서는 밤마다 기생들의 노랫소리와 장구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70대 이상의 주민들은 파시에 구경갔던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들이 본 풍경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도 예쁘게 화장하고 한복을 차려 입는 기생들과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라고 한다. 술집에서 기생들과 어울려 술 마시면서 노래부르고 춤추고 노는 것을 ‘산다이’라고 하는데, 그 산다이가 ‘불만한 곳’이었다고 말한다. 요리집에는 뱃사람들과 기생들이 어울려 놀 수 있는 큰 방이 있었고, 남녀가 은밀하게 속삭이는 작은 방들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주민 중에서는 어릴 때 그것을 훔쳐보러 다니던 기억을 말하는 이도 있다. 일반인들과 달리 파시에서는 남녀가 어울리는 게 일상이었던 것이다.

파시에 설치된 집은 임시로 지은 것이기에, 상인들이 이동할 때는 ‘집을 접어 배에 싣고’ 다녔다. 櫻

18) 김영희 앞의 책, pp.296~309.

田에 의하면 “가재도구는 물론 집도 접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운임을 받고 실어 보내는 사람도 있고, 배를 특별히 마련하여 가족 모두와 함께 이동하는 사람도 있었다.”<sup>19)</sup>고 한다. 한편 9월 접어들면 타리파시가 여름에 비해 쌀렁해지는데 그래도 몇 채의 가옥은 여전히 남아 장사를 했다고 한다. 조기, 민어, 부서, 꽃게, 새우 등이 일년 내내 끊이지 않고 잡혀서 작은 규모라도 파시 기능은 유지되었다고 한다. 겨울에도 외지 배들이 정박하기 좋은 타리파시를 찾았기 때문에 일부 상인들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주재소나 보건소도 한겨울 두어 달만 비울 뿐 철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파시에서 있었던 특이한 행사로 ‘칠월 칠석 제사’가 있다. 음력 7월 7일에 ‘불등’이란 곳에서 큰 제사를 지냈는데 최판술이란 사람이 앞장섰다고 한다. 최판술은 기생의 아들 또는 기생 오라비라고 하며 술집 기생들의 ‘우두머리’라고 한다. 제보자 중에는 칠석 제사가 최판술의 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타리기생들이 전부 참여하고, 야외에서 벌어지는 큰 구경거리였다는 것으로 보아 한 집안의 기제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칠석제사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다음 구술이 참고가 된다.

화류계 계집아가 좀 유명한 계집아가 있었드만요. 근디 거그 와서 살라몬, 그것이 자꾸 꿈에 선몽되고 그랬든 모양이여. 그래서 이 여자를 제사를 지내줘야 한다고 해서 제사를 지냈던 모양이지. 그렇게 허는 말 들었지. [조사자:기생들 중에 유명한 기생이 죽었는데, 다른 기생들 꿈에 그 기생이 나타나서 제사를 지냈다는 말씀이죠?] 예.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 모양이여. 나도 지금 생각해보든 그래. 풍어제라든 바다를 보고 지내야 한다 어찌 산을 보고 지내야. 요것이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 했었지다. 화류계 계집아가 죽어서 칠월칠석날 제사를 지낸다. 그 구신들 죽었은게 한번에 싹 모듬으로 칠석날 저녁에 혼신들을 지사지냈든겨. 젊은 것들이 죽었은게 원도 있제. 많이 죽었닥 합디다. 매도 많이 맞고 독한 놈들 만나몬.[2004.6.30 임자면 하우리, 제보자: 허영식(남, 1929~), 주옥순(여, 1926~)]

타리파시에서 일하던 기생 중에 ‘유명한 기생’이 있었는데 그 기생이 억울하게 죽은 뒤 다른 기생들의 꿈에 나타나 그를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이 구술로 볼 때 칠석제사는 기생들의 죽음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젊은 것들이 죽었은게 원도 있제. 많이 죽었닥 합디다.”라는 얘기로 대충 짐작할 수 있을 뿐,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김영희의 책에 나온 ‘타리기생들의 사랑과 죽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일합방 직후에 일본인의 잠자리 요

19) アチック ミュゼラム 編, 朝鮮多島海旅行覺書, 1939, p.36.

구를 거절한 조선 기생이 피살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하던 기생들이 일본인의 횡포에 항의하는 뜻으로 집단으로 양젓물을 마시고 죽었으며, 그들의 주검을 뱃사람들이 수습해 하우리 쪽 바닷가에 매장했다고 한다.<sup>20)</sup> 이것으로 볼 때 타리파시에서 칠석날 크게 지냈다는 제사는 일본인들의 횡포에 의해 죽은 기생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기생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매년 칠석날 제사를 지내고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이다.

요 근처만 모인 게 아니라 임자면 사람 싹 모여붙어. 외지에서 온 사람이 지방사람보다 더 많다니까. 지방사람보다 더 많아요. 더 많히고. 그러지 않아도 옛날에는 뭘 놀음놀이가 없거든. 노래부르고 춤추고 헌디를 보겼어? 그런게 임자면 사람 거의 다 모이지. 서로 먼저 앞에 앉을라고 내나 싸운당개. [조사자: 뭐하면서 놀던가요?] 노래 부릅시로 춤추고, 악기는 악기대로 해주고. [2004.6.30 임자면 하우리, 제보자: 허영식(남, 1929~), 주옥순(여, 1926~)]

칠석 제사는 작은 규모의 기제사가 아니라 큰 잔치판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불등<sup>21)</sup>에 제사상을 차리고 기생들이 제사를 지낸 후에, 외부에서 불러온 악사들의 반주에 맞추어 기생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놀음판을 크게 벌였다고 한다. 그래서 주변 마을만이 아니라 임자도 각 마을에서 구경꾼이 모여들었고 목포에서까지 구경하러 왔다고 한다.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다툼이 벌어졌고, 밤에 곳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 찾느라 혼잡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경엽 『임자도의 파시와 파시 사람들』, 『도서문화』2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4.

## 2) 임자도 젓중선과 새우잡이

### (1) 새우잡이 어장 전장포 앞뿔

옛날에는 새우잡이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었다. 그 위치는 가늠으로 잡는데, 전장포 인근에서는 전장포가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전장포에서 몇 미터 올라간 취등의 골이 주요 어장이었다. 취는 모래가 모여서 이룬 수중 사막이다. 서남해 일대에는 수많은 수중 모래등이 있어서 해조류가 서식하고 어류가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천혜의 어류 산란장이자 서식지다. 산란을 마친 치어들이 성장하는 마당이고 큰고기들도 모여든다. 그 기본을 새우가 제공하는데, 새우는 모래등에 의지하여 산란하고 성장하며 어류들의 기본 식량이 되어 준다.

20) 김영희, 앞의 책, pp.296~309.

21) 불등은 모래사장보다 2~3m 정도 높은 평평한 모래밭인데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놀았다고 한다.

예부터 전해오는 새우잡이 주 어장으로는 전장포 앞뿔과 뒷뿔, 낙월도 앞뿔과 뒷뿔이 있다. 옛날에는 무서워서 멀리 출어하지 못했다. 앞뿔은 동쪽이고 뒷뿔은 서쪽이다. 서쪽의 뒷뿔은 난장이기 때문에 전통시대에는 바람이 무서워서 진출하지 못했다. 낙월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앞뿔에서만 조업하고 뒷뿔로는 바람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뒷뿔에는 항상 새우가 많아서 모험적으로 새우잡이를 하는 배들도 있었다. 그럴 경우 왕래하는 뗏머들이 많이 난파되었다.

새우 자원이 쇠퇴한 이후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하나는 새우잡이를 연중 쉽 없이 계속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업 해역이 넓어졌다는 점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 1970년대 후반에 칠발도까지 진출했는데, 처음 그곳으로 진출할 때 젓중선이 난다바인 칠발도로 가면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지만 새우가 고갈되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진출하게 되었다. 그 후 도초, 우이도로 확장되었다. 새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녔다. 또 일정한 어기가 있어 생태적 순환체계에 적응하는 어로에서 1년 내내 바다에 그물을 담그는 실정으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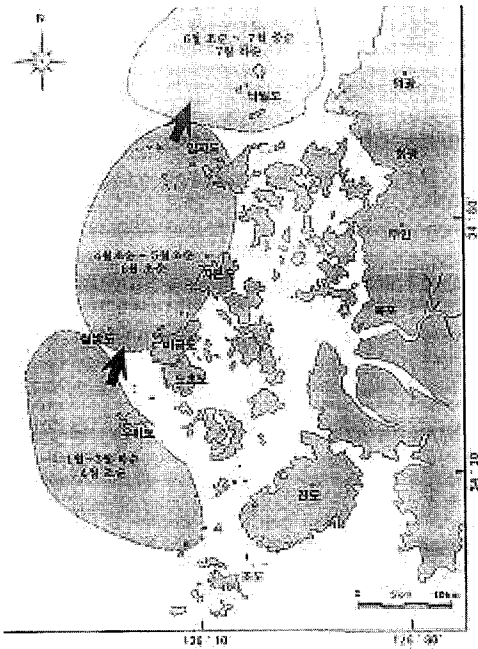
## (2) 참새우와 돛대기새우, 새우 회유로

임자도에서 잡히는 새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참새우와 돛대기새우다. 임자도 주민들은 돛대기새우를 대뿔기라고 부른다. 주민들은 모든 새우를 돛대기새우가 산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참새우는 피부가 부드러운데, 이를 돛대기새우가 알을 품어 산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새우와 돛대기새우는 쉽게 선별할 수 있다. 참새우는 물에 가라앉고 돛대기새우는 뜨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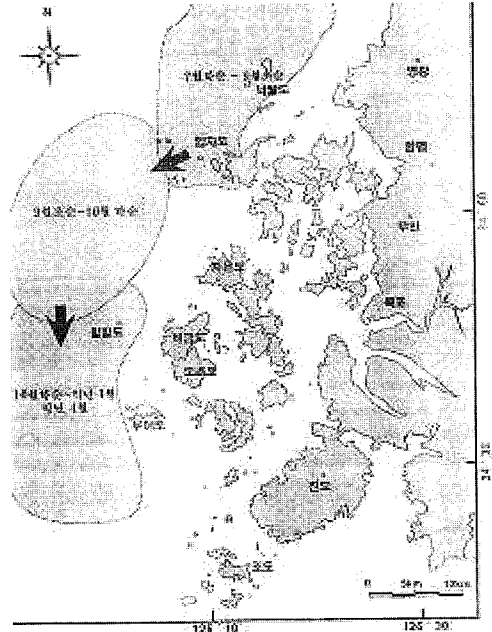
1년에 봄, 가을 두 번 산란하며, 산란 후 죽는데 그 수명을 6개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돛대기새우는 크기가 2.5cm 정도다. 산란을 아주 얇은 모래 취등에서 하는데, 모래를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한다. 새우는 모래 취등을 좋아하여 이곳에서 주로 서식한다.

참새우(젓새우) 등에 새파란 알집이 있고, 크기가 평균 5cm 정도다. 큰 것은 10~15cm 정도 되는데, 제찬과 튀김 감으로 많이 팔린다. 우리나라 서해에 주로 분포하고 일부 남해 연안에서도 출현하며,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의 해역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목포, 부안, 보령 등지에서 출현한다. 늦은 가을부터 외해로 이동하고, 겨울을 지낸 뒤 이른 봄에 다시 연안에 회유해 온다. 그 외의 시기에는 넓은 범위의 이동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2)</sup>

임자도에서 잡히는 젓새우 회유로는 임자도 인근에 국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월 초부터 3월 초순에 칠발도와 우이도 인근 해역에 분포하다 3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 자은도, 임자도 연안지역을 따라 성장과 더불어 이동한다. 그 후 6월 중순에는 낙월도 주변 해역으로 이동한다. 월동세대의 산란으



1월~7월 젓새우 회유도



7월~익년 1월 젓새우 회유도

로 6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는 낙월도와 임자도 연안 해역에 어린 개체들이 주로 분포하여 성육장으로 이용하고 그 후 9월 하순까지는 임자도와 자은도 근해로 이동하여 9월 하순부터 익년 3월 하순까지 여름세대가 산란한 개체들이 칠발도와 우이도 근해 지역에 분포하게 된다. 젓새우 회류로는 낙월도에서 우이도를 폭넓게 잇는 선으로 나타난다.<sup>23)</sup>

돛대기새우는 우리나라 서해 전 연안에 주로 분포하며,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지의 해역에서도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영종도, 덕적도, 무안, 보령 등지에서 봄과 가을에 대량으로 출현한다.<sup>24)</sup>

### (3) 무동력 새우잡이배 젓중선

#### ① 명칭

무동력 새우잡이배를 부르는 명칭으로 가장 일반화된 것은 젓중선이다. 이외에도 중선, 활개배, 멩텅구리배 등이 있다. 중선과 젓중선은 옛부터 사용되어 온 명칭이다. 예초에는 중선이라는 용어만 있었고, 중선을 개조하여 새우잡이배로 사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젓중선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22) 목포대학교, 전남수산시험연구소, 영광군, 『젓새우 시험어업 조사』, p.100.

23) 앞의 책, pp.102~103, 젓새우류 회유도 참조.

24) 앞의 책, p.100.

활개배리는 명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한 것이다. 활개는 벌렸을 때의 두 팔이나 다리를 뜻하는 말인데, 이는 젓중선의 드룻과 질이 배 양쪽으로 펼쳐진 모양이 마치 양팔을 펴고 있는 모습과 같은 데서 붙인 이름이다. 드룻과 질이 무거워서 밑으로 처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돛대를 세우고 돛대에 지탱하는 줄로 드룻을 고정시킨 후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명팅구리라는 명칭은 전장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동력선이 일반화된 이후 이 배가 무동력선이기 때문에 이를 본 외부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선원 구성

젓중선 선원은 5명인데, 사공 1명, 화장 1명, 선원 3명이다. 사공은 선장이며, 어로작업의 일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일과 선내에서 선원들을 통제하는 일을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물때를 봐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 상황에 맞게 작업지시를 하는 일이다. 특히 질노룻을 지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공은 배 안에서 선원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선원들이 순서에 따라 육지로 내왕하는 일을 정한다.

화장은 조리를 담당한다. 화장은 조리하는 일과 어로 조업하는 일을 겸해서 하는데, 조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화장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없다.

선주는 좋은 선원들을 고르기 위해 노력한다. 좋은 선원이란 전장포 어민들 사이에서 일을 잘 하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구조와 명칭

젓중선은 선체, 그물, 닻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젓중선은 외형적으로 뭉툭한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에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비우배로서 이물이 뭉툭하여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고, 닻이 유달리 크며, 드룻과 질이 있다. 항해하여 역동적으로 고기를 좇아 조업하는 어장배와는 달리 큰 닻에 묶여 일정한 골에 정박하여 센 조류를 견디면서 새우를 잡고, 이동할 때는 닻마에 유인되는 배이기 때문이다.

이물부에는 중앙에 닻을 감는 큰호룻이 있고, 좌우에 이물호룻, 걸리호룻이 있다. 이들 호룻을 감거나 풀어 닻을 조정하고 질을 조정한다. 고물부에는 좌우에 고물호룻이 있는데, 고물호룻을 돌려 그물 중간 부위를 들어 올려 잡은 새우를 털고 다시 그물을 내리는 일을 주로 한다. 각 부위의 이름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어야 하고, 만조가 되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물이 남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배의 방향은 북동으로 향해 조류와 맞서야 새우를 잡을 수 있다. 이때 큰 호룡을 돌려 닻줄을 감으면 닻과 배가 거의 수직으로 되며 배가 조류의 흐름에 따라 닻을 축으로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닻줄을 풀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조업을 시작한다. 큰호룡의 회전축 통나무를 큰호룡통이라고 하고 큰호룡을 돌릴 때 잡는 손잡이는 큰호룡살이라고 한다. 큰호룡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을 큰호룡받침대라고 하고 그 밑 바닥을 이물장성늘잡이라고 한다.

- 큰호룡밀 : 이물시청이라고도 한다.
- 너장 : 큰호룡 양 옆 바닥
- 이물호룡 : 질채를 끌어올리는 이물 양편에 있는 작은 호룡이다. 여기에 걸리줄을 달아서 질채를 조정한다.
- 이물호룡살 : 이물호룡을 돌리는 손잡이
- 이물바대리통 : 이물호룡을 바치고 있는 기둥
- 걸리호룡 : 보조 닻줄을 감아 올리는 큰호룡 앞의 보다 작은 호룡이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어 조류 방향이 바뀔때 따라 닻줄을 감아 배의 방향을 바꿔 주는데, 큰 줄을 큰 호룡에 감는다. 이때 닻에 연결된 보조 줄을 감고 풀어주는 도구다.
- 이물돋움줄 : 이물호룡으로 감아올리는 줄로 질채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 예전에는 한 가닥만 썼는데, 지금은 세 가닥 쓴다. 이 줄에 이물용두가 연결되어 있다.
- 이물하라지 : 이물부의 옆판 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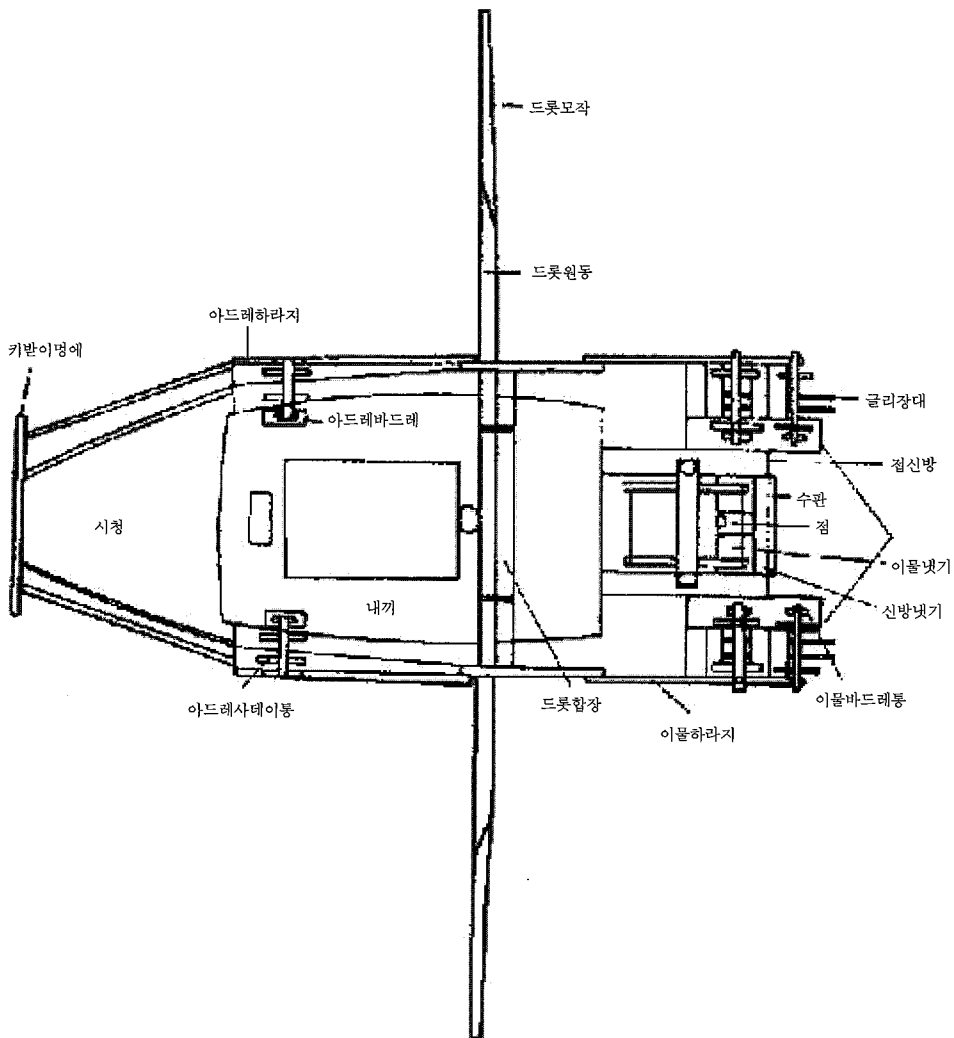
#### ㉞ 이물부 드룻과 질

드룻과 질은 그물을 고정되게 잡아주고 그물 아구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종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 드룻이 선상의 중간부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물에 가해지는 조류의 압력을 견디며 그물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질은 수중에서 유동적으로 작동하며 그물을 조정하여 새우를 효과적으로 포획하거나 조류가 가하는 압박을 적절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드룻 : 그물 아구의 윗부분을 잡고 있는 긴 나무체로 이물부 돛대 하단 조타실 앞을 가로질러 세로로 길게 전개되어 있다. 질과 상대되는 위치에 있으며, 입에 비교하자면 드룻이 윗입술에, 질은 아랫입술에 해당된다. 그래서 드룻을 수해, 질을 암해라고도 부른다. 젓중선의 선체 중 조류의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강하면서도 유연한 쪽나무로 만든다. 드룻이 받는 압력은 선체에 그대로 전해지

기 때문에 선체 중간에 위치한다. 그 힘을 배의 전체로 분산되어야 하며, 배가 그 힘을 이겨내야 한다. 만일 드루트가 누르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배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다.

드루트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드루트원동, 드루트합장, 드루트꼬작이 그것이다. 드루트원동은 드루트의 본래 몸체로 드루트의 중심부다. 드루트합장은 드루트원동을 보강하기 위해 덧댄 나무채다. 길이는 선폭만큼이며, 드루트원동에 쇠테로 단단히 묶여 고정되어 있다. 드루트꼬작은 드루트원동의 끝부분에 이어져 날개처럼 전개된 부분이다. 드루트는 그물 아구 옷테와 줄로 연결되어 있다. 드루트는 질체보다 길어야 하고 쪽 나무로 만든다.



젓중선 평면구조와 명치

· 질(질채) : 질은 그물 아구의 아랫부분을 잡고 있는 나무채로 질채라고도 한다. 질은 물 속에 가라앉아서 그물 아구의 아래 부분을 아래로 전개시키는 일을 한다. 그물작업을 할 때는 질채와 드러미 수직으로 되어서 그물 아구가 잘 벌어져야 한다. 수직이 되지 못하면 새우가 아구로 온전히 흘러 들어가지 못한다. 질채는 참나무로 만드는데, 그 이유는 물에 잘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다.

#### ㉔ 고물부

고물부는 포획된 어류를 선상으로 잡아 올리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다. 키나 돛대가 배치되어 배의 운항을 조정하는 일반 어선들과는 달리 수확 기능을 전담하는 공간이다.

· 고물호롱 : 새우를 잡아 올리는 대목에서 그물 중간 간지에 매어진 안앗줄을 끌어올리는데 쓰이는 호롱이다. 간지는 그물 중간에 달린 테로서 그물을 퍼지게 만드는 고정틀이다. 고물호롱을 돌려 간지에 달린 안앗줄을 당긴다. 그리고 그물 허리를 끌어 올려 그물 끝의 불동개를 털어 잡힌 새우를 수확한다.

· 고물호롱살 : 고물호롱을 돌리는 손잡이다. 사람이 많으면 두 사람이 돌리고 한 사람은 줄을 잡아서 올려준다.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도 감는다.

· 고물하라지말 : 고물호롱 중 회전축을 고정시키도록 홈을 파놓은 나무판이다. 지금은 홈만 파져 있는데, 예전에는 고물호롱이 위로 빠지지 않게 위쪽도 덮여있었다.

· 고물호롱손 : 고물호롱의 회전손잡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매 놓은 줄이다.

· 고물 바대리통 : 고물호롱을 바치고 있는 기둥.

· 고물하라지 : 고물쪽 옆판 막이

· 동하라지 : 배 중간 옆판 막이

· 달판 : 고물하라지와 키받이명에 연결된 나무판으로, 배의 가장자리를 안전하게 걸어다니기 위해 만든 것이다. 발판 또는 달판이라고 한다. 발판과 배 옆판 사이로 불꼬리를 들어올려서 시청으로 쏘기 때문에 발판이 필요하다. 발판은 기받이명에 끝에 달아서 고정한다.

· 부릿지, 또는 뜰집 : 예전에는 비가 오거나 그늘을 만들어 비를 피하고, 잠도 자기 위해 짚을 이어 만들어 놓았던 뜰집이었다.

· 시청 : 배의 갑판 공간.

· 내끼 : 시청의 끝부분 계단처럼 턱져있는 것, 내끼라고 한다. 턱이 지게 한 것은 시청에 올려진 고기들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기반이멍에 : 고물멍에, 고물비우 제일 위에 위치한다.
- 고물비우 : 배의 뒷판 막음.
- 고물눌접 : 고물비우 밑에 있는 나무판으로 고물 전체를 받쳐주는 나무판. 드러누워서 고물을 받쳐준다는 의미이다.

#### ㉠ 외판과 내부

- 삼 : 배 옆판, 옆판의 삼 중 가장 상판은 예전에는 없던 것으로 걸어나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 통삼 : 배 옆판 중 상판 바로 밑에 조금 돌출되어 있는 긴 나무판. 옆판과 같이 길게 판자로 대어져 있으나, 조금 더 돌출되어 있고, 반 통나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옆에 댄 것이다.
- 시창 : 고물부의 갑판. 불꼬리를 터서 새우를 수확하는 곳이다.
- 멩에 : 배의 들보. 이물부로부터 수판멍에(이물 제일 앞에 있는 멩에), 정멍에(큰호통을 받치고 있는 제일 힘쓰는 멩에), 한판멍에, 드룻멍에, 걸청멍에, 소당멍에, 기반이멍에 등 총 일곱 개의 멩에가 있다.

#### 나) 그물의 명칭과 기능

그물은 드룻과 질채에 매는데, 길이는 배의 1.5배 정도이다. 작업 할 때 그물이 펴지면 고물 뒤로 죽 늘어져서 배의 1.5배 가량이 된다. 그물은 연사줄, 두갱이줄, 그물통으로 이루어졌다. 연사줄은 질, 드룻과 그물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줄이고 두갱이줄은 연사와 그물통을 연결시키는 부위다. 그물통은 입구인 아구, 그물통, 끝부분인 불등개로 되어 있다.

• 그물 : 전통시대에는 홀치그물과 면사그물을 썼다. 홀치그물은 첩의 가운데 심으로 만든 그물로 면사그물보다 질겼으며 가격이 비싸 돈있는 선주들이 사용했다. 그물의 아구 부분은 5치로 5절이나 4절을 만들고, 맨 끝에 가면 27절 정도로 만든다.

그물은 드룻과 질채에 매는데, 길이는 배의 1.5배 정도이다. 작업 할 때 그물이 펴지면 고물 뒤로 죽 늘어져서 배의 1.5배 가량이 된다. 그물의 뒷부분에 동그랗게 생긴 간지를 매단다.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간지에 줄을 매달아서 끌어올린다. 간지는 두 개를 설치하고 위치는 그물의 2/3 지점이다. 두 개의 간지를 아넛줄로 감아서 끌어올린다. 아넛줄은 간지에 끼우고 감아놓은 줄이다. '질 낸다' 라고 해서 그물을 하루에 네 번 끌어올린다.

질을 낼 때는 질채를 앞으로 당겨서 이물 밑에 위치하게 한다. 질채를 앞으로 당기면 그물이 올라가서 가벼워지고, 고기가 뒤로 흘러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쉬워진다. 간지에 감은 아낫줄을 들어 올리면 앞에 위치한 고기들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그때 그물을 털면서 간지 앞에 있는 고기를 담는다. 그물을 털고 고기를 담는 것은 선원 5명이 함께 한다. 두 그물을 5명이 동시에 작업한다. 한 쪽 그물에 2명이 붙으면, 나머지 그물에 3명이 붙는 식이다. 아낫줄을 1명이 감아올릴 수도 있다.

그물을 보고 조류의 세기를 가늠한다. 그물 내릴 때는 물살이 약할 때 놓는데 한 물에 한 번 쉼 때가 있는데, 이때가 새우가 잡히는 시간이다.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그물을 올린다. 이를 '질낸다' 라고 표현한다. 그물 내리는 것을 '질 댄다' 라고 표현한다.

그물 중간 위를 움머리, 뒷부분을 초장이라고 부른다. 초장 쪽은 그물이 코가 띄어지고 차근차근 적어진다. 고기가 이 속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 걸리줄 : 질채 때는 줄은 '걸리줄'이라고 한다. 걸리줄은 이물호롱으로 조종한다. 세 가닥, 또는 네 가닥으로 맨다. 새우잡이 그물을 올릴 때, 그물을 내릴 때, 또 질노릇을 할 때 이 걸리줄을 당겼다 풀었다 하여 조정하기 때문에 걸리줄은 매우 중요하다.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고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줄을 맨다.

질채에 그물을 달아서 작업을 할 때는 질채가 드룻과 수직의 위치에 선다. 드룻과 수직이 되지 못하면 고기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수직을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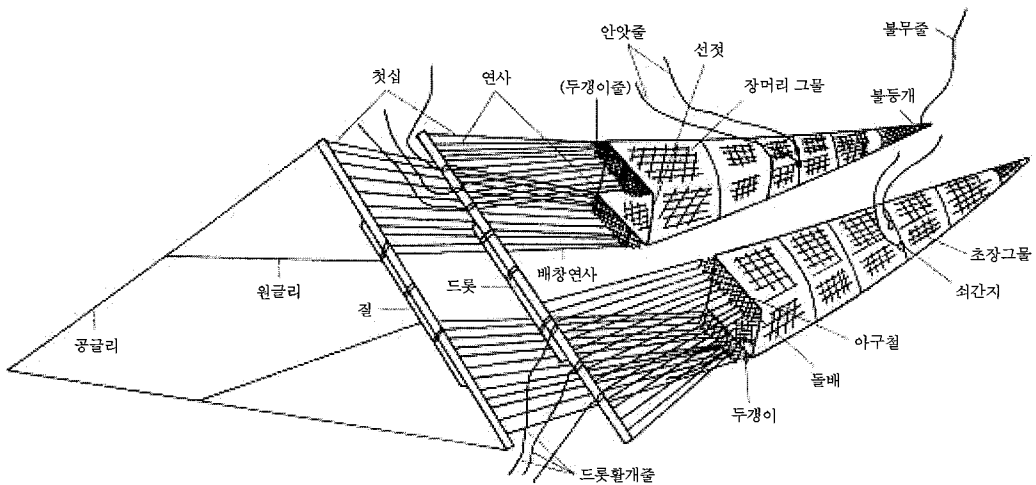
- 연사줄, 두갱이줄, 두갱이조리코, 살코, 아구줄 : 드룻에서 그물 아구까지는 줄로 몇 단계를 걸치면서 연결된다. 드룻에 연결된 두꺼운 줄을 연사줄이라고 하고, 연사줄과 그물을 연결시킨 줄을 두갱이줄이라고 한다. 두갱이줄은 연사보다는 가늘고, 중간에 두갱이라는 매듭이 있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두갱이줄은 그물 아구와 연결되기 직전에 또 한번의 두갱이가 역어져 있는데, 이 두갱이로부터 두 가닥의 줄이 그물아구와 연결된다. 마지막 두갱이에서 나온 줄을 두갱이조리코라고 한다. 그물 아구줄에 물결 모양으로 붙어 있어서 두갱이조리코와 연결되는 줄을 살코라고 한다. 아구줄은 최과 짙을 섞어서 만들었다. 잘 떨어지기 때문에 한 물보고 같아야 했다.

- 아구 : 그물이 바닷속에서 중선배 그물의 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아구'가 제대로 별려져 있기 때문이다. 아구는 중년 이후에는 와이어로 둥그렇게 틀을 만들었지만, 예전에는 최줄로도 하고, 새끼 줄로도 만들었다. 새끼줄로 만들면 사고가 많다. 그물 아구 위치는 고물의 수직 하단에 위치한다. 그물 말단부는 고물에 위치한 기반이명에 분매줄로 연결되어있다. 질채와 그물 아구를 연결하는 줄을 연사라고 한다. 그물이 형틀을 유지하는 것은 조류의 힘에 의해서 퍼지기 때문이다. 조류와 반대로 될

경우 그물이 뒤집어지기도 한다.

· 구멍줄 공단임 : 젓중선이 바람을 만났을 때 나름대로 대응하는 방식이 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물을 걷는다. 그리고 양쪽으로 전개된 질과 드루트가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 - 이를 쪽박질한다라고 말한다 - 을 막아 준다.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단임을 사용하는데, 공단임은 드루트과 질의 합장 끝에 할 일 없이 매달려 있는 줄이다. 이 줄은 그냥 매달려 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풀어서 드루트과 질을 한판명애에 묶어 주는데 쓴다. 그런데 여유있게 흔들릴 수 있도록 매야 거친 바람에 적응할 수 있다. 옛날에는 공단임으로 칩줄을 꺾서 썼고, 다음에는 로프를 썼다.

배에 한 사람만 남아 있는데, 공단임을 매야 할 정도로 바람이 불면 육지에 상륙해 있던 선원들이 댛마로 험한 바다를 뚫고 젓중선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젓중선 선원들은 '바람이 불면 다른 배들은 모두 포구로 피항해 들어오는데, 우리들은 거꾸로 바다로 나가야 한다' 는 말을 한다. 그 이유는 공단임을 혼자서는 땄 수 없기 때문이다. 매지 않으면 질이 배를 때려서 위험하게 되고, 결국 파선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다에 나가 공단임을 묶어야 한다.



젓중선의 그물

#### 다) 닻 부위 명칭과 기능

닻은 조류가 거센 물골 가운데서 젓중선을 고정시켜주는 장치다. 물골의 조류가 거세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닻의 크기가 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닻은 이물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다. 예전에 거리가 짧았을 때는 50발 정도였으며 대개 100m 정도다. 닻의 거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어구가 커

졌기 때문이다. 그물 아구가 커지고, 길어져서 닻이 받는 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만일 닻의 길이가 짧으면 바닥에 끌리지 않고 뽑혀버리는 경우가 많다.

젓중선이 조류에 따라 위치를 바꾸거나 자리를 옮길 때는 닻줄을 당겨서 닻과 수직 상태가 되면서 조류의 흐름에 따르며 배의 위치를 바꾼다. 만일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전체 줄을 다 감고, 닻을 끌어 올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닻줄을 감아 닻을 바닥에서 띄워 이동하기도 했다. 젓중선의 닻이 선박 크기와 비례해서 따져보면 세계에서 제일 클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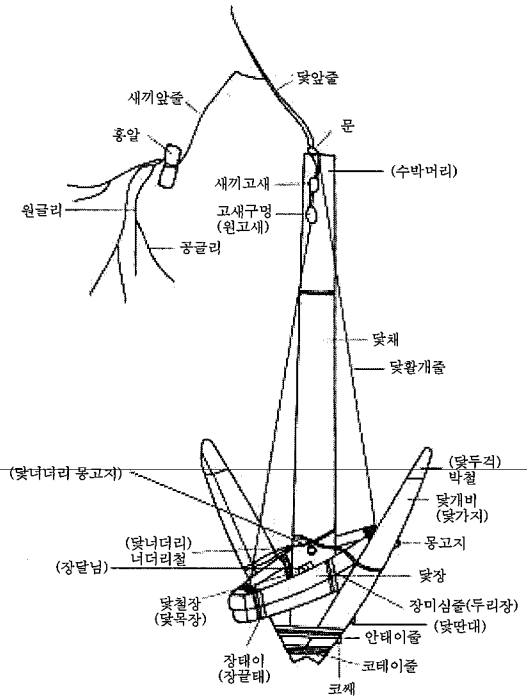
- 닻채 : 닻의 중심 몸통, 해양유물전시관 마당에 전시된 닻의 닻채는 27자다. 현장에서는 20~22자 정도의 닻채를 많이 쓴다. 닻채의 둘레는 7자고, 예전에는 5자 정도였으며, 최후에는 6자 정도의 닻채를 사용했다.

- 닻철장 : 닻채에 박은 두 개의 철주, 닻채와 닻장을 묶는 고리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나무로 박았기 때문에 닻목장이라고 했고, 지금은 철로 하기 때문에 닻철장이라고 한다.

- 장달리 : 닻철장과 닻장을 묶는 줄, 이 줄이 단단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닻의 전체 틀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거센 물살에도 버텨준다. 장달리는 예전에는 칩줄을 파서 쓰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로프.

• 닻개비 : 바닥에 박히는 닻의 가지. 닻가지라고도 한다. 길이 3m 60cm, 12자. 평평하게 깎인부분이 현재 2차 7치, 예전에는 2자 3치 또는 4치. 둘레는 현재 6자. 하나의 닻가지를 두 조각으로 할 때도 있고, 세 조각으로 할 때도 있었다.

- 닻두격 : 박철을 박은 닻개비 끝부분
- 한새 : 코씨의 반대편
- 수박머리 : 닻채의 제일 윗부분
- 고새구멍과 새끼고새 : 닻채에 닻활개줄을 묶기 위해 만든 구멍, 고새구멍은 원고새라고도 한다.



젓중선의 닻

닷활개줄은 원고새부터 연결되어 있다.

- 두리장 : 닷장을 감고있는 줄
- 장태이 : 닷장의 끝을 감고 있는 줄, 장끝태라고도 한다.
- 닷장 : 닷채를 싸고 있으며, 배를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닷가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길게 쓰는 사람이 있고, 짧게 쓰는 사람이 있다. 해양유물전시관 마당에 전시된 닷의 닷장은 길이 20자, 둘레는 2.5자다. 현장에서는 길이 18자, 둘레 2자 정도의 닷장이 많이 쓰였다.

예전에 조타실이 없었고, 그와 비슷한 뜬집이 있었다. 뜬집은 바람이나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 '짜우락'을 파서 만들었다. 비가 올 때는 뜬집을 만들어 놓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뜬집을 걷었다. 배 내부는 이물부터 고물까지 텅 비어있다.

#### (4) 젓중선의 새우잡이 1년 살이

1년의 새우잡이 조업은 준비기, 출어기, 조업기, 휴어기, 출어기, 휴어기의 순서로 되어 있다. 출어 준비는 음력 설이 지나면 시작된다. 출어비용 준비, 선원 확보, 어구 준비가 준비기에 주로 하는 일이다.

##### ① 출어 준비

출어 비용은 젓을 판매해서 확보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판매를 대행해주는 객주에게서 차용한다. 처음 젓중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객주에게 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자도 젓중선 선주였던 박항휘가 처음 젓중선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첫 출어 비용을 객주에게서 차용했다. 박항휘는 22세에 중선 세 척, 뗏마선 세 척, 동력선 한 척, 상고선 한 척을 소유한 전장포 갑부 김은석의 밑에서 뗏마선 사공으로 일하다 27세에 새우잡이 콩당배로 독립하여 젓중선 사업을 시작하고 5년 후에는 옆치기 젓중선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다. 콩당배나 옆치기나 모두 새우잡이 젓중선인데, 콩당배는 그물 하나를 배 꼬리에서 내리고 올리며, 2명의 선원이 작업하는 소규모 젓배고, 옆치기는 양쪽으로 그물을 내리고 5명의 선원이 일하는 규모가 큰 젓중선이다.

당시 목포에서 객주를 하는 윤명섭씨에게서 현금과 선구용품을 차용하여 콩당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럴 경우 이자는 지불하지 않고 반드시 어획물은 그 상회에 넘겼다. 그리고 원금을 이듬해에 갚았다. 옆치기 젓중선 사업은 목포 객주 신창상회 주재학에게서 현금 50만원과 선구를 받아 시작했다. 사업에 성공한 뒤 그분들을 잘 대접했다. 첫 사업에서 성공한 뒤 빌린 돈을 갚고 술집에 모시고 가서 술대접을 잘 했다.

새우잡이 어로가 끝나면 다음 해의 작업을 겨냥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선원 선발이다. 경제력이 풍부한 선주는 유능하고 복있다고 판단되는 사공이나 선원들과 협상하여 미리 다음 해의 선용을 지불하고 선점한다. 그 절차에서 점쟁이의 점괘가 매우 중요하다. 사공의 경우는 반드시 선주와 사주를 맞춰서 길한 경우에만 채용했으며 점쟁이의 계시에 따라 돈을 더 주고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유능하다고 평가되는 사공인 경우도 점쟁이의 점괘가 불길하면 채용을 기피했다. 선원의 경우도 점쟁이에게 사주를 넣어서 그 결과를 보아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 점쟁이가 좋은 말 해 준 사람은 돈을 더 주고라도 채용했다. 점쟁이의 예언은 대부분 적중했으며, 이 경우 ‘아따 거봐라 거. 점쟁이 공것 안 먹는다고. 그 사람 우리가 얻었음 큰일날뻔했네’ 라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선원들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 한번 배에 탄 선원이 맘에 들면 일이 끝난 가을에 내년 일을 다시 맡겨 계속 일을 하게 한다. 마음에 든 선원이 있으면 11월, 12월에 미리 돈을 쥐고 고용해버린다. 선금의 규모는 선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년 임금의 절반을 선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1년 임금의 전부를 주는 경우도 있다. 임금의 규모로 보면 사공은 쌀 50가마니 값을 받았고, 선원들은 쌀 30가마니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

어구는 2월달에 주로 챙기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배를 수리하는 일과 그물을 단속하는 것이다. 배목수를 들여다 선박을 수리한다. 주로 임자도 목수를 썼으며, 부족할 경우에는 목포에서 불렀다. 이때 집목수와 배목수를 엄격히 구분했는데, 집목수가 배에 손대면 재수없다고 해서 반드시 배목수만을 불러다 썼다. 배목수가 제일 신경써서 단속하는 것이 큰땃줄을 품고 있는 큰호롱이다.

2월이 되면 어기를 마치고 그물 창고에 보관했던 그물을 끄집어 내서 떨어진 곳을 보수하고 가래를 입혀 질리게 만든다. 가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굴피가래와 엑기스가래다. 굴피가래는 굴피나무 껍질을 벗겨서 삶은 것으로, 최상품이다. 굴피가래에 그물을 넣고 삶아서 먹여야 그물이 부드럽고 질겨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자 선주들이 주로 이용한다. 엑기스가래는 화학적 제품인데, 구입해서 끓여 녹인 물에 그물을 삶는 것이다. 이 작업은 첫 조업 나가기 전 모든 어망을 다 그렇게 한다.

## ② 봄 어기와 7월 휴어, 가을 어기

첫중선 첫출어는 3월 12일 세물때 첫 밀물 만조 되기 직전에 이루어진다. 세물때는 조금을 지나 바닷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물때로 조류의 흐름이 점차 빨라지기 시작하는 시기다. 가령 첫 만조가 오

전 10시 22분이라면 9시 30분쯤에 출어한다. 대부분의 어로선 출어는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 이 시간은 만조가 되기 직전이지만 물이 온전하게 올라와 배를 출어시키기에 편리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만조 직전이 갖는 풍요상징이 있고, 또 직후에 썰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물을 타고 먼바다로 나가기 쉬워진다. 그런데, 출어를 2월달에 하는 사례도 있다. 중년에 새우가 귀해지자 먼저 좋은 어장터를 확보하기 위해 2월에 출어하여 좋은 어장터를 선점하는 경우도 생겼다.

3월에 시작된 새우잡이는 6월에 일단 마무리되어 봄어기를 강친다(마친다). 그리고 다시 8월에 출어하여 가을어기를 보고 10월에 강친다(마친다). 그렇지만 새우잡이는 봄 4개월 동안이 주 어기이다. 칠월 한달을 쉬는 이유는 이 시기에 새우가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 이 시기를 어민들은 새우 산란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새우가 잡히지 않아 출어를 해도 손해를 보는 시기다. 7월에는 어구를 손질하는 시기다. 그물은 한 달에 한 번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여유그물인 공그물을 하나, 또는 한 틀 가지고 있어서 매월 갈을 입혀 갈아준다. 같은 오래 쓰기 위해 그물에 입히는 식물성 코팅 염료다.

8월 초순에 가을 어기 출어해서 봄어기처럼 작업한다.

## (5) 바람과 물때

### ① 바 램

젓중선의 전마선에서 바람을 이용한다. 젓중선과 포구 사이를 내왕하며 어획물을 운반하고 선원들을 실어 나르는 풍선배 전마선이 주로 바람을 이용한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확물을 싣고 나오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만일 적당한 풍향의 바람이 불면 포구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획물을 받으려고 일찍 서둘러 나가야 한다.

새우젓을 육지에 내놓고, 선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1명만 남아있는데, 바람이 불 경우 바람을 뚫고 배로 복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질채를 반드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배에 한 사람만 남아 있는데, 공단임을 매야 할 정도로 바람이 불면 육지에 상륙해 있던 선원들이 전마선으로 험한 바다를 뚫고 젓중선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젓중선 선원들은 바람이 불면 다른 배들은 모두 포구로 피항해 들어오는데, 젓중선 선원들은 거꾸로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한다. 질채를 끌어 올릴 때 호룡으로 감아서 올리는데, 여기에 모든 선원들이 동원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양쪽 이물호룡을 감아올린다. 그리고 질채를 끌어올리고 이를 한판명애에 공단임으로 묶어야 한다. 매지 않으면 질이 배를 때려서 위험하게 되고, 결국 파선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다에 나가 질채를 끌어올리고 공단임을 묶어야 한다.

## ② 물 때

일정한 위치에 닻으로 고정시켜 놓고 중선망 식의 그물을 배 양쪽에 달고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여 그물에 든 새우를 포획하는 것이 젓중선 조업 방식이다. 그러기 때문에 젓중선에서 물때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조금때는 물발이 약하기 때문에 새우가 적게 들고 사리때는 물발이 세기 때문에 많이 든다. 모든 안강망 어업이 그렇듯 젓중선도 사리 무렵이 바쁘고 조금 무렵이 한가하다.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열두물부터 조금이 되어 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새우가 덜 잡힌다. 이때는 선원들도 한 사람씩 교대로 자기 집에 다녀오거나 쉰다. 예를 들어 이 조금에 갔다면 다음 조금에는 순서대로 다른 사람이 집에 다녀온다. 세물부터 물발이 세지기 때문에 새우가 점차 많이 잡히기 시작한다. 세물때가 되면 새우가 잡히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한다. 사리때 새우잡이의 절정을 이룬다. 보름사리와 그믐사리 중 물발이 비교적 약한 그믐사리가 조업하기에는 더 좋다. 그 이유는 보름사리처럼 물발이 지나치게 세면 질채가 부러지거나 그물이 손상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 가) 사리 때의 질노릇

물발이 센 사리 때 그물을 잡아주는 드룻과 질, 그리고 그물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사리의 센 물발을 그물이 그대로 받을 경우 조류가 가하는 압력이 지나치게 세지기 때문이다. 그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은 센 물살이 그물에 부딪혀 나는 ‘우-’ 하는 소리로 파악한다. 그렇게 되면 사공이 판단하고 지시하는 것에 따라 질의 높이를 조정해 배와 그물을 보호한다. 이를 질노릇한다고 표현한다. 질노릇이란 물속에서 그물 아래를 잡아주는 질을 위로 끌어 올려 입구를 보다 좁게 하여 그물로의 물 유입을 조절함으로써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이다. 질노릇에 관련된 부분은 드룻과 질, 그리고 그물이다. 드룻과 질은 그물을 잡아주는 긴 채다. 그물 아구지 윗부분 잡아주는 채를 드룻이라 하고 아래 부분 잡아주는 채를 질이라 하는데, 드룻은 고정되어 있고 질은 높였다 낮추었다 할 수 있도록 유동적이다. 질을 조종하는 도구가 이물호롱인데, 질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줄을 감아 놓은 이물 비우 양쪽에 있는 작은 호롱이다. 사공의 지시에 따라 4명의 선원들이 두 패로 나뉘어 양쪽 이물호롱을 감거나 풀어준다. 이 경우 감는 단위가 살로 지시된다. 살이란 이물호롱에 달린 손잡이인데, 네 개의 손잡이가 십자로 달려 있어 한바퀴를 감으면 네 살이 감긴다. 사공은 몇 살을 감을지 결정하여 선원들에게 지시한다.

사리 때가 되면 그물만 물발을 세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물과 연결된 드룻도 강한 압력을 받아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일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듯하던 드룻이 한 사리가 지나고 나면 그물이 당겨서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돛대를 세우고 돛대에 드룻을 매다는 줄을 달아 드룻을 잡아준다. 이 줄을 드룻활개줄이라고 한다.

나) 첫중선의 한달 물때

새우가 잘 잡히는 물때는 일곱물부터 열마까지 삼사일 정도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만조에서 간조로, 또는 간조에서 만조로 진행되는 중간에 조석력이 세지기 때문에 질채를 들어서 그물 아구의 넓이를 적절하게 줄이는 질노룻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 네차례 질노룻을 하게 된다.

<표> 첫중선의 한 달 물때

음력일자	10/25	11/26	12/27	13/28	14/29
조수이름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다섯물
현지명칭	한마	두마	세마	너마	다섯마
조류속도	조석력 시작				
조업현황					
음력일자	15/30	16/1	17/2	18/3	19/4
조수이름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현지명칭	여섯마	일곱물/사리	여덟물	아홉물	열마
조류속도	조석력 커짐	조석력 셈	조석력 셈	조석력 셈	
조업현황	조업 왕 성				
	질 노룻 해 야 하는 물 때				
음력일자	20/5	21/6	22/7	23/8	24/4
조수이름	한객기	두객기	아침조금	한조금	무수
현지명칭	열한물	열두물	열세물	조금	무수
조류속도	조석력 쇠퇴			조석력 약함	
조업현황					

(6) 배서낭과 고사

뱃고사는 세물 때인 음력 12일과 27일 오전 드는 물에 지낸다. 세물에 지내는 것은 조금 물때가 지나 점차 물이 살아나 사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이고 반드시 낮의 드는 물에 지낸다.

선주와 선원들은 자신들이 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키지만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 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서낭이 돕거나 서낭과 더불어야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서낭은 꿈에서도 만난다. 서낭은 배마다 다르고 칠마다 달라서 그 형상이 다양하다.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다. 서낭은 새우잡이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로 계시를 줄 때도 있다. 그 계시는 풍어에 대한 예언, 배의 관리나 사고에 대한 예언으로, 미리 조심하는 계시를 준다. 봄 출어를 위한 준비기

간에 계시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로 보아 여성과 남성을 짐작한다. 그래서 출어 무렵 서낭의 계시를 듣고 그 성별과 실체를 파악하게 된다. 서낭은 나이가 지긋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수가 좋다. 20대의 아주 예쁜 여성 서낭도 있다. 여성 서낭의 경우는 땡기머리 처녀 서낭과 남자머리 부인 서낭으로 구분된다. 서낭의 신체는 옷이다. 계시에서 여성 서낭이면 여자옷을 만들어 모시고 남성이면 남자옷을 만들어 신체로 모셨다. 모든 배에는 서낭이 있다고 믿으며, 믿음의 주체는 선주들이고 선원들도 선주와 같은 입장에서 믿음을 지닌다. 선주 입장에서 보면 선원들에게는 임금으로 그 댓가를 지불하고 서낭에게는 제사 섬김으로 지불한다.

배고사는 설에 가장 크게 모신다. 고물인 기안과 시칭, 그리고 한판에다 모시며, 한판에 모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판은 배 중앙부로 큰호룡이 있는 아래 쪽이다. 제물로는 나물류인 녹두나물,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를 썼고, 육류로는 돼지고기를 많이 썼다. 돼지머리가 상품의 제물이고, 삶은 돼지고기도 썼다. 어물류는 민어, 부서, 장대를 많이 썼다. 귀안에는 한판의 절반 정도 제물을 차린다. 한 판에서 ‘서낭님네 무사고로 고기 잘 잡게 해주쇼’라고 기원했다. 그리고 절은 한자리에서 다섯 자리까지 각기 다르게 하는데, 이는 제물로 진설한 밥의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박항휘씨의 경우에는 밥을 다섯그릇 차리고 절도 다섯자리를 했는데, 이는 젓중선 선원이 다섯 명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 2. 설화와 민요

### 1) 설화와 민요 목록

#### (1) 설화의 목록

이 목록은 『도서문화』24(2004년)의 민요(나승만 외) 등 입자면 문헌조사 자료와, 2004년 설화(이준곤 외) 및 2006년 설화·민요(홍순일 외) 등 입자면 현지조사 자료에 의한다.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	2004.06.28.	입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임자도, 진리, 노도 이야기	현지조사
2	2004.06.28.	입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벼락바위 이야기	
3	2004.06.28.	입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사도세자(思悼世子)와 관련된 수도(水島) 이야기	
4	2004.06.28.	입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조삼리의 장사바위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5	2004.06.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골(‘배미골’, ‘남생이골’, ‘안장골’)에 관련된 이야기	현지조사
6	2004.06.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선바위 이야기	현지조사
7	2004.06.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벗(화염) 이야기	현지조사
8	2004.06.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군마(마방촌) 이야기	현지조사
9	2004.06.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지리명칭(地理名稱) 변경 이야기	현지조사
10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480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강대익(남, 67)	가레바위 이야기	현지조사
11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480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강대익(남, 67)	장등 이야기	현지조사
12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480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강대익(남, 67)	뒷산 혈 이야기	현지조사
13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480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강대익(남, 67)	조삼리(鳥三里) 이야기	현지조사
14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만(남, 68)	용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	현지조사
15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만(남, 68)	두 개의 검은 바위와 ‘육바우 마을’ 이야기	현지조사
16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만(남, 68)	머시매당과 가시매당 이야기	현지조사
17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만(남, 68)	요술쟁이들이 많이 산 이야기	현지조사
18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만(남, 68)	대두포(大頭浦) 마을 이야기	현지조사
19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1553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학모(남, 62)	박씨네 집안에서 장군이 될 아들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자 봉황이 테러간 이야기	현지조사
20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학모(남, 62)	함양박씨 아이를 바다에 던져 죽인 이야기	현지조사
21	2004.06.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학모(남, 62)	대운산 성벽 밀 이야기	현지조사
22	2004.06.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장길택(남, 74)	전장포(前場浦)의 지명 이야기	현지조사
23	2004.06.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장길택(남, 74)	전장포에 관한 이야기	현지조사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4	2004.06.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장길택(남, 74)	작동, 돈도리(소작도), 만지도 이야기	현지조사
25	2004.06.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주명심(여, 64)	바다소리가 들리는 동굴 이야기	현지조사
26	2004.06.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최옥진(여, 61)	전장포 삼봉의 천리각시 동굴에 관한 이야기	현지조사
27	2004.06.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25-3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최옥진(여, 61)	큰각시도 이야기	현지조사
28	2004.06.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25-3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최옥진(여, 61)	고고리 섬 이야기	현지조사
29	2004.06.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병수(남, 63)	화산(華山)지명 이야기	현지조사
30	2004.06.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병수(남, 63)	회산(回山)지명 이야기	현지조사
31	2004.06.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병수(남, 63)	연화도수 형국의 지형 이야기	현지조사
32	2004.06.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태오(남, 72)	화산마을 뒤 삼각산의 관암(冠岩)에 새겨진 존화양이(尊華襄夷) 이야기	현지조사
33	2004.06.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태오(남, 72)	박가와 윤가 이야기	현지조사
34	2004.06.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태오(남, 72)	단향제에 관한 이야기	현지조사
35	2004.06.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태오(남, 72)	교동리의 묘지 터(오시판 장 미시발복의 터)이야기	현지조사
36	2004.06.29.	임자면 광산리 124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임동우(남, 79)	원래 명칭 광산리(鑛山里) 이야기	현지조사
37	2004.06.29.	임자면 광산리 124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임동우(남, 79)	마을 뒷산 부영산(復興山) 이야기	현지조사
38	2004.06.29.	임자면 광산리 124	홍순일, 김현주	임동우(남, 79)	열부남양홍씨비(烈婦南陽洪氏碑) 이야기	현지조사
39	2006.08.12.	임자면 광산리 하우 리마을포구 담배가게	홍순일, 김현주	허영식(남, 80)	하우리 지명 이야기	현지조사
40	2006.08.12.	임자면 광산리 하우 리마을포구 담배가게	홍순일, 김현주	허영식(남, 80)	만선의 꿈 이야기	현지조사
41	2006.08.12.	임자면 광산리 하우 리마을포구 담배가게	홍순일, 김현주	허영식(남, 80)	용듬뿍	현지조사
42	2006.08.12.	임자면 광산리 하우 리마을포구 담배가게	홍순일, 김현주	허영식(남, 80)	용오름	현지조사
43	2006.08.12.	임자면 광산리	홍순일, 김현주	최순엽(여, 76)	신영희 이야기	현지조사

(2) 민요의 목록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	2004.06.29.	임자면 광산리	나승만, 홍미희, 김현주, 장익준	권복순(여, 72)	<다구질 소리>, <등덩 애 타령>, <밭 매면서 부 르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 <물레질 소리>	『도서문화』 제24집
2	2004.06.30.	임자면 진리	나승만, 홍미희	장우상(남, 72)	<모찌는 소리>, <모 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보리 타작 소 리>, <두레질 소리>, < 청춘가>, <창부타령 >, <성주풀이>, <까 투리 타령>, <상여소 리>, <노래가락>	현지조사
3	2006.05.11.	임자면 조삼리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김광윤(남, 67)	산다이	현지조사
4	2006.05.12.	임자면 재원리	홍순일, 김현주	정철복(남, 67)	산다이	현지조사
5	2006.05.12.	임자면 삼두리 872	홍순일, 김현주	고문심(여, 69) 김동심(여, 66) 장귀심(여, 69)	산다이, <강강술래>, < 아리랑타령>, <등당 애타령>, <성주풀이 >, <넝리리아>, <베 틀노래>, <모심는노래 >, <논매는소리>, < 모찌는소리(무한들소 리)>, <풍장소리>, < 애기어르는 소리>, < 방아타령>, <들강달강 >, <상여소리>, <청 춘가>, <허랑타령>, < 뱃노래>	현지조사
6	2006.08.11.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김수열(남, 68) 조보현(남, 61) 장창환(남, 69)	<전장포사람들이 새우 를 잡을 때 하는 뱃소리 > (장모잡이 닳을 만들 면서 하는 소리, 노젓는 소리, 고기를 잡으려고 어기를 들어올리는 소 리, 고기 꺼내는 소리)	현지조사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7	2006.08.12.	임자면 광산리	홍순일, 김현주	주옥순(여, 80)	모여 소리하며 놀기, <등당에 타령>, <베짜는 소리>, <물레 돌리는 소리(실 빼면서 하는 소리)>, <일본 군가>	현지조사
8	2006.08.12.	임자면 광산리	홍순일, 김현주	최순엽(여, 76)	<아리랑타령>, <등당에 타령>, <모심는 소리>	현지조사
9	2006.08.12.	임자면 광산리	홍순일, 김현주	오임(여, 87)	산다이	현지조사

## 2) 설화와 민요에 대한 해설

### (1) 설화에 대한 해설

#### ○ 임자도도 설화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	2004. 06. 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임자도 · 진리 · 노도 이야기	현지조사

첫째, 임자도(荏子島)는 ‘들깨 씨’를 뜻한다. 두 가지, 하나는 마치 들깨 씨를 상공에서 보면, 마치 들깨를 뿌려 놓은 것처럼, 섬들이 잘잘하게 모여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들깨가 잘 되기 때문이다.

둘째, 진리(鎭里)는 예전에 수군(水軍)이 진(鎭)을 튼 자리이다. 왜구들이 침범을 많이 하고, 또한 때놈(중국인)들이 침범을 자주해서, 수군이 진을 친 것이다. 간척지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진리 또한 임자도와 떨어진 작은 섬에 불과했다.

셋째, 노도는 바닷물이 들고(밀물), 빠지고(썰물)할 때, 나다니는 길이다.

#### ○ 임자도 설화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	2004. 06. 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벼락바위 이야기	현지조사

옛날에 가난한 모녀(母女)가 살았는데, 가난에 힘겨워 하던, 어머니가 딸을 팔았다. 그래서 딸을 나룻배에 실어주어, 육지로 보내고, 어머니는 돈을 받고, 오는 길에 벼락이 어머니를 때렸다. 그 자리에 ‘벼락바위’라는 전설이 내려온다.

○ 임자도 설화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	2004. 06. 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사도세자(思悼世子)와 관련된 수도(水島) 이야기	현지조사

옛날에 어떤 신령이 세 노인에게 꿈에 나타났다고 한다. 내일 아침에 어느 곳을 찾아가면, 검은 껌이 있을 것이다. 그 검은 껌안에는 철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모셔라! 세 명이 어제 그 신령이 얘기한 곳에 함께 모여서, 그 현몽을 얘기하더라, 정말이지, 그 곳에 가니, 검은 껌이 있더라, 그 껌을 가져다 마을 뒤 정자 나무결에 모셨다고 한다. 그리고 줄곧 '제'를 모시고, '풍년농사'를 기원했다고 한다. 이 껌은 영조대왕이 '사도세자'를 뒤주안에 가둬, 콩과 함 가웠다고 한다. 그러니, 시간이 흐를수록, 콩은 부풀고, 사도세자는 목이 마르고 땀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숨진 사도세자를 한강에서 철마로 만들어, 비단으로 싸고 있다고 한다. 그리곤 껌에 담아, 띄어 보냈는데, 각각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까지 내려갔다 한다. 이 곳에 각각의 수도水島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껌은 이 세 개의 섬으로 각각 다다랐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껌이 머문 곳마다 수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껌을 당 수호신으로 모셨다고 한다.

○ 임자도 설화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4	2004. 06. 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조삼리의 장사바위 이야기	현지조사

옆 마을 조삼리(鳥三里)에는 '장사바위'가 있는데, 장사바위는 장사가 바위를 옮기다가 잠시 내려놓았는데, 그 곳이 장사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장사바위는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으로 없어졌다고 한다.

○ 임자도 설화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5	2004. 06. 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골(‘배미골’·‘남생이골’·‘안장골’)에 관련된 이야기	현지조사

‘골’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골은 ‘고을’의 줄임말인데, 임자도에는 세 개의 골이 있다. ‘배미골’, ‘남생이골’, ‘안장골’이 바로 그것이다.

○ 임자도 설화6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6	2004. 06. 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선바위 이야기	현지조사

진리에는 선船바위가 있다. 이는 배모양을 닮아서 선바위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깨지고, 그 이름만 남아 있다.

○ 임자도 설화7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7	2004. 06. 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벗(화염)이야기	현지조사

불을 때서 만든 소금을 ‘화염’이라 하는데, 이 곳에서는 이를 ‘벗’이라 불렀다.

○ 임자도 설화8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8	2004. 06. 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군마(마방촌) 이야기	현지조사

임자도에는 군마(群馬)라 하여 ‘마방촌’이 있었다. 말을 기른 곳이다. 옛날 진리는 작은 섬이었는데. 1945년에 대기리와 연륙되었다.

○ 임자도 설화9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9	2004. 06. 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태(남, 67)	지리명칭(地理名稱) 변경 이야기	현지조사

옛날 지명 이름은 일제시대 이후에 한문으로 바뀌었다. 앞장구리는 전장포로, 모시동은 저동으로,

새삼은 조삼리로, 한들은 대기리로 바뀐 것이 바로 그것이다.

○ 임자도 설화10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0	2004. 06. 28.	임자면 진리 22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강대익(남, 67)	가레바위 이야기	현지조사

강대익(남, 67)은 마을 이장이다. 강대익의 6대조까지는 대기리에서 살고, 5대조부터는 조삼리에서 살아온다.

이 마을에는 가레바위가 있다. 마치 다리가 벌려진 듯한 바위가 서북쪽 산, 4부능선에 갈라져 있다. 그러나 그 맥이 좋지 않다. 그렇게 갈라진 바위 한 쪽은 서방바위, 그리고 그 맞은 편 서북쪽에 위치한 각시바위가 있다. 서방바위는 송곳처럼, 바위가 몹시 뾰족하게 생겼다 해서, 서방바위라 하고, 각시바위는 마치 말안장처럼, 봉우리가 눕혀져 있어서, 각시바위라고 한다.

옛날에는 이 각시바위에 올라가, ‘말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각시바위는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없어졌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니까. 마을의 2/3가 여자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자들이 아프고, 과부들도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각시바위를 복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옛 각시바위를 복원했는데, 이번에는 서방바위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 서방바위는 그러나 다시 찾아서, 바로 세웠다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시 각시바위가 없어졌다고 한다.

강대익 이장에 의하면 여자들이 잘난 척을 하니까 없어져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없어졌다. 두 개의 바위가 산의 맥을 잡는데, 이제는 한 개의 바위만 남게 된 것이다.

○ 임자도 설화1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1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480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강대익(남, 67)	장등 이야기	현지조사

마을 입구의 고갯길을 장등이라고 한다. 이번에 길을 낼 때, 장등을 5m정도 깎아서, 조삼마을의 남자들이 줄었다.

○ 임자도 설화1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2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480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강대익(남, 67)	뒷산 혈 이야기	현지조사

마을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뒷산 혈(穴)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 임자도 설화1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3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조삼마을 480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강대익(남, 67)	조삼리(鳥三里) 이야기	현지조사

조삼리(鳥三里)는, 세 개의 산이 마을을 좁게 에워싸고 있다. 산들이 한 마리의 새가 된다. 그래서 조삼리라고 불렀다. 말하자면 지역이 좁아, 마치 작은 등지와 같은 형상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많이 나갔다. 그래서 현재 50대 미만의 젊은이가 3명 정도 있으며,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거의 마을의 대다수를 이룬다. 말하자면 마을이 좁다는 것이다. 지역이 좁아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젊은이들을 도외지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산업화로, 도시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 임자도 설화1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4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480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만(남, 68)	용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	현지조사

이흑암리는 예전에 무역나루였다. 중국과 무역하는 항구로서, 여수, 마산, 부산을 거치는 중국의 돛단배가 정자를 가지고 가다가 침몰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다.

옛날에 이흑암리 앞바다에 용이 살았다. 그런데 배사람들이 이 용에게 제물을 받쳤다, 그런데 이 용이 배사람들이 준 제물로 성이 안 차서, 지나가는 돛단배를 침몰시켰다.

○ 임자도 설화1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5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만(남, 68)	두 개의 검은 바위와 '육바우마을' 이야기	현지조사

이흑암리(二黑岩里)는 두 개의 검은 바위가 있었다. 이 두 개의 검은 바위는 밀물일 때는 보이지 않다가, 썰물이 되면 드러나는 바위이다. 왜정 때 배가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었다. 또한 썰물 때, 이 두 개의 바위가 나타나면 마을에 흉한 일이 일어난다. 살인사건이나, 패륜적인 범죄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 때 사람을 절구통으로 쳐서 죽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 바위는 배의 항해를 막는다. 그래서 이 흑암리를 '육바우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 임자도 설화16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6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만(남, 68)	머시매당과 가시 매당 이야기	현지조사

두 개의 당이 있었다. 하나는 '머시매', 다른 하나는 '가시매' 라고 불렀다. 이러한 당은 새마을 운동으로, 둘 다 없어졌다고 한다.

#### ○ 임자도 설화17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7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만(남, 68)	요술쟁이들이 많이 산 이야기	현지조사

임자도는 요술쟁이들이 많이 살았다. 잔머리꾼들이 많이 산 것이다. 이곳은 李朝 때 유배지였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광산 김씨들의 관복도 나온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 ○ 임자도 설화18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8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892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김영만(남, 68)	대두포(大頭浦) 마을 이야기	현지조사

이흑암리의 남쪽으로 대두포(大頭浦)마을이 있는데, 옛날에는 큰 포구라는 뜻으로, '대머리' 라고 불렀다.

○ 임자도 설화19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9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은동 1553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학모(남, 62)	박씨네 집안에서 장군이 될 아들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자 봉황이 테려간 이야기	현지조사

박 씨네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장군이 되는데, 아이가 장군이 되면 삼족三族이 멸하기 때문에, 아이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다. 그걸 지켜보던 봉황이 날아와, 그 아이를 감싸안고, 바다 건너 자은 말봉산으로 갔다.

○ 임자도 설화20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0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은동 1553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학모(남, 62)	함양박씨 아이를 바다에 던져 죽인 이야기	현지조사

함양 박 씨가 귀양을 와서, 우물 터 위에 움막을 지어놓고 살았다 한다. 그런데 애를 가져 낳게 되었는데, 아이가 울지 않아 의아해서 봐보았더니, 아이가 콩과 팥을 가지고 병정놀이를 했다 한다. 아이를 신고 안 하면, 삼족을 멸한다기에, 신고했더니, 아이를 멧돌에 묶어 바다에 던져 죽였다.

○ 임자도 설화2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1	2004. 06. 28.	임자면 이흑암리 은동 1553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학모(남, 62)	대둔산 성벽 밑 이야기	현지조사

여기 대둔산 성벽 밑에 묘를 쓰면, 비가 안 온다하여, 이 성벽 밑을 파고, 불 지르고, 오물을 던지고 했다.

○ 임자도 설화2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2	2004. 06. 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장길택(남, 74)	전장포(前場浦)의 지명 이야기	현지조사

전장포(前場浦)는 말 그대로, 앞 마당에서 새우가 많이 잡힌다 하여 전장포라고 한다.

○ 임자도 설화2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3	2004. 06. 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장길택(남, 74)	전장포에 관한 이야기	현지조사

전장포 앞에 작도(鵲島)라는 섬이 있다. 이 섬에서 어장-갈때어장-을 시작해서, 이곳 전장포까지 연결이 되었다.

어장이 어망으로 발전해서, 전장포 뒷섬인 '낙을도' 앞에서 새우잡이가 양식되었다. '낙을도'는 영광군에 속해 있는 섬인데, 임자도와 같이 새우잡이를 한다.

또한 전장포 뒷불에서 3시간 정도 가면 서해가 나온다. 이곳에 갯빨이 있는데, 이 갯빨에서 병어, 낙지, 돔, 민어, 농어 등을 잡고, 6월에 육젓-새우젓-과 추젓이 나온다고 했다. 알타리 김치를 담글 때, 6월 육젓이나 9월 사젓 등을 넣으면, 맛이 매우 좋다.

또한 전장포는 새우와 물고기만을 잡는다는 것이다. 전장포는 '도찬리'에 소속된 마을인데, 50년 전에는 전장포를 '앞장구리'라고 불렀다.

○ 임자도 설화2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4	2004. 06. 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장길택(남, 74)	작도, 돈도리(소 작도), 만지도 이야기	현지조사

전장포 앞에는 작도라는 섬이 있다. 작도는 오가피나무가 많이 나고, 토끼들도 많았다. 또한 칙도 많이 나서, 칙을 많이 캔다.

작도 옆에 '돈도리'라는 섬이 있다. 지도상으로는 '소작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돈도리는 칠산 조기

잡이를 하러 가기 전에, 이 섬에다 불을 지른다. 이렇게 불을 지르는 이유는 풍어豐漁를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먼저 이 섬에 불을 지르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것이다. 이 섬은 ‘남성의 성기, 즉 남근(男根)을 뜻한다, 남근에 열이 올라야, 재미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렇게 재미를 봐야 풍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소작도는 이 믿음 때문에 나무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작도 옆에 섬이 하나 있는데, ‘만지도’ 라고도 불렀다. 예전에는 ‘뽕섬’ 이라고 불렀으며, ‘황갈구뿌리’가 많이 나기도 했다. ‘뽕섬’이라 불린 이유는 마치 섬이 ‘뽕머리’ 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 임자도 설화2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5	2004. 06. 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주명심(여, 64)	바다소리가 들리는 동굴이야기	현지조사

주명심(여,64)은 대기리에서 출생해서, 9살 이후로 임자도에서 줄곧 살았다.

광산리에는 ‘열두문턱’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 등산로로 가다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동굴이 있다는 했으며, 이 동굴에서 바닷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 임자도 설화26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6	2004. 06. 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25-3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최옥진(여, 61)	전장포 삼봉의 천 리각시동굴에 관 한 이야기	현지조사

최옥진(여, 61) 목포시 대반동에서 출생하고, 12살 이후로, 전장포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전장포 삼봉에 천리라는 각시가 있었다 한다. 이 각시는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이 남편이 직장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천리 밖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 곳 깊은 숲까지 들어와 살다가 죽었다.

○ 임자도 설화27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7	2004. 06. 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25-3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최옥진(여, 61)	큰각시도 이야기	현지조사

각시가 남편이 아파서, 병을 고치려 약초를 캐러, 어느 섬으로 갔다. 그런데 각시가 그 섬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 임자도 설화28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8	2004. 06. 28.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25-3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최옥진(여, 61)	고고리 섬 이야기	현지조사

이 섬은 만선滿船인 배가 가다가 어떤 물고기를 봤는데, 이 물고기가 누런 황금색이었다고 한다. 이 누런 황금색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배가 전복되어, 그 전복된 자리가 ‘고고리’가 되었다.

○ 임자도 설화29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9	2004. 06. 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병수(남, 63)	화산(華山) 지명 이야기	현지조사

화산은 ‘꽃피’ 혹은 ‘골미’라고 불렀다. 풍수지리학상 연화도수(蓮花塗水) 형국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화산華山이 아니라, 화산花山이라 불렀다. 이러한 연화도수 형국에는,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이 마을에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임자도 설화30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0	2004. 06. 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병수(남, 63)	회산(回山) 지명 이야기	현지조사

옆 마을 회산(回山)은 산 하나가 옛날식 다리미를 얹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회산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 입자도 설화3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1	2004. 06. 29.	입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병수(남, 63)	연화도수 형국의 지형이야기	현지조사

풍수지리학상 연화도수 형국의 지형에는 비석을 세우지 않는다. 이는 마치 꽃잎 위에 돌을 올려놓은 모습처럼 꽃잎이 아름답게 피지 못하고 죽게 되어 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병수 씨 10대조 조모의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집안의 튼튼한 젊은 자손들이 내리 일곱이 죽었다. 그래서, 꽃의 형국에는 비석을 세우지 않는다.

또한 한 길 맞은 편에는 구산리(鷗山里)가 있는데, 이는 갈매기 산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날아가는 새의 형국에 비석을 쓰면, 새가 날지 못하는 꼴이 되므로, 이 마을에서도 비석을 세우지 않는다.

○ 입자도 설화3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2	2004. 06. 29.	입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태오(남, 72)	화산마을 뒤 삼각산의 관암(冠岩)에 새겨진 존화양이(尊華攘夷)이야기	현지조사

화산 마을 뒤에는 삼각산이 있는데, 이 산에 관암(冠岩)이 있다. 이 관암에는 존화양이(尊華攘夷)라는 글자가 바위에 큼직하게 새겨져 있다. 중화민국은 존중해 줄 수 있어도, 오랑캐 왜놈은 배척한다는 것이다. 즉 일제 침략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글자는 눌힌 임행재 선생님과 화정 박태민 선생님이 새겼다. 당시에 시장에서 ‘을유년(乙酉年) 상사디여’ 하며, 1945년에는 해방이 될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 입자도 설화3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3	2004. 06. 29.	입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태오(남, 72)	박가와 윤가 이야기	현지조사

박태오(남, 72) 자신의 7대조 할아버지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유기그릇 장사가 하나 마을

을 들렀다는 것이다. 그 장사꾼이 아직 총각이어서, 본관을 물으니, 파평 윤가(尹家)라, 양반이라 이 무 남독녀의 딸을 그 총각과 결혼시켜, 지금 이 마을에 박가(朴家)와 윤가(尹家)가 지금까지 내려왔다.

○ 임자도 설화3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4	2004. 06. 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태오(남, 72)	단향제에 관한 이야기	현지조사

원래 임자면엔 단향제가 없었다. 지도면의 두륜산에 단향이 있었다. 화정 박태민 선생이 임자유림이 지도유림에게 괘시를 받자 성균관에 승낙을 받아 단향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은 화산단향제가 폐쇄적이다. 6·25 직후 많은 유림들이 경제력이 부족해서 단향제를 한 두 차례 쉬었다. 이때 송산 이학재 선생의 손자 이인철이 자금력을 넣어 쥐 단향제를 치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자금력이 모자라 화산 단향제가 폐쇄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 임자도 설화35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5	2004. 06. 29.	임자면 이흑암리 화산마을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박태오(남, 72)	교동리의 묘지 터 (오시관장 미시발복의 터) 이야기	현지조사

교동리 입구쯤에서 묘지터를 를 발견했다. 오시관장 미시발복(午時棺葬 未時發福)의 터이다. 즉 정오에 관을 묻으면, 그 다음 시간인 미시(未時)인 오후 1:00~3:00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터의 후손은 여기에 관을 묻자, 얼마지 않아, 들어온 배의 전복(顛覆)을 본 것이다. 지금은 이곳에 염전터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예전에는 여기 교동 앞까지 배가 들어왔다.

○ 임자도 설화36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6	2004. 06. 29.	임자면 광산리 124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임동우(남, 79)	원래 명칭 광산리(鑛山里) 이야기	현지조사

광산리는 높다란 산에 둘러 쌓여 있었다. 광산리(光山里)는 일제 말엽에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명

청은 광산리(鑛山里)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광물이 이 마을에 이곳저곳에 있을 것 같아 캐고 다녔다. 그러나 광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 임자도 설화37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7	2004. 06. 29.	임자면 광산리 124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임동우(남, 79)	마을 뒷산 부영산 (復興山) 이야기	현지조사

이 마을 뒷산을 부영산(復興山)이라 부른다. 원래는 부흥산이다. 실제로 예전에 이 산에 부영이도 많이 살았다. 그러나 현재는 부영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임자도 설화38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8	2004. 06. 29.	임자면 광산리 124	이준곤, 김대성, 김용국	임동우(남, 79)	열부남양홍씨비 (烈婦南陽洪氏碑) 이야기	현지조사

정렬부인(貞烈婦人)이라고 하면, 한 남자와 혼인이나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여자가 평생 수절(守節)을 하면 붙이는 명칭이라 하며, 정(貞)이라는 글자가 빠진 열부인(烈婦人)은 결혼은 하였으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수절을 한 아낙을 열부인(烈婦人)이라고 부른다.

이조 말엽에서 일제시대에 홍씨(洪氏) 할머님이 살았다. 1km남짓 가면, ‘독우포’라는 작은 나루가 나온다. 여기에 배추바위가 있다. 밀물이 되면, 보이지 않고, 썰물이 되면 보인다는 바위였다. 그 바위에서 야채를 씻었다 하여, 배추바위라고 한다. 그 바위 위에서, 이 홍씨 아낙이 치마에 돌을 담아서, 투신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열부(烈婦)’라 불렀다.

지금 배추바위는 80%정도 형체가 남아 있다. 공사로 돌을 조금씩 캐냈기 때문이다.

○ 임자면 설화39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9	2006. 08. 12.	임자면 광산리 하 우리마을 포구 담배가게	홍순일, 김현주	허영식(남, 80)	하우리 지명 이야기	현지조사

허영식(남, 80)은 하우리의 지명 이야기, 만선의 꿈 이야기, 용뚝병, 용오름을 제보했다. 허영식의 부인은 주옥순(여, 80)이고,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고, 회혼식을 한 지 4년 지난다. 예수교장로회인 하우리교회의 성도이고, 부인은 권사이다.



〈사진 1〉 허영식(남, 80) 주옥순(여, 80) 부부(06. 08. 12촬영)

마을의 이름이 형국에 따라서 지명이 생기는데, 옛날 구산이 소 형국이기 때문에 하우리라고 불렀다.

#### ○ 임자면 설화40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40	2006. 08. 12.	임자면 광산리 하우리마을 포구 담배가게	홍순일, 김현주	허영식(남, 80)	만선의 꿈 이야기	현지조사

예전에 선주나 선장, 선원들이 선몽하면 만선을 이룰 수 있다. 제보자도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출어 후 만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 바다와 관련된 꿈으로 석(石)과 관련된 것은 ‘금전’을 뜻한다. 육지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꿈으로 물, 불, 나무와 관련된 꿈은 육지에서 무엇을 얻는 길몽으로 여긴다. 그리고 물이 집에서 넘쳐난다든가, 물이 집으로 넘어 들어온다든가 물과 관련된 꿈은 길몽이다. 이러한 꿈을 꾸면 몸이 건강해지고, 생활환경이 풍요로워진다고 믿는다.

한편 제보자가 꿈에서 지계를 지고 산에 갔는데, ‘나무배늘’이 있었다. 나무를 짊어질 때 한 번 조기를 많이 잡은 적이 있다. 그래서 어장일을 할 때에는 그런 꿈을 무시할 수 없었다.

#### ○ 임자면 설화4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41	2006. 08. 12.	임자면 광산리 하우리마을 포구 담배가게	홍순일, 김현주	허영식(남, 80)	용뚝병	현지조사

해수욕장 앞에서 용이 올라갔다고 해서 ‘용뚝병’ 이라고 한다.

#### ○ 임자면 설화4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42	2006. 08. 12.	임자면 광산리 하 우리마을 포구 담배가게	홍순일, 김현주	허영식(남, 80)	용오름	현지조사

용오름은 청명한 날에 용과 같이 구름발이 땅에서 싸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를 보았다고 한다.

○ 임자면 설화4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43	2006. 08. 12.	임자면 광산리	홍순일, 김현주	최순엽(여, 76)	신영희 이야기	현지조사

신영희는 진도 의신면 초사리 태생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신치선이고, 노래 광대였다. 신영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외가집은 향동 마을에서 손가락에 뽑히는 소리 집안이다. 마을에서 환갑 잔치를 했을 때 신영희 아버지가 왔었다. 고수도 데려오고 어린 신영희도 아버지를 따라왔다. 새양머리 땅고 기영머리 땅고 박죽 머리 노란 놈 해서 노래를 부르고 신영희도 아버지한테 노래를 배워서 한 자리 하고 바구니돈을 걸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유명한 국악 선생님이 돼 버렸다.



<사진 2> 최순엽(여, 76)(06.08.12촬영)

(2) 민요에 대한 해설

○ 임자도 민요1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1	2004. 06. 29.	임자면 광산리	나승만, 홍미희, 김현주, 장익준	권복순(여, 72)	<다구질 소리>, <등딩애 타령>, <밭 매면서 부르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 <물레질 소리>	『도서문화』 제24집

권복순(여,72)는 <다구질 소리>, <둥덩애 타령>, <밭 매면서 부르는 소리>, <시집살이 노래>, <물레질 소리> 등을 제보했다.

<다구질 소리>

어야 디야 상사되야  
이놈 저놈 뉘아노른  
우리 님은 잘도나 간다  
어야 디야 상사되야  
저 놈의 모시메 얼른 오나  
오늘 저녁에 잠도 자자  
어야 디야 상사되야  
이리고 잡으른 저 놈 소리  
이놈 저놈 잘도 박은다  
어야 디야 상사되야  
저 놈의 저 놈의 모시메야  
오늘 저녁에 우리 방에 오나  
너하고 나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사진 3> 권복순(여,74)(04.06.29촬영)

(그랬단께 다구질 하면서. 수리 조합하면서, 저수지 하면서 부른 노래여)

어야차 디야차 잘도 한다  
이놈 저놈 박아노른  
오늘 저녁에 너하고  
나하고 잠을 자자.

(소리 지른 사람이 그렇게 하든 얼마나 잘못된 사람은 잘 못하고  
잘한 사람은 몇 번이나 주고 막 그런디)

<아리랑 타령>

아라리가 지랄인가 요 요지경인가  
얼마나 좋으면은 지랄이란가  
눈 빠질 놈 코 빠질 놈은 일본에 가버리고  
아까운 내 청춘 다 넘어 가네  
저 건네 저 가시내야  
부러져라 일할새나 존다고 보듬어 볼란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으으옹 아라리가 났네

<동덩애 타령>

동덩애다 동덩애다  
건방진 큰애기 동덩이나  
눈에 눈에 매었네  
저 뒤편 냇가에 동백나무  
울어메가 심졌는가  
울아메가 심졌는가  
비가와도 그 색이고  
눈이와도 그 색이네  
당기 동덩애 동덩애다

술래들아 술래들아  
검은 술래는 술래들아  
초록 수건 목에 걸고  
단풍 드는 콩밭 뒤로  
살살 기어만 가네  
당기 동덩애 동덩애다

<발 매면서 부르는 소리>

원수 원수 시누 원수  
집이 가문 시누 원수  
발에 나가문 보래기 원수  
원수 원수가 내 원수네  
당기 등딩애 등딩애다  
심술로 먹고 잔술로 먹고  
이방 저방을 뛰어댕기다  
시압씨 두발만 다 뜯어버렸네  
아이고 나 죽졌네

<시집살이 노래>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뭣 할려고 나를 나서  
이놈의 방에다 심겨갔고  
아무데도 못 가는디  
상보짬 짜기는 나 모르고  
짚신도 못 짜졌고  
인자는 인자는 죽을란다  
죽을 곳이 없어 못 죽졌네  
어메 어메 왜 날 낳든가

<물레질 소리>

물레야 물레야 어리 빙빙 돌아라  
물레야 물레는 잘도나 돈다  
오늘은 물레가 잘만 돌든  
낮댕이 수댕이 시부댕이 여섯 댕만 찾을란다

○ 입자도 민요2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2	2004. 06. 30.	입자면 진리	나승만, 홍미희	장우상(남, 72)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보리 타작소리>, <두레질소리>, <청춘가>, <창부타령>, <성주풀이>, <까투리 타령>, <상여소리>, <노래가락>	『도서문화』 제24집

장우상(남, 72)은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보리 타작 소리>, <두레질 소리>, <청춘가>, <창부타령>, <성주풀이>, <까투리 타령>, <상여소리>, <노래가락> 등을 제보했다.



<사진 4> 장우상(남, 72)(04.06.30촬영)

(이중할 때 지금은 기계로 심지만 예전엔 일일이 찌서 묶어 한 타래씩. 그래갖고 심어 나가제. 그 전에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는 상사되여, 논매는 소리 식이제. 모찌는 소리

라고 그러제. 여기서는 모찢다 그러거든. 모심는 소리는 상사되여라고 한디 상사소리라고도 하고. 논매는 소리는 그냥 논매는 소리라고 했어.)

<모찌는 소리>

어기어러 무안덜아  
 신농씨가 가신 논에  
 후직이 뿌린 종자  
 농부님네 근월일세  
 첫째에는 나라 봉양  
 둘째에는 부모라  
 부귀공명 하는 것이  
 대장부 일이로다

어기어러 무안덜아

<모심는 소리>

헤헤헤헤 여로 상사디요

세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었네

에헤에헤레 여로 상사디요

내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라네

에헤에헤 여로 상사디요

에헤에헤여로 상사디요

옥창 해도 볍었는데 임의 생각 간절하다

에헤에헤 여로 상사디요

잘 가거라 싫어말고 보낼송자 나도 있네

에헤에헤 여로 상사디요

(술도 안 먹고 맨 속으로 할란께 잘 안나오네)

<논매는 소리>

(논매는 소리가 긴소리 있고 잣은 소리를 더덜기라고 하체.)

(긴소리는)

헤이헤이하 헤에에하이야나 어 헤헤요 헤야요

오동추야 달이 둥실

헤헤 허이 밝어

(잣은소리는)

헤이헤이하 헤에헤야 더덜기로구나

(жат은 가락을 할 때 더덜기로구나 해. 후렴이 더덜기로구나가 나와)

(긴소리는)

에이 에헤야 에헤에헤야 야 더 어 에헤여 헤야요

오동추야 달이 등실

밝어 에이 에헤야 에헤어허어허야 더 에헤여 헤야요

(жат은소리는)

헤헤야 에헤여 더덜기로구나

오동추야 달이 등실 에헤어 밝어

에헤야 에헤야 더덜기로구나

(논매는 소리는 논매면서 처음에는 긴소리로 시작했다가 жат은소리로 했다가 자꼬 되풀이 해서 하 제. 가사를 늘여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논매는 것은 세벌 뻘제. 마지막은 만드리. 그때 농사 많이 지은 사람이 농사 잘 되갔고 있으면 머슴 이 소 타고 동네에서 막 농악 풍악 갖춰갔고 논에까지 나가서 집에 와서 한바탕 놀고 만드리하고 와서. 씨래 씻김은 이종 해놓은 다음에 노는 것을 씨래 씻김한다고 했고

만드리 하는 날은 풍장 같은 것 가져와서 가에서. 소 타고 집에 들어와서 풍장놀이를 하고 놀았제. 만드리 놀이라고 만드리 풍장 놀이라고만 들었구만. 동네 잔치가 벌어지제.

씨래 씨침은 이종 끝낸 다음에 했어. 대대적으로 크게 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이 이웃이 자기 머슴 한테 품앗이 식으로 했던 사람들 올 비도 오고 하니까 씨래씻침 하드라고 하는 식으로 날도 꾀고, 비오 고, 일 못나갔을 때 그것보고 씨래 씻침이라고 했어. 소가 고를 때 씨래질 하거든 이종이 끝났다는 뜻이 여. 씨래씻김 한다는 씨래를 씻어서 창고에 들여놓는다는 뜻이제. 모심기 끝난 후에 씨래 씻침이라고 한단 게 날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별로 몇이씩 비도 오고 들에 못나갔을 때 씨래 씻침한다고)

<보리 타작 소리>

에헤화야

도리깨 꼭지 잘 넘어간다 에헤화여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에헤화여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에헤화여  
은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에헤화여  
초가삼간 집을 지어 양친 부모 모셔다가 에헤화여  
천녀말년 살고 지고 에헤화여

<두레질 소리>

(물두레질은 전장포쪽에서 살았거든. 그쪽은 두레질이 없어. 이쪽 안으로 오면 주로 숫자를 시면서 하나요, 둘이요. 숫자 시면서 한 것 같아. 인자 집도랑이라고 모래땅에서 나온 냇물같이 집도랑이라고 하데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이런 되는 큰 둠병이라고 하제. 파가지고 거기다 물이 고이면 두레로 퍼 올렸는데 저기 도찬리 꽤길리는 두레질이 없었어)

<청춘가>

2.8은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어나 봄시다

요지 일월에 순지건곤이요  
태평성대가 여기로다

술취한 강산에 호걸이 춤을 추고  
돈없는 천지에 영웅도 운다네

역달산 기개서 향우에 장사라도  
우미인 이별엔 눈물이드라

우연히 든 정이 골수에 맺혀서

잇을 망자가 병들병자라

<창부타령>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 잇었든 낭군이 다시 온다  
공수래공수거 하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춘하추동 사시절에 소년행락이 몇 번인가  
술 취하여 흥이 나니 태평가나 불러보세

만경창과 푸른물에 쌍돛단배야 게 썰거라  
신고간 님은 어디에 두고 너만 외로히 오락가락

개나리 진달래 만발해도 매란국죽만 못하리라  
사군자 절개를 몰라주니 이보다 더 큰 설움 또 있으라

---

꽃을 찾는 벌나비는 향기를 좇아 날아들고  
황금같은 피꼬리는 버들사이로 왕래한다  
아니놀지는 못하리로다 아니놀지는 못하겠네

<성주풀이>

(<성주풀이> 는 성주한다고 집을 새로 짓는다는 말이거든. 새로 지어서 집들이 할 때 그때 인자 성주풀이라고 부르는 거여 원칙이)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한량으로 설이설이 나리소서

성주로다 성주 성주 본 향이 어데메뇨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월이 본 향 일러라  
제비원의 솔씨를 받아 소평태평에 던졌더니  
그 솔씨 점점 자라나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점점 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점점 자라 청장목이 되고 황장목이 되고  
도리기둥이 되었구나  
어라만수  
낙양성 심리하야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호걸이 몇몇이요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도 아차 죽어지면  
저 모양이 될 터이니 살아 생전 먹고 쓰고 거드럭거리고 놀아보자.  
어라만수 어라리신이로구나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라  
연연한 북소리는 태평세월을 자랑하고  
둘이 부는 피리 소리 쌍봉황이 노니는 듯  
소상방죽 젓대소리 사람의 흥을 자아내고  
곡곡성진 해금성은 연풍을 자랑하니 인간선악 여기로다  
에라만수

어화 청춘 소년님네 부귀공명을 탐치마소  
부귀는 진애같고 공명은 풍진이라  
비백세인이니 아니놀고 무엇하리  
놀자하면 어이노나  
한송정 술을 배어 조그마하게 배를 무어  
술렁술렁 배 띄워놓고 술이랑 안주 많이 싣고  
강릉 경포대로 달 구경 가자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구나

<까투리 타령>

후이여 후이여 어허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전라도라 지리산으로 꿩사냥을 나간다  
지리산에 올라 무등산을 보고  
나주 금성산에 당도하니  
까투리 한 마리 두둥둥하니  
매방울이 떨어

충청도 계룡산으로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계룡산에 올라 속리산을 보고 가야산에 당도하니  
까투리 한 마리 두둥둥하니 매방울이 떨어  
후이여 후이여 어허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상여소리>

어허널 어허널 어허리 남자 어허늘  
북망산이 멀다더니 저건네 안산이 북망일제  
어허널 어허널 어허리 남자 어허늘  
우리차 진시황은 아방궁을 높이 짓고  
시절 소허고 군신 시작할 때  
장생불사를 하여하고  
북남북녀 오백명을 삼신산에 보냈으니  
소식조차 두절됐네  
어허널 어허널 어허리 남자 어허늘

(생각나는 대로 붙여서 하고. 상여소리는 직접 주지는 않았어. 여기서는 두 가지여. 음이 고저가 꽤길리쪽에서는 어허널 어허널 어허리 남자 어허늘 밑에를 낮추거든. 근데 서쪽 이쪽 관내에서는 어허널 어허널 어허리 남자 어허늘 밑에를 올리드라고. 서쪽 꽤길리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끝을 높이면 비감이 적어져. 장동, 회산, 삼두, 구동, 저동 쪽이 서쪽이제. 소리를 주는 것도 그러고. 달아 달

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하고 높이면 안좋잖아. 옛날부터 그랬던 모양이제. 꽤길리쪽에서 우리는 낮추자. 육지쪽을 보면 끝을 낮추더라고 전에는 꽤길리쪽에서도 끝을 높였제. 우리가 부르면서 낮춘 것이제.)

<노래가락>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열녀는 가가재라  
 화영제 낙처자하니 봉우유신하오리라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공자님 신으신남개 안여증자로 물을주어  
 자사로 뺨은 가지 맹자꽃이 피었도다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추만대에 무궁환가

이것이 노랫가락 안여증자는 공자님 수제자 성인들이여 맹자하고  
 자사는 바로 공자님 수자고 친 다섯분 성인. 이게 뜻이 깊은 거여

울밑에 백오동 심어 봉황을 보랏드니  
 봉황은 제 아니오고 날아드느니 오작이라  
 동자야 저오작 쫓아라 봉황이 앉게

○ 임자도 민요3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3	2006. 05. 11.	임자면 이혹암리 대머리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김광윤(남, 67)	산다이	현지조사

김광윤(남, 67)은 산다이에 관한 제보를 했다. 이혹암리 대머리는 9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장 3가구, 김 3가구, 농사 3가구가 하고 있다. 김광윤은 17살 때 나와, 27살 때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었다. 30살 때부터 7년간 영등포의 삼부토전에서 일하다가 37살 때 임자도로 다시 들어왔다. 부인은 영광 낙월도에서 22살에 시집온 박용금(여, 62)이다.

7남매의 장남인 김광윤은 아버지가 구학문을 했다고 한다. 60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는 35세가 넘어야 산다”고 하셨다. 그래서 35세가 넘기를 바랐다. 현재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사진 5〉 김광윤(남, 67)(06.05.11촬영)

〈표 1〉 임자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번호	항목	조사내용	특징
1	명칭	산다이, 돌려앉아 노는 거서, 상을 치는 것	
2	시기	#기분 좋으면 “우리가 산다이 한 번 하자”, #설날 넘어서, 추석 뒷날, 초파일, 단오날, 생일, 환갑	호상 때도 안함
3	준비과정	#집(방, 마당), 대머리해변, #술(막걸리), 고기, 김치, 생선, 횃감, 간재미, 홍어새끼, 오징어, 병치, 병어, 민어	
4	#향유계층과 구성	4또래끼리(업자들)	처녀총각이 어울림
5	연행양상	#진리에서 초대하면 감 #풍물로, 30명-대여섯 #홀려간 노래인 남인수, 현철, 최상철 노래 등	지금은 노래방에 감 “여기는 민요를 하는 사람이 없어.”
6	기능	친구유대가 좋아짐	
7	놀이의 변화과정		
8	연행장소(산)	초파일이나 단오날에 선창산에 감(10년 전부터)	
9	#신앙		

○ 임자도 민요4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4	2006. 05. 12.	임자면 재원리	홍순일, 김현주	정철복(남, 67)	산다이	현지조사

정철복(남, 67)은 산다이를 제보했다. 재원리 이장으로 면사무소에 일보러 왔다. 이때 소개를 받아 조사를 했다. 소개한 이는 오양배(남, 48)씨인데, 현재 임자면사무소 총무로 근무하고 있다.

재원리 사람들은 나무를 하면서 산다이를 한다. 육자백이, 등당에타령, 청춘가, 진도아리랑 등을 부르고, 흥도야, 목포의 눈물(사공의-), 해조곡, 낙동강 강바람, 신라의 달밤, 울어라 기타줄 등도 부른다.

[고문심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자료 속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강강술래하고 강강술래허른 뽕뽕 돌면서만 앓고 통일이든 통일, 농협이든 농협 마크를 만드는데 그거 각본도 짜고 소리 각본도 짜고 이순신 장군이 강강술래를 내 놓은 것이니깐 그 역사에 대해서 준 소리가 있거든요. 그 각본이 양면지로 해 가지고 있어라. 그거 허고 여그 시집와서 대회 두 번 나감시로 내가 리더를 했거든요. 그래가꼬 소리를 주면서 농협 마크를 기리면서 농협에 대해서 설소리를 지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그때게 갈치면서 구두로 하면서 하른 목이 쉰게 빈 테이프에다가 실려났거든요. 그거 틀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친정은 어디세요] 진리에서 넘어가든 조삼리. 우리 천정 조카 며느리가 이정임씨라고 우리 거가 친 조카 며느리여. 바로 우리 친 오빠 며느리여라. 거그서 우덜 크면서도 우리 조카가 연예인들처럼 그런 거 잘 합디다. 그리고 자기 동네서 이정임씨가 장동이 친정인디 자기 동네서도 강강술래 나오고 그랬어라. 근디 시집을 와가꼬 다리가 괜찮았어.

[거기 강강술래하고 할머니가 하시는 강강술래가 같아요?] 아가씨 때 내가 한 것을 그 부락에서는 꼭 그것을 해가꼬 나오드만. 거복선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그 왜적을 치고 한 것 나오고 그렇게 합디다. 근디 우리 아가씨 때는 내가 제일 선착순으로 17~18살 때 했거든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와가꼬 갈쳐가꼬 계속 해가꼬 그 부락에서 일등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인자 했는디 시집와서 그 후로 대회에 나온디 보든 옛날 그것을 꼭 해가꼬 나오디다. 근디 나는 여그 시집와서 거 아가씨 때 한 것은 선출을 앓고 농협에서 한 거 하고.

[그러니까 강강술래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차이가 나는데가 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하고 내가 시집와서 이 부락에서 할때게는 우리는 언제 남북통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한참 그랬는디 그때 대회에 나감시로 남북통일을 한번 썼거든요. 글고 한번은 나갈 때는 농협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농협마크를 그렸어. 그렇게 구조가 틀렸제.

### #산다이

[그러면 그 쪽에서도 산다이를 했잖아요. 근데 산다이할 때 처녀 시절에도 하죠. 결혼한 다음에도 하나요? 그리고 산다이 팀이 한 마을에 여러 개인가요?] 그러지도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락 잔치나 마든 같이 놀아도 이렇게 따로 따로 논 부분이 많았죠. 그런 잘 어울리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놀고 그랬죠.

[산다이가 뭐예요?] 산다이는 평상 장구치고 막 놀고 아무 노래 부르고 그런 것보고 '산다이' 라고

하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산다이라고 하제.

[그럼 무슨 노래를 불러요?] ‘아리랑’도 하다가 ‘어이아디아’도 하다가 할 거 없으면 ‘등당애타령’도 하다가 가지각색으로 옛날 께, 신식 막 자기가 취미 있는 대로 하죠.

[육자배기도 있어요?] 육자배기는 잘 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시골에서는 국악원 출신 아니고는 안 하지. 성주풀이 같은 것은 곡이 안 맞어도 대충 하거든요. 진도아리랑도 하고.

[그러면 산다이하다가 놀이도 하나요?] 예. 춤도 추고 강강술래한다고 막 놀고.

[악기는 뭐가 들어가요?]

장구치고 하제.

[처녀 때 총각들도 같이 하나요?] 예. 그런디 우리 때는 일쫓달쫓해가꼬 놀른 어른들이 막 큰일난다 함서 그랬지라.

[그러면 산다이하면서 하셨던 신식노래말구요. 생각나는 소리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제.  
< 표 3 > 임자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번호	항목	조사내용	특징
1	명칭	산다이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것	
2	시기		
3	준비과정		
4	향유계층과 구성	#같이: 아리랑 #남자: 육자백이, 웃어라 기타줄, 흥도아, 사공의 뱃노래, 해조곡(옛날노래), 추억의 달밤 #여자: 청춘가, 등당애타령, 육자백이	
5	연행양상		
6	기능		
7	놀이의 변화과정		
8	연행장소(산)	나무를 하면서 함	
9	신앙		

### <강강술래>

앞소리 : 고문심(여, 69)

뒷소리 : 김동심(여, 66), 장귀심(여, 69)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동-터-오-네 동-터-오-네 (강-강-수-월-래-)  
 새-나-라-에 동-터-오-네 (강-강-수-월-래-)  
 달도-깊은-영-강-복-장-임을 (강-강-수-월-래-)  
 가-득-실고 동-터-오-네 (강-강-수-월-래-)  
 해도-갓-고 달-도-갓-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우리-장군-이-순신은 (강-강-수-월-래-)  
 거북-선-을 만-들어-서 (강-강-수-월-래-)  
 울돌-목-에 띠-어-놓-고 (강-강-수-월-래-)  
 우리-장군-이-순신은 (강-강-수-월-래-)  
 우리-신하-백성들은 (강-강-수-월-래-)  
 치마-에-다-돌-을 담-아 (강-강-수-월-래-)  
 돌맹-이-로 적-을 띠-서 (강-강-수-월-래-)  
 한놈-반놈-남-김없이 (강-강-수-월-래-)  
 물-귀신-을 만-들-었네 (강-강-수-월-래-)  
 제-일-차-대전이다 (강-강-수-월-래-)  
 한-산-성-달-밝은-밤-에 (강-강-수-월-래-)  
 수-로에-홀로-앉아 (강-강-수-월-래-)  
 긴-칼을-옆-에-차고 (강-강-수-월-래-)  
 어디-선-지-일-선-오가 (강-강-수-월-래-)  
 나의-애-를-굽-으나니 (강-강-수-월-래-)  
 이-술-래-가-누-술-랜-가 (강-강-수-월-래-)  
 이-순신-장-군-수-월-래-라 (강-강-수-월-래-)  
 강-강-종-다-술-래-로-세 (강-강-수-월-래-)  
 왜-쪽-개를-몰-아-내-고 (강-강-수-월-래-)  
 우리-나-라-건-설-하세 (강-강-수-월-래-)  
 지켜나-가-우-리-공-견 (강-강-수-월-래-)

바다지-킨- 우리-해-군 (강-강-수-월-래-)  
 육전-지-킨 우리-국-군 (강-강-수-월-래-)  
 떠-오-르네 떠-오-르네 (강-강-수-월-래-)  
 동-천-해가 떠-오-르네 (강-강-수-월-래-)  
 아침-햇-빛 태-극기는 (강-강-수-월-래-)  
 동-산에서 휘-날-리-는 (강-강-수-월-래-)  
 부모-님께- 효-도함을 (강-강-수-월-래-)  
 입신양-명 잇-으-리오 (강-강-수-월-래-)  
 옥동-에-다 불-씨놓-고 (강-강-수-월-래-)  
 용-동-에-다 그-려놓-고 (강-강-수-월-래-)  
 시지-부-지 기는-불-은 (강-강-수-월-래-)  
 팔망-극기가 다-비쳤네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아리랑타령>

---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노세 좋네 젊어서 노세

늙고야 병이 들면 나는 못 논다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젊은 사람은 늙지를 말고

늙은 사람은 죽지를 마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비영기를 가면은 공중 유람을 가고  
???를 가면은 ??네 유람 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무정 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요 내 청춘 다 넘어 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호박은 늙으면은 보기 보기가 좋은디  
사람은 늙어지면 보거나 싫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청춘 하늘에는 별도나 많고  
요 내 가슴 속에 잔 수심 많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너는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면은  
요 내 나는 따라감서 나미아미타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에이야 디이야 에이야 어이야  
어이야 디어도 산악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 ??? 진달래 꽃은  
님 맘 바뀌면은 모두다가 피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신작로 뽕라야 길 걷기 좋고  
전기불 밝아야 일 보기 좋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등당애타령>

당기등당애 등당애덩  
저것네라 매밀밭에 매매따는 저 처녀야  
느그 부모 어딜 가고 느그 성제 매매따나  
글 안해도 슬픈 밤에 울 어매 말을 허고 가나  
당기등당애 등당애덩  
등당애덩 등당애덩 당기등당애 등당애덩

저것네 물꼬에 송사리 저것네 물꼬에 송사리  
저것네 물꼬에 동백나무 울 어매가 송꿨던가  
울 아배가 송꿨던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봐도 그 색일래 당기등당애 등당애덩  
옷방구야 중창문을 어찌 그리도 잘랄이거나  
당기등당애 등당애덩

<넝리리아>

향기 줄 잔 저 소리만 나도 고향 생각이 절로 난다  
 널리리야 널리리야 니나노 남실로 잘 넘어 간다  
 바-바-람이 불을랑가 정지 문짝이 요동히고  
 비-비-가 오실랑가 주춧돌이 부르르고  
 산아 산아 봉덕산아 바람이 불면 봉파산아  
 비가 오면 장마산아 눈이 오면 백두산아  
 이번 비여 청산이로 조선비여 하산입네  
 청산 하산 넘어가면 우리 임도 있으련만  
 날마다? 가시는 님을 내가 찾아 무엇할라  
 널리리야 널리리야 니나노 남실로 잘 넘어 간다  
 앞 산은 봄 춘자요 뒷 산은 피 천자라  
 가지 가지 푸를 청자에 동지 동지 꽃 화자라  
 인생은 일장춘몽이니 아니나 놀지를 못 하리라

<성주풀이>

낙영산 신미화에 높고 낮은 저 무덤아  
 저 산 호걸이 몇 몇이나  
 절세가인이 그 누구며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되는구나 예헤라 만수 예헤라 대신이야

[홍타령이랑 홍글노래가 다른가요] 홍타령은 우덜이 잘 못 부르제.

[홍글노래가 있어요?] 할매들이 홍글 홍글 부른 노래 있어.

[홍글은 무슨 뜻인데요?] 홍글은 슬프른 혼자 자기 고민하면서 홍글 노래를 많이 불러. 이렇게 놀면서 흥할 때는 안 부르고. 내가 마음이 피곤하고 고단허른 홍글 홍글 부른 것 보고 홍글노래라고 그래.

[할머니 시집살이 하셨나요?] 나는 시어매를 모시고 산디 젊어서는 식구가 시집살이 안 시켰어.

[그래도 시부모 사는 사람들은 시집살이가 다 있겠쥬. 난봉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난봉가는 임자도 섬에는 드물어. 난봉가는 국악원이나 다닌 사람들이 음성이 잘 부른다.

[그러면 물레타령이나 길쌈 일하시면서 생각나는 노래?] 옛날에 일하면서 막 길쌈하고 할 때 우덜은 길쌈 끝나고 커브렸어.

<베틀노래>

베틀노세 베틀을 놔 옥난강에다 베틀 노세  
낮에 따면 일광단이요 밤에 따면은 월광단이라  
월광단 일광단 다 합쳐 가지고 우리 님 와이셔츠 만들어볼까

<모심는 노래>

에-헤-헤--여이여 상-사-디-요-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상-사-소-리 잘- 맞아 가-네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서마지기 논빼미가 반달 같이나 남았네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

니가 무슨 반달이나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초생달이 반달일세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아나 농부임네 아나 농부들 내 말 듣소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서마지가 논빼미가 반달 같이나 남았네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니가 무슨 반달이나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초생달이 반달일세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이 배미도 송개놓고 장구 배미로 가세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앞산은 점점 더 벌어지고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뒷산은 점점 더 가까오네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 서산에 해는 넘어가고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열두야 동산에 달만 솟아오네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짚은 소리로)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서마지가 논뼨미가 반달 같이나 남았네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이 배미 저 배미 송개놓고 장구 배미로 감시다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삼천에 풀잎은 불어야만 좋고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우리네 청춘은 젊어야 좋네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에-헤-헤--요로 상-사-디-요-

<논매는 소리>

에-헤-야-여-허-로 더덜기로구나

사람이 살면은 몇 백년을 산다고

에-헤-야-여-허-로 더덜기로구나

<모찌는 소리(무한들소리)>

어이-겨-라 무-한-들-아

어이-겨-라 무-한-들-아

잘만 찌네 잘만 찌네

우리 농꾼들 잘만찌네

어이-겨-라 무-한-들-아

<풍장소리>

어-어-이야 헤-에-로 더덜기로구나

잘도 맞네 잘도 맞어

우리 농부들 잘도 맞네

헤-헤-야 헤-에-로 더덜기로구나

---

[혹시 발일하면서도 하는 노래 있어요?]

밭 맴서는 아까 <청춘가> 같은 거. <아리랑> 같은 거. 가지각색으로 해. 밭 매는 것이 따로 없어.

<애기 어르는 소리>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방아타령>

방아야 방아야 물방아야

꿍꿍 찌어라 물방아야

어디를 갔다 인자 왔느냐  
물때가 늦어 인자 왔다  
방아야 방아야 물방아야

<들강달강>

들강달강  
어멈은 장에 가고  
아범은 구시 가고  
꽃감 한나 사다왔지  
머리 빠진 새앙 쥐가  
들강달강 다 먹고  
빼따구만 남겨놓고  
너하고 나하고  
한쪽씩 먹었다

[이런 것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가씨 때 보편적으로 엄마들이 한게 저절로 들었는가 알게 됐어요.

<상여소리>

어-허-넘 어-허-넘 어-뇌리-넘-자 어-화-넘  
가네 가네 내가 가네  
삼천초목으로 내가 가네  
어-허-넘 어-허-넘 어-뇌리-넘-자 어-화-넘

<상여소리(집 안에서 나갈 때) >

과-나니-보-살 과-나니-보-살

<청춘가>

청춘 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요내 내 가슴 수심도 많노라  
가지많은 솔나무 ??? 웃고요  
자식많은 우리 어매 속 편할 날 없노라  
신작로 나자마자 임 잃어버리고  
??한 아빠가 좋으요 니 생각나노라

<허랑타령>

허랑타령 본적은 전라도 임자인데요  
일시잠깐 몸 정헌테는 정체가 없노라  
허랑 허랑 허이야 허이아난다 절거덩  
몽땅 내 사랑 아니냐  
동구나무 밑에는 병아리 한 쌍이 돌고요  
내 이리 꿈틀 저리 꿈틀 술 안주감이로구나  
허랑 허랑 허이야 허이난다 절거덩  
니가 내 사람 아니냐

<뱃노래>

어기야디어차 어기야디어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삼년같은 흉년에도 쌀밥을 먹었는데  
오늘같은 풍년에도 장가를 못 간다  
어기야디어차 어기야디어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순풍에 돛을 달고 목포를 가니까  
?? 님이 마중 나와 내 손을 잡노라  
어기야디어차 어기야디어 어기어차 뱃놀이 가잖다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6	2006. 08. 11.	임자면 도찬리 전장포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김수열(남, 68) 조보현(남, 61) 장창환(남, 69)	<전장포사람들이 새우를 잡을 때 하는 뱃소리> (장모 잭이 닳을 만들면서 하는 소리, 노젓는 소리, 고기를 잡으려고 어기를 들어올리는 소리, 고기꺼내는 소리)	현지조사

○ 임자면 민요6

김수열(남, 68) 조보현(남, 61), 장창환(남, 69) 등은 <장모잭이 닳을 만들면서 하는 소리>, <노젓는 소리(바다에 나가면서 하는 소리)>, <고기를 잡으려고 어기를 들어올리는 소리>, <고기꺼내는 소리>, <노젓는 소리(바다에서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 등을 제보해 주었다.

#도찬리 전장포사람들이 새우를 잡을 때 하는 첫 번째 뱃소리: 장모잭이 닳을 만들면서 하는 소리

#도찬리 전장포사람들이 새우를 잡을 때 하는 두 번째 뱃소리:

바다에 나가면서 하는 노젓는 소리

#도찬리 전장포사람들이 새우를 잡을 때 하는 세 번째 뱃소리:

고기를 잡으려고 어기를 들어올리는 소리

#도찬리 전장포사람들이 새우를 잡을 때 하는 네 번째 뱃소리:

고기 꺼내는 소리

#도찬리 전장포사람들이 새우를 잡을 때 하는 다섯 번째 뱃소리:

바다에서 들어오면서 하는 노젓는 소리

김수열(남, 68)는 지도 어의리에서 태어나 도찬리 전장포에서 50여 년 가까이 살고 있다. 2남 3녀를 두었으나 하나가 먼 나라에 갔다. 조보현(남, 61)은 조보진이라고도 하며 토박이 전장포마을 이장이고, 2남 2녀를 두었다. 그리고 장창환(남, 69)은 전장포 토박이고, 2남 2녀를 두었다.



<사진 8> 김수열(남, 68), 장창환(남, 69)  
(06.08.11촬영)



<사진 9> 김수열(남, 68), 조보현(남, 61),  
장창환(남, 69) 외(06.08.11촬영)

#도찬리 전장포사람들이 새우를 잡을 때 하는 뱃소리

노래로 말하면 도로테 있고, 뽕작 있고, 도둑바 있고, 그런 거 하고 똑같애.

[저희가 방송국이 아니구요. 목포대학교에서 저는 연구교수로 있는데, 이렇게 찾아뵙는 이유가 저희가 전장포를 왔는데. 임자도] 그 전에 오신 분이요?

[2년 전에도 한번 다녀갔었는데, 저는 오지 않았구요. 그때도 한 차례 했었구요. 이번에 신안군에서 진도, 임자도, 지도까지 해서 전체 민속 문화를 조사해요. 그래서 아까 하신대로 소리를 담아놓지 않으면 또 자꾸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시면은 거리가 힘들어요.

[그런 소리도 담아놓으면, 전장포에 이런 소리도 있다 알게 되구요] 근데 뱃소리가 소리가 작업에 따라서 여러 종류거든. 작업에 따라 다 할 수는 없고. 잘 알도 못하고. 우리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이 알제. 빨리 노를 젓는 것도 있고, 급하게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 다 해갔는지? 교수님이. 다 잊어버렸제. 작년에, 2년 전에 해 갔어. 나한테 와서.

[그 상황을 저희보다 어르신들 너무 잘 아니까 일이 순서대로 해주셔도 좋죠. 출발하고, 오시면서. 일 종류대로.] 다 복잡하니 뵙을 수도 없겠소. 술 은근히 먹고 장구지고 하든 저 자동리에서 막 해됐기 문. 소리는 다 비슷해. 소리가 아주 여러 가지여, 뱃소리도. 그냥 평상시에 지내는 것을 말하면서 뱃소리를 해요. 뱃소리를 아무 일도 없이 물건없이 뱃소리 할 사람이 어딴것인가? 소리꾼 아니고서야. 일을 하면서 해야제,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나오겠는가? 그나저나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제. 그 전에 해버린 버릇으로 조금이라도 해서 보내야지. 헛조를 해야지. 일단 노를 저으면서 하든 더 좋은디. 노도 쌀쌀 젓고 할 때 있고, 써물이 역수에서 그냥 들어올 때 있고.

[한번 직접 연기 좀 하셔서 하면 더 흥이 나죠.] 형님은. 오늘 소리한 사람은, 사람은 10년 20년 후에 당신들이 가도, 소리는 영원히 남소. 몇백 년이 가도, 몇십 년이 가도. 리어카를 가지고 배를 만들까? 막가지가 있어야 하제? 그냥 냅두고. 소리만 해. 소리만. 안 보인다, 소리만 해야지. 순둥이네 배라도 있으면 좋을 것 아니냐? 다 준비 되었어? 잘 해가지고. 누가 처음에 시작하고 누가 후렴 하나. 혼자 해야지, 누가 대답하였는가? 촬영하고, 옆에 사람들이 후렴해 줘야지.

[아저씨, 일 하시느라고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담는 거니까. 잠깐만 여기 와서 돌려. 말하자면 옛날 풍선, 질 틀어낸게. 질이나 뭐냐든. 간조가 되었을 때 완전히 그물을 끌어올릴 때 하거든? 지금은 기계 모터로 돌려서 했는디 옛날에는 발로 손으로 감아 올려서 할 때 그 소리. 지금 시작을 한가?

어야디아 어야디아 어기여여차 어기여여차 우리 배 선원들 잘도나 간다  
썰물에 졌나? 든 물에 졌나? 안 아판 내물? 사천냥 이로우나  
우리 배 선원들 용기를 내서 빨리나 들어내세  
어야기야 어거야여차 어기여여차 어허허허 어거야여차  
어거야디아 어히야디아 어거야디야 어히야디아  
우리 내 동서들 잘도나 간다 가갈 짓 두렁 몸 건강하게  
재비나 잘하게 하여 주소 어허야디아

인자 요러믄 끝나고. 이 담에 장부재비를 한번 해볼께. 어떻게.

어허자차 어허야디아 어거라자차 어야디아  
사대 살이 끊어지도록 들어나보소 어야디아 어거야자차  
우리 배 선주님 찬 갖고 나오네 힘을 내서 뽕뽕 돌려라  
어허야 자차 어거야디아 어허자차 어야디아 어허자차  
우리가 우리가 고생을 했으니 참을 먹고 시작 허세

인자 요놈 끝났어. 인자 또 뭣을 해야 할까? 인자 노 짓고 간 놈 하쇼. 노 짓는 놈 해야지. 노 짓는 놈  
은 여러 가지여. 맨 침에부터 가다가 도로토로 하다가 나중에 지리뵈고 해. 살살 짓어라 할 때부터.

어햐디아 어거여어어어 어허여어 어거라디차  
어이디아 어햐디아 썩물 갑자기 돌아라간다  
거쪽에서 당겨라 요쪽에서는 밀고 어햐디아  
우리나 배는 잘 도나 간다 어햐디아  
고 짝은 당기고 이 짝은 밀고 어야디아  
우리나 배가 본산에 오네 어야디아  
어햐자차 화장 놔아 어서 나와서 도리를 잡아라

인제 배 닿았어. 도리 잡아 브렸은게. 인제 거즘 다 했어. 우리가 선원들이 한 잔 먹고 좋아서 일할

때 잇고. 그럴 때 찍어부러야제. 여러 가지여. 고기 얼큰해갖고, 저어저어어~한다. 막 잡아 넘어가믄 겁나. 술먹고 넘어가믄. 자네랑 나는, 사람은 10년, 20년 후에 가도, 뱃소리는 수천 년이 가도 남은 게. 민어를 겁나게 잡아부렀소. 한 잔 먹고, 일을 힘들게 할 때 뱃소리가 제대로 나오제. 앉아서 하라 하믄 잘 안 나와라. 장부재비 할 때는 한 잔 먹고 해택기믄. 어가 저가 어기차차 하고 뽕이 틀 때 어가 저가 어야 어야야차차 함서 때려야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꼴랑 꼴랑 소리 나도, 친지 모르고 내 풀 다 듬으믄. 그전에는 그랬거든? 다 뜯어놓은 놈 덩어리하고 딱 맞춰서 장부재비 하기는 어려워. 근디 한 묶음식 해버린 게 놀라제. 이것은 옛날에 젓 짬이 그물이에요.

[가래질 소리랑 그런 것은 없어요?] 가래 젓는 것이 노 젓는 소리여. 가래라는 것은 또랑 치면서 삽으로 이렇게. 그것은 지도 가서 해야 돼. 저 장부군들 많은 게. 그게 가래거든. 원칙이. 그 월 막는다.

[새우잡이에도 가래질소리가 있고 하던데?] 모르제. 지방마다 틀린 게.

[그물 퍼 올리는 소리도 해주셨어요?] 안 했어. 안 했어.

[그것도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팽 이런 종류여. 좀 늘어지믄. 얼큰해가지고 뱃소리 고개가 막 넘어가요. 어허 하면서 고개 넘어가는데. 술 안 먹고 한 게 그러지.

[이따 선원들 회식 한번 해주세요? 안돼요?] 팽 그 소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리가 안 끊어져. 계속 그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이 계속 목을 굴러가면서 그 사람이 다시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차코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받으믄, 저 사람이 받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허야저어 어허야저어거라차차 어허야저어 함서 궁글려 갖고 넘어가믄 미쳐븐디. 침부터 끝까지 목소리가 안 떨어져. 뒤에 어차피 받아서 하믄는 그 뒤에 한 사람이 계속 받아서 하니까 0.1초도 공간이 없어. 막 힘들어서 할 때는. 한 참 잡으믄. 참. 근디 여기서 앉아서 하니까 누가 잘 안 할라하고. 그 때만 해도. 바다에서 어장 하는 것, 그 하나가 다 말이여. 이어져. 팽 그런 종류께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로. 느리게 하다가 빨리 하다가 그런 과목이 다 있어. 그 물체가 있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해야지. 그 물체가 다 없어져블고.

[성함이 어떻게?] 김수열, 여기는 장채만씨. 이분들이 선주도 수십 년씩 했고, 배로는 최고. 이장님은 조보현. 조보진이라고도 하고. 조보현이요.

[김수열 할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예순 여덟.

[그리고 여기서 계속 태어나셔서?] 아니.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여. 여그 고향이 여그서 한 50년 가차이 산 게.

[그럼 태어난 곳은 어디세요?] 저 건너 섬. 지도 어의리. 전당포라 하제. 또 어의리 하러.

[장창환 이분도 어의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다 여기 사람이여. 다. 이북인데,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한 60년 이상 산 사람이고.

[그럼 태어난 곳은 이북이고? 이쪽으로 오시구요?] 나는 우리 자식들까지 5대, 6대가 산 사람이고

[그러면 이장님 연세가?] 육십 한살이요.

[장창환 할아버지?] 예순 아홉

[김수열 할아버지는 아저씨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라 해야지. 옛날 같은 증손자여.

[그럼 언제 장가드셨어요?] 스물 두 살에.

[그 이후로도 계속?] 응

[배는 언제 타셨어요? 계속 어렸을 때부터요?] 스물두 살 때부터 계속. 바다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택 전화번호가 어떻게?] 275에 6441요.

[휴대전화가?] 010 6660 6441

[이장님은 계속 여기 있구요?] 나는 5대차. 자식까지.

[그러면 여기는 입자면 도찬리라고?] 행정명은 도찬리고, 마을이름은 전장포요. 도찬리 전장포라 하든 돼요.

[이장님 택은 번호가?] 275에 3353이요. 018 260 3353이요.

[아까 장채만 이 분은?] 가만있어 보소. 275에 2500

[김수열 할아버지 자제분이 두셨어요?] 둘.

[형제?] 딸도 삼형제디, 한나는 먼 나라로 가고.

[그럼 5남매 두셨어요?] (창환씨는 몇 남매여?) 사남매, 2남 2녀.

[이장님은?] 나도 2남 2녀요.

[여기는 새우가 가장 전형적이죠? 전어하구요? 새우만?] 주목적이 새우고, 여기서 안 나는 것이 없어. 병어, 민어, 병치. 안 나는 것 없이 많아요. 철에 따라 잡아요. 병치 많이 낄 때는 병치를 많이 잡고. 또 민어 낄 때는 민어를 많이 잡고. 꽃게 같은 거 낄 때는 꽃게도 많이 잡고 그래요. 여러 가지 것 잡아요. 꼭 새우만 잡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엄청 고갈되어 가지고 근디 옛날에는 부사라고. 천 마리를 한 동이라 했어요. 근데 풍선을 타고, 하루 종일 두 동, 세 동을 잡았다고. 그렇다면 2천 마리, 3천 마리, 4천 마리를 잡았던 말이에요. 그렇게도 많이 낚았어요. 지금 인게 그러지. 이 아귀 같은 거, 꽃게 같은 거. 꽃게도 걸으로 알 뜯은 거 하나도 안 먹었어요. 다 버렸지. 그렇게 엄청 낚았어요.

[할아버지 아까 해주셨던 곡이 그 어떻게 하면서 하는 소리다. 아까 부르셨던 곡이?] 그런게 다 까

먹어볼제. 근게 기자님이 아까치메 할 때게 이렇게 해서 이 소리로 불러주쇼 해야 이렇게 부르제. 침엔 고기 잡을라고 어기를 들어올리는 소리. 그물을 올리면서 하는 거. 내중에 한 소리는 장부재비. 닳을 맨드는 것. 큰 옛날 나무 닳이 있어요. 닳 작업하면서 한 소리.

[그걸 다 만들었어요.] 우리 손으로 다 맨들었지. 세계에서 제일 큰 닳이야.

[닳을 만들면서 하는 소리 또?] 세 번했지? 노 젓는 소리. 가에 들어오면서 하고, 바다에서 나가면서 하는 소리.

[노 젓는 소리가요?] 노 젓는 소리도 맨 처음에 살살 젓을 때는 어어저어 하면서 하든 어허저허 하면서 한다. 한참 물이 싸게 들어올 때는 속도가 빠르게 그때는 빨리 자진가락으로 하고 그랬제.

[아까 해주신 거는 천천히 해주신 거예요?] 요 소리가 물이 막 조류가 싸여갈 때 빨리 나오제. 지금은 동력선인데, 그것은 도력이 없으니까 돌이 셋이 달려들어서 막 젓을 때는 자진가락으로 해. 그런게 팽 요 소리가 빨리하고, 늦게 하고. 시키는 사람이 이 소리해 주쇼, 이 소리 해 주쇼 하고 소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쪽 나가버려야 안 잊어버린다. 중간에 쉬면 까먹드라고.

[아까 고기 퍼 올리는 소리는 어떤 식으로?] 퍼 올리는 소리는 안 했지. 불고리 터는 소리나 해주쇼. 불고리 터지는 소리는 어허야 하르는 옆에서 디야 하고 그랬지.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그물에 저 꼬터리에 고기가 이빠이 찻을 때 꺼내는 거. 그거 꺼낼 때는 무거운 게 힘을 써야 한 게. 고기 꺼내는 거. 안에가 그물 안에 가 이빠이 차 버리니까 지금은 기계로 달아올리든 자동으로 쏘아진다. 전에는 손으로 다하니까. 그걸 틀 때 앞에서 양쪽에서 잡고, 뒤에서 소리를 한 게 힘들제. 어거야 하든 여허하고 그래. 그것은 간단해. 똥소? 어거야 저어 어거야 저허 어거야 저허차 이렇게 하면서, 그물을 쪽 들어주든 앞에서 딱 쳐갖고 불고리 나오는 거야.

[소리 들으면서 제가 참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 소리가 참 힘이 있어요. 맞춰서 일을 해내야 하니까요. 작업 순서대로 놓치지 않고 앉아서 하는 것이지만. 네 가지 해주신 것이잖아요? 고기 잡으러 그물 들어올리는 소리, 그럼 바다에 나가서 하는 거죠? 그럼 노 젓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들어올리고?] 그렇지. 그 소리가 제일 일변이어야 해요.

[장부재비라 해요?] 닳을 만드는데 장부재비. 그렇게 해갖고 소리를 안 빼먹고 싹 한다고.

[그럼 장부재비, 닳줄 만드면서 하는 소리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노 젓는 소리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올리는 거구요?] 네 번째는 고기 꺼내는 소리.

[그리고 다시 노 젓고 들어오는 소리요?] 팽 마찬가지여. 그물 내갖고, 내년엔 할라든 장부재비 새로 해야 한다? 선장마다 소리가 달르제. 지어서 하는 것이지. 제주 가락 있는 사람은 다 지어서 하는

거야. 상여소리라든지 뱃소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르는 주로 판 내대. 지도 판장에서 판 내는 거. 생선 파는 거. 오늘은 지도서 얼마, 일단 따라 하르는 것을 한 도람에 얼마 줘. 얼마 줘.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팔았는가 말로 다 해. 평상시에 하는 말을 다 해. 대강 그런 소리여. 가락을 넣어서 하는 것은 똑같애. 평상 우리가 하는 소리가 말을 만들어서 가락을 넣고 하는 것이여. 근디, 말을 만들어서 가락을 넣는 것이 힘들어. 재주가락 있는 사람은 암꺼나 지어해. 대강 그런 소리야

[오늘 좋은 소리 감사 드리구요.]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7	2006. 08. 12.	임자면 광산리 하우리	홍순일, 김현주	주옥순(여, 80)	모여 소리하며 놀기, <둥당애 타령>, <베짜는 소리>, <물레 돌리는 소리(실 빼면서 하는 소리)>, <일본 군가>	현지조사

### ○ 임자도 민요7

주옥순(여, 80)은 모여 소리하며 놀기, <둥당애 타령>, <베짜는 소리>, <물레 돌리는 소리(실 빼면서 하는 소리)>, <일본 군가> 등을 제보했다. <상사소리(모심는 소리)>는 에에에에허로 상사디요를 해보이고, <강강술래>는 마을에서 단체로 놀았다고만 말했다.



<사진 10> 주옥순(여, 80)(06.08.12촬영)

주옥순의 남편은 허영식(남, 80)이다. 친정은 대기리이고, 18살 때 시집 와서 술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회혼식을 한 지 4년 지나고, 예수교 장로회인 하우리 교회의 권사이고, 남편은 그 성도이다.

### #모여 소리하며 놀기

산다이는 일본말이고, 산다이라는 것은 왜정 때 돈 있는 사람이나 건달들이 화류계 기생들하고 노는 것을 말한다. 친구끼리 모여서 놀 때는 ‘놀자’라는 말을 쓴다. 주로 명절 때 많이 놀았고, 특히 각시 때 많이 성행했다. 평상시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여서 놀 때에는 술을 마시지만, 하우리마을의 부녀자들은 원래 술을 잘 먹지 않는다. 주옥순(여,

80)은 형제 8남매가 술을 천성으로 먹지 않는다고 한다. 놀 때 남자들은 같이 모이지 않는다. 대신 부녀자들은 남자들이 ‘건구’를 치는 동안에 곳을 본다.

보통 한 번 모임 때는 8-9명 정도이다. 대개 집에서 모이고, 산이나 강가로 가지 않는다. 장구 같은 악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문에다 대고 ‘활장구’를 친다. 쪼갠 3개의 살을 문고리에 대고 치면 장구칠 때 나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모여서 놀 때에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나, 그 자리에서 놀이를 하지는 않는다.

<등당애 타령>

큰 애기가 건방지믄  
신을 신어도 돈 반짜리

뎡기를 떠래도 유운갑다  
치매를 입어도 새로간대

일배 일배 접접 우리  
말끝마다 향내 난다

당기 등당애 등당애딩

<베짜는 소리>

베틀 노래 아가씨 사랑 노래 베틀 ???? ???이노라  
낮에 짜면은 이리 공단이요 밤에 짜면은 저리 공단이로다

<물레 돌리는 소리(실 빼면서 하는 소리) >

물레야 가락아 배뱅뱅 돌아라

남의 집이 귀동자 밤이슬을 맞는다

<일본 군가>

유게토 스스메토 유소라토이

쿄모 유케나라 쿠후데키다

아오요 타나모소 코노 히노유메모

오레또 오마에또 히노마루다

나한노 넷뿐다마 센님바래요

가께다 무네나라 테데끼다

아오요 라께라께 소레까라 타끼마

오레또 오마에또 히노마루다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8	2006. 08. 12.	임자면 광산리	홍순일, 김현주	최순엽(여, 76)	<아리랑타령>, <동당애 타령>, <모심는 소리>	현지조사

○ 임자도 민요8

최순엽(여, 76)은 여름에 많이 하는 <아리랑타령>, 겨울에 많이 하는 <동당애 타령>, <모심는 소리> 를 제보했다. 최순엽은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에서 태어나 19살에 시집와서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목포에서 60살 정도까지 살다가 92년 정도에 남편 고향인 임자도에 들어왔다. 90년도에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최순엽에 의하면 첫째, 진도와 임자도의 <아리랑타령> 에서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진도는 <아리랑 타령> 을 해도 더 느리게 하는데 반하여, 임자도는 그것을 해도 더 빠르게 한다.

둘째, 진도와 임자도의 <강강술래> 에서 노는 횟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진도는 명절에 따라 강강술래를 하는 정도가 다르지만, 임자도는 제보자 최순엽이 13년 전에 들어왔



<사진 11> 최순엽(여, 76)(06.08.12촬영)

는데 <강강술래> 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진도의 경우 설에는 노는 시기라서 일수를 정해 놓지 않고 판을 만든다. 7월 백중날에는 이틀 정도하고, 추석날에는 많이 하면 한 3일 정도 한다. 바쁘면 이틀 정도 한다.

셋째, 진도와 임자도의 산다이에서 노는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진도를 보면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어느 한 집을 선정하여 마당에 등불을 켜 놓고 논다. 모이는 수는 대중없이 10-20명까지 모인다. 특히 진도는 젊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지 않는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은 남녀 구분 없이 모여서 논다.

<여름에 많이 하는 아리랑 타령>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갈라믄 가고 말라믄 말았제

정든 님 버리고 어디로 갈까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세월아 봄 처라 오고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 간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운전 없다고 다 풀아 먹고 바가지 세월로 삼대차 내린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떠다 놓은 냉수도 변할 수가 있는데

여자의 ???은 변하지가 않으리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물 너매 달 너매 애 심겨 놓고  
호박 잎삭 너풀너풀 날 간장 녹인다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겨울에 많이 하는 동당애 타령>

예전에는 나무로 짠 통에다가 물 담아 놓고 바가지 얹어 놓고 손가락, 젓가락 장단을 맞추고 거기가 활을 태웠다. 미영 타는 활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타면 소리가 잘 난다.

동당애 타령은 아리랑 타령과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으나 ‘동당애덩’ 이 부분만 다르다.

동당애덩 동당애덩 덩기동당애 동당애덩  
동당애 타령은 그 누가 났냐 이웃집 큰 애기 ?? 났구나  
얼씨구 얼씨구 동당애덩 동당애당 동당애당 덩기동당애 동당애덩  
동당애 샘으로 물 질러 왔다가 ??? ??? 옆구리 다쳤네  
동당애덩 동당애덩 덩기동당애 동당애덩  
세월아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네  
동당애덩 동당애덩 덩기동당애 동당애덩

<모심는 소리>

여이허 여이허 여이허로 상사디요  
여그도 놓고 저그도 놓고서 두 방?심을 심어두소  
여이허 여이허이 여여이허로 상사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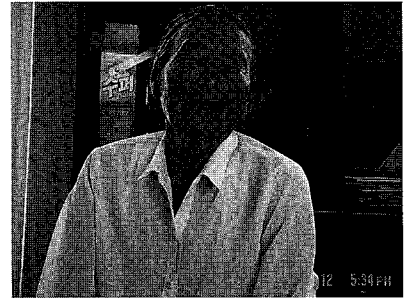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설화명	비고
9	2006. 08. 12.	임자면 대기리	홍순일, 김현주	오임(여, 87)	산다이	현지조사

## ○ 임자도 민요9

### #제보자의 삶

오임(여, 87)은 주로 친정인 삼두리의 놀이문화에 관해 제보해 주었다. 오임은 친정이 삼두리이고, 19살 때 혼인하여 4남매(3남 1녀)를 두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죽었다.

대기리는 삼두리보다 빨이 많은데 빨에서 게를 잡고, 송어, 민어, 병치, 오징어 등은 바다에서 사온다. 예전에 그물로 잡았다. 삼두리와 대기리의 풍속이 다르지 않고, 혼사를 많이 한다.



〈사진 12〉 오임(여, 87)(06.08.12촬영)

### #놀이

삼두리사람들은 잔치, 명절 때 모여서 논다. 산타이는 따로 있지만 해보지 않았다. 술, 밥, 떡, 김치, 젓, 고기(많이),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새발, (빨), 미나리 등 먹는다. 술은 막걸리, 소주 등이다. 오임은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안먹는다. 모심을 때 남자와 장난치고, 놀 때는 저녁 먹고 나서 간다.

진도아리랑, 등당에 타령, 흥글노래, 흥타령, 강강술래 등을 하면서 논다. 흥글노래는 외롭고 슬프게 나오니까 못한다. 강강술래는 청어썩고, 고사리썩고, 기와 밟고 한다. 기분이 나도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노래만 하고 놀이는 안한다. 삼두리에서 친구 따라 저동리에 가기도 하고, 저동리사람들이 삼두리에 오기도 한다.

한편 산에 가서 노래를 한다. 보리밥 또는 조가 든 오곡밥을 두 번 먹는다.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온다. 손자가 12살 때 아파서 죽었다, 그 이후 교회에 나갔다, 그렇게 된 지 20여 년이 된다, 오임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술을 안 먹고 말을 적게 한다.

### 3) 설화와 민요의 활용방안

시대상황면에서 신안군 임자도의 구비전승자원은,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기획력에 따라 시

가무가 융합된 이야기의 노래를 디지털방식에 의해 기록영상화해야 한다. 동시에 연행론적 공연방법에 의해 ‘현장의 현재적 상황’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구비전승자원은 ‘지역에서 세계로’의 문화전략상, 연구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문화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강의교재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축제항목의 연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구성원 구심의 사회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의 개요는 이렇다. 조사의 주체(조사자, 관련기관)는 홍순일(김현주·최유미)·도서문화연구소와 신안군이다. 특히 『도서문화』24(2004년)의 민요(나승만 외) 등 임자면 문헌조사 자료와 2004년 설화(이준곤 외) 등 임자면 현지조사 자료의 도움도 받았다. 조사기간은 2006년 1월-6월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조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조사지역, 체보자)은 전남 신안군 임자면 및 부속도서인데, 임자면은 진리장, 수도리장, 전장리장, 쾌길리장, 도찬리장, 삼막리장, 신명리장, 대기리장, 대흥리장, 구산리장, 교동리장, 화산리장, 장동리장, 광산리장, 하우리장, 재원리장, 필길리장, 원상리장, 삼두리장, 저동리장, 부동리장, 이흑암리장, 조삼리장, 화산리장 등 24개리이다.

조사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용역-신안군 임자면 및 부속도서 편>>민속·구비전승>의 목록, 해설, 활용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즉 서남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자원 조사 및 자원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구비전승물 중 설화, 민요 등을 주제로 한 것이다. 조사항목은 설화를 중심으로 설화 연행자의 생애, 설화사회, 이야기공동체 등과 민요를 중심으로 민요 소리꾼의 생애, 민요사회, 노래공동체 등이다.

조사는 문헌·현지조사방법에 따라 임자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임자면의 경우 『도서문화』24의 민요(나승만 외)를 문헌조사하고, 2004년 현지조사(이준곤 외) 설화자료를 참조했다. 조사는 보고(개발, 활용)의 동기가 크게 작용했다. 이전 조사 및 자원화의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허경희·이준곤, 「IV. 민속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2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1-압해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3.12, 162-192쪽.

#이경엽, 「IV. 민속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3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2-비금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3.12, 105-158쪽.

#이경엽, 「IV. 민속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4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3-흑산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3.12, 102-172쪽.

#이경엽, 「Ⅲ. 무형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5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3-도초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5.10, 89-219쪽.

#이경엽, 『Ⅲ. 무형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6집 『도서 문화유적 자료조사 및 자원화 연구 3-안좌·팔금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5.10, 88-250쪽과 285-342쪽.

이러한 조사결과는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청·도서민인 제보자에 의해 [해양·도서·연안]문화의 자체를 조사 및 자원화할 뿐만 아니라 도서민이 해양에서 연안을 오가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조사함에 따라 [강·마을·산]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상황면에서 신안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지명에 관한 이야기, 당산나무 이야기, 정서를 표현하는 이야기, 당산제를 지내는 이야기, 교회공동체 이야기 등이다. 특히 임자도사람들의 설화를 주제어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인물: 요술쟁이들이 많이 산 이야기, 박씨네 집안에서 장군이 될 아들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자 봉황이 내려간 이야기, 함양박씨 아이를 바다에 던져 죽인 이야기, 박가와 윤가 이야기, 열 부남양홍씨비(烈婦南陽洪氏碑) 이야기, 신영희 이야기, 화산마을 뒤 삼각산의 관암(冠岩)에 새겨진 존화양이(尊華攘夷) 이야기

#당·제: 머시매당과 가시매당 이야기, 단향제에 관한 이야기

#마을: 군마(마방촌) 이야기, 장등 이야기, 조삼리(鳥三里) 이야기, 대두포(大頭浦) 마을 이야기, 전장포에 관한 이야기

#꿈: 단선의 꿈 이야기

#터: 교동리의 묘저 터(오서관장 머서발복의 터) 이야기, 태둔산 성벽 밑 이야기

#용: 용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 용뚝병, 용오름

#바위: 벼락바위 이야기, 조삼리의 장사바위 이야기, 선바위 이야기, 가래바위 이야기, 두 개의 검은 바위와 ‘육바우 마을’ 이야기

#지명: 지리명칭(地理名稱) 변경 이야기, 전장포(前場浦)의 지명 이야기, 화산(華山) 지명 이야기, 회산(回山) 지명 이야기, 원래 명칭 광산리(鑛山里) 이야기, 마을 뒷산 부영산(復興山) 이야기, 하우리 지명 이야기

#지형: 연화도수 형국의 지형 이야기, 뒷산 혈 이야기

#섬: 임자도·진리·노도 이야기, 사도세자(思悼世子)와 관련된 수도(水島) 이야기, 돈도리(소작도)·만지도 이야기, 큰각시도 이야기, 고고리 섬 이야기

#산: 골(‘배미골’, ‘남생이골’, ‘안장골’)에 관련된 이야기, 바다소리가 들리는 동굴 이야기, 전장포 삼봉의 천리각시동굴에 관한 이야기

#산물: 벗(화염) 이야기

이처럼 임자도사람들은 인간의 자연을 통한, 사회적 인식과 형상의 복합을 위해 이야기하는 구비전승 활동을 해온 것이다. 즉 사람 사이의 인물의 사건을 말하고, 섬, 산(골·동물), 터, 바위 등의 자연물을 지형적으로 파악하여 이름을 붙이는 동시에 살아있는 용을 탄생시키는 이야기의 세계를 구현한 것이다. 또한 자연을 삶의 공간으로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사회를 유지시킨다. 그리하여 마을 중심의 당·제를 모시고, 먹고 살아갈 산물을 얻으며, 꿈을 이에 겨냥하여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전장포 사람들은 새우잡이와 관련한 태도·지식·기술을 이야기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신안사람들이 구연하는 삶의 노래는 노래문화로서 산다이(상례 중 달애),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소리꾼, 새우잡이노래 속에서 인생의 진솔한 표현 등이다. 특히 임자도사람들의 민요를 주제어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 산다이, 모여 소리하며 놀기

#태어나서 클 때: <애기어르는 소리>, <들강달강>

#새우잡이할 때: <전장포사람들이 새우를 잡을 때 하는 뱃소리> (장모쟁이 닳을 만들면서 하는 소리, 노젓는 소리, 고기를 잡으려고 어기를 들어올리는 소리, 고기꺼내는 소리)

#논농사: <모찌는소리(무한들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풍장소리>

#밭농사: <밭 매면서 부르는 소리>, <보리 타작 소리>

#베짜기: <베치는 소리>, <물레 돌리는 소리(실 빼면서 하는 소리)>, <물레질 소리>

#마을일: <다구질·수리조합·저수지 하면서 부른 노래>

#노래하고 춤추고 놀 때: <동덩애 타령>, <시집살이 노래>, <청춘가>, <창부타령>, <성주풀이>, <까투리 타령>, <노래가락>, <강강술래>, <아리랑타령>, <널리리아>, <베틀노래>, <방아타령>, <허랑타령>, <뱃노래>

#죽었을 때: <상여소리>,

#유행가: <일본 군가>

이처럼, 임자도사람들은 지역생활 속에서 자연을 접한 정(情)을 노래하기 위해 소리라는 구비전승 활동을 계속 해온 것이다. 산다이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생성된 용어이다. 즉 마을사람 사이에서 함께 모여, 소리하며 노는 공동체를 형성·유지해 오고, 개인적으로는 아기가 태어나서 클 때, 생업 관련해서는 새우잡이를 할 때, 또는 논농사·밭농사·베짜기를 할 때 소리했고, 마을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명절 등 큰일 후 노래하고 춤추고 놀 때, 사람이 죽었을 때에서도 그러했다. 마찬가지로 전장포 마을사람들이 새우를 잡을 때 하는 뱃소리는 뱃사람으로서 피땀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현재적 상

황'을 노래한 소리인 것이다.

임자도 민속의 놀이면에서 강강술래를 중심으로 노래공동체를 조사하고 자원화한다. 고문심(여, 69) 중심의 삼두리에서는 “춤도 추고, 강강술래한다고 막 놀고” 하는 상황을 추구한다. 노동면에서 새우잡이를 중심으로 노래공동체를 조사하고 자원화할 수 있다. 도찬리 전장포에서는 김수열(남, 68) 조보현(남, 61), 장창환(남, 69) 등이 <장모쟁이 닦을 만들면서 하는 소리>, <노젓는 소리(바다에 나가면서 하는 소리)>, <고기를 잡으려고 어기를 들어올리는 소리>, <고기를 꺼내는 소리>, <노젓는 소리(바다에서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 등이 있고, 이를 피땀나게 소리할 수 있는 태도·지식·기술 등의 연행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소금·젓갈문화와 관련시킬 수 있다.

이 작업은 민속의 관점에서 자연중심의 적응성이, 생태로 나아가는 생명성이, 바다로 나아가려는 의식이, 개방을 추구하는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게 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자연적 적응성, 생태적 생명성, 진취적 의식성, 개방적 다양성을 지닌 도서·해양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길인 것이다.

## ■ 부록: 임자도의 설화와 민요에 대한 사진목록 및 표 목록

### (1) 사진목록

#### ○ 임자도설화 사진목록

<사진 1> 하우리 허영식(남, 80) · 주옥순(여, 80) 부부(06.08.21촬영)

<사진 2> 광산리 최순엽(여, 76) (06.08.12촬영)

#### ○ 임자도민요 사진목록

<사진 3> 광산리 권복엽(여, 72) (04.06.29촬영)

<사진 4> 진리 장우상(남, 72) (04.06.30촬영)

<사진 5> 이흑암리 대머리 김광윤(남, 67) (06.05.11촬영)

<사진 6> 채원리 정칠복(남, 67) (06.05.12촬영)

<사진 7> 삼두리 고문심(여, 69) (06.05.12촬영)

<사진 8> 도찬리 전장포 김수열(남, 68), 장창환(남, 69) (06.08.11촬영)

<사진 9> 도찬리 전장포 김수열(남, 68), 조보현(남, 61), 장창환(남, 69) 외(06.08.11촬영)

<사진 10> 하우리 주옥순(여, 80) (06.08.12촬영)

<사진 11> 광산리 최순엽(여, 76) (06.08.12촬영)

<사진 12> 대기리 오임(여, 87) (06.08.12촬영)

(2) 표목록

<표 1> 임자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김광윤(남, 67)

<표 2> 임자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정철복(남, 67)

<표 3> 임자도민요 노래공동체의 민속문화정보 고문심(여, 69)

###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 1)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목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목록	조사일자	참고문헌		
민속신앙	당제	당제	임자면 하우리 도구당	2000.8.20			
			임자면 하우리 타리당	"			
			임자면 진리마을 진리당제	2004.6.28			
			임자면 수도리 수도마을 산제	"			
			임자면 대기리 대기마을 당산제	"			
			임자면 대기리 회산마을 당제	"			
			임자면 장동리 장동 당제	"			
			임자면 광산리 광산당제	"			
			어로신앙	뱃고사	임자면 재원리 재원마을 뱃고사	1987.7.4	도서문화
					임자면 삼두리 삼두마을 뱃고사	1987.7.5	
	뱃서낭	임자면 삼두리 삼두마을 뱃서낭	"				
	선기	임자면 삼두리 삼두마을 선기	"				
	용왕제	임자면 전장포 용왕제	2004.2.2				
	어로신앙	임자면 하우리 어로기술 및 신앙	2000.8.20				
	어업력	임자면 하우리 어업력과 신앙	1987.7.5				
	무속신앙	무속신앙	신안군의 무속신앙	"			
	장승	장승	임자면 대기리 대기마을 장승	"			
민속의례	상례	상여행렬	임자도의 상여행렬	"			
	밤달애	밤달애	이혹암리 및 장동의 다래	2004.6.28			
세시풍속	월별	월별풍속	정월(설, 정초, 대보름)	2006.7.25			
			이월(2월1일, 월중)	"			
			삼월(삼진날, 한식청명)	"			
			사월(초파일 등)	"			
			오월,유월,칠월(단오,유두,칠석,백중)	"			
			팔월(추석, 월중)	"			
			구월(중구 등)	"			
			시월(떡달 등)	"			
			십일월(동짓날 등)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목록	조사일자	참고문헌
			십이월	"	
통과의례	출산의례	출산	기자	2006.8.25	
			임신	"	
			출산	"	
			산후의례	"	
	혼례	혼례	약혼	"	
			혼례식	"	
			신행	"	
	상례	상례	임종	"	
			소다름(대렴, 소렴)	"	
			매장	"	
			흉제	"	
			초분, 독장	"	
	제례	제례	기제	"	
			묘제	"	
가신신앙	가신신앙	성주	성주	"	
		성주신앙	조상단지, 불그릇, 조상독, 성주동우, 성주단지	"	
		조왕신앙	조왕, 조왕단지, 조왕보세기, 조왕보상, 조왕할머니	"	
무속신앙	영화굿	성주굿	임자도 진리마을 성주굿	"	
	씻김굿	넋건지기굿	넋건지기굿	"	
		씻김굿	진씻김, 모른씻김	"	
	푸닥거리	동정잡이	동정잡이	"	
	민간의료	민간의료	민간의료	"	
유형문화	의생활	개관	의생활에 대한 설명	"	
		평상복 외	남자, 여자의 평상복, 작업복, 외출복	"	
		의례복	출산복	"	
			유아복	"	
			혼례복	"	
			상복	"	
			수의	"	
		바느질, 빨래	바느질	"	
			빨래, 다듬이질	"	
			염색	"	
		방직	베짜기	"	
			미영베의 종류	"	
			미영베의 세탁	"	
	식생활	일상식	밥, 죽, 김치 등	"	
		저장식품	간장, 된장 등	"	
	의례식	제례음식	청주 등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목록	조사일자	참고문헌
		명절음식	설, 추석 등	"	도서문화
		혼례음식	첫날밤 상 등	"	
		가양주	청주, 막걸리 등	"	
	향토음식	향토음식	밀개떡, 밀문지, 송편떡	"	
	주생활	안채	큰방	"	
			정재(부엌)	"	
			광	"	
			대청	"	
			모방(작은방)	"	
			정재방	"	
		부속채	사랑방	"	
			외양간	"	
			칙간	"	
			방앗간	"	
	기타	기타	모구부채	"	
			두데(거적)	"	
	가옥사례	가옥사례	임자면 대기리 구산마을 전복수 가옥	1987.7.5	
			임자면 대기리 구산마을 남면회 가옥		
			임자면 대기리 이순동 가옥		신안군의 문화유적

## 2) 민속신앙과 민속생활 현황

### (1) 당제

#### ① 임자면 하우리 도구당

당은 확실치는 않지만 하나뿐이었다고 하며, 7,8년 전까지도 당을 모셨는데 지금은 모시지 않는다. 과거 당을 모셨을 때는 주로 음력 2월 보름에 생기복덕을 봐서 제관과 제일을 정했다. 제일이 정해지면 마을 입구와 제관집 대문 밖, 당 주변, 검무산 기슭 골창에 있는 당샘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한 것의 근접을 막았다.

제관 선출 시에는 그 해 들어 개고기를 먹은 경우, 집안에 상을 당한 경우와 산모가 있는 경우, 부인이 월경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람은 피한다. 선출된 제관은 남자 2~3명으로 3개월전부터 부부간의 동침은 금기이며, 개고기 등을 먹어서도 아니 되며 매번 찬물로 목욕하고, 사흘전부터는 밥도 안

먹고 찬물만 먹는 등 몸을 정갈히 하려는 정성을 결코 늦추지 않았다.

제비는 집집마다 일정 금액을 거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개인이 당산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됨으로써 마을 전체가 단결할 수 있었다. 제비의 사용내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물로는 노무새(쌀밥), 석화, 백설기, 산과일, 순수나물(녹두, 취나물, 고사리, 백도라지)과 해물을 반드시 올렸다. 그리고 1950년대 초 타리 과시에 일본인들이 주를 이룰 무렵부터는 굴도 진설했다고 하난. 그 양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을 만큼 푸짐하게 장만했지만, 제 지낼 것과는 구분해 두었다. 제물을 장만할 때 사용하는 물은 당샘에서 길어온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 별도의 샘을 파서 길어다 썼다고 하는데, 이 샘물은 당제를 준비하는 데만 이용했다.

밤 10시가 되면 신성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당제를 모시러 뒷산으로 올라가는데, 생선도 많이 나고 배도 안정되기를 빈다. 깨끗한 사람들만이 위에서 음복을 할 수 있었으며, 당제의 마지막에는 소지를 올렸다.

영험담으로는 임자에 몸쓸병이 돌아서 사람이 많이 죽었을 때도 아랫섬에 당을 아주 정성껏 깨끗하고 신성하게 잘 모시면 병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한 기억의 편린에 현재의 고난을 실어보내려는 갈망이 이 마을에서는 얼마 전부터 당을 다시 모시자는 얘기로 분출되고 있다고 한다. 2000년에는 교회에서 풍어제를 교회 식으로 모셔준다고까지 했지만, 그들 식으로의 당제를 다시 모시려는 의지가 이를 막았다.

조사일시: 2000. 8. 20

제보자: 강훈일 (52. 남, 임자면 전장포리), 전관(64세. 남, 임자면 전장포)

장소: 전장포 민박집

조사자: 주장현, 이윤선, 이기복, 서경수

## ② 임자면 하우리 타리당

본래 타리도에는 당이 세 개 있었으며 모두 몇백 년이나 된 당목(참나무와 쪽나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당은 산꼭대기(“산봉대기”)에, 중당은 산 중턱에, 하당은 밭의 얇은 곳에 있었다.

제관은 2, 3개월 전에 깨끗한 사람으로 두 명을 선출하는데,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을 제주로 모셨다. 금기사항은 도구의 당제와 같다.

제일은 매년 일정하게 음력 정월 보름, 오후 4시에 상당부터 올라가 세 군데 당을 당 지내고 내려오

면 모두 끝나는데, 보통 저녁 7시쯤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식만으로 간단히 모셨던 것 같다. 제비는 집집마다 일정 금액을 거출했으며, 제물의 준비과정도 도구의 당제와 같았다고 하난. 타리도의 당샘은 상당·중당·하당도 아닌 밑에 있었으며, 당샘에 금줄을 항상 쳐놓고 평소에도 그 물을 못 먹었다. 하우리에 있던 제관은 금기기간동안 이 곳의 물을 길어다 썼다. 상당부터 올라가서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우리 동네 몸 편하게 잘살게 해주세요”라고 덕담하면서 절하고 빈다. 중당도 대동소이하다. 하당에는 쌀을 5, 6개 참종이에 싸서 바위 밑에 둔다. 제물은 별도로 안 차린다. 세 군데 다 지내고 내려오면 끝이다.

예로부터 무타리섬(소태이도)에 들어가면 덕을 못 본다고들 했다. 그만큼 금기를 지켰다. 개고기를 먹거나 생리중인 여자가 그 섬에 가면 지네가 부정한 사람을 둘러싸버린다고 믿었다. 개고기를 먹고 간 사람에게 보리똥 나무가 따라다니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당시만 해도 섬이 “영글었었다”고 그네들은 믿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 어른대까지만 해도 영대가 밝았다. 그러나 지금은 송장을 메고 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다음 같은 표현을 쓴다. “심령이 나가버린 것이다” “인공(한국전쟁) 때 나가버리고 영근 것이 없다.”

조사일시: 2000. 8. 20

제보자: 강훈일 (52. 남, 임자면 전장포리) 전관(64세. 남, 임자면 전장포)

장소: 전장포 민박집

조사자: 주장현, 이운선, 이기복, 서경수

### ③ 임자면 진리마을 진리 당제

정월 대보름날 제관이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면사무소에 있는 팽나무(당제 할머니)에 마을의 평안과 부사를 기원하는 당제를 지냈으나 6.25때 북한군에 의하여 당이 파괴되면서부터 지내지 않았다. 자식없는 사람들이 동반바위나 노거수에 기원한 후 자식을 얻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 ④ 임자면 수도리 수도마을 산제

마을 뒷산 중턱에 섬을 지켜준다는 선당이 있다. 이 당은 처음 입도한 봉씨가 선녀를 기다렸던 자리라는 전설이 있으며 이곳에 선당을 모시고 매년 정월 대보름에는 당산제를 올려 평안함과 풍년을 비는 풍습이 있었으나 30년 전에 폐지되어 현재는 지내지 않고 있다

임자도에 대한 자료에는 수도에 사도세자 단이 있다고 나와 있다. 단이 유림들의 활동과 연결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수도는 단이라기보다 당이라고 해야 옳을 정도로 당제를 지내고 있었다. 당이 수도에 자리잡기까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권씨, 임씨 어르신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분들이 83세인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와 살고 있는데 당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 내력은 그 마을에서 촌장이라고도 하는 어르신이라는 분이 꿈을 꿔는데 서울에서 사도세자의 아버지가(영조) 함에다가 철마를 넣어서 함 3개를 만들어 한강에다 뿌렸다. 함이 떠내려가서 하나는 경상도, 하나는 충청도, 하나는 수자가 붙은 지역으로 갔는데 수도로 갔다. 왜 함이 수자가 붙은 곳으로 갔느냐면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을 때 콩과 함께 뒤주에 갖혔는데 콩속에서 목이 말라서 관원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 관원이 물을 못준다 했다는 말을 사도세자의 아들이 듣고 너는 죽어버리겠다 했다. 그래서 함 3개가 물이 있는 곳에 떠내려 와서 수도에 왔다. 그 함이 떠내려가 닿은 곳이 고래구미였다. 수도지역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가운데가 동네가 있고 산고개를 넘으면 닿는 바닷가가 고래구미다. 고래구미에 닿은 함을 열어보니까 비단으로 싸인 철마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모시고 잔등을 넘어 암매생이라는 지역에 철마를 모시니 꿈에 이곳은 너무 춥다 해서 옆에 100미터쯤 떨어진 불넙재라는 지역에 모시게 되었다. 불넙재에는 바위가 있어서 그 밑에 모셨는데 그 곳은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 사람들이 왔다갔다 번잡스러워 꿈에 다시 나타나 200미터쯤 떨어진 당제라는 곳에 철마를 모시고 안치했다. 거기서 당이 되었다. 당제는 정월 보름날 당제를 지내고 헌물을 했다. 미황사의 이야기를 보면 당이 어느 마을에 자리잡게 된 이유와 절이 어느 마을에 들어서게 된 이유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절에 관한 창사설과 당에 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민속학적 입장에서 창사설화가 줄기라고 본다면 사도세자는 끼어든 가지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학적 입장에서는 사도세자의 한 많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자리잡게 되었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역사적인 시각과 민속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임자에 대한 전체적인 설화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을것 같은 기대가 있다. 수도하고 일본하고 연관을 짓기는 어렵지만 사도세자를 추모하는 유림들의 분위기가 당하고 사도세자 모티브가 연관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조희룡보다는 김평목을 생각해야 한다. 지도에 가면 두류산에 두류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다섯분, 단비라고하는 짧은단자 조그만 비가 있는데 위정척사 이항로나 김평목이 위정척사로 지도에 유배를 온다. 화상단을 세운사람의 후손이 김평목의 수제자다. 육지쪽에서도 지도나 임자도로 배우러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철마가 오는 것이 핵

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도세자이야기가 끼어 든게 아닌가 한다. 우이도의 철마는 최치원이 끼어든게 아닌가 생각한다. 우이도 상상봉의 철마, 월출산 천왕봉의 철마, 흑산도의 상라봉에 철마, 철마 신앙이 있는데 우이도는 최치원이 만들어 놓고 갔다드라는 끼어들기가 사도세자 끼어들기가 되었다. 왜 사도세자가 끼어들었는가 그런 맥락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안에 사도세자 모신 사당이 있다. 이쪽에 사도세자가 강한 것 같다.

조사일시: 2004. 6. 28~29

제보자: 전관(64세. 남, 임자면 전장포)

조사자: 이준곤, 이윤선

#### ⑤ 임자면 대기리 대기마을 당산제

마을 동쪽 당산동에서 매년 정월 보름날 밤 12시부터 마을 평안과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냈었다. 당산제가 끝난 다음날 모든 마을민들이 농악놀이를 하였으나 20여년 전부터 사라졌다.

#### ⑥ 임자면 대기리 회산마을 당산제

마을 뒷산에 초가집으로 된 당각이 있었으나 6.25때 소실되었다. 매년 정월 보름 새벽에 농사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당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내왔다. 6.25로 소실되고 폐지됨. 지금도 당각이 세워지면 당신제를 다시 모실 계획이다.

#### ⑦ 장동 당제

옛날에는 당제를 안모시면 안되니까 금년 보름에도 당제를 모셨다. 당할아버지 할머니께 제를 드리는데 한분은 이 마을에 있고 한분은 저쪽 회산에 있다. 장동과 회산 어느 곳이 당할아버지고 당할머니가 대해서는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대체로 장동이 당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장동에 있는 당할아버지 모신 자리는 회관 가는 오른쪽 밭에 있었는데 돌이 넓적바치럼 큰 바위가 있었다. 그곳에 검줄과 두대를 엮어서 치고 깃발을 하나 세웠다. 물론 부정한 사람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바위를 부르는 이름은 당제하나씨, 당제바위라 불렀는데 높이는 사람 가슴 높이로 옛날 고인돌 모양으로 생긴 큰 바위다

제를 모시는 사람을 제주라고 한 분을 모셨는데 제를 모실 때는 깨끗한 사람으로 책정해서 안주인

은 장만을 하고 제주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제를 지냈다. 산 올라가는 곳에서 나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떠다가 목욕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제를 지냈다. 제주는 마을에서 제 올리기 3일 전에 선정을 하는데 유사가 다 정해져 있었다. 제비는 옛날에는 동답이 있어서 동이 경작을 해서 소득을 올리면 거기서 선제를 받아서 마을에 제공을 했다. 제보자가 어렸을 때 동답은 밭이 500평 정도였는데 중간에 사서 또 모은 것도 있었다.

회산과 장동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할아버지랑 당할머니가 각각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장동에서는 당할아버지께 회산에서는 회산마을대로 당할머니께 제를 모시는데 서로 오고 가지는 않고 별도로 제를 모셨다.

회산에 있는 당집은 당집, 또는 당사라고 불렀으며, 천막처럼 집이 지어져있었는데 그 안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축원했었다. 지붕은 기와가 아니라 널초가 형태였다. 안에는 그림이 걸려 있다든가, 향아리 같은 것은 없고 텅 비어 있었는데, 묘지에 가면 마루 있듯이 토방 그런 식으로 선반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셔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당할아버지 당할머니가 어떻게 이 마을에 좌정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 밀대라는 것으로 마람을 엮은 것을 두대라 했는데 제 지내기 5~6일 전에 말뚝을 박지 않고 바위 들레에 둘러놓는다. 그렇게 되면 바위를 전부 가리게 되어 밖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된다. 제주는 3일 전에 정결하게 하고 집에서 기거하다가 1월 14일 12시 이전에 제를 모시러 두대로 둘러싸인 당으로 간다. 제는 마감하는 시간을 12시로 기준하여 지낸다. 제가 끝나면 제주는 집으로 돌아가고 날이 밝은 후에 두 대를 걷고 차린 것을 거둔다. 그 후 바위에 검줄을 쳐놓는다.

두 대를 떼어낸 다음 농악을 치러간다. 오전 11시 경 당제 하나씩 있는 곳으로 금고치레를 해서 금고를 치러간다. 동네 금고를 치는 사람들이 금고를 치면서 당제 하나씩 있는 곳으로 가서 절도 올리고 술도 올린다. 당제 하나씩 앞에서 금고치는 것을 당제굿이라 하고 건물은 없지만 당사굿이라고도 했다.

회관에다가 군고를 차려 놔뒀다가 보름에 당제 지내고 나면 군물을 채고 상쇠가 시작하면 당에 가서 굿치고, 절하고, 그 후 썸굿이라고 우물에 가서 절하고, 굿치는 절차로 당제가 진행된다. 그 후 회관에 와서 다시 굿을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 모아서 먹고 집집마다 걸립을 다닌다. 걸립은 마을 자금 모금을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당에 치고, 부엌에 치고, 그 해 농사 잘 되라고 창고에 치고, 썸이 있으면 썸에 가서 치고 돈도 걷는다. 그 돈을 모아서 부락 자금으로도 쓰고, 농약기가 망가지면 농약기도 산다. 회관에서 길굿을 치고 나오다 집에 문전에 들어서면서 쇠가 가락을 바꿔 문굿을 친다. 마

당을 몇 바퀴 돌면서 곳을 제대로 일어서 재밌게 노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면 그 가정 주인이 먹을 것을 장만해서 내놓고 그 음식을 먹고 한 번 놀게 된다. 마당에서 논 다음 부엌으로, 우물이 있는 곳은 우물로, 다음에는 창고로, 장독대로 간다. 굿 수가 많아야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는데 15일에 시작해서 바쁘면 빨리 쳐서 2일에 끝내고 한가할 때는 3일간 은 간다. 그렇게 한 2~3일 오전 10시, 11시 경에 시작을 하면 곳을 치다가 밥을 먹게 되고 놀다보면 12시 안에도 끝나고, 12시 넘도록 1시, 2시 까지 놀 때도 있다.

2월 초하루를 하루달이라고 하는데 보름에 바쁠 때는 한 2일 치고는 하루달에 치자고 몇 집을 보류 시켜놨다가 하루달에 친다. 대개 마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저녁에 많이 치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회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끼리 한다. 옛적에는 여기서 그리로 가거나 장동으로 같이 합세해서 할 때도 있었지만 대개 마을 자체적으로 걸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혹시 면에서 요구할 때는 잘 치는 마을 선정해서 나가서 찢고 서로 실력을 겨루거나 시합을 하지는 않았다. 곳을 칠 때 부잣집이거나 마당 넓은 집에 가면 구경꾼이 많아 더 치기도 좋고 재미가 나서 곳을 쳤는데 따로 부르는 이름은 없었다.

옛날에는 포수와 남자가 여장을 해서 춤을 추기도 했다. 포수는 털달린 모자를 쓰기도 하고 나무로 만든 목총을 가지고 총쏘는 흉내를 내면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무엇을 잡는다는 식의 흉내를 냈었다. 남자가 여장을 해서 춤추는 경우에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얼굴에다 박천지(박첨지를 이르는 말로 보임)라고 허수아비같은 식으로 깎대기에다 눈, 코, 입을 그려서 노끈으로 귀에다 걸어 썼다. 박천지는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얼굴에 가면을 쓴 놀이꾼을 말한다.

조사일시: 2004. 6. 28

제보자: 정영진(남, 1936생) T. 262-3204

조사자: 이경엽, 송기태

### ⑧ 광산리 당제(금고)

본래는 금고라고 불렀으나, 근래에는 농악이라고 부른다. 금고는 주로 명절 때 치게 되는데 가장 크게 칠 때는 설이고 추석이나 정월대보름에도 쳤다. 대부분 당제들이 없어졌지만 광산리는 작게나마 당제를 모시고 있는 마을에 속한다. 옛날에는 정월 보름 14일날 저녁에 당제를 모셨다. 당할머니를 모시는데 당할머니는 큰 소나무 바로 옆에 조그만 비석으로 서 있다. 원래는 당 자리가 다른 곳이었다고

한다. 현재 자리에서 당할머니를 바라볼 때 좌측으로 500m쯤 떨어진 곳이 본래의 당터라고 한다. 당을 폐쇄했다가 다시 설당하려고 하니까 산주들이 자기 집 옆이라고 자기 산에 세우지 말라 해서 당할머니를 옮겼다고 한다. 당할아버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옛날부터 당할머니 한 분 뿐었다고 기억한다. 새로 옮기면서 높이 1m가량, 폭이 30cm가량, 두께가 15cm로 토석을 만들었는데 한글로 당할머니라고 새겼다. 옮긴 것은 약 15년쯤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제는 매년 모셔왔는데 마을에 유사가 제를 마련해서 제를 모신다. 유사는 매년 새로 뽑는데 제보자도 30여년 전쯤에 유사를 했었다. 유사는 당제를 모시기도 하지만 마을회관을 관리하기도 한다. 유사할 때 부인은 제사음식을 장만하고 당제를 지내러 당에 올라가야 한다. 물론 여자도 함께 당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유사는 매년 돌아가면서 말는데, 근래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지금은 제 지낼 준비를 2,3일 전부터 하지만 옛날에는 제를 지내기 약 일주일 전부터 당 모시는 곳을 청소하고, 금줄치고 황토를 뿌려서 부정할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유사집도 마찬가지로 집 밖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불길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물론 유사는 목욕재계하고 부인하고 잠자리를 하면 안된다.

음식 준비는 2,3일 전부터 장만한다. 입자도에는 장이 없어서 지도까지 돛단배를 띄워서 장을 봐왔다. 제물은 동태 등의 해물, 과일, 조기, 채소, 콩나물, 고사리, 삼채나물, 떡은 옛날부터 백설기를 했다. 밥까지 모든 제물을 집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그릇은 집에서 쓰던 깨끗한 그릇으로 쓴다. 장을 보러갈 때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실 제물을 사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꺾지 않는다는 설이 전해온다.

지도 장은 음력으로 3일, 8일 장인데 보름 준비를 위해서는 3일장을 보러 간다. 음식을 장만해서 14일 저녁에 아홉시 넘어서 인적이 뜸해지고 조용해지면 음식을 지계에 꿰어지고 두 내외가 올라간다. 상을 차릴 때는 우리 제사 차리는 것처럼 진사라는 것으로 차리는데, 메는 할머니 한분이니까 한 그릇을 차린다.

제 모시는 순서는 삼작의 순서로 한다. 매 회 술을 올릴 때마다 재배를 한다. 독축 대신에 구축으로 한다. 제보자가 기억하는 구축은 다음과 같다.

“당할머니 우리 마을에 일년 농사 잘되고 좋은 아무런 피해 없고 마을에 평안하고 나간 자식들도 아주 태평하고 무사태평해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해주기를 좀 보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작 중 첫 잔을 따르고 재배한 후 구축을 하고, 다음 잔 부터는 술 따르고 재배만 한다. 축이 없으므로 소지가 없이 제는 간단히 10시 경에 끝난다. 제가 끝나면 집으로 간다.

광산의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 15일 아침에 오곡밥을 해서 상을 차려 차례를 지낸다. 작은집이어서 소양이 없는 집에서는 밥만 차려놓는 경우도 있다. 15일이 되면 오전 9시 경 동네사람들로 구성된 20여명의 금고들이 유사집에 모여 굿을 이뤄 길굿을 치면서 맨 먼저 당으로 가서 “우리 굿한 번 칠랍니다.”하고 당할머니에게 용서를 받아 당굿을 치고 인사도 한다. 쇠는 보통 둘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셋으로 구성할 때도 있다. 맨 앞에는 상쇠, 종쇠 순으로 섰다. 그 다음에는 징, 장고, 방구, 상소고, 소고 순으로 섰다. 장고는 혼자도 치고 둘이도 했다. 방구가 한분, 상소고 한분, 소고는 5~20여명 이었다. 당굿이 끝나면 다시 유사집으로 와서 술 한 잔씩 하고 집집마다 마당밧기를 한다. 각 가정에 가서는 우선적으로 썸굿을 먼저하고 정기굿을 치고 돈을 모금하는 모금굿인 천구굿을 친다. 이렇게 가정마다 마당밧기를 하다가 동네샘이 나오면 샘에서 썸굿을 친다.

금고는 보통 구정 때 2,3일 치고, 보름 명절에 2,3일 치고 하루달 명절에 나머지를 다 친다. 마당이 좁은 집은 그냥 거쳐나오고, 마당이 넓은 집에서는 더 놀았다. 금고는 고깔을 쓰고, 금고를 총 지휘하는 대포수가 있었는데, 술이 나오면 그 집안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지붕에다 술을 뿌리면서 고사를 지냈다. 금고 때는 남자가 여장을 해서 웃기기도 하고, 굽사시늬를 해서 웃기는 경우도 있었다. 술을 먹다가 흥이 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와서 춤추고 놀고 웃는다. 제보자의 부친 임봉대씨가 상쇠를 하다가 돌아가시자 제보자의 형님 임동혁씨가 상쇠를 물려받았고 형님이 돌아다시자 제보자가 상쇠를 받았다. 밑에 동생 임성만(70세, 남)은 장구를 친다. 임봉대씨가 상쇠를 할 무렵 작은아버지인 임봉섭씨는 장구를 하는 등 집안이 모두 악기를 했다. 이 동네에는 임씨가 14호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친, 형님들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었다.

조사일시: 2004. 6. 28

제보자: 임동복(남, 76, 입자면 광산리)

조사자: 이경엽, 송기태

## (2) 뱃고사

### ① 입자면 재원리 재원마을 뱃고사

입자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9km 떨어진 곳으로, 광산리 하우마을 포구에서 배를 타고

약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재원도가 있다. 재원도에는 임자면 소재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재원마을이, 그리고 이 마을 뒷산인 아미산의 큰 재를 넘어 예미마을이 있다. 재원리라는 행정상의 리에는 재원도와, 이 섬에서 약 8km 떨어진 부남군도가 포함된다. 마을 앞쪽에 어선이 정박하는 포구가 펼쳐져 있고, 포구에 나란히 술집·다방·여인숙들이 늘어서 있다. 과거에 5월 초순에서 8월말까지 병어·부서·민어 등의 파시가 열려 300척의 배가 이 마을에 정박하는 등 대단한 번성을 누렸던 적이 있다. 술집 등의 영업소들은 이때 들어선 것이다. 그런 현재는 어획이 좋지 않아 파시가 형성되지 않고, 이 마을 어민들이나 이따금 정박하는 외지 선원들이 이 영업소들을 찾을 뿐이다. 이 마을은 바다에 접해 있으나 약 10호의 가구들만이 낭장망·유자망·연승의 배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농업, 반농반어 형식의 뱃일을 하고 있다. 포구에서 상업을 하는 가수도 10호 가량된다.

주민들이 재원도 근해에서 잡는 대표적 어류로는 4·5월에서 7월말까지의 게, 7월 하순에서 9·10월까지의 민어를 들 수 있다. 한편 2월부터 약 한 달 간은 원해에서 농어잡이를 한다. 새우는 재원도 근해 치마도의 ‘치마도 밖골’이라는 바다에서, 그리고 노독도와 재원도 사이의 바다에서 잡고 있다. 그리고 민어는 재원도 동쪽 ‘재원앞’, 남쪽 ‘재원문턱’, 남서쪽 ‘치마도안골’, 서쪽 ‘노리기 둥벙’이라는 바다에서 주로 잡는다.

뱃고사에는 출어 고사, 명절 고사, 배내리기(진수) 고사가 있다. 출어 시 지내는 출어 고사는 열무새, 서무새날 밀물이 들어와 조류가 어느 정도 잔잔해졌을 때에 거행된다. 명절고사는 상원·추석 등 세시에 지내는 고사로, 모든 고사 중에서 상원의 고사가 가장 성대하다. 배내리기 고사는 말 그대로, 배를 사거나 새로 건조하여 진수할 때 지내는 고사이다. 근래에는 목포에서 배를 건조하여 갖고 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수하는 고사는 없다. 이 고사들 중 출어고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어고사는 열무새, 서무새날 가장 많이 행해진다. 원칙적으로 선주가 고사를 주관하며 선주에 부정이 끼었을 경우에는 선장 혹은 선원의 우두머리가 주관한다. 다만 어획이 지나치게 빈약할 경우, 혹은 사고가 잦을 경우에는 무당을 데려다가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제주가 될 선주는 고사날 자신의 일진을 보고 그날 일진이 나쁘면, 선장이나 선원 우두머리의 일진을 보고 그를 제주로 선정한다. 제주가 된 사람은 그 후부터 가정에 상·출산이 없고 가족원중 월경하는 이가 없어야 하는 등, 온갖 부정을 없이 해야 한다.

선주는 제물로 쓰이는 어물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출어 시 첫 어획에서 잡힌 크고 귀한 것을 선택하여 배에서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둔다. 조기가 가장 상서로운 고기라 하여 조기만큼은 반드시 제물로 마련해 둔다. 반면 갈치·장어·홍어·가재미 등은 절대로 제물로 올리지 않는다. 이 고기들은 비늘

이 없어 여느 어류에 비해 비정상적이고 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갈치·장어는 몸체가 길어 뱀을 연상시킨다 하여 기피된다.

고사 시, 우선 뱃서낭 앞에 상을 차리고, 고물·이물 순으로 상을 차린다. 그 후 제주가 각 상마다 술을 한잔씩 붓고 재배를 하는 간단한 절차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각 상에 놓인 음식들 중 일부를 떼어 바가지에 넣고, 고루 섞어 바다에 뿌리면서 용왕에게 헌식을 한다. 헌식 시에는 “사고없이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구두의 기원이 행해진다.

조사일시 : 1987년 7월 4일 7시 40분~16시 30분

제보자 : 최삼봉(남48세, 본관 경주, 선원경험)

## ② 임자면 삼두리 삼두마을 뱃고사

삼두리는 면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6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리의 동쪽에는 삼각산(해발 412m), 북쪽에는 불갑산(해발 224m)이 가로놓여 있고 남쪽에는 저동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이 마을은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바닷가가 펼쳐지는 전형적인 배산임해 마을이다. 1987년 현재 총 101호에 주업이 농업인 가구가 76호 어업인 가구가 25호이며,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로 쌀·보리·마늘·양파·고추 등을 들 수 있고 어업에서는 새우잡이와 어패류 채취, 그리고 민어잡이가 주종을 이룬다. 이 중 새우는 5·6월에 가장 많이 잡히지만, 그외 가을에는 생새우와 겨울에 김장에 쓰이는 동백하도 많이 잡힌다. 한편 삼두리 앞바다에서 잡는 민어는 품질이 좋아 성가가 높다.

뱃고사는 정월 대보름, 추석 등의 명절 때, 첫 출어시, 그리고 물 때에 맞춰 지낸다. 이중 음력 정월 보름에 지내는 고사가 가장 성대하다. 물 때에 맞추어 지내는 고사는 서뫼날(음력 매월 12일·27일)과 너뫼날(13일·28일)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는 첫 출어 시의 고사를 살펴본다. 뱃고사에서는 선주가 제주가 되고 그는 부정을 막기 위해 몇 가지 금기를 지켜야만 한다. 즉 제주의 가족원 중 임신·출산한 사람이 있으면 제주는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개고기나 상한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하며 상가에 출입을 삼가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금기를 어기면 부정을 타게 되어 상처투성이 고기들만 잡히는 등 불길한 일이 연속되고 불운이 따른다 한다.

뱃고사를 위해 제주의 집에서 장만하는 제물을 보면, 우선 메·주가 준비되고 육류로 돼지머리나 닭이 준비된다. 다음 해물로는 부서·민어 등이, 나물류로는 콩나물·녹두나물·도라지·더덕·고사리 등이 준비된다. 제물 중에서 바다고기는 출어 후 처음 잡힌 고기 중 크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배안이나 집에서 말리거나 소금에 절였다가 사용한다. 한편 바다고기 중에서도 절대로 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장어나 갈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물고기들은 비늘이 없고, 몸이 뱀처럼 생겨 여느 물고기에 비해 비정상적이며 불길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뱃고사는 낮에 밀물이 들어찬 만조 시에 거행된다. 이에는 밀물처럼 밀려와 가득차라는 유감주술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제주는 제 전에 몸을 깨끗이 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큰 배일 경우 ‘화장(주방장)’이 젓상을 배 위의 서낭 앞·기관실·이물 순으로 세 군데에 차린다. 진설 후에 제주는 헌작·재배하고 “서낭님 아무튼 우리 배 무사하게 해주시옵고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한다. 뱃서낭 앞에서 고사가 끝난 후 제주는 쌀을 바다에 뿌리면서 “유왕님(용왕님) 물 묻는 쪽박에 깨 들어 붙듯이 고기 많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축으로 바다 용왕에게 기원한다. 그 후 뱃고사에서 남은 제물은 ‘헌식’이라 하여 음식마다 약간씩 떼어 육지에 놔둔다. 주민들은 이 음식을 개나 돼지가 먹으면 바다 사정이 좋고 풍어를 이루게 된다고 믿는다.

---

조사일시 1987년 7월 5일 8시50분 9시 40분

제보자 : 최병암(남47, 본관 경주, 반농반어)

### ③ 임자면 삼두리 삼두마을 뱃서낭

배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배의 안전과 풍어를 관장하는 뱃서낭을 배의 선장실에 모셔 놓는다. 이 뱃서낭은 배를 만들 때 선주의 꿈에 나타난 신격에 의해 그 성이 결정된다. 즉 꿈속에 여자가 나타나면 여서낭, 남자가 나타나면 남서낭이 뱃서낭이 된다. 현재 이 마을에서 남서낭을 봉안한 배는 없고 모든 배가 여서낭을 모시고 있다. 여서낭을 모시는 작은 상자에는 여자의 물품인 삼색이나 오색 형 겹, 그리고 삼색이나 오색실, 바늘, 참빗 등을 넣어 둔다.

### ④ 임자면 삼두리 삼두마을 선기

배를 축조하였거나 구입하여 처음 출어할 때 뱃고사를 지내는데 이 때 이웃과 친족원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뜻으로 기를 증여한다. 기는 삼색 또는 오색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4자(척) 4치(촌) 6자

6치 등 짝수의 치수에 따른 것이다. 이점이 다른 지역의 기들이 홀수치에 따른 것과 상반된다. 기에는 ‘풍어’, ‘대풍어’, ‘대어’라고 적혀 있고 기를 증여한 사람의 이름과 배 이름도 적혀 있다. 고사를 지낼 때부터 그 후 하루 정도 지날 때까지 이 기들을 걸어 두었다가 걸어둘여 서낭 옆에 보관한다. 한편 만선일 때는 기들을 모두 내걸어 만선을 알리고 풍물을 치며 기쁨을 나눈다.

#### ⑤ 전장포 용왕제

풍어제가 옛날부터 있다가 멩텅구리배가 없어지면서 공백기였는데 동력선을 하면서 다시 시작해서 올해 5년째 풍어제를 올린다. 음력으로 정월 12일날 세마날 풍어제를 지낸다. 옛날부터 세마날은 풍어제를 지내지 않더라도 술이라도 따라놓는다. 사리를 시작하는 날이 세마날인데 사릿발이 시작된다는 뜻에서 세마날 풍어제를 지낸다. 정월 12일 이니까 한 해 첫 세마날 풍어제를 지낸다. 원래는 무안보살 등 여러 보살들이 왔었는데, 올해 오신 분은 목포 양동에서 사는 황보살이 5년째 오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축이 안 되니까 잘 모른다. 제비는 각출을 하거나 전장포나 이 근처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장만을 했다. 농약을 하면 10만원, 20만원 등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추워서 농약을 못했기 때문에 각출을 하게 되었다. 농약은 마을 주민들이 치는데 상쇠는 나이 드신 농약을 잘 아는 분이 하고 나머지는 젊은 주민들이 한다. 상쇠는 천안여인숙 장일택씨(약 70세)씨가 맡아서 했다. 농약을 정월 하룻날 오후부터 해서 용왕제할 돈을 마련했다. 옛날부터 이 제의 명칭을 용왕제라고 했다.

둘째거리. 11시 44분 돼지머리 바치러 가는 과정 12시 35분에 점심식사후 곳에 들어갔다. 현지에서 만난 전장포에서 나고 자란 전관씨(64세. 남)에 따르면 옛날에는 풍어제가 없고 당골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큰 곳이라고 해서 백경형태로 곳을 했었다고 한다. 한 집에서 하루 저녁으로 했는데 하루에 두 집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월 초이틀부터 정월 15일까지는 곳을 했었다.

조사일시: 2004. 2. 2.

제보자: 강훈일(52. 남, 임자면 전장포리 어촌계장)

조사자: 이윤선

#### ⑥ 어로기술과 신앙-임자면 하우스리(타리도 파시)

제보자의 할아버지 때, 약 1800년 후반에는 세발낙지를 이끼로하여 낚시 하나에 끼워서 낚시로 민어를 낚았다. 작은 배와 관련된 어로기술은 주로 낚시 방법이다. 재원도나 타리도 파시에 관련했던 사

람들은 민어를 아주 순한 고기로 인식을 한다. 어획이 쉬웠다는 것과 물량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어는 바위밑이나 그늘을 좋아한다. 또 여가 있는 암초등지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타리 부근은 수심이 깊어 민어서식량이 많았다. 임자도 사람들은 민어가 바다밑 물고기라고 표현한다. 민어 뱃속에는 주로 새우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전장포 앞바다의 새우서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타리도 파시에서는 빠지선(철선)을 띄워 소금으로 간을 했다. 한편으로는 얼음을 사용하기도했는데, 보편적으로는 일제 이전에 소금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제 말기에는 얼음을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얼음은 일본에서 우송해 온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선박은 일본사람들이 운영을 했고 소금으로 절인 민어를 일본으로 우송했다.

배는 기계배와 풍선이 같이 쓰였는데, 기계배의 주인은 주로 일본인들이었고, 임자도를 비롯한 한국인들의 배는 풍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타리파시에는 정권씨까라 불리는 1명이 객주를 담당하였으며 자본주였던 일본인들의 일본수산물 합과의 사이에서 중개 등의 교량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타리파시 이후부터 주낙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60년대의 재원파시에서는 그물로 민어를 잡기 시작하였다. 처음그물은 명사그물을 사용하였다. 나이롱 그물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선주의 재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50년대 하반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물로 어획을 할때는 물이 만조되기(찬비도리라고 한다.) 한 시간 전에 바다로 나가서 만조되면 그물을 걷는데, 하루 한번 꼴로 그물을 본다. 두자 두치짜리 그물을 원그물이라 하고, 세치 오피짜리 그물을 사용하면서부터 큰 고기는 잘 잡히지않았다. 어획량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는 네치 오피짜리 그물을 사용하는데, 옛날 타리파시나 재원파시의 상황을 감히 생각할 수는 없다. 민어는 한충이라고 하여 37킬로 500을 저장하는데, 약 25마리 정도가 된다. 한편, 지금은 <삼마이> 그물은 쓰지 않는다. 즉, 변화과정은 낚시로 잡다가, 주낙으로 발전하였고, 명주그물로, 또 외그물로 발전하여 <니마이> 단계로 나아갔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약 1990년 전후부터 민어가 잘 잡히지 않아서 민어 어획이 잠시 주춤했다가 현재는 소수량을 잡고 있다고 한다.

민어는 6월에 산란을 하여 8월 보름살에 나가기도 하고 7월말에 나가기도 하는데, 그 이듬해 다시 들어온다. 초봄부터 들어오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민어가 약 10킬로 정도의 큰 민어들이다. 그 이후 들어오는 것은 중간정도 그리고 여름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크기가 작다.

민어철이 끝나면 상어잡이를 시작했고 겨울 한철은 휴식을 취한후 봄부터 홍어잡이를 했다. 상어도 옛날에는 주낙으로 잡았다. 참상어는 보통 300근이 나갔다고 하는데, 한발정도의 철사로 낚시를 만들

고 굵은 철사로 개줄처럼 고리를 만들어 낚시와 연결하였다. 상어의 이빨과 크기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상어는 시커먼 점이 있는데, 임자도 사람들은 이것을 점백이라고 부른다. 이 상어은 젓을 담아 먹기도 한다. 먼저 소금간을 했다가 간기를 빼기 위해 맑은물에 우려서 회로 먹기도 한다.

주낙으로 민어를 잡을 당시 제일 많이 잡은 사람에게는 천원기(현재 shit가로 일억정도라고 마을사람들은 주장한다)를 해줬다고 한다. 민어철이 되면 민어우는 소리가 대단히 요란스러웠다고 하며 대나무 통을 사용하여 듣기도 하고 그냥 듣기도 하였다고 한다.

타리파시가 서던 모래사장 건너편으로 타리도와 소태이도가 있는데, 소태이도 중간에 독살이 있다. 지금은 명확한 형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독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재원도, 타리도부근의 해류는 남쪽, 북쪽으로 들물, 썰물 이동을 한다. 다시말해 무안군과 접해 있는 전장포 부근은 썰이 많고 재원도와 타리도 부근은 서해쪽으로써 모래가 많다.

물때를 세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지 않다. 무시, 한물, 두물 …… 열물, 열한물(한 개끼), 열두물(대개끼), 개끼(소개끼), 아침조금, 한조금 순으로 순환한다.

바람은 북쪽을 하늬바람, 남쪽을 마파람, 서쪽을 늦바람, 동쪽을 셋바람, 북동쪽을 높하늬, 북서풍을 늦하늬, 남서쪽을 늦마, 남동쪽을 셋마라고 부른다. 계절별로 보면 늦은봄에 마파람이 불고 여름철에 셋바람이 불며, 가을, 겨울에 하늬바람이 부는 시계반대방향의 순환을 한다. 마파람이 불면 봄이온다. 꽃이 핀다고 하고, 북새(하늘이 시커매지는 것)하여 검어지면 비가 오고, 하얘지면 바람이 분다고 한다. 또 태풍이 올때는 바다 표면이 몽실몽실 노란 거품이 이는데, 이것을 마을 사람들은 ‘무늬가 온다’라고 표현한다.

나침반이 없을 당시 배와 그물등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변의 산골을 보거나, 바닷물의 푸름을 보고 확인을 한다. 이것을 ‘산가남’이라고 하는데, 주로 주변 섬이나 산의 목은밭 등표식이 될 만한 표적물을 통해 가늠을 한다. 타리도 부근의 경우 거무산, 두루대섬, 대섬, 옥섬, 두대섬 등이 표식물로 사용된다.

타리파시는 일제때 성황을 누렸다. 장소는 타리도 섬이 아니라 하우리 뒷편 모래사장이었다. 지금은 모래 채취와 해수욕장등의 시설로 옛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콘크리트 제방위로 성인 키를 두배나 넘는 모래산이 허물어져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광경을 충분히 짐작해 볼수가 있다. 타리도와 하우리 뒷편 바닷가를 가로지르는 모래둔덕까지 아마도 기인 모래뜰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업중일때는 파출소와 병원등의 공공건물을 포함하여 400호까지의 건물이 섰다고 하니 그 시절의 풍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만 성업시기에 집중되었고 모래언덕에 지었기 때문에 가건물의 형태를 띠었

다고 한다. 흔히 나무토막 4개를 연결해 짚과 이엉으로 지붕과 벽을 만들었다. 상주하는 집은 이층으로도 지었다고 한다. 대개의 건물들은 주방과 조리방, 손님방 등으로 구분해서 방을 나누었다.

파시촌의 사람들은 어부들을 상대로 하는 기생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며, 소수의 일본기생까지 들어왔다고 하니 일인들의 숫자가 상당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기생들도 이곳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고 하는데, 우리 선원들과의 관계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재밌는 대목이다. 민어 배들은 그숫자가 하도 많아 하우리와 타리도의 약 100여미터 거리를 가득메우기가 일쑤였고 사람들은 배에서 배를 징검징검 건너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

400호가 넘는 가건물의 70%는 술집과 기생집이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이곳에는 광범위한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뱃사람들의 생필품(간장, 된장, 비누, 사탕등)에서 의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들이 매매되었다고 한다. 기생들은 배가 들어오기전에는 끼리끼리 모여 노래를 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또 해당화 밭이라고도 부른다. 무수한 해당화가 바닷가로 만발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풀섶에 쌓인 몇줌의 모래와 을씨년스런 바람만이 덩그렁 휘돌고 있는 곳이지만 그 해당화 꽃밭과 소나무 숲사이에서 선원들과 기생들은 비밀스런 연애도 했다고 한다. 뱃사람들은 주로 오후에 들어왔다. 배가 타리도에 도착하면 고기는 주인이 팔고, 뱃사람들은 거미떼처럼 쏟아져 나와 저녁내 먹고 마신다. 대개는 날이 새도록 유흥을 했다고 한다.

위도 파시는 상설적으로 있었던 파시이고 타리 파시는 봄 4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성업을 했다고 한다. 장사들이 근 6개월간을 이곳 하우리 뒷편 바닷가에서 장사진을 친 풍경을 임자도 사람들은 한마디로 장관이었다고 표현한다. 카바이트 불빛들이 바닷가를 가득 메운 가운데 기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깔깔대는 소리들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장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였겠는가?

선박수리는 주로 재원도에서 했다. 특별한 조선수리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관련 목수들이 그쪽에 기거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타리파시는 민어가 주종이었다. 임자민어를 터민어라고도 하는데 타리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민어를 이르는 말이다. 목포에서 군산에 이르는 바다는 뺨이 40%, 모래가 60%로 플랑크톤이 제일 많은 지역이다. 다만, 민어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잡힌 것은부서(부세)인데 질적인 면에서 민어가 우선할 따름이다. 그 다음으로는 병치, 준치, 꽃게(이당시 꽃게는 흔해서 먹지않고 버렸다고한다), 장대, 서대 등이 주로 잡혔다.

해방후 타리 파시는 점차 쇠퇴해져 갔는데, 6.25때 완전히 폐쇄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본으로 수출하던 루트가 끊기는 바람에 민어 수요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것은 수온상승등

의 자연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의 측면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리파시가 쇠잔하고 하우리 아랫쪽에 있는 도구항으로 파시가 옮겨졌는데 도구파시는 전장포 파시 다음가는 파시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얘기한다. 그러나 타리파시의 성황은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타리파시의 위용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채원도파시, 전장포 파시가 이후의 성업을 누리게 된다. 전장포는 새우젓의 주산지로 전국 젓갈의 약 70%를 생산했다고 한다.

새우잡이의 주산지는 전장포이다. 한때는 전국 새우젓의 70%를 생산했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알만하다. 지금은 녹슬은 양철지붕 밑에 20여개의 새우젓통만이 찬란했던 이전 역사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을 따름이다. 전장포의 선창으로 이삼십척의 배가 줄지어 서있긴 하지만 분주하던 옛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때때로 갈매기가 한적한 뱃전을 스쳐 날아간다. 바로 앞섬 작도에서는 염소인지 몇마리 시키면 무리들이 보인다.

새우잡이는 약 200여년 전 바로 이 작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천 강화도 쪽에서 새우잡이 배인 젓중선(멍텅구리 배)이 닻이 끊기는 바람에 이곳 전장포 앞까지 밀려와 놓여있는 것을 이곳 사람들이 발견했고 이것을 기화로 새우잡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 모양이다. 새우잡이 배 조선훈이나 새우잡이 기술, 또는 기술자의 유입등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한편의 설화인 셈이다.

새우젓은 5젓 6젓이 최고라고 하는데, 5월과 6월에 잡은 새우젓을 이르는 말이다. 5월은 새우가 알을 품기 위해서 살이 찌는 계절이고 6월은 알을 뱀 계절이어서 암새우가 잡힌다. 이후 7월은 대떼기라고 해서 새우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게 된다. 김장시기에 사용하는 추젓은 6월에 부화된 새우가 잡히는 것을 이른다.

전장포의 멍텅구리 배는 추석무렵 해안가로 끌고나와 정비를 하고 바다로 내보낸다 지금은 무동력선이 아니지만 근래까지만 해도 무동력선이 쓰였다. 배는 새우잡이 시초부터 별로 변한 것이 없는데, 배의 구조가 바뀐게 아니고 다만 배의크기가 달라졌을 뿐이다.

멍텅구리 배는 진도 조도지방의 닻배구조와 비슷하다. 역시 배의 앞부분이 오히려 뭉뚝하게 만들어져 있고 뒷부분은 유선형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신 배의 밑 바닥은기인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배의 앞부분에는 짧고 굵은 기둥을 네개를 세워 닻살이라고 하는 감개를 세웠다. 이것을 전장포 사람들은 사맹이라고 부른다. 거대한 닻을 끌어올리고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도르래식 감개가 필요했던 것이다. 배 앞쪽의 갑판에는 드룻이라고 하는 길이 140자, 두께 70cm정도의 장대를 두개 엮어 배 좌우로 놓는다. 배 밀면에는 드룻과 수직이 되는 자리에 똑같은 방식으로 길이 160자정도에 두께 70cm

정도의 지르를 놓는다. 드릇은 주로 쪽나무로 하는 반면 지르는 참나무를 사용했다고 한다.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명탕구리 배는 보통 3톤정도였으며 후대에 올수록 크기가 커졌다고 한다.

그물은 삼각구조로 되어 있다. 드릇에 그물을 펴서 굵은 고리로 연결을 하고 그물 밑이 되는 삼각형의 끝머리는 불고리라고 하는데, 지르에 묶게된다. 이 불고리는 굵은 밧 줄로 연결을 하고 고기를 다 잡았을 때는 이 밧줄을 잡아당겨 불고리 부분을 풀고 고기를 갑판에 푸게 된다. 그물코의 구조는 위로 부터 4절 5절, 6절 …… 18절까지의 크기로 되어있다. 18절은 하도 베게 짜여져 있어 불펜이 안들어갈 정도가 된다.

60년대 이전에는 전마선이라고 하는 뗏마배가 운송선의 역할을 했지만 근래들어서는 기계선이 예인작업을 맡았다.

돛의 길이가 약 32자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제작을 하는데, 나무는 참나무를 쓴다. 참나무를 깎아서 돛 날개 두개를 비스듬하게 대고 두께 1M가 넘는 기둥을 붙여 돛을 만든다. 날개를 조이는 것은 옛날에는 칩덩굴을 사용했고 점점 로프줄로 와야줄로 변천하게 되었다. 조이는 것을 돛개비라 하고 날개를 돛장이라고 한다. 또 날개의 앞쪽에는 15자정도 길이의 소나무 4개를 두개씩 묶어 참나무와 밀착되도록 가야하게 조이게 된다. 근래는 참나무가 귀해져서 뉴질랜드 수입산인 아베똥나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태풍이 불 때는 그물을 전부 올려버리고 밀질 즉 지르를 배밑에 딱 붙여버린다. 그러면 배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앞뒤로만 끄떡 끄떡 움직이기 때문에 전복될 위험이 없게 된다.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슬기로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물은 그 역사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칩껍질을 벗겨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껍질을 꼬아서 그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홀치그물이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정비하지 않으면 썩게된다. 보통 칩그물의 수명은 1년정도이다. 그 이후 면사그물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그물 한쪽을 짜는데 반년에서 1년이 소요되었다. 수명도 짧았고 물을 먹게 되면 엄청나게 무거워진다. 그러나 이 그물을 ‘갈’에 삶게되면 약간 연장이 된다. ‘갈’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화 뿌리를 말려서 끓인 액체로써 도막을 내 많은 량을 넣어 끓이게 되면 ‘갈’ 액체가 된다. 염수를 약 20뿍정도 지피게 되면 아주 진한 커피색이 되는데 이것에다 그물을 삶아내는 것이다. 최근 60년 초반까지만 해도 면사그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장포에 있었다고 한다. 면사그물에는 해초등이 많이 낀다. 이 그물을 떼어 오는데는 장정 8명정도가 소요된다. 이 장정들이 합심하여 그물을 메고 오면서 노동요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그물 메고

을 때 뿐만이 아닌 여러작업을 하면서 부른 뱃소리는 전장포 사람들에게아직도 들려지고 있다. 어이 쳐, 어이쳐, 어이쳐어어, 어이쳐, 달도 밝네 달도 밝네에 ……….이 그물은 해변가에서 말려서 털어가지고 갈솔에다 꿰이게 된다. 그러면 붉은색이 되는데 한달에 두번 갈을 하면 약 4~5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바다에서 오랫동안 조업을 하다가 이 ‘갈’ 때문에 포구를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잦게 된 이후로는 ‘갈하러 왔냐’라고 물어보는 말이 ‘부인 만나러 왔냐’, 즉, ‘잠자리 하러 왔냐’란 말로 통용되었다고 한다.

새우는 젓갈로 만드는 것 외에 말려서 출하하기도 한다. 가마니를 매지 않은 것을 까래라고 하는데, 가마니를 짤때는 힘줘서 보두를 내리치고, 보두질을 가만가만 하면 성근 짚자리가 된다. 이것을 사용하여 새우를 말린다. 배 한척당 이까래가 1,000장정도 있었다고 한다.

새우젓갈은 현재 토굴에 넣어 저장을 한다. 그러나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땡크만을 이용해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량의 새우젓을 만들어 내는 것은소금량의 조절에 있었다. 소금이 변질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하는 주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장포 사람들에게는 처서를 지나면 발뻘고 잔다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처서전까지는 젓이 뽀끔 뽀끔하여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처서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우량의 젓갈이 되기 때문이다.

하우리의 경우 풍어제가 그리 오래 된 것같지는 않다. 봄 2월에 동네회의를 거쳐 생기복덕을 보고 시행하는 것등이 주요 골자인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배서낭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행해지지 않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다수가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선실 방장에 모시는데, 성주 또는 조왕이라고 한다. 고삿날은 열마, 세마로 정해져 있고 이날은 항상 제사를 지낸다, 음식은 물고기를 익혀서 쓰고 술잔을 따르며, 향불도 지핀다. 임자도 사람들은 장날 배서낭 모신다고 하면 삼색실, 삼색천, 바늘등의 재물을 장사들이 알아서 챙겨주었다고 한다. 다만, 한번 부른 가격은 절대 깎지 않았다고 한다. 중선배들이 아니기 때문이었는지 떡시루를 놓는다던지 배선원숫자대로 밥을 해놓는 경우는 충남의 보령쪽 풍선에서 보았다는기억만 하고 있었다.

하우리 뒷산에 당산이 있다. 당샘거리의 안동네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좋았다고 말하는 하우리 부근의 갈도 당은 후박나무로 보인다. 부근에는 후박나무, 팽나무류가 밀집해 있고 바닷가 쪽으로 당샘이 있었다. 임자도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는 갈도 당에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 미신타파라는 명분으로 당을 부수고 난 후 그 마을 박근철 씨라는 할아버지가 당나무를 뿔감으로 쓰기위해서 산을 올라갔다고 한다. 그런데 어렴풋한 시야 속에 여자가 애기를 없고 가면서 어디로 갈꺼냐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후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와 버렸다고 한다. 하우리 사람들은 이 얘기를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한다. 당에 대한 그들의 심리적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사일시: 2000. 8. 20

제보자: 강훈일 (52. 남, 임자면 전장포리) 전관(64세. 남, 임자면 전장포)

장소: 전장포 민박집

조사자: 주장현, 이운선, 이기복, 서경수

월(음)	어업력	세시풍속
정월/입춘 우수		설(햇불놀이, 연날리기, 농악놀이) 입춘지 써서 붙이기 보름쇠기(헌석걷기, 더위팔기, 유지지 세우기, 논두렁에 붙지르기, 잠안자기, 햇불싸움, 망월절, 강강술래등)
2월/경칩 춘분	부서, 조기(주낙으로), 민어 홍어, 민어	하릿날(콩볶아먹기, 영등내림등) 경칩날 용알 주어먹기 한식쇠기 - 조상묘 개사도 하기등
3월/청명 곡우	홍어(주낙으로), 민어	삼월삼짓날 쇠기(웃놀이, 화투놀이등)
4월/입하 소만	민어	초파일쇠기
5월/망종 하지	민어	오월단오쇠기(줄다리기, 널뛰기, 용각치기등)
6월/소서 대서	홍어(흑산홍어), 주낙배, 풍선, 범선사용,	유월유두(씨래만침 등)
7월/입추 처서	새우, 민어	백중맞이
8월/백로 추분		추석
9월/한로 상강		중구쇠기
10월/입동 소설		시월 시제모시기
11월/대설 동지		동지쇠기, (액물림, 팻죽)
12월/소한 대한		

### ⑦ 하우리의 어업력과 신앙

#### (3) 무속신앙

신안에는 옛부터 세습으로 무업을 이어온 세습무들이 많았다. 최덕원의 “신안지방의 민속예술”(『신안군의 문화유적』, 1987)에 의하면, 신안군 관내에 8집안의 세습무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들어보면, 흑산면 심리의 공영심·한행단 2가(家), 도초면 만년리의 양군심 1가, 비금면 한산리의 유점자 1가, 장산면 마초리의 강부자·진금순 2가, 안좌면 창머리의 김안순 1가, 임자면 대기리의 김사장심 1가이다.

#### (4) 장승 - 임자면 대기리 대기마을 장승

마을 동쪽 장석거리에 60여년 전까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두 장승이 서 있었으나 나무로 만든 탓으로 썩어 없어진 후 세우지 않고 있다. 키 250cm의 크기에 모자를 만들어 씌었다.

#### (5) 상여행렬

상여가 나갈 때 상주들이 상여에 매달린 끈을 잡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잡고 흐트러지지 않게 상여를 내 간다. 정이금 회장님에 따르면 30여년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한다.

#### (6) 밤달애

파시와 산다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7월 7석 무렵에 큰 풍어제가 있어서 그무렵에 각 주막에 있는 화류계 여자들, 기생들까지 포함하는 풍어와 상가의 번영을 비는 곳이 있었다. 줄타기, 활쏘기, 씨름 등 풍어와 상가의 번영을 비는 것으로 주점의 주인들이 주관하는 큰 연회판이 벌어졌었다. 주민들중에서는 그때 불려졌던 일본노래나 산다이와 관련된 연회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임자도에 두군데 상가가 있었는데 이흑암리와 장동이라는 곳이다.

이흑암리라는 곳은 호상이 아닌 곳이어서인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들여다 보는 것을 꺼렸는데 아마 자식들 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같다. 상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것을 달래준다는 뜻을 가진 달애라 하는데 스피커나 테잎등 노는 것이 갖춰져 있었다.

장동은 교회가 오래된 곳이다. 약 20여년 전부터 교회식장례와 비교회식장례 양식이 충돌하면서 때로는 협조하기도 한다. 돌아가신 분도 원래는 1조(비교회식)에 속하는 분으로 비교회식으로 치러야 하는 사람인데 자식들이 2조(교회식)식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1조식은 본래 초상을 엄숙한 의례로 치루는 형식이 아니라 장난을 치면서 논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1조식을 원한다. 교회식은 예배식이다. 시신은 광주에 있는 영안실에 모셔져 있는데, 목사님과 젊은 상주들, 집안 어른들이 장례 방식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었다.

달애라는 것은 명인을 달래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북, 장구를 쳤었다. 흘러간 노래도 부르고, 한편으로는 웃도 놀았다. 불장난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안한다. 불장난은 모투불이라고 하는데 마당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앉아서 불을 켜다. 모닥불 타는 나무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옆으로 넘기는데 불이 꺼지면 그 사람이 걸려서 벌칙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노는 것을 달애

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인다해도 주로 상두꾼들 위주로 해서 달애를 했다. 그래서 남자들만 하는 놀이다. 벌칙을 받을 때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못하면 다른 형태로도 했다. 어렸을 때 보면 춤도 추고, 닭 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거의 앉아서 노는데 소리도 하고 육자배기 같은 것을 하기도 했었다. 달애 때 부르는 노래가 정해진 것은 없었고 알곳은 노래도 없었다. 다만 즐겁게 놀기 위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기 위해서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했었다.

제보자가 보기에 달애는 초상집에서 상주들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슬픔을 감소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초상난 집에서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달애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전통이 오늘날까지 흘러나온다고 보지만 요즘은 병원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달애를 하지 않는다. 달애를 할 사람도 없다. 항상 즐겁이 있고 농담을 잘 하는 분들은 더 상가에 자주 가지만 그런 분을 초대하지는 않고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했다.

조사일시: 2004. 6. 28

제보자: 정영진(남, 1936년생)

조사자: 이경엽, 송기태

#### 현지조사된 지역별 현행 동제개요

읍면리	마을	제명	제당명	신격	역할	위치	형태	제일시(음력)	축문	제관수	제비용	제후행사	비고
임자면	삼두	삼두	당제	당	당할아버지	구:마을입구 현:	당집	1월15일 밤 자정	무	2명(제주1, 집사1)	동답	음복, 농악놀이, 줄다리기	
	계원	재원	당제 (상당제, 하당제)	후	①당할아버지 ②당할머니	평안	①뒷산 중턱 ②마을 내 중앙	①동백나무 ②팽나무	1월14일	유	2명(제주1, 집사1)	호당거출	회의

#### (7) 세시풍속

본 항목의 서술은 도서문화 제 5집에 나와 있는 지도군의 세시풍속과 생활문화자료를 근거로 현지 조사하면서, 일일이 가부를 체크하는 조사 형태를 취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편제상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서술 내용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다. 지도와 증도 등 대동소이한 부분들은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지조사 없이 기왕의 자료를 인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인용 자료에 대한 근거를 서술의 말미에 밝혀두었으므로 혼돈의 염려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세시풍속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생활관습을 말한다. 이처럼 생활관습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세시풍속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어도 안 된다. 즉 세시풍속은 오랜 역사와 넓은 지역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성을 띤 문화현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이 때로는 지역적 환경이나 생활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예컨대 평야지대와 산간지대, 해안지대와 내륙지대 등이 서로 다름도 바로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에 다른 결과라고 하겠다. 임자도 지역의 세시풍속은 월별(음력기준)로 정리한다.

조사일시: 2006. 7. 25/ 2006. 8. 25

조사장소: 임자면 진리 노인회당

제보자

1. 김인심(62, 여, 임자도 진리)
2. 김화자(68, 여, 임자도 진리)
3. 진수금(75, 여, 임자도 진리)
4. 박정남(81, 여, 임자도 진리)
5. 안옥현(85, 여, 임자도 진리)
6. 장영아(89, 여, 임자도 진리)

조사자: 이윤선

#### ① 임자면 진리 세시풍속

<정월>

설은 년중 가장 큰 명절로 여긴다. 선달 그믐날 밤 10시 무렵이 되면 미리 장만한 음식을 차려놓고 자정이 되면 차례를 지낸다. 차례를 지내는 의미는 조상들에 대한 자손의 도리로, 이는 온갖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오니 부디 흠향하시고 온가정에 평안과 자손에게 만복을 주십시오 기원한다.

차례는 상을 차리고 가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자 순으로 재배를 하고, 젓가락을 상위에 딱, 딱, 딱 세 번을 두드린 후 가장 맛있는 음식앞에 놓아둔다. 차례상의 음식은 설날 아침 온가족과 사촌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침 일찍 선영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온다.

차례가 끝나면, 이웃의 어른 그리고 친척들게 세배를 다닌다. 세배는 초사흘까지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정월보름까지 세배 다닌 것에 비하면 많이 간소화 되었다.

정월보름 : 음력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고 부른다. 이날 맨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더위팔기’라 하여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 이때 아무 영문을 모르고 대답을 하게 되면 “내더우”(내더위)라고 하여 더위를 파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먼저 알고 “네하나씨 콧대더우”라고 응수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하는 셈이 된다. 또 이날은 율놀이를 하여 일년운세를 점치기도 한다.

초저녁이 되면 들판 여기저기에서 불깡통을 돌리며 ‘불싸움’을 시작한다. 대개 인접한 마을과 싸움을 하며, 8~9세에서부터 16~17세 가량의 남자아이들이 가장 많이 한다. 싸움은 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서 시작하며, 서로가 점차 사이를 좁혀가면서 상대방의 불을 먼저 끄거나 아니면 상대방쪽으로 불이 많이 타들어가면 이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서로 이기려고 때로는 격렬한 타격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약의가 없는 싸움이라서 곧 해소되고 다음날 만나도 서로 아무런 감정이 없게 된다고 한다.

한편, 보름날 저녁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는 말이 전해오기 때문이다. 또 이날 자정이 되면 일반가정에서는 깨끗한 상을 차려 가정의 무사고를 비는 ‘살풀이’를 한다.

그리고 열엿세 열이레가 되면 동편에서 떠오르는 등근달을 보고 달점을 친다. 보름달이 마을 앞산 위로 높이 뜨느냐 낮게 뜨느냐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밖에 보름 풍습 가운데는 ‘메기밥’과 ‘검구치기’가 있다.

메기밥은 지금은 보기 드문 옛풍습이 되었으나, 열이레나 열여드레가 되면 보름 음식은 거의 없어지고 궁금할 때 하는 풍습이다. 같은 연령의 부녀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걷는다. 이렇게 걷힌 밥은 김치와 함께 볶아서 나눠 먹는데 이를 메기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정월 한가한때에 부녀자들이 궁금함을 달래기 위해 했던 풍습이다.

이밖에 검구(농약)치기는 달리 ‘다보한다’고도 말한다. 이 풍습은 검구(농약)를 치면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집안 액막이를 해 준 다음, 음식을 대접받거나 쌀이나 돈을 기부받아 마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월 보름에는 다양한 풍습과 놀이를 갖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고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가. 설

례 : 그믐날 저녁 자시쯤에 조상상(선영상)과 성주상 2개를 차린다. 차례상에는 집에서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의 수만큼 메를 올린다. 아침에는 떡국을 쑤어 먹는다. 차례상에는 과일, 전, 고기 등을 올리며 비늘 없는 생선은 올리지 않는다. 떡은 설 3일 전에 떡대에 쳐서 만들고, 콩나물과 숙주나물은 일주일 전에 시루에 길러 준비한다.

세배 : 아침 일찍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는다.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나눠주기도 한다. 학생들에게는 “올해는 공부 잘 해라” 등의 덕담도 해준다. 산소에 성묘를 다녀와서 마을 어른들을 찾아 인사를 드린다. 마을 어른들은 세배 온 사람들에게 술상을 대접한다. 작은집에서는 큰집으로 음식상을 차려와 어른들을 뵙는다. 그 해 시집은 새 색시는 마을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다. 그러나 마을 여자들은 보통 정초에 돌아다니지 않는다.

성묘 : 아침을 먹고 나면 가족들끼리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한다.

설빔 입히기 : 설에는 새로 옷을 해입히는데, 보통 당목이나 베에 솜을 넣어 해입힌다. 저고리 끝에 물감을 들인 것을 ‘간치뚝방이’라 한다.

놀이 : 설에는 강강술래와 윷놀이, 널뛰기 등을 하고 논다

## 나. 정초

토정비결 보기 : 토정비결은 정초에 책을 놓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본다. 그러나 지금은 토정비결 보는 집이 거의 없어졌다.

정초 12지일 : 용날에는 비가 많이 온다하여 물을 길지 않는다. 때문에 전날 물을 길어다 놔야 한다. 뱀날 뱀을 쫓기 위해 뱀칩을 써 붙이기는 했지만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한다.

## 다. 대보름

차례(14일) : 열나흘날 밤에 상을 차리는데 이 때는 성주상만 차린다. 저녁에 쌀, 수수, 콩, 동부 등을 넣고 오횃밥을 짓는다. 마당에도 상을 차리는데, 이를 ‘걸판’이라 한다. 걸판상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귀신, 예를 들면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나 제사를 받지 못하는 떠돌이 귀신을 위해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차려놓은 걸판은 보름날 아이들이나 총각들이 걷어다 먹는다. 이 음식들은 한 곳을 정해놓고 가져다 데워서 며칠씩 먹는다.

밤새기(14일) : 열나흘날 밤에는 잠을 자면 눈썹이 길어진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는다.

더위막이(15일) : 보름날에는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실을 나이 수만큼 감아 목에

걸어준다.

길쌈떡기(15일) : 보름날 아침에 김(해우)밥을 해 먹기도 하지만 따로 차려 놓지는 않는다

까치밥 주기(15일) : 밥을 떼어서 집 주위나 텃밭에 뿌렸는데, 이를 ‘까치밥 주기’라고 하며 ‘텃밭 주기’라고도 한다.

더위팔기(15일) : 아침 일찍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 대답을 하면 “니 더우, 내 더우”하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노래기 쫓기(15일) : 보름날 저녁에 술가지를 꺾어 지붕에 던지는데, 이 때는 “사내기 밥 주자”라고 하면서 던진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한다.

댓불(젠부닥불) 피우기(15일) : 마당을 쓸어 모아 놓고 생대나무를 넣어 불을 피웠는데, 이를 ‘젠부닥불’이라 한다. 이렇게 대를 넣는 까닭은 생대가 불 속에서 터지면서 내는 폭음이 크게 나면 풍년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불은 나이와 상관없이 뛰어 넘는데, “발바닥에 좀먹지 마라”라고 하면서 뛰어 넘는다.

액연 날리기(15일) : 불싸움은 없었고 다만 논두렁만 태우고 다닌다. 후에 불강통이 나와 불강통 돌리기를 한다.

쥐불놀이(15일) : 불싸움은 없었고 다만 논두렁만 태우고 다닌다. 후에 불강통이 나와 불강통 돌리기를 한다.

## <2월>

가. 2월 1일

2월 초하루를 ‘하래달’ 또는 ‘하릿날’이라 부른다. 이날은 농사의 병충해를 없앤다는 뜻에서 콩이나 보리 등을 볶아 먹으며, 굼벵이 없든지라 해서 굼벵이를 볶아 먹기도 한다. 또 영등할머니가 ‘바람 영등’, ‘물영등’을 내린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바람이 부는 정도에 따라 그해 농사운을 점쳤는데 바람이 아주 많이 불거나 아주 적게 부는 것을 좋게 여긴다. 바람의 강약은 장담의 꼬리가 나부끼는 정도를 보고 측정하였다고 한다. “물영등 내린다”는 것은 이날 비가 오는 것을 말하며 농사에 좋은 징조로 여긴다.

콩 볶기 : 2월 초하루를 ‘하릿날’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콩과 잡곡을 볶아 먹는데, 부엌에서 콩을 볶으면서 “굼벵이 볶자, 떡볼가지(벌레) 볶자”라고 하면서 볶는다. 이렇게 하면 그 해 논밭에 벌레가 없어진다고 한다.

## 나. 월중

개구리알 먹기 : 경칩이 되면 개구리알(용알)을 주워 먹는다.

### <3월>

3월중에는 초사흘인 '삼짓날'이 있다. 이날은 이제까지 한가한 철을 보내고 농사일이 시작되는 날로 여긴다. 그래서 이날 머슴들은 썩은 새끼로 목을 멘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날 머슴이 있는 집에서는 머슴에게 특별히 음식을 해주거나 하루 종일 쉬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 가. 삼짓날

당산나무 잎으로 점치기 : 지도읍에 있는 당산나무의 오른쪽 잎이 먼저 피는가 왼쪽 잎이 먼저 피는가에 따라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 나. 한식, 청명

산일 하기 : 한식 때에는 개사토나 이장 등 산일을 한다.

### <4월>

4월에는 초파일이다. 이날은 대부분 농가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쉰다. 그렇다고 달리하는 풍습도 없다. 다만 하루를 쉬면서 보내고 절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날만은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절에 다녀온다고 한다. 곡우 때 바닷물이 많이 들면 농사에 좋고 적게 들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풍습도 있다.

초파일 절에 가기 : 초파일에는 절에 찾아가 연등 행사를 하는데, 지도읍에 있는 절로 많이 갔다.

### <5월> <6월> <7월>

5월에는 단오, 6월에는 유두, 7월에는 칠석과 백중의 풍습이 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단오에 아낙네들은 널뛰기를 하였고, 유두에는 밀개떡(밀문지)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칠석에는 밤이 오면 북두칠성을 보고 자식의 운세를 점쳤다는 풍습이 전해온다. 즉, 북두칠성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별에 해당하는 자식이 그해 운도 좋고 출세를 한다는 것이다.

가. 단오

상추이슬로 세수하기 : 아침 일찍 이슬이 맺혀 있는 상추잎을 뜯어다 이슬로 얼굴을 문지른다. 이렇게 하면 그 해 얼굴에 버짐이 피지 않는다고 한다.

약초말리기 : 풀잎이 약초가 된다고 하여 달여 마시기도 하고, 뜯어다 음지에 말리기도 한다. 익모초나 선모초 등을 베어다 말리기도 한다.

나. 유두

전부치기 : 유두 때에는 전을 붙여 먹는다. 이 때 콩을 넣어 해먹기도 한다.

농신제 : 아침에 밥을 해 가지고 가서 밭에 묻기도 한다.

물맞이 : 이 때쯤 마을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여 물 맞으러 다니기도 한다.

다. 5~6월중

복달임 : 복날에는 개를 잡아 복달임을 한다.

라. 칠석

전 부치기 : 이 날 전을 부쳐 먹는다.

마. 백중

마을잔치 : 머슴을 부리는 집에서 막걸리와 음식을 내놓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마시며 논다.

바. 7 월중

머슴 위하기 : 마지막 논매기가 끝나는 날, 머슴을 소에 태우고 풍물을 울리면서 주인집에 들어가면 주인은 닭죽을 쑤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한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도록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논다.

<8월>

음력 8월 15일은 설과 함께 연중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다. 이때가 되면 온갖 음식을 장만하고, 자녀들에게는 새옷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친지들이 고향을 찾고 조상의 묘소에 성묘를 한다. 묘소는 추석 일주일 전이나 두주일 전쯤에 미리 벌초를 해둔다. 한편, 머슴을 둔

가정에서는 추석 2~3일 전에 새옷과 여비를 주어 집으로 보낸다.

예전에는 추석때 강강수월래와 농악놀이를 하며 다음날까지 온마을이 쉬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농가의 일손 부족으로 추석 당일만 쉴뿐 다음날부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 가. 추석

차례 : 추석 전날 밤에 차례상을 차려 놓는다. 상은 설날 차리는 상과 마찬가지로 상2개를 차리고 기제사를 모시는 조상의 수만큼 메를 차린다. 추석때는 송편을 빚는다. 송편은 햅쌀을 이용해 빚는데, 철이 맞지 않을 경우 나락을 훑어다가 시루에 찌서 말린 다음 절구에 빻아 쌀을 만든다. 이를 '새쌀'이라 부르고 이것을 이용해 송편을 빚는다.

성묘 : 추석에는 외지에서 온 친척들만 성묘를 갈 뿐 마을 사람들은 성묘를 가지 않는다.

마당밭이 : 추석 때 마을의 돈이 필요한 경우 마당밭이를 한다. 이 때 걸곳판에 포수, 양반, 각시 등의 탈을 쓴 사람들이 함께 한다. 곳을 치게 되면 마을에 있는 샘에 가서 샘곳을 친 다음 집집마다 들어가 곳을 친다. 집에서는 추석 때 장만한 음식들을 상에 차려 놓고, 쌀을 한 그릇 떠다가 상에 놔둔다. 그러면 걸곳패는 마당곳을 먼저 치고 정지곳을 친다. 마당곳을 친 다음에는 집에서 대접한 음식을 먹는다. 정지곳을 치고 난 후 상에 올려놓은 쌀이나 돈을 챙겨서 나간다. 샘이 있는 집은 정지곳을 치고 집을 나가기 전에 샘곳을 쳐준다.

#### 나. 월중

조상단지 갈아주기 : 햅쌀이 나오면 집안에 모셔둔 조상단지에 쌀을 바꿔 넣는다. 기존에 있던 쌀로는 밥을 해먹는데, 이웃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한다.

#### < 9월 >

9월 초아흐렛날을 '중구'라 부른다. 예전에는 햅쌀이 처음 나오면 이날 햅쌀밥을 지어 집안에 차려 두곤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 < 10월 >

10월을 '떡달'이라 부른다. 이는 대부분 문중에서 선영의 묘소에 시제(시향)를 모시는 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달에 일부 가정에서는 햅쌀로 밥을 지어 성주 앞에 차려두기도 한다.

시제 : 10월에는 시제를 모신다.

<11월>

11월을 동짓달이라 한다. 동지날은 동지죽을 쑤어 이웃과 나누어 먹고, “살매이 한다”하여 문이나

세시풍속			놀이	시식
1월	설	차례, 세배, 성묘, 여자출입금지, 설빔 입히기, 떡 붙이기	웃놀이	떡국
	정초	토정비결보기, 액막이, 용날 물 긴지 않기, 뱀날 뱀쫓기	웃놀이	
	입춘	입춘축 붙이기		
		14일 차례, 유리지 세우기, 불싸움, 논밭둑 태우기, 복조리 걸기, 밤새기		오곡밥, 나물
	대보름	15일 차례, 더위팔기, 김쌈 먹기, 찰밥 얻어먹기, 허새비 버리기, 샘물 훑치기, 뱀쫓기, 노래기 쫓기, 개미 쫓기, 무 먹기, 소밥주기, 마당밭이 밟고사, 달점치기, 쥐불놀이, 빨게 먹기, 까치밥 주기, 땃물(쟁부닥불) 피우기, 액연 날리기, 당산제, 더위막이	웃놀이, 강강술래, 줄다리기	찰밥, 나물, 무
월중	액연 날리기			
2월	2월1일	콩 볶기, 영등, 머느리날, 썩은 새끼줄로 목매기		
	월중	개구리알 먹기, 도롱뇽알 먹기		
3월	삼짇날	당산나무 앞으로 점치기		
	한식,청명	산일 하기, 한식 추렴		
	월중	곡우물 마시기	화전놀이	
4월	초파일	절에 가기		
5월	단오	창포물에 머리감기, 풀썰하기, 상추이슬로 분바르기, 익모초즙 마시기, 약초말리기, 떡 해먹기	그네뛰기	찜뽕떡
6월	유두	차례, 논고사(용왕제, 농신제), 들에 일찍 나가지 않기, 물맞이 전 부치기		전, 밀개떡
	월중	복달임		닭, 백숙, 개고기
7월	칠석	견우, 직녀 만나는 날, 전 부치기		전
	백중	차례, 머슴날, 마을잔치, 쉬는날		
	월중	벌초, 머슴 위하기		
8월	추석	차례, 성묘, 마당밭이(걸궁치기)	강강술래, 씨름떡국	송편
	월중	올벼심리, 조상단지 같이주기		
9월	중양절	염전고사, 국화주 담그기, 떡 해먹기		국화주
10월		시제, 산일 하기, 손 없는 달		
11월	동지	팔죽 쑤기, 날씨점치기		팔죽
12월	선달그믐	설 준비, 목은세배, 빗 갠기, 수세, 불 밝히기, 집안청소하기		
연중	윤달	수의 짓기, 이장, 부엌 고치기		

<수록> : 『도서문화 제5집』 『전라남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벽 그리고 대문앞에 동지죽을 뿌린다. 동지죽을 뿌리는 이유는 과거에 피를 본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려다 빨간죽을 보고 이를 피로 오인하여 달아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두그릇에 동지죽을 떠놓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갈라지는 죽그릇을 보고, 그달은 가뭄이 들 것으로 농사일을 점치기도 한다.

동지팔죽 쑤기 : 동짓날에는 팔으로 팔죽을 쑤어 먹고, 또 술잎을 이용해 집 곳곳에 뿌린다.

#### <12월>

12월을 '선달'이라 한다. 이날은 마을 노인들에게 문안인사를 드리고 밀린 외상값을 갚기도 한다.

선달그믐 묵은세배 : 집안 어른들에게 묵은세배를 다닌다. 특히 장가갈 사람이 있는 경우는 상투를 올리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장가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인사드리고 다닌다. 이 때는 그믐 2~3일 전부터 인사를 드려도 상관없다.

#### <연중>

윤달 : 윤달을 공달이라 하는데, '손 없는 달'이라 하여 평소에 꺼리던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이나 부엌 고치는 일 등을 많이 한다.

#### (8) 통과의례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란, Van Gennep가 명명한 학술용어로 개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축생·성인식·혼인·죽음에 따르는 의례를 말한다. 이를 관혼상제의 범주와 비교하면, 통과의례의 축생의례는 사례에 없고, 대신 사례의 제례는 통과의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현외, 1979:59).

통과의례는 인생의 단계마다 원활한 변화를 이루게 하고, 지위가 변천을 승인하는 기능과, 위기의식의 해소라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례이다. 이를 Van Gennep는 분리·변전·통합의 세의례로 구분하여 고찰하고(Arnold Van Gennep, 1966:10) 거기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통과적인 사고가 반영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① 출산의례

### 가. 기자

기자행위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갖기 위해 기원하는 행위로 이는 지성기자와 축술기자로 구분된다. 이중 지성기자는 일정한 대상물에 공들이는 것이고, 축술기자는 이상한 행위나 음식으로 아이를 얻기 위한 공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자행위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자식(아들)이 없으면 큰댁의 경우는 동생의 큰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작은댁에서는 큰댁의 작은아들을 데려다가 대를 잇는다. 그리고 딸이 많은 가정은 아들이 많은 가정과 바꿔 양아들을 얻어오기도 한다. 이때는 속곳에 아이를 넣어 본인이 낳았다는 시늉을 한다.

### 나. 임신

임단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출산까지는 새 생명의 신성함 등으로 임신부는 여러 가지 금기나 믿음을 지켜야 한다.

#### 가) 임신 중 산모의 금기사항

- 산모는 초상난 집에 가지 않는다.
- 산모는 일체 짐승을 잡아서 안된다.
- 산모는 못직을 얹는다. 이는 아이에게 못자국이 생기거나 컷부리가 붓기 때문이다.
- 산모는 창구명을 막지 않는다. 아이의 눈이 막힌다.
- 산모는 삼질을 하지 않는다. 흙을 옮기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 산모는 산달에 집밖에 나가지 않는다.
- 산모는 욕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되고, 담을 넘어 다녀서도 안된다. 아이가 모진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 나) 산모의 금기 음식물

산모는 초상잡 음식이나 개고기·오리고기·상악기를 먹지 않는다.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이나 발가락이 붙는다고 하며 상어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눈이 나빠지고 눈갓(?)이 빨개진다고 믿는다.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네발 달린 짐승은 아이의 몸에 털이나 기름기가 많다 하여 금한다. 기타 산모는 남의 생일 음식을 먹지 않는다.

#### 다) 태몽

태몽은 아기를 배기 전의 예시적인 꿈이다. 이는 산모나 시모가 아이를 가지려 할 때나 갖은 후에 꾸는 것으로 주로 밤에 꾸는다.

꿈에 호랑이·염소·개·소·구렁이·용·돼지·시계·구름 등이 나타나면 태어날 애기가 남아로 예점한다. 그리고 여아는 늘렁감이나 빨갭게 익은 감·무·호박·외(참외)·가지·비너·뱀 등이 나타나거나 꿈이 시원치않고 새끼가 딸린 돼지를 꿈에 보았을 때이다.

#### 라) 꿈에서의 징조

· 길몽 : 소를 사오는 꿈을 꾸거나 용이 보이거나 지붕에서 장닭이 울면 길몽이다. 꿈에 용이 보이면 머리가 큰 아들을 낳게 되고, 장닭이 울면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여긴다.

· 흉몽 : 감을 따거나 씹는 꿈을 꾸거나 짐승을 죽이는 꿈은 흉몽이다. 특히 짐승을 죽이는 꿈을 꾸면 아이가 죽게 된다고 한다.

· 수명장수의 꿈 : 소의 꼬빠(고빠)가 길면 수명이 길고, 꼬빠가 짧으면 수명이 짧다.

· 수복다남의 꿈 ;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있는 꿈과 같이 숫자가 많은 꿈을 꾸게 되면 자식을 많이 얻는다. 첫아이 때 이러한 꿈을 꾸어 낳은 아이가 딸이면 딸을 많이 낳고, 아들이면 아들을 많이 낳게 된다고 한다.

#### 마) 태접

산모의 배가 편편하고 뒤에서 보았을 때 걷는 자세가 곱지 않거나 누운 자세가 편하면 남아로 점친다. 그리고 산모의 배가 불룩하고 뒷모습이 곱거나 누운 자세가 불편하고 아이가 항상 배의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 여아로 예점한다.

#### 다. 출산

임산부는 만삭이 되어 해산일이 가까우면 가위와 실, 걸레, 짚등을 준비한다. 분만은 친정에서 낳는 일이 많으나 보통 시댁의 산모가 기거하는 방이나 큰방에서 한다. 방은 불을 지펴 따듯하게 하고 바닥에는 짚을 깔아 아이를 무리없이 잘 낳도록 한다. 이 때 대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험있는 사람을 불러 아이를 받도록 한다. 출산시 산모는 보드라운 흰 치마를 착용한다. 그렇지 않고 뻗뻗한 옷을 입으면 살갓을 자극하여 다리가 붓고 걸음걸이가 불편하기 때문

이다. 해산시에는 반듯이 누운 자세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거나 이불을 둥글게 말아 가슴에 받쳐 힘을 주어 낳기도 한다. 또 손을 뒤로 짚고 앉아서 낳기도 한다.

이 때 산실 윗목에는 '지양상'을 차려 놓는다. 지양은 '지양할때', '안지양', '재양님네' 등으로 불리우며, 아이를 잉태해주고 낳게 해주는 내륙의 산신과 같은 아동보호신이다. 지양상은 아이 낳기 전후나 난산시에 시어머니가 짚을 깔고 쌀·물·미역등을 차려 놓은 것이다. 여기에 놓인 쌀은 성주옆에 보관된 것이어서도 안되며 남이 손댄 것이어서도 안된다고 한다. 산후 일곱이레(21일)가 지나면 이 지양상은 모두 치운다.

아이를 낳을 때 순산을 하면 다행이지만, 첫 아이일때는 특히 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거나 감염주술적인 방법으로 아이을 잘 낳는 여자의 속치마를 빌려 입기도 한다. 또 시어머니가 윗목의 지양에 "삼지양님네 어찌든지 우리자식 헌치마에 애낳듯 잘 나게 해주쇼" 나 "지양님네 순산하게 해주쇼, 헌치마에 애기 빠지듯이 쪽 나게 해주쇼"라고 순산을 기원하기도 한다.

#### 가) 태치리

순산이거나 난산이건 간에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준비한 가위와 실로 태를 자른다. 태는 피를 흘려서 한뼘반 정도의 길이를 남기고 실로 묶은 다음 가위로 자르며 자른 태는 산모 다리에 묶어 주기도 한다. 혹 애가 나오기 전에 아이를 끌어내면 배꼽이 튀어 나온다 하여 귀한 집 아이의 땃줄은 이으로 자르는데 한번에 잘라내야 한다. 자른 태는 단지에 담아 방우(방위)를 보아 정개(부엌)로부터 멀리 떨어진 깨끗한 곳에 묻거나 바다에 던져 버리기도 한다. 이때 방바닥에 깔았던 짚을 불태워 없앤다.

#### 나) 금줄과 베갈지양

아이를 낳으면 곧 걸막(대문)이나 산모방앞에 '금줄'을 친다. 금줄은 개고기를 먹었거나 상가를 방문한 사람을 부정으로 간주하여 출입을 금하기 위해 치는 일종의 분리장치인 것이다. 이는 집안어른이나 산모의 남편이 원새끼로 꼬아 만들어 치는데, 여기에남녀의 성을 표시한다. 남아인 경우는 원새끼에 고추·숯·참종이·남근을, 여아의 경우는 참종이·숯·흰형짚을 달아 놓는다. 특히 남아의 남근은 성기형태를 원새끼로 두껍게 꼬아 만든 것으로 1~2개를 금줄에 매달아 둔 것이다. 이 금줄은 세이레 또는 일곱이레가 지나면 걷는다. 걷은 후에는 감아서 걸막에 그대로 감아두거나 깨끗한 곳에 태워 없앤다.

이러한 금줄외에 부정한 이의 출입을 막는 또 다른 분리장치로 ‘베갯지양’ 또는 ‘지양’으로 불리우는 것이 있다. 이는 토방기둥에 짚물을 묶어 세워두는 것으로 세이레 또는 일곱이레가 지날 때까지 두었다가 부삭(부승)에 넣어 깨끗하게 태워 없앤다.

#### 다) 출산 후의 산모 음식

아이 낳고 산모가 처음 먹는 밥을 ‘첫국밥’ 이랑 하낵. 첫국밥은 시어머니가 지양상에 놓은 미역이 나쌀을가지고 준비한다. 지양상에 놓인 미역은 아들을 많이 낳는다 하여 미역귀가 많이 매달리고 새끼로 묶인 것을 구입한다. 구입한 후 원새끼로 묶어 두기도 한다. 미역국은 쌀뜨물에 주로 대하를 넣어 끓인 것으로 산모에게 맑은 피가 생기게 하기 위해 세이레 동안 먹도록 한다. 산모는 김치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후하고 이빨을 버린다 하여 먹지 못하게 한다. 또 개고기 같은 추한 것도 먹지 않는다.

#### 라. 산후의례

산후의례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3일째부터 시작된다. 이날 아침 산모와 아기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된다. 아기 목욕은 출산 후 바로 씻겨주기도 하나 대개가 삼진날 하고 있다. 매일 씻기는 것이 아이에게 좋으나 이레에 한번씩 씻기기도 한다.

아이가 입게 되는 옷은 보드라운 것으로 만들어 입히는데 보통 미영베를 이용한다. 옷은 깃을 달지 않고 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소매를 길게 만들며 옷고름을 달아주기도 한다. 그리고 기저귀는 예전의 경우 헌옷이나 미영베를 이용했으나 지금은 부드러운 가아제베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아기의 베게는 서숙, 수수, 메밀(메밀)껍질을 넣어 만든다. 이러한 아기의 옷, 베게, 기저귀는 대부분 형제간에 선물로 사오거나 친정어머니가 마련해주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손톱, 발톱이 자라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의 보드라운 살에 쇠(손톱깎기)가 닿으면 상할 우려가 있다하여 산모가 이빨로 잘라준다. 자른 손·발톱은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않고 종이에 싸서 변소에 버리거나 날짐승이 주어먹는 것을 막기 위해 깨끗한 곳에 버리고 있다.

#### 가) 아기젖이 부족할 때

아이 젖은 산후 3일이 지난 후에 먹인다. 그러나 젖이 나지 않거나 부족하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

다. 산모는 젖이 나지 않거나 부족하면 약을 지어 먹어 보기도 하고 이례안에 마을 샘에 시리를 이고 가서 '지앙맛아 온다'고 하여 물을 길어다가 지앙상에 놓고 젖많이 태달라고 빈다. 이를 '젖 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산모는 돼지 발목을 고아먹어 보기도 하고 쌀밥에 국을 끓여 먹기도 하며 돼지 분통개(오줌보)에 날달걀 두 개를 깨서 먹어 보기도 한다. 또 돼지 발톱을 갈아먹기도 한다. 또한 젖이 나지 않거나 부족하면 아이에게 미역국을 먹이거나 '맘'이라 하여 생쌀을 절구통에 갈아 끓여서 먹인다고도 한다.

#### 나) 삼진날과 이레

아기가 태어나 3일째 되는 날을 '삼진날'이라 하고 7일째 되는 날을 '첫이레'라고 한다. 이때는 산모방과 베짚지앙이 있는 곳에 '지앙'이나 '지앙님네'에게 지앙상을 차린다. 지앙상에는 짚을 깔고 밥, 미역국, 정화수를 떠놓고 애기에게 복주고 명 주라고 빈다. 지도지역은 예전에는 일곱이레(49일)까지 지냈었다고 하나 지금은 세이레(21일)를 지내고 있다. 세이레가 지나면 금줄과 베짚지앙을 모두 치우게 되며 산모와 가족의 금기가 모두 해제된다.

#### 다) 백일과 돌

아기가 태어난 100일째 되는 날을 백일이라 하고 1년째 되는 날을 '똥'이라 한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 유아사망률이 많지 않으나 예전에는 태어난지 백일과 1년이 못되어 사망하는 아이가 꽤 많았다. 그래서 백일과 돌은 온 집안의 경사로 거행되었던 것이다.

#### 라) 기타

- 아기 이름은 대개 집안 어른이 작명하는데 좋지 않으면 돈을 주고 다시 짓는다.
- 재주있는 아이는 태어나면 짚위를 긴다고 한다.
- 아이가 체했을 때는 지추(지치?)를 다려 먹인다.
- 아기가 홍역에 걸리면 문을 열지 않고 따습게 해준다. 이때 빨간 금줄을 쳐두어 추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 아기가 이질에 걸리면 쑥뿌리를 다려 먹인다.

조사일시: 2006. 8. 26

조사장소: 임자면 진리 노인회당

제보자

1. 김인심(62, 여, 임자도 진리)
2. 김화자(68, 여, 임자도 진리)
3. 진수금(75, 여, 임자도 진리)
4. 박정남(81, 여, 임자도 진리)
5. 안옥현(85, 여, 임자도 진리)
6. 장영아(89, 여, 임자도 진리)

## ② 혼례

### 가. 약혼

혼인할 나이의 자녀를 가진 집에서는 혼처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매인의 역할이 시작된다. 중매인은 여자나 남자측의 친한 친구나 친척들이 주로 되는데 이들은 ‘중마꾼’, ‘중마쟁이’라 불리운다. 중매가 들어오면 우선 양가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집안이나 궁합, 성씨, 행실, 재산등을 알아본다. 특히 남자측의 경우 여자가 길쌈을 잘하는가를 알아보기도 한다. 궁합은 동네의 한학자에게 의뢰하거나, 점쟁이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그후 양가 부모가 만나 혼인여부를 결정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신랑·신부가 서로 만나는 것은 큰 욕으로 인식되었다.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측에서 약혼의 의미로 ‘사성단지’, ‘사신’을 보낸다. 이때 ‘신부옷걸림’이라 하여 신부 옷한벌과 이불감도 함께 보내는데 이를 신부는 시집을 때 다시 가지고 온다. 이를 신부집으로 가져다 주는 역할은 중마쟁이가 담당한다. 또 양가에서는 ‘혼서지’를 보내는데 이를 받은 신랑측은 택일을 하여 신부측에 보낸다. 택일은 신랑측에서 마을 동네어른으로 토정비결 등 한학에 조예있는 분에게 부탁한다. 혼서지를 받은 신부측은 대부분 그대로 따르나 혹, 날이 맞지 않을 경우 다시 택일하여 신랑측으로 보낸다. 또 신부측에서는 택일 이바지로 술을 마련하기도 한다.

혼인식은 택일을 한 후 보통 한달안에 올리는데 봄 또는 여름에 택일하면 가을에 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 나. 혼례식

혼례식은 신부집에서 치르게 된다. 신랑은 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집으로 가는데 이를 ‘초행’이라

한다. 초행길에는 신랑을 인도하고 신랑집을 대표하는 '상각손님'이 따르고 '우인대표'와 '중방쟁이'가 따른다. 상각은 신랑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등 친척이 주로 맡는다. 우인대표는 신랑의 친구들이 되며, 함을 짊어지고 따르는 사람이 '중방쟁이'이다. 특히 중방쟁이는 마을에서 아들 잘 낳고 팔자 좋고 유우머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얼굴에는 검은 숯검정을 발름으로써 액매기(액막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함에는 신부 옷한벌, 족두리, 신랑의 사모관대, 오리와 머리카락을 잘라 맨 달크락(?)을 넣는다.

신랑일행이 신부의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신랑이 혼례를 치르기 전 머물수 있도록 '손예방(?)'으로 모신다. 손예방은 신부집을 거치지 않은 이웃에 마련한다. 신랑일행이 손예방에 안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술상을 마련하여 대접하며 신랑은 사모관대를 꺼내 갖추어 입고 식의 준비를 하게된다.

먼저 식이 있기 전 중방쟁이가 신부집으로 함을 지고 간다. 신부집 앞에서 "중방쟁이가 왔네" 하고 소리를 치면 사람들은 "자네! 어디서 왔는가?" 묻게 되고 다시 중방쟁이는 "나! 이만저만해서 술이나 한잔 얻어 먹자" 하면서 짊어진 함을 줄까 말까 한다. 이때 신부 어머니는 술상을 내온다. 중방쟁이는 이를 먹은 후 함을 신부측에 건네준 다음 신랑을 모시러 손예방으로 간다.

함은 아들 잘 낳고 부부가 오래도록 같이 사는 오복을 갖춘 사람이 건네 받는다. 함을 받은 부인은 함의 네모서리를 빗자루로 두드릭 세 번 깔고 앉은 후 신부어머니에게 건네준다.

함이 들어오면 신부집에서는 앞마당에 대례상을 준비한다. 이 대례상을 '동네상', '예식상', '큰상'으로 부르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상 위에는 떡, 과일, 술 등 장만한 음식과 보자기에 싼 암탉과 수탉, 동백나무를 꺾은 꽃병이 놓인다. 그리고 청홍실이나 삼색실을 동백나무에 걸치고 두 개의 술잔에 묶어 두는데 이는 인연을 맺어 잘 살라는 뜻과 자식의 명이 길기를 바라는 의미에서라고 한다. 한편 신랑과 신부의 인연이 좋으면 이 대례상에 놓인 닭이 울기도 한다.

혼례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입장함으로써 시작된다. 신랑이 식장에 들어오기 전 신부마을에 사는 젊은 청년들이 신랑을 놀리기 위해 가마를 타고 들어오는 신랑에게 길세를 내놓으라면서 장난을 건다. 신부집으로 들어오는 신랑은 신부의 오빠나 친척인 '대각'이 맞아들이고 신랑이 예를 하는데 도와준다. 이때 식순은 예 부르는 사람이라 하여 '집사'가 한다. 혼례식은 이 집사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진행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신랑하마 - 신랑이 가마에서 내려온다

나) 신부입장

다) 신랑홍- 신랑이 일어선다.

라) 신랑재배 - 신랑이 신부에게 큰절을 두 번한다

마) 신부사배 - 신부가 신랑에게 네 번 큰절을 한다. 예맞을 때 신부를 도와주는 이를 ‘대각’이라 하는데 팔자 좋은 젊은 여자가 맡는다

바) 신랑 흠

사) 신부 흠

아) 신랑 관세: 세숫물을 떠다 얼굴을 씻기는데 형식적으로 손 끝에 물은 묻혀서 얼굴에 뿌린 후 수건으로 닦는 시늉을 한다.

자) 신부관세

차) 신랑신부 합석

카) 신부입방

이렇게 하여 식이 끝나면 신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간 다음 신랑이 들어간다. 신랑은 신부가 읊을 처주었을 때 들어갈 수 있으나 그냥 들어가기도 한다. 그후 신랑신부와 상각손님은 신부덕에서 크게 대접을 받는다. 상각은 대개 당일날 돌아가나, 하룻밤 묵어 가는 수도 있다. 식을 마친 신랑의 경우도 일진을 보아 당일치기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나 보통은 신부집에서 3일간을 머물다가 간다.

밤이 으스스하면 신부어머니는 신방을 꾸며 놓는다. 신방의 윗목에는 술, 대추, 밤 등이 놓인 ‘첫날밤상’을 놓아두어 신랑, 신부가 서로 낯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부는 첫날밤상에서 밤을 먼저 집어 먹어야 하는데 이는 자식번창하고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에서이다. 신랑신부가 신방에 들면 마을 사람들은 ‘신랑신부엿보기’를 한다. 이는 처음 대면하는 신랑 신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신랑 신부 중 누가 도망가지는 않는지 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다. 신행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로 가는 것을 신행이라 한다. 신랑집으로 떠나는 날 아침, 신랑·신부는 장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하고 친정을 떠난다. 이때 신부가 가마에 오르면 가마주위에 소금을 뿌리고 가마의 네모서리를 두드린후 가마 양쪽 귀통이에 참기름과 머리 기름을 매달아 준다. 가마속에는 폐백 드릴 음식을 넣어준다. 신행길에 신부를 따르는 사람으로는 신부의 큰아버지나 오빠 등이 동행한다. 신부가 신랑집에 도착하면 신랑측에서는 객귀를 쫓기 위해 단골네를 불러 징을 친다. 그리고 대문밖

에는 상을 차려 놓는데 이를 ‘떡물림’이라 한다. 시가로 가마가 들어오면 신랑이 가마문을 열어준다. 가마에서 내린 신부는 신랑집에서 미리 마련한 쌀과 실을 감아둔 손가락을 누룩 위에 꽂아 그것을 안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또 시부와 신랑은 삼재가 끼었다하여 도착하자마자 부엌과 뒤걸을 돌아서 방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시가에 도착한 신부와 신랑은 먼저 선영에 피복(폐백)을 하고 시부모나 가까운 일가친척에게도 피복한다. 피복은 신부가 친정에서 마련해 온 이불, 옷, 떡, 술, 고기, 대추, 밤 등을 차리고 한다. 피복시에 신부와 신랑은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게 되며 절을 받은 시부모는 신부의 치마에 잘살라는 의미로 대추를 던져준다. 피복이 끝나면 시부모나 일가친척들은 피복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은 실꾸리를 신부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신부가 시가에 온지 3일이 지나면 음식을 간소하게 장만하여 친정에 가는데 이를 ‘재양질’이라 한다. 이는 일년 농사를 지어 이바지를 해서 가기도 한다. 신랑 혼자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다. 신랑과 신부가 재양질을 오면 신부측 마을청년들이 신랑놀리는 풍습으로 ‘신랑 달아먹기’를 한다. 마을청년들은 당목으로 신랑의 발목을 묶은 다음, 시령에 매달고 발바닥을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신랑이 똑똑한가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말장난을 한다. 재양질을 갔던 신부는 친정어머니가 마련해 준 이바지를 가지고 시댁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친정어머니가 함께 동행하기도 한다.

---

조사일시: 2006. 8. 26

조사장소: 임자면 진리 노인회당

제보자

1. 김인심(62, 여, 임자도 진리)
2. 김화자(68, 여, 임자도 진리)
3. 진수금(75, 여, 임자도 진리)
4. 박정남(81, 여, 임자도 진리)
5. 안옥현(85, 여, 임자도 진리)
6. 장영아(89, 여, 임자도 진리)

③ 상례

가. 임종

사람은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사람이 마지막 통과 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에 따르는 의례가 상례이다.

부모가 사망할 기미가 보이면 먼저 새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안방으로 모신다. 그리고 친지와 자손들에게 통지하고 상복·칠성판·관·시의 등을 준비한다. 통지를 받은 자손이나 친족들은 고인이 마지막을 지켜보게 되는데 이때 사망 전에 곡을 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있다. 고인의 사망이 확인되면 자손들은 시신의 손발을 핀다. 두 손은 왼손이 오른손 위로 올라가게 놓고 시신의 가슴위에 얹어서 묶으며, 두발은 함께 묶어 안방벽에 발바닥이 닿게 처리하므로써 시신을 정돈한다. 그리고 시신의 이물이 입이나 코를 통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솜으로 모두 막는다. 이때 손발을 피는데 사용되는 것은 당목, 가야제베, 참종이 등이다.

시신의 정돈이 끝나면 혼백을 부르는 ‘초혼’을 한다. 초혼은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동정을 떼낸 저고리나 속옷을 지붕으로 던지는데 이때 “신안군 임자면 진리 아무개 복복복”하고 세 번 외친다. 초혼은 고인이 생전에 살던 집을 떠남을 알리는 것이다.

초혼을 한 수 사제밥을 대문밖에 차린다. 상에는 밥 3그릇·술·참종이로 만든 신·동전을 놓는다. 이때 밥을 세그릇 놓는 것은 저승에서 고인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온 세 명의 사자를 대접하는 것이며 동전은 사자의 여비로 인식된다. 사제밥이 놓이면 상주는 “안녕히 가십쇼”, “가시는 길 어찌든지 잘 모셔 주쇼”라고 기원하면서 곡을 한다. 사제밥은 누구나 진설할 수 있으나 체력을 보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사제밥을 진설한 사람은 후에 사자상에 놓인 동전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 후 상주는 부상일 경우 왼팔 두루마기손을 모상이면 오른팔 두루마기손을 빼고 머리를 풀며 며느리나 자손들도 머리를 푼다. 사자에게 사제밥을 먹인 후에는 초혼때 던진 지붕의 옷을 내려서 사신의 가슴에 덮어둔다.

시신은 손발을 피었고 바르게 고정시킨 다음 안방 윗목의 칠성판 위에 놓는다. 칠성판은 ‘시판대’, ‘시성판’으로 불리우며 부엌문짝을 사용하거나 얇은 널빤지 또는 대나무를 쪼개 엮은 받을 사용한다. 이는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하고 장례시 목포에서 직접 구입해오고 있다. 칠성판에는 다리·허리·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세군데에 짚동치(짚뿔)를 놓은 다음 시신을 안치하고 얇은 흙이불로 덮어둔다. 이때 시신의 베개는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나 짚동치를 참종이로 싼 것을 베어준다. 그리고 시신의 턱이 아래로 쳐지는 것을 고정시키기 위해 창지(창호지)나 지푸락(짚)을 뭉쳐 턱에 받쳐준다. 또 새 옷을 말아서 턱에 받쳐주어 고정시키기도 한다.

시신은 두향이 북향으로 놓이게 되며 앞에는 병풍을 쳐서 가리운다. 병풍앞에는 ‘시사존’이라는 혼

백을 만들어 놓고 주·과·포·향·양축이 놓인 작은 상을 놓아둔다. 상맡에는 고인이 생전에 신었던 신발을 깨끗이 닦아서 놓아둔다. 시신이 안치된 방은 ‘체벽방’으로 불리운다. 체벽방은 불을 지피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자손들이나 일가친척 외에는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단칸방의 가정은 어쩔수 없이 체벽방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게 된다. 초혼과 사자상·시신안치가 끝나면 일가친척과 마을민에게 부고를 띄운다. 부고는 호상이나 친족대표가 주관하며 이웃사람이나 마을청년들의 도움에 의해 전달된다. 조객이 방문하면 마루에 따로 마련한 ‘빈소’에 모셔 접대한다. 조객은 성복전에 상주를 만날 수가 없으며 성복제를 지내야만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 나. 소다름(소렴과 대렴)

염은 시체를 씻고의복을 입힌 다음 묶어 관에 넣는 것으로 크게 습과 대렴, 소렴이 있다. 습은 시체를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며, 소렴은 시체를 임시로 묶는 것이고 대렴은 시체를 단단히 묶고 입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자손이나 친척들 중 상을 치룬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맡아서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타인이 맡아서 한다. 먼저 시신을 칠성판에 내려서 방에 깔아 놓은 가마니에 놓는다. 그리고 시신의 양쪽에 각각 1명씩이 앉아 습염을 하게 된다. 습은 향나무를 다린 ‘상물’을 사용하거나 향을 잘게 깎아 이를 냉수에 담구었다고 걸러서 하용하기도 한다. 한편 이 지역에서 습은 ‘씻김’으로 통용되며 씻김은 준비된 상물을 깨끗한 솜에 묻혀 형식적이거나 머리부터 차례로 닦아 준다. 이때 시신이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참종이를 이용해서 씻기는 부분부분을 가려가면서 씻겨 내려온다.

씻김이 끝나면 시의를 입히는 소렴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이를 ‘소다름’이라 한다. 먼저 시신을 명주로 감고 하의부터 상의의 순으로 시의를 입힌다. 이때 명주를 감는 것은 시신의 육탈시에 뼈가 흩어져 없어지지 않고 명주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명주는 가로로 석자, 세로로 일곱자 일곱치를 떠서 시신을 싼 다음 7매듭을 묶는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가 묶지 않고 있다. 시의는 남상의 경우 바지·저고리·허리끈·두루마기 순으로 입히는데 이때 부유한 가정은 도포까지 마련하여 입히기도 한다. 그리고 여상의 경우는 고쟁이(고의)·바지·속치마·겉치마·속적삼·저고리 순으로 입혀진다. 이러한 시의 여러벌은 상의와 하의를 각각 시침하여 한번에 모두 입을 수 있도록 누빈다. 시의로 이용되는 옷감은 당목이나 목면이 주로 사용되나 부유한 가정의 경우는 명주, 마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주검입성’, ‘주검옷’이라고 하여 시의를 생전에 만들어 두거나 사망후에 상가의 대청이나 이웃집에서 준비했다고 한다.

시의를 입힌 후에 여상의 경우 머리는 곱게 빗어 버드나무를 비녀삼아 쪽을 짓고 얼굴에는 다른 세 상으로 시집간다는 의미에서 연지나 곤지를찍고 화장을 시킨다. 그리고 발톱은 깎고 버선을 끼우고 창호지로 접어만든 신발을 신겨준다. 손은 손톱을 깎은 다음 창호지로 만든 장갑을 끼운다. 이때 자른 고인의 손톱과 발톱은 베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담아 손이나 발부근에 놓아 두며 머리를 빗길때 빠진 머리도 주머니에 담아 머리맡에 놓아 둔다. 자동리 자서마을에 거주하는 대개 시신의 얼굴은 면막수로 가려준다. 그러나 고인이 면막수 사용을 원치 않는 유언을남겼을 경우에는 씌우지 않는다. 면막수는 가제베에 먹칠을 해서 말린 것이나 잘 썬지 않은 붉은색의 베를 사용하게 된다.

소다름이 끝이 나면 ‘반함’, ‘세미넣는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한다. 반함은 상주가 버드나무를 깎아 만든 수저로 물에 불린 쌀을 시신의 입에 세 번 가랑 떠넣어 주는 것이다. 쌀이외에도 진주나 고인의 생전에 빠진 치아를 보관해 두었다가 입에 넣어주기도 한다. 반함을 하는 것은 “생전에 고생해서식복을 걸렀지만 저승에 가서는 밥이나 거르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입관을 한다.

입관을 하고 관을 당목으로 싸고 묶는 것을 대렴이라 한다. 관을 묶기 위해서 참종이와 짚을 섞은 16발의 원새네끼를 꼬아 사용한다. 관이나 상여는 예전의 경우 집안에 연로하신 분이 계시면 생전에 소나무 등을 미리 구해 목수로 하여금 관을 짜도록 하여 집안에 보관해 두었다. 이것을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성으로 인식하였다고 한다. 이중 상여는 마을공동으로 준비해 둔 것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목포나 해제 등지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관에는 칠을 칠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류’라 한다. 이는 벌레가 범하거나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대부분 들기름을 사용한다.

소다름과 입관이 끝나면 상주나 친족들은 굴관제복과 상복을 착용하기 위한 ‘성복제’를 지낸다. 성복제전 상주들은 머리를 감아빗고 목욕정성한다. 제는 예전에 온갖 음식을 마당에 차려 제사를 모셨으나 지금은 간단히 방안에서 지낸다. 제가 끝나고 나면 모두 상복을 입는다. 상복이나 굴관제복은 대개 마포나 당목을 사용하여 마련한다. 녀상주는 마포와 창지를 풀로 붙여서 말려 접은 ‘포건’을 덮어 쓰고 그 위에 짚으로 두겹게 새끼를 꼬아서 만든 ‘테머리관’을 둘렀다. 남상주의 경우는 창지에다 마포를 풀칠하여 말린 ‘굴관’, ‘부관’으로 불리우는 것을 쓰고 여상주와 마찬가지로 테머리관을 머리에 둘렀다. 그리고 허리에는 짚으로 굵게 꼬아서 만든 요질을 둘렀으며 상막대는 부상의 경우 대나무를 모상의 경우 소나무, 쪽나무, 오동나무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상복의 바느질은 부상의 경우 시침을 바깥쪽으로 접고 모상에는 시침을 안으로 접어 마련한다. 상주는 벼짚으로 만든 ‘엄신’을 신는데 눈이 와도 양말을 신을 수 없다.

다. 매장

먼저 장지와 장일을 정한 후에 출상을 한다. 장지(되자리)는 지관(풍수쟁이)이 선정해 왔으나 지금은 <사례편람>을 보고 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선정하고 있다. 장지로 적당한 곳을 명당 자리로 고르는데 산수가 좋고 지하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 주위의 산세가 환하게 트이고 나무의 뿌리가 뻗지 않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다.

장일은 가정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3일장을 거행하고 있다. 출상준비가 끝나면 전날 저녁에 ‘밤달애’나 ‘밤달야’라 부르는 행사를 치른다. 밤달애를 하는 의미는 으스스한 상가와 슬픔에 잠겨있는 상주를 위로하고 무섭증을 없애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때는 “상여놀린다”고 하여 빈상여를 가지고 상여를 뿔 상두꾼이 모여 ‘상여놀이’를 하기도 한다. 상여놀이는 3경·4경·5경의 세차례에 걸쳐 북과 장고를 치면서 거행되며 이때 상중들은 흥겹게 놀기도 한다.

장지가 결정나면 출상일 이른 아침, 상두꾼의 몇 명은 산역을 하기 위해 장지로 간다. 산역을 하기 전에 술·과일 등의 음식을 차리고 깨끗한 사람이 ‘개토제’나 ‘산신제’라 부르는 제를 지낸다. 개토제를 지낸 개토산신에게 아무개를 이곳에 묻노라고 고하는 것이다. 장지는 물이 고이지 않을 네자 깊이로 파둔다. 이처럼 장지를 파서 묘자리를 만드는 일은 상가의 친족중 나이가 지긋하고 상을 많이 치룬 경험이 있는 분이 직접보고 지시한다.

출상하는 당일날 관이 안방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 주·과·포 등을 차려 놓고 ‘동관제’를 지낸다. 이 때 상주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방을 떠나간다는 의미에서 슬프게 곡을 한다. 동관제 후 상두꾼은 관을 들고 먼저 방의 네 못리를 “관세음보살”을 외면서 돌며 가내의 액운을 없애기 위한 주술행위를 행한다. 특히 주술행위로 이 지역은 방문턱에 톱으로 열십자를 내고 그 위에 바가지를 얹어 놓고 상두꾼끼리 “복이냐”, “아니다”로 문답하면서 바가지를 깨는 행위, 선소리꾼이 바가지를 깨지 못하면 관을 들어서 깨는 행위 등이 그 일례이다. 이 때 바가지를 깨는 행위는 혼백을 깜짝 놀라게 하여 집안을 떠나가게 한다는 의미에서라고 얘기 한다. 특히 시신이 굳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로 있으면 ‘복걸렸다’해서 액땀이를 하는 경우도 이때가 된다. 이 경우는 안방의 네모서리에 ‘海’자를 거꾸로 붙이고 방중앙 천정에는 ‘天’자를 붙여 놓음으로써 시신의 액을 풀어준다.

동관제 후에 안방에서 내온 관은 상여에 얹어 놓는다. 상여에 올려놓고 집안의 마당에서 정든집을 마지막으로 나가기 위한 발인제를 거행한다. 발인제가 끝나면 상여는 집을 떠난다. 상여행렬이 길을 가는 도중에 ‘노제’, ‘거리제’라 부르는 제를 거행한다. 거리제는 행렬 도중에 “관음보살”을 외며, 상

여를 내려놓고 병풍을 친 다음 제상을 차려 자손들이 잔을 올리고 재배하는 것이다. 이때 상가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구경나온 마을민과 어린애들을 대접하기도 한다. 거리제를 지낸 후에는 북과 장구를 치고 선소리꾼이 소리를 주면 상두군은 후렴을 받으면서 놀거나 ‘호상’을 하다가 장지로 향한다. 호상은 상두꾼이 상여를 땔 때 고인의 사위나 조카, 집안의 젊은사람 등을 상여 위에 올려 태우고 망자가 저승을 가는데 필요한 ‘노자’ 즉 돈을 상여에 걸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호상으로 걷힌돈은 예전에는 상두꾼이 술, 담배, 돼지고기 등을 사다가 먹어 없었다고 하나 지금은 상주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있다 한다. 상여행렬은 공포·운아·영정(명정)·만장·영위틀·상여·상주 순이 된다. 혼백상자에는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저고리의 동정과 사진, 삼색실(청색·홍색·노랑색), 신발, 모자 등이 놓여있다. 만장은 고인의 절친한 친구나 친족들이 마포에 잘가시라, 폭쉬어라는 의미의 글귀를 써서 준 것이다.

거리제를 지낸 후 장지로 향할 때 상여가 마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면 마을을 떠난다는 마지막 하직인사를 하는데 상여를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 상여가 마을을 벗어나면 여자들은 하직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장지까지 가서 봉분작업을 보기도 한다. 상여행렬이 장지로 향하는 도중 고인이 소유했던 전답이 있으면 이를 경유하게 되어있다. 상여행렬은 상여소리의 박자에 맞추어 전진하며 상여소리는 선소리꾼과 상두꾼이 서로 주고 받는 형식으로 한다. 상여가 평지를 갈 때 상여소리는 “어닐 어닐 어노리 넘자 어닐”을 느린 속도로 반복하며 상여가산중턱을 오를 때는 “어하넘자 어하넘자”를 빠른 속도로 반복한다. 장지를 도착하여 상여를 내려 놓을 때는 “관음보살”이나 “태고”를 반복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려 놓는다.

상여가 마을을 벗어나면 고인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이나 옷가지 등을 상여가 나간 방향으로 놓고 태운다. 이때 깨끗한 물건이나 옷은 태우지 않고 불위를 몇 번 돌린 다음 자손들이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준비된 묘자리에 하관을 시작한다. 먼저 과놓은 광밀에 곱게 걸러진 황토 흙을 깔거나 참종이를 깔 다음 하관하고 명정을 덮는다. 그리고 상주는 마포형겉을 가지고 관의 네모서리를 돌면서 술을 조금씩 붓고 흙을 한 삽씩 넣는다. 다음으로는 ‘도엿개’라 하여 소나무로 만든 통나무를 홀수 숫자에 맞춰 명정위에 놓아 관에 흙이 직접 닿는 것을 막는다. 혼백상자는 봉분의 때를 때어 내고 묻거나 불태워 버리며 고인의 기성과 사진은 상주가 모시고 다시 상가로 돌아온다.

라. 흥제

흉제는 고인의 영혼을 산에서 다시 상가에 모시고 제를 지내면서부터 탈상까지의 제사를 말한다. 치장 후에 기성과 사진이 상가로 돌아오면 상주는 곡을 하면서 이를 ‘영실’에 모신다. 영실은 공방에 해당하는 빈방에 마련하거나 마루한켄 마당 한쪽에 별도의 묘를 지어 만들기도 한다.

시신을 보내고 저승에서 떠도는 영혼을 맞아다가 위안하는 뜻에서 지내는 제사로는 초우제·재우제·삼오(우)제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삿제’가 있다. 초우제는 치장한 날 바로 영실에서 지내고 재우제는 치장후 이튿날에 거행한다. 그리고 치장후 삼일째에는 삼오(삼우)제를 지내고 자손들이 모두 모여 묘의 이상여부와 봉분상태를 살피기 위해 묘를 찾아간다. 특히 이날은 장례과정에서 고생한 상두꾼 등의 계원들을 불러 술과 음식 등을 대접함으로써 감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삿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간단히 밥을 영실에 차리고 지내는 제사이며 이때 상주는 곡을 한다. 이러한 제 이외에도 상가는 탈상하기 전까지 조석으로 밥이나 국을 영실에 차려야만이 자식으로서 효성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망 후 3년만에 치루는 탈상이 지금은 대부분 3개월이나, 1년만에 하고 있다. 이때는 다시 상복이나 국관제복을 착용하고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새롭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혹 장례시에 조문을 못했던 조문객이 방문하는 경우도 이때이다. 탈상이 끝날 무렵에는 입었던 상복이나 굴건제복등을 모두 벗어 깨끗한 곳에 놓고 태워 없앤다.

탈상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혹 이장을 하기도 한다. 이장은 살이 썩어지고 뼈만 남게 되는 상태, 즉 낙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보통 낙근이 되기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린다. 이장은 자손들과 마을민중에 경험있는 사람이 조용히 치룬다. 이때는 낙근된 시신을 바로 다른 장지에 매장하지 않고 일단 집안의 마당에 안치한다. 안치한 후에는 매 식사때마다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며 다음날 매장을 행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상례는 예전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으나 산업화에 의해 현대생활에 맞춰 복잡한 것은 소멸되었거나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마. 초분·독장

초분은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일차장인 가장에서 시신을 완전히 썩혀 육탈시킨 후 분장인 이차장에서 유골을 깨끗이 처리하여 매장하는 이른바 이중장제이다. 이 지역은 이를 ‘초분’ 외에도 ‘출빈’, ‘빈수(殯所)’라고도 부른다. 초분을 하는 이유는 ① 음력선달이나 정월초에는 땅을 파헤쳐서는 안된다는 속신 ② 홍역 등의 전염병이 나돌 때 땅을 파면 안된다는 사실 ③ 부모의 시신을 바로 매장

하기가 죄스럽고 시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세가지로 나타난다.

초분의 형태는 산 으스스한 곳에 양쪽 3군데씩 6군데에 마장(말뚝)을 박고 관을 놓거나 소나무를 쌓고 관을 올려 놓기도 하며, 돌을 쌓고 관을 올려 놓는 형태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모두 관이 땅에 바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밑에 3개 정도의 상석을 놓아두기도 하는데 이는 물이나 습기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관은 바람으로 둘러싸고 바람에는 솔가지 등을 꽂아 둔다. 초분은 바람을 1년에 한번씩 다시 씌워 줌으로써 단장해준다.

본장은 3년이 넘어 완전히 육탈이 되어야 가능하다. 먼저 칠성판에 참종이를 깔고 뼈를 추려내어 맞추는데 이를 '씻골'이라 한다. 씻골 후에는 운아삽신과 명전을 넣어준다. 시신을 집안으로 모시고 와서 제사를 모신 후 다음날 매장하게 된다. 집안으로 모실 때는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손이 없는 공방인 방향에 안치한다. 공방의 방향을 지켜야 함은 남은 자손들에게 오는 탈(피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무척 조심하는 것이다. 본장때도 상례의 출상과 같이 매장지로 향하는 시신을 향해 자손들은 모두 하직인사를 한다. 예전에는 모두 초분을 실행했다고 하나 지금은 거의 않고 있으며 없어진 지가 10여년 된다.

매장은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때에 실행했던 장법이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아이의 시신을 독에 넣어 매장하기도 한다. 매장시에 아이의 시신은 평소 입었던 옷이나 새옷을 입히고 얇은 요(이불)에 싸는데 부모들은 “암데라고(아무데라도) 생겨서 다시 세상뵈라”고 얘기하며 다시 다른 가정에 태어나기를 기원한다. 혹 매장시에 시신을 옆에서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다시 우리집으로 오지 말라고 죽은 아이에게 독하게 해서 보는다는 뜻이다.

조사일시: 2006. 8. 26

조사장소: 임자면 진리 노인회당

제보자

1. 김인심(62, 여, 임자도 진리)
2. 김화자(68, 여, 임자도 진리)
3. 진수금(75, 여, 임자도 진리)
4. 박정남(81, 여, 임자도 진리)
5. 안옥현(85, 여, 임자도 진리)
6. 장영아(89, 여, 임자도 진리)

#### ④ 제례

##### 가. 기제

기제란 묘제를 모시기 이전 몇 년동안 방안에서모시는 제사를 말한다. 대개는 장남의 가정에서 모셔지나, 혹 장남이 먼곳에 출타하거나, 초상난 곳 등의 곳은데에 갔을 경우에는 차남이 대신 지내기도 한다. 제일에는 자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고인의 업적이나 유언·교훈 등의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제사지낼 시간을 기다린다. 특히 여자들은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한다.

제는 보통 사람의 왕래가 적은 조용한 밤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낸다. 자손들은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에 임한다. 장남은 제물을 진설한 후 ‘독’ 또는 ‘함’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기성을 내려다 모시거나 독문을 열어 놓고 진신·분향·강신·초헌·아헌·종헌·유식·설신·음복의 순으로 제사를 지내게 된다.

##### 나. 묘제

묘제는 5대조 이상의 묘를 찾아 한꺼번에 제사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시사모신다’, ‘시제지낸다’고 부르고 있다. 제는 묘에 가서 지내기도 하나 산중제각이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지내리도 한다.

#### (9) 가신신앙

가신신앙은 공간적으로 대개 가내에 위치하는 신적존재들에 대한 신앙이다. 따라서 그것은 가정단위의 신앙이며, 그 담당자는 주부가 대부분이다. 가신의 종류로는 대체로 성주신·조상신·삼신·조왕신·터주신·제왕신·업신·샘신·축신·문신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신들의 명칭은 물론 존재하는 양식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 역할 또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 ① 성주

성주는 가택신으로 가정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신이다. 성주는 대청 상량에 위치하는데 신체는 대부분 참종이나, 집을 신축하면서 실이 없는 참종이에 ‘성주’라고 쓴 다음 상량에 끼워 놓거나, 잘붙게 하기 위해 물이나 술에 담가놓았다가 상량에 던져 붙이는 것이다. 이때 경문을 읽는 독경쟁이나 점쟁이를 불러 성주경을 읽도록 한다.

성주의 신체는 주로 성주오가리나 성주단지의 형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조상오가리를 조상단지로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의례는 간단히 명절때나 생일 때, 제사때 대청문 부근에 짚을 깔고 성주상을 차리고 난 다음 “할매 하나씩 동서남북으로 데녀도(다녀도) 몸건강히 해주고 돌봐 주시고 자손이나 명길게 복주시소” 하고 기원하는 정도이다.

성주는 집주인으로서 함부로 손대면 큰일나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한편, 외부에서 떡 등의 이마지가 들어올 경우도 성주신이 먹고 나서야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 ② 조상단지 · 불그릇 · 조상독 · 성주독 · 성주동우 · 성주단지

단지의 쌀은 새농사 지어 부정이 없고 손없는 좋은 날인 음력 초사흘이나 설달 초하룻날 옷을 깨끗이 갈아 입고 담는다. 이때 흑시 마을에 산고나 초상이 있으면 ‘부정탄다’고 하여 담지 않는다. 이전에 담겨 있었던 쌀은 꺼내 함부로 버리거나 짐승을 주지 않고 깨끗하게 식구끼리 밥을 해먹고 있다. 단지에 한번 담은 쌀은 한 해가 지나고 다음해 7월 새쌀을 넣을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다.

조상단지에 대한 의례는 간단하다. 의례는 정월 초하례나 추석의 명절때나 생일때 그리고 제사때에 장만한 음식을 진석하고 기원하는 정도이다. 불안한 오가리는 깨끗한 그릇을 사다가 놓은 것이다. 제보자 김씨는 자신의 신명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대청상량에 불안되는 성주와 약간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③ 조왕 · 조왕단지 · 조왕보세기 · 조왕보상 · 조왕할머니

조왕은 식량공급처인 부엌의 부뚜막에 모셔지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조왕단지’, ‘조왕보세기’, ‘조왕보상’ 등으로 불리우는 신체에 ‘조왕’, ‘조왕님’, ‘조왕할머니’를 모신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 (10) 무속신앙

임자도 진리의 경우에는 당골이 없어서 이웃 마을에서 불러다가 굿을 했다고 한다. 또 제보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속신앙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

① 성주굿: 성주는 새성주해서 이사들어 갈 때(집을 새로 지었을때) 가옥 상량(들보)에 주인영감 · 할멈의 이름, 나이, 생일과 생시를 한지에 쓰고 대나무에 꽂아서 올려두고 떡시루와 귀신 숫자대로 밥그릇 놓고 집터 주소인 신안군 임자면 진리 누구누구집에서 아무날 아무시(날자, 일진, 해시)에 성주

를 올린다고 성주님께 고한다.

집주인이 만사형통하도록 복돋아주시고 좋은 주인으로 입정하여달라고 소지를 올린다. 떡시루와 과일, 구신(귀신) 숫자대로(보통 할미·하나씨·성주님등 서너그릇) 밥을리고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성주경을 읽는다. 또한 죽은귀신 잘되고, 가정이 화목하라고 화목경을 읽고 귀신옷을 불사른다(태운다).

## ② 뉘건지기굿

뉘을 건지는 이유는 물속에 빠져 죽은 시신의 뉘이 물속에 있으므로 건져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수사하면 요왕에서 죽은 것이니 뉘을 건져주어야 하고 수살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뉘을 건질 때에는 바닷가에서 요왕밥 3그릇, 맹인밥 1그릇, 밤, 대우, 사과, 배 등 과일,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등 너무새(나물)를 차려놓고 빈다. 이때 비린것(생선)은 차리지 않는다. 제물을 진설한 후 산신경·요왕경·해원경을 읽고 신장이 나오면 질(길)뉘고, 귀신나오라고 추원(기도)을 한다. 귀신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는 간짓대에 곱패를 매달아 물속에서 뉘을 잘 건진다. 곱패는 식기에 쌀과 죽은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시를 써넣은 것을 말한다. 뉘은 식기안에 죽은사람 머리카락이 쌀과 함께 곱패에 담겨 나오면 건져진 것으로 판단한다.

## ③ 씻김굿

씻김굿에는 '진씻김' 과 '모른씻김' 이 있다. 진씻김은 '판머리씻김' 이라고도 하는데, 막 죽은 사람을 판에 넣고 씻겨 주거나 죽은지 49일째 해원경을 읽어 씻겨 주는 것이며, 모른씻김은 죽은지 1년이 지난 소상이나 2년지난 대상 또는 방제사때 굿을 해주어 씻겨주는 것이다.

제사음식은 성의껏 장만한대로 강변에 차려 놓으며, 씻기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옷을 만들어 놓는다.

## ④ 푸닥거리

### 가. 동정잡이

사람은 병이 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과 노력들도 때로는 허사가 되고,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는 수가 종종있다. 동정잡이는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선 치유되지 않았을 때 어떤 영적인 힘을 빌어 병을 고쳐주는 일종의 축술행위자라고 볼 수 있다.

동토경을 읽어야 하는 병명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만큼 병의 원인도 다

양했으리라 여겨진다. 발병의 원인은 점쟁이나 무당의 점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대개 집을 신축하거나, 집안팎을 수리하고자 흙을 다루는 날짜가 좋지 않을 때, 나무를 베거나 또 좋지 않은 나무를 집안에 끌어들었을 때, 부정한 일을 했거나 안할 일을 했을 때 등으로 나타난다.

병의 증상은 일을 했던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나타난다. 특히 집안의 어린아이가 열병과 같은 고열에 시달리거나 입이 시퍼렇게 죽어가거나 이상하게 아프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증상은 동정쟁이에 의해서 “동정났다”, “동티났다”고 점쳐지고, ‘흙동티’인지 ‘나무동티’인지가 결정난다. 동티났는가를 점치는 방법으로 접시에 콩을 담고 홍두깨를 거꾸로 세워 보아 곧바로 서게 되면 확실히 동티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동티난 것이 확실해지면 사람들은 동정쟁이를 불러다가 돈토경을 읽는다. 먼저 환자를 그 댁의 방에 눕힌다. 그리고 동정쟁이는 부엌의 솥에 밥이 있으면 솥뚜껑을 약간 열고 주걱을 걸쳐 놓고 경을 읽게 되며, 밥이 없는 빈솥일 경우에는 솥을 깨끗이 닦고 부석(부뚜막)에 짚을 깔고 물을 한그릇 떠놓은 다음 베틀의 두투마리를 걸쳐 놓는다. 그 앞에 평복차림에 머리에선 고깔을 쓴 동정쟁이가 앉아 한손에 식칼을 들고서 도투마리를 두드리며 불교경전 가운데 동토경을 읽어간다. 한귀절 한귀절을 암송하면서 도투마리를 뒤집는데 7회 또는 21회를 반복하여 뒤집는다. 어느 정도 동토경을 암송한 동정쟁이는 식칼을 밖으로 던져본다. 이때 칼끝이 집안을 향하고 있으면 귀신이 집안을 나가지 않았다고 여겨 계속하여 동토경을 암송하게 되나, 칼끝이 집밖을 향하면 귀신이 물러났다고 판단하여 암송을 그친다.

#### (11) 민간의료

예부터 선조들은 가족 가운데 병이 나면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구해쓰는 약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려는 민간의료란 발달된 과학기계문명에 의해 개발된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법이 아닌 전체처방과 전통적 비방, 그리고 주술종교적 처방을 말한다.

지금도 나이 많은 노인들은 가족중에 병이 들면 약국이나 병원을 먼저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오랫동안 구전되어 왔거나 실제 경험하여 얻은 생활의 지혜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재래적인 치료약 중에는 특효약이 있고, 또 널리 소문이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요즈음에 들어 현대의학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의 재래적인 민속약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져가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의학발달사를 살피는데 민간의료가 차지하

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인식한 까닭일 것이다.

• 낮이나 쟁기에 손발을 베면 ① 아궁이의 솔 밑바닥에 있는 껌장(그을음)을 바른다. ② 담배가루를 바른다. ③ 뺨쟁이(?) 뿌리를 찢어 바른다.

• 추위에 손발이 갈라지고 거칠어지면 ① 돼지비계기름을 바르거나 따뜻하게 해서 지진다. ② 참기름, 머릿기름을 바른다.

• 박(머리)이 터지면 된장을 바른다.

• 개에 물리면 물었던 개의 털을 잘라 불에 태운 다음 참기름에 적어 바른다

• 독사에 물렸을 때 아편(앵쑉갓)을 먹는다

• 무좀에는 탕자를 찢어 바른다

• 옷이 오르면 ① 초가로 된 화장실 입구의 마람을 태워 그 연기를 쏘인다. ② 자신의 똥을 바른다

• 땀띠에는 ① 찬물에 소금을 타서 목욕을 한다. ② 썩은 마람을 불에 태워 연기를 쐬다.

• 눈에 다랍(다래끼)이 나면 ① 산모의 젖을 바른다. ② 꼬마들 자지(성기)에 문지른다. ③ 얼기빚을 돛자리에 문질러 다랍에 댄다

• 벌레에 물리거나 쏘이면 ① 산모의 젖을 바른다. ② 식초를 바른다

• 발가락 사이가 물면(혈면) 대추를 찢어 바른다.

• 부스럼이 나면 ① 찢덕살(?) 나무를 찢어 바른다. ② 개미딸나무(?)를 뿌리까지 삶아서 목욕한다.

• 더위먹으면 냉수에 소금을 타서 마신다.

• 설사를 하면 ① 담장이냉쿨을 찢어 생즙으로 먹는다. ② 콩깍질이나 익모초 그리고 익지 않은 탕자를 다려먹는다.

• 체하면 ① 참기름이나 소금, 식초 등을 먹는다. ② 칩냉쿨을 입으로 자근자근 깨문 다음 깨물었던 칩냉쿨로 목구멍을 살며시 찢른다.

• 목이 쉬면 계란을 먹거나 식혜밥을 먹는다.

• 배가 아프면 청개구리를 산채로 잡아 먹는다

• 이질배피에는 ① 아편대(앵쑉갓)를 다려 먹는다. ② 익모초를 다려 먹는다. ③ 쪽나무(?) 껍질을 찢어 물에 타 마신다.

• 상완병(요즈음의 맹장염과 같은 병)에는 초가지붕에 물을 뿌려 흘러내린 물을 받아 마신다.

• 허리가 아프면 쌀을 형겅에 싸서 가볍게 두드린다. 이르 '잔밥 메긴다' 고 한다.

· 사람이 먼곳에 출타했거나 상가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는 반드시 측간(화장실)에 들러 측신에게 고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잡신을 막기 위함이다. 외지출타하고 병이 든 것을 ‘물렀다’고 말한다.

· 정신병이 들어 점쟁이에게 점치니 신이 있다고 얘기한다. 또 “마귀가 들었다”고 하여 복숭아나무를 잘라 놓고 빈병을 앞에 놓은 다음 경을 읽는다. 그러면 마귀가 병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병을 빨리 땅에 묻게 되면 정신병이 낫게 된다.

조사일시: 2006. 8. 26

조사장소: 임자면 진리 노인회당

제보자

1. 김인심(62, 여, 임자도 진리)
2. 김화자(68, 여, 임자도 진리)
3. 진수금(75, 여, 임자도 진리)
4. 박정남(81, 여, 임자도 진리)
5. 안옥현(85, 여, 임자도 진리)
6. 장영아(89, 여, 임자도 진리)

## (12) 임자도의 유형문화

### ① 의생활

#### 가. 개관

우리민족 고유복식의 기본형은 대체로 裳袍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冠, 帽, 帶, 靴 또는 履가 첨부된 것이었으며, 이것은 북방 호족계통의 의복에 속하는 것이었다. (유희향[한국복식사], 1983). 즉 우리민족은 원래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며 신을 신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유복적은 김춘추가 진덕여왕 2년에 당에 청병하러 가서 당의 복제를 들여와 공복으로 사 용함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복식과 이중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조선말까지 서민들은 고유복식을 관료들은 공복으로서 중국복식을 입음으로 해서 이중구조는 지속된다. 시대의 흐름에따라 고유복식의 형태는 다소간 변하지만 그 기본복제에는 변함이 없고 외래복식이 관료들의 복제는 대륙의 지배세력

이 바뀜에 따라 변화한다.

고유복식과 중국복식으로 대표되던 우리의 복제는 갑오경장 이후 서구의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남자는 머리를 자르고 양복으로 입으며, 여자는 양장을 함으로써 고유복식과 서구복식의 이중구조로 바뀐다. 또한 이 시기에 요즈음의 한복차림에서 볼 수 있는 두루마기, 마고자, 조끼 등이 나타난다. 두루마기는 원래 사대부계급에서는 평일 집에 있을 때, 서민계층에서는 외출할 때 입던 윗옷인데 갑오경장 이후 조신의 대례복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서민들에게 까지 확산되었다. 마고자는 대원군이 청의 유한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와 보급이 되었으며, 조끼는 양복의 조끼를 본 따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 복식은 고유복식과 외래복식의 이중구조로 지속되어 오다가 현재는 고유복식이 그 명칭조차도 양복에 대칭되는 용어인 한복으로 지칭되며 50대 이상의 노인층을 제외하고는 행사복이나 의례복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고유복식이 평상복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물러남을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나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

#### 나. 옷차림

##### 가) 평상복, 작업복과 외출복

###### (가) 남자

남자 옷차림의 기본형은 바지, 저고리이며, 여름에는 홑겹, 겨울에는 두겹 또는 솜을 넣어 누벼서 입는다.

• 상의 : 적삼, 홑저고리<여름>, 겹저고리, 돛방애(솜을 넣음), 핫옷(솜을 넣어 누빈옷) <겨울>, 접옷(두겹으로 만듦) <봄,가을>

• 하의 : 진중우<여름>, 바지<겨울>

• 신발: 짚세기, 초분신(일명 두지기신)

• 부자의 평상복 : 부자들은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를 더 입으며 여름에는 토시, 등구지(등거리)를 저고리 속에 끼워 입어 옷이 몸에 붙는 불편함을 제거하며, 겨울에는 겹저고리, 바지에 김승의 털을 넣어 입기도 한다. 신발은 갓신을 신는다. 바지의 댕넴은 옷과 비슷한 색으로 만들며 댕넴과 비슷한 꽃대미가 있다.(제보 9,10)

###### (나) 여자

여자의 옷차림은 치마, 저고리로 남자의 옷차림 보다는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린 편이다.

• 상의 : 적삼, 흘저고리<여름>, 겹저고리, 핫저고리(숨을 넣어 누빈옷), 겹저고리(두겹으로 만들며 세탁할 때마다 뜯어서 바느질을 한다), 박음저고리(두겹으로 박아서 만든. 세탁할 때 뜯을 필요가 없음) <겨울>

• 하의 : 흘치마<여름>, 겹치마<겨울> 여자의 하의는 겉옷 보다는 속옷이 발달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며 특히 겨울에는 겹겹이 끼어 입었다. 가슴은 앞으로 볼록하게 나오지 않도록 동여매는 허리띠가 있었다.

• 버선 : 흘버선<여름>, 겹버선(수놓부터 자리개 중간까지 숨을 넣음) <겨울>

외출시에는 평소에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 입으며 부자들은 두루마기를 입고 꽃신을 신으며 머리에는 조바구(조바위)를 쓴다.

## 나) 의례복

### (가) 출산복

속옷은 부드러운 미영베로 짠옷을 입고 다니다가 애기를 낳을때가 되면 속치마는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겹치마만 입는다. 미영베 전에는 마포로 짠 치마를 입었는데 애를 낳다가 살이 다 헤어져(긱혀서) 상처가 나 혼이 나기도 했다.

### (나) 유아복

갓난 아기에게 입히는 옷을 '배안에 저고리'라 하여 아기의 엄마 될 사람이 손수 준비하거나, 형편상 준비를 못하는 집은 부자집에서 입혔던 아기옷을 가져다 입히기도 한다. 옷감은 미영베(요즘 가제베)를 사용하며 거의 바느질을 하지 않은 상태로 누벼 짓(깃)은 달지 않고 소매는 아기의 손이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길게 만든다. 옷고름은 한 줄 정도로 가늘게 하며, 저고리의 여밈은 이 옷고름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다. 아기에게는 저고리만 입히며, 저고리의 길이는 아기의 엉덩이 부분이 가릴 정도이다. 옷 이외에도 기저귀나 베개를 장만하는데, 아기베개는 메밀껍데기나 찌지않은 서속으로 베개속을 넣는다. 이 모든 것은 산전에 엄마가 미리 준비하나 30~40년 전에도 부자집에서는 아기옷이나 기타 필요한 준비물은 사다가 입히고 그 옷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다.

### (다) 혼례복

혼례복은 그 시대나 유행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온 복식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구식혼례의 경

우 신랑, 신부의 의복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지어 한집에 맡겨놨다가 ‘례 맞을 때’ 빌려 입는다. 이곳은 사모관대를 ‘예복’ ‘관대복’ ‘관대’라 부르고, 원삼족도리를 ‘족도리 옷’이라 부른다.

먼저 신랑복을 보면, 민속수(삶아 익혀 명주실로 짠 무늬가 없는 옷감)로 만든다. 안감은 다홍색에 겹감은 남색인 관대복에 쌍학의 흉배를 앞뒤로 달고 속옷은 미영으로 짠 속적삼, 바지, 저고리를 입는다. 머리에는 관을 쓰고 붉은 요대를 하며, 신은 게오자를 신는다.

신부는 검정과 빨간색의 천과 구슬을 이용해 만든 족도리에 붉은 땡기를 드리우고 모시적삼, 분홍 저고리, 속바지, 홍색치마를 입고 이 옷 위에 안감은 다홍색 속고사에 겹감은 진녹색 속고사로 지은 원삼을 입는다. 신은 신코에 예쁜 꽃무늬를 놓은 꽃신을 신는다.

지금은 례를 거의 예식장에서 올리며 신랑은 검정이나 곤색의 양복바지, 저고리에 구두를 신고, 신부는 흰 면사포에 드레스를 입고 흰구두를 신는다. 사모관대와 원삼족도리는 폐백시에 잠깐 예식장에서 빌려 입는다.

#### (라) 상복

상복은 전통적 재래복식이 거의 지켜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옷감은 마포가 주류를 이루나 요즈음은 미영베에 노랑물을 들인 천으로 준비하기도 한다. 미리 준비해두는 집도 있으나 사후 준비하는게 대부분으로 여름에는 마당이나 대청에서, 겨울에는 방에서 옷을 짓는다. 옷을 지을때 사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옷감을 안쪽으로 접어서 바느질(안어른 이라해서)하고 남자일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접어서 바느질(바깥어른 이라해서)한다. 바느질할 때 뒷바느질하면 ‘죽은자가 뒷말을 한다’하여 듚성 듚성 바느질한다. 상복만들때 상제들이 신는 신을 ‘엄신’이라 하며, 원생원(상주)은 굴관제복이라 하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이음새(바느질 자리)가 뒤로 가게 한 포건(건)을 쓰며 짚으로 원새내끼를 꼬아 손가락 길이만큼 만든 수질을 포건 양쪽의 귀부분에 단다. 허리에는 짚으로 만든 요질을 두르고 상장목(상장막대기)을 짚는다. 다리에는 행건(행전)을 두르고 엄신을 신는다.

원생원 이외의 상제들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에 이음새가 뒤로 가게 한 포건을 쓰고 상장목을 짚는다. 행건을 두르고 엄신을 신으며 수질은 달지 않는다. 자식이 아닌 조카들은 포건의 이음새가 옆으로 가게 하며 수질과 지팡이는 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상중에 머리를 풀고 마포수건을 쓴다. 수건과 치마, 저고리에 버선과 엄신은 공통으로 착용하며 큰며느리나 할머니는 수질을 달고 요질을 두르며 상장목을 짚는다. 며느리와 친딸은 머리에 마포

로 된 때를 왼쪽으로 꼬아 한겹은 두겹고 다른 한 겹은 가늘게 하여 2겹을 합해 다시 왼쪽으로 꼬아 그 사이에 솜을 달아맨 것을 쓴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의 상복도 마찬가지로 준비한다.

지금은 상복을 전문적으로 짓는 집에서 사다 입는 일이 많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참석한다.

#### (마) 수의

수의는 집안의 식구들, 특히 며느리나 자식들이 준비하며 사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천(마포)을 바깥으로, 여자일 경우에는 안으로 접어 바느질 한다. 여름에는 마루나 대청, 겨울에는 방안에서 짓는다. 준비하는 옷가지는 평상시 입던 옷 그대로를 지으며 집안형편이 좋은 집에서는 미영으로도 준비한다. 사람이 겨울에 죽었다해도 준비하는 옷감은 마포이다. 옷 치수는 평소의 것보다 4~5치 정도 크게 만들며 저고리는 동전을 만들지 않는다. 신은 참종이(한지)로 만들어 앞·뒤부분만 풀로 살짝 붙여 신기고 얼굴에는 공자형의 민박수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씌운다. 남자 일 때는 종이로 만든 관을 씌우고 여자 일때는 오동나무로 만든 비녀를 꽂아준다. 바지는 속바지와 겉바지의 허리와 부리 부분을 같이 꿰매고 치마도 겉치마와 속치마의 허리부분을 같이 꿰맨다. 수의를 지을 때 이웃에서는 이도 안잡고, 빨래도 하지 않으며, 바느질도 하지 않는다.

#### 다) 바느질과 빨래

##### (가) 바느질

바느질에 사용되는 바늘에는 이불이나 큰 옷감을 바느질 할때 사용하는 또바늘 또는 작대기, 가벼운 옷을 바느질 할때 사용하는 바늘 또는 중침, 수놓을 때 사용하는 시침 또는 가는것이 있다.

바늘 외의 도구에는 상지(반진고리), 실패, 실, 가위, 자, 골미(골무)등이 있다. 실은 무명이나 명주실을 사용하며 두꺼운 천을 꿰맬때 손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끼우는 골무는 엄지 손가락의 첫째 마디에 끼우게 되어 있으며 두꺼운 광목이나 가죽으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바느질시 실수로 손이 찢리게 되면 그 손가락 부분을 코에 대고 숨을 내쉬면 상처가 덧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 <손바느질 종류와 용도>

뜯바느질 : 저슬게(겨울에 입는옷)

감침질 : 여름옷, 봄살이

박음질 : 여름에 입는 옷 봄살이(봄철에 입고 지낼 옷가지)

시침 : 가바느질시 나중에 뜯는다.

뜸질 : 치마단, 귀통이

푸세(푸서)에 바느질 봄살이

#### (나) 빨래, 다듬이질

빨래는 대개 집에서 하는 손빨래가 대부분으로 물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집에서는 집안의 샘(우물)에서 하게 된다. 요즘은 집집마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수도물로 빨래를 하기도 하나 샘이 남아 있는 집은 샘에서 한다.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도 한다. 흰것과 색이 있는 빨래는 함께 섞어 빨지 않으며 색이 있는 것은 되도록 빨리 빨아 뒤집어서 말려 햇볕에 오개 두지 않는다. 흰것은 더욱 희게하기 위해 두 세 번 빨아 널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때가 잘 빠지지 않는 천은 잿물을 풀어 삶거나 밀대(밀짚)를 시루에 받아 때를 뺀다.

다듬이질은 빨래를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빨랫감이 고루 퍼지게 하는 목적과 윤을 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다듬이질의 대상이 되는 옷감은 옥양목, 백목(무명), 명주 등이 있고, 특히 이불호청과 같은 것은 다듬이질의 주대상이 되는 것으로 축축할 때 다듬이 방망이로 두드린다. 완전히 말라버렸을 경우에는 밥그릇이나 다른 용기에 물을 떠다 입에 머금고 뱉어내면서 다리는 방법도 있다. 백목은 풀을 먹여 흥두깨질을 하여 주름을 펴고 윤을 내며, 다른 빨래감은 다듬이돌에 놓고 방망이로 두드린다. 마포는 두드리지 않고 발로 밟는다. 저고리의 깃을 다려 선을긋을 때는 깃에 밥풀을 묻혀 인두로 긋고, 다른 부분은 인두판(?)으로 다룬다.

#### (다) 염색

- 검정색 : 검정물을 사서 조달(양젓물)과 함께 섞어 저으면서 푹푹 삶는다.
- 흰색 : 조달을 사용하거나 없을 때는 지푸라기대나 메밀대를 시루에다 받아 그 물로 염색한다.
- 노란색 : 감물을 사용하거나 치자물을 들여 입는다. 이때는 맹기(무명)에다 치자물을 들여 입는 게 최고급 옷이었다.

조사일시: 2006. 8. 26

조사장소: 임자면 진리 노인회당

제보자

1. 김인심(62, 여, 임자도 진리)
2. 김화자(68, 여, 임자도 진리)
3. 진수금(75, 여, 임자도 진리)
4. 박정남(81, 여, 임자도 진리)
5. 안옥현(85, 여, 임자도 진리)
6. 장영아(89, 여, 임자도 진리)

라) 방적

(가) 베짜기

㉞ 미영의 재배

미영은 음력 3월말 내지 4월초순에 보리밭 사이에 심는다. 보리가 여물이 들고 노랗게 익기 시작할 때 쫄 아낙들은 보리밭을 헤치고 다니면서 도랑의 사이사이에 미영씨를 심는다. 보리가 익으면 조심스럽게 베어내고, 어느 정도 자란 미영을 가꾼다. 가끔 미영밭을 매는데 “화중밭 맨다”고 한다. 화중밭은 수확할 때까지 세 번 매고 수확은 8월부터 한다.

㉟ 수확한 미영은 잘 말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여 따로 담는다. 다래가 활짝피어 송이가 복슬복슬한 것이 좋고 다래가 완전히 피어나지 않고 빛이 검은 것은 좋지 못하다. 대체로 좋은 것은 상품의 베를 짜고, 나쁜 것은 하품의 베를 짜거나 이불솜 등으로 쓰인다.

㊱ 씨앗이로 앓는다. 미영씨를 빼내는 작업으로 씨아에 미영을 넣고 돌리면 미영씨와 솜이 분리되어 나온다. 미영씨로 짠 면실유는 식용유, 덴뿌라유로 사용하거나 세탁비누로 만들어 썼다.

㊲ 활로 탄다. 씨를 뺀 솜을 대나무로 만든 활의 줄에 당게 놓고 꼭두말로 활줄을 텅기면 뭉쳐있던 솜이 보드랍게 부풀려진다.

㊳ 꼬치를 만든다. 바닥에 판자를 깔고 물대(수수대)를 이용하여 솜을 말면 약 30cm의 솜덩이가 되는데 이를 “꼬치”라 한다.

㊴ 물레에 잣는다. 물레는 꼬치를 실로 만들어 내는 기구이다. 몸체와 피머리를 가래장으로 연결하고, 가래장 위에는 물레독을 올려 고정한다. 피머리에는 가락을 기우게 되어있고 가락과 몸체는 물레줄로 연결이 되어있어 물레를 돌리면 가락이 같이 돌아간다. 오른손으로 물레를 돌리고 왼손으로 꼬치를 잡고 쪽 뺀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가락에 실을 감는다. 이 때 가락에는 짚 껍데기(가락

웃)를 끼운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여 실이 고구마 형태로 주먹만큼 커지면 빼어내는데 이를 “명덩이”라 한다. 명을 잦을 때는 품앗이를 하는데 아침 먹고 시작하면 저녁 먹고 돌아온다. 부자집에서는 품을 산다.

㉔ 고무래에 명덩이 10개를 끼워 놓고 실 10줄을 동시에 잡아당겨 망태에 차곡차곡 담는다.

㉕ 마당에 말뚝을 두 개 박고 망태의 실을 나르는데, 말뚝 사이의 거리는 1필(20자)이며, 한번 왔다 갈때마다 형겅 등으로 표시를 한다.

㉖ 나른 실을 질기게 하기 위하여 솥에 넣고 풀(곡식으로 만든)을 조금 풀어 삶는다. 삶은 실은 물을 짜서 잘 말린다.

㉗ 실을 보두에 켜다.

㉘ 베를 맨다. 멀리 ㄱ실쿠 위에 맷둑(맷돌)과 함께 실을 엮고, 이쪽은 도투마리를 맷말 위에 올려놓고 솔로 풀을 먹인다. 풀을 먹인 아래에는 모닥불을 피워 풀칠이 잘 마르게 하며 풀칠이 마르면 도투마리에 감는다. 이대 실이 엉키지 않게 뱃대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㉙ 베를 짠다. 실이 감긴 도투마리를 베틀에 엮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북고 보두(보디)를 번갈아가며 잡고 때리면서 베를 짠다. 북속에는 꾸리가 있어 명덩이 두 개를 감으며, 20자 1필을 짤려면 꾸리 5개가 필요하다.

<표1> 물레의 명칭비교

번호	표준말	지도
1	꼭지마리	꼭두말
2	동줄	거무줄
3	굴동	굴뚝
4	물레줄	물레줄
5	물레돌	물레독
6	고동	가락고리
7	가락	가락
8	물레바퀴	물레살
9	가리장나무	가래장
10	괴머리	괴머리
11	괴머리기둥	괴머리기둥
12	설주	

베를 짜다가 베올이 끊어지면 “풀소금”으로 잇는데 누에고치를 잦물에 삶으면 고치가 풀어져 나폴

<표2> 베틀의 구조와 명칭

번호	표준말	지도	번호	표준말	지도
1	용두더리	원산	16	바디	보두
2	릿기둥		17	바디집	보두집
3	베틀신대		18	북꾸리	꾸리
4	도투마리	도투마리	19	눈썹줄	
5	사침대	사침	20	눈썹노리	
6	뱀덩이	뱃대	21	눈썹대	원산대
7	베틀다리		22	북(북바늘)	북(북닫게)
8	베틀신끈	신끈	23	쇠활	켓발
9	베틀신	고걸이	24	말코	물코
10	놀림끈	놀림대줄	25	부티끈	허랑개끈
11	비경이	빙어리	26	부티	허랑개
12	놀림대	놀림대	27	앞을깨	앞일게
13	잉아대	잉아대	28	다올대	밀침대
14	잉아	잉애	29	가로대	가래장
15	속대	고괘대			

베틀의 구조는 내륙부와 다름이 없으나 명칭은 다소간의 이동이 있다.

나폴해진다. 이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조금 떼어 손으로 문질러 잇는다.

베틀은 큰방이나 작은방에 설치하는데 큰방에 놓을 때는 윗문쪽에 붙여서 놓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미영베의 종류

㉞ 보디에 따른 종류

베율이 곱고, 거칠음은 몇 새 보두로 잦느냐-즉 몇새 베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보두의 구멍이 40개이면 한새다. 그러므로 여섯새는 보두 구멍이 240개, 여덟새면 320개이다. 또한 각 새마다 두 번걸이 세 번걸이가 있다. 예를들어 여섯새 두 번걸이는 보두 구멍이 240개 하고도 10개씩 두 번이 더 있다는 얘기로 구멍은 총 260개가 된다. 여섯새 세 번걸이는 구멍이 270개이다.

그런데 실을 보두에 꿰때에는 한구멍에 두올씩 꿰어야 하므로 여섯새 베는 실이 모두 480올, 여덟새 베는 640올이 되며 여섯새 두 번걸이는 520올이 된다. 단위가 높아질수록 상품이며 짜기도 힘들다

미영을 잦을 때 곱게 잦느냐 가늘게 잦느냐에 따라 몇새 베를 짤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곱게 잦으면 5~6새, 가늘게 잦으면 8~9새의 베를 짜게 된다. 그 이유는 곱게 잦은 실은 8~9새 보두에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간다 해도 베를 짜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㉔ 직조법에 따른 분류

• 외올베

석(3)새베를 말한다. 여섯새 보두에 한구멍씩 건너서 올을 꿰고, 베를 짤때도 보두집을 가만가만 쳐서 얼멍얼멍 짠다. 보통 여름에 여인들이 치마를 해 입는다.

• 자오새베

자오새베는 미영을 잳을 때 오야 잳은 미영뎡이와 오리 잳은 미영뎡이를 3:7의 비율로 섞어서 짠 베를 말한다. 오야 잳는다는 말은 왼쪽으로 잳는다는 뜻인데, 물레를 왼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가락에 거무줄을 걸때 꼬지 않고 바로 걸면 가락이 오른쪽으로 돈다. 이 방법은 일상적인 방법인 오리 잳을 때(거무줄을 한번 꼬아 건다)와는 반대로 가락이 돌아간다. 그러기에 솜씨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실을 가늘게 잳아 보통 7~8새베를 짠다. 옷을 해 입으면 윤기가 나고 보기도 좋아 고급품으로 친다.

또 다른 방법으로, 미영을 모두 오리 잳되 고무래에 미영뎡이를 하나는 옹게 끼우고 하나는 거꾸로 끼워 빼낸 실로 베를 짠다. 이렇게 짠 베를 자로새베라고도 하는데 이는 원칙적인 수법이 아니며 옷을 해 입어도 덜 이쁘고 상품의 가치도 덜하다.

○ 가락에 거무줄 거는 방법 · 오리 잳을 때(가락이 왼쪽으로 돈다) · 오야 잳을 때(가락이 오른쪽으로 돈다)

• 노란 미영베

미영이 노란색이다. 다래가 작아 수확이 적다. 전체를 노란 미영으로 짜기도 하지만, 보통 흰 미영을 섞어서 짠다. 많이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다) 미영베의 세탁

- 베를 다 짜면 잣물에 삶는다.
-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서 빨아 널으면 하얗게 바랜다.
- 풀을 해서 말린다.
- 다듬이돌 위에 놓고 다듬이질 한다.
- 접어진 면의 주름을 없애기 위해 흥두께에 올려 다듬이질한다.
- 풀을 써서 동구리나 고리쪽에 담아둔다. 풀을 쓴다는 말은 안팎을 구별하여 접는다는 뜻으로 미

영배를 길게 반으로 접는다. 옷을 해 입을 때는 접어진 안쪽이 밖이 된다.

- 필요할 때 적당량을 잘라 옷을 해 입는다.

## ② 식생활

### 가. 일상식

- 밥 : 쌀밥, 보리밥, 찰밥, 조밥, 고구마, 돈부밥, 콩밥
- 죽 : 송쿠죽, 쑥시죽, 흰죽, 밀가루죽, 쌀죽, 녹두죽, 깨죽, 메밀죽, 보리재죽(보리겨죽), 터럭적, 팔죽
- 국물 : 실가리(시래기)국, 소금국, 미역국, 된장국, 생선국, 고기국
- 김치 :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김치, 총각김치, 동김치, 오이김치, 고추김치
- 나물 : 녹두나물, 콩나물, 곰반블레나물, 시금치나물, 고구마순나물, 고사리나물, 토란나물, 들복

나물, 미나리나물, 무나물

- 장아찌 : 무장아찌, 들깻잎장아찌, 된장장아찌, 마늘장아찌, 고춧잎장아찌, 풋고추장아찌
- 구이 : 전어구이, 조기구이, 강다리구이, 명태구이
- 젓갈 : 송어젓, 반지락젓, 멸치젓, 엽삭젓, 석화젓, 새우젓, 병치젓, 갈치젓, 게창젓
- 찜 : 계찜, 가오리찜, 홍어찜, 명태찜, 감자, 고구마
- 떡 : 쑥떡, 호박떡, 찰떡, 흰떡, 방시리떡, 무지개떡, 시리떡, 보리개떡 등이 있다.

### 가) 저장식품

① 간장 : 메주를 건져낸 장항아리 둘레에는 원새내끼에 종이 자른것, 고추, 숯 등을 꿰맨 금줄을 둘러서 부정을 막는다. 또 장을 담글 때는 송장이나 출산하는 것을 보지않아야 한다. 만약 보게되면 장 맛이 쉽게 변한다.

② 외장아찌 : 참외가 거의 들어갈 때쯤 나오는 참외를 두조각내어 소금에 간했다가 된장에 넣어둔다.

③ 된장장아찌 : 무를 15일 정도 말려 쌀면재(왕겨)에 노랑물을 섞어 된장속에 넣어둔다.

④ 고추잎장아찌 : 고추잎을 소금에 절여놨다가 건져서 씻어 먹는다.

## 나. 의례식

### 가) 제례음식

주 : 청주

과 : 목과에는 대추, 밤, 꽃감을 넣고, 조과로는 유과, 약과, 다식, 강정, 정과

포 : 명태, 상어, 문어

병 : 시리떡

전 : 명태전, 돼지고기전, 쇠고기전, 새우전, 肝전, 석화전, 생선뼈전

채 : 콩나물, 고사리나물, 미나리나물, 시금치나물, 무나물

탕 : 닭고기탕, 쇠고기탕, 돼지고기탕, 계란만두탕, 생선탕, 계란탕, 석화탕

멧자반 : 생선구이 등이 있다.

강정중에는 깨강정, 쌀강정, 콩강정 등이 있다.

#### 나) 명절음식

- 설 : 찹쌀시리떡, 떡국, 보리가리떡, 쫄떡, 엿, 들북나물, 고사리나물, 무나물, 콩나물, 감자순나물

- 대보름 : 쭈시밥, 미역국, 결판떡(찰떡), 오크밥, 보리막걸리, 고사리, 도라지, 들북, 무, 감자순, 콩

#### 나물

- 유두 : 밀문지, 강냉이

- 삼복 : 돼지고기, 기고기

- 추석 : 송편, 보리막걸리, 호박나물, 고사리나물, 가지나물, 감자순나물, 명태찜

- 동지 : 팔죽

#### 다) 혼례음식

혼기에 접어든 자녀를 둔 집안에서는 서로간의 혼처를 구하게 되는데 두 집안의 혼인의사가 결정되면 신부집에서 택일을 해 보내며 이때 택일 이바지로 술을 마련한다. 혼인날이 되어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며 “손예방”이라하여 신랑에게 방을 마련하여 술상을 차린다.례를 마친 후 상객에게 술과 온갖 음식을 장만해 대접하고 신랑, 신부에게도 상객상과 똑같은 상을 차려준다. 첫날밤 신방에는 “첫날밤 상”이라하여 서로 낮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술상을 차리는데 전류와 술, 밤, 대추 등으로 상차림을 한다. 폐백음식은 신부 집에서 준비하며 떡, 술, 고기, 대추, 밤 등이 차려지고, 이 음식은 시부모와 친척이 먹는다

동네상 : 신랑과 신부가 교배를 하고 서로 술잔을 나누는 상을 말하며 이 상의 음식은례맞은 후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 동네상은례맞은 곳에 명석을 깔고 놓으며 상위에는 생선, 육고기, 과일,

채소, 편, 떡, 장담(սճամ) 등을 넣고, 신부옆에 교배술과 木雁을 놓은 작은상을 놓는다

라) 家釀酒

(가) 청주 : 보리와 밀을 맷독에 갈아내 물을 조금 붓고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섞는다 →반죽한 것을 골망태에 담아 발로 밟아 둥그런 형태가 되도록 하며 일주일 정도 두어 뜨게하면 누룩이 된다. → 마른누룩을 절구통에 넣고 찼어 냄새가 나가도록 한다. → 하루정도 누룩을 말리는 동안 쌀과 보리를 시루에 담아 찌낸다 → 식힌 후 마른누룩과 섞는다. → 물을 부어 발효시킨다 → 용수(동방주)를 넣어 청주를 떠낸다 → 생강이나 기타 향료를 넣어도 좋다

(나) 막걸리

가. 누룩만들기: 보리나 밀을 물을 조금씩 섞으면서 간다 → 다 갈아낸 가루는 물을 부어 잘 반죽한다 → 반죽된 것은 작은 망태기에 담아 발로 밟아 둥그런 형태가 되도록 한다 → 망태기에서 꺼내 일주일 정도 두면 누룩이 뜬다 → 뜬 누룩을 말린다

나. 술담그기 : 마른 누룩을 절구통에 넣고 찼어 하루동안 바래게 한다 → 쌀, 보리, 좁쌀을 물에 불리다가 시루에 넣고 찌서 술밥을 만든다 → 술밥을 식혀 적당량의 누룩과 섞어 물로 흘랑흘랑하게 해서 동이에 담는다

다. 술거르기 : 5~7일 후에 걸러 먹는다.

(다)초 : 보리쌀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솥병에 담고 누룩가리를 넣은 다음 덮어둔다. 며칠이 지나면 초가 된다. 초가 거의 없어지면 막걸리를 붓는다.

다. 향토음식

가) 밀개떡

밀가루를 빼고 남은 거친 찌꺼기로 개떡을 만들어 밥지을때 밥 위에 얹어 찌 먹는다.

나) 밀문지

밀을 맷돌에 갈아서 체에 걸러 고운가루로 참기름에 전 부치듯이 부쳐먹는다

다) 송편떡

밀가루, 보리가루, 쌀가루, 좁쌀가루, 찌시가루 등으로 빻어 괄고물을 넣는다.

### ③ 주생활

#### 가. 개관

안채는 주거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큰방, 작은방, 정지, 정지방, 마루, 광이 있고 아래채나 부속채에는 사랑방, 외양간, 광, 헛간, 방앗간, 칩간, 축사 등이 있다. 또한 집안의 외부공간으로 마당, 뒤안, 텃밭, 장독대 등이 있다. 이들의 구성이나 배치의 방법은 건물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다르다.

#### 나. 안채

##### 가) 큰방

큰 방은 집안의 어른 부부가 거처하는 곳으로 식당, 가족들의 대화의 장, 손님맞는 접객실, 물레, 베틀을 놓고 길쌈하는 작업의 장, 가정교육의 진원지로서의 기능 등 그 역할이 다양하다. 큰 방은 대개 정지와 붙어있어 항상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겨울에도 따로 군불을 땔 필요가 없다.

30년전까지는 천장은 종이반자이며 벽은 무늬없는 흰 종이를 발랐다. 방바닥은 왕골자리를 까는데 보리타작 후 이 자리를 걷어다 부뚜질한다.

방내의 시설물들은 남자용품과 여자용품이 공존하는데 가구류, 침구류, 조명구, 담배용품, 문방구, 화장구, 바느질용품 등이다. 방의 옆면이나 윗목에는 대개 가구를 놓는다

벽에는 못을 박아 인두, 인두판, 다리미 등 세탁 용기와 빗자루, 쓰레반이 등 청소용품, 그리고 아랫목 벽에는 햇대를 쳐 외출복이나 옷을 걸어둔다.

주거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중의 하나가 조명이다. 옛날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관솔불을 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코밑이 새깜하다는 사실을 고노들은 잘 기억한다. 인지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기름을 이용하여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지도에서 식물성으로 참기름, 면실유와 쌀이무개(쌀겨)기름을, 동물성으로 가오리기름과 소, 돼지기름을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이무개기름을 만드는 방법은 주발위에 형겅을 깔고 이무개를 소복히 올려놓은 다음 이무개에 불을 붙이면 지글지글 타면서 기름이 주발에 받아진다. 이 기름을 등잔에 붓고 심지를 창호지로 만들어 불을 붙인다. 등잔은 등잔대에 올려놓는다.

석유가 보급되어 호롱에 불을 켜기 시작하면서 사방등에 호롱을 담아 외등을 켜기도 했다. 요즘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없다.

부녀자들의 화장구는 극히 간단하다. 상지에 먼경, 빗치계, 대로 만든 참빗, 나무로 만든 열개빗(열

레빗), 빠진 머리카락을 담아 사랑이나 농위에 놓아둔다. 머릿기름으로 동백기름이 있는데 병에 담아 벽에 걸어둔다. 부자집에서는 鏡台를 사용하기도 한다.

#### 나) 정재

정재는 조리의 장이며 부인들의 공간이다.

술은 3개(꺼명술, 밥술, 국술) 또는 2개(밥술,국술)를 설치하는데, 꺼명술(큰술)은 거울에 물을 데우거나 농사철 품앗이꾼이나 늬(싸꾼)을 부릴 때, 큰일 치를 때에 쓴다.

술의 앞벽에는 조왕보사구(조왕그릇)가 있어 수시로 정화수를 떠 놓고, 집안의 무사와 가족들의 안녕을 빈다.

정지의 한쪽에는 사랑(시렁)이 있다. 말뚝을 박고 대나무를 쪼개 엮어서 만드는데 일종의 찬장 구실을 한다. 물항, 상, 구정물통, 기영통(설겅이통)은 사랑옆에 위치하며 구정물은 소, 돼지의 먹이가 된다.

#### 다) 광

광은 식량, 알곡, 각종 씨앗, 자주 쓰지 않는 조리기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광의 관리는 집안의 여주인이 하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개개 광에는 “부루그릇”이라는 대소 2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광의 신으로 불어나라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한다.

#### 라) 대청

대청은 마루바닥으로 여름의 공간이며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는 의례의 공간이기도 하다. 대개 사당이 없으므로 벽면 상부에 선반을 만들어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며, 제상, 제기 등의 제사용기와 다듬이 돌, 맷돌, 큰상 등 생활용구를 보관한다.

#### 마) 모방(작은방)

모방은 대개 자식들이 기거하면서 멀리서 오신 손님을 모시기도 한다. 자식이 결혼한 후에는 며느리 방이 된다.

#### 바) 정재방

정재방은 여식이나 어린이들이 거처한다.

다. 부속채

가) 사랑방

머슴들의 숙소이며 농한기에는 새끼, 멍석, 가마니 등을 짜는 작업공간으로 활용된다.

나) 외양간

소는 농사짓는데 필수적인 존재로 옛날에는 소의 관리를 잘했다. 겨울에 머슴들은 해질 무렵 큰 여물솔(가마솔)에 여물, 고구마대 말린것, 물, 보리겨 등을 넣고 소죽을 쑤다. 소죽을 쑤으로써 사랑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며 따뜻한 소죽을 먹은 소는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외양간에는 여물솔, 작두, 여물주걱, 가마바가지 등이 있다.

다) 칩간

칩간은 대개 변소와 잣간으로 구분이 되며 잣간은 퇴비와 농기구의 보관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칩간에는 쟁기, 끌쟁기, 소매쪽박, 장군, 귀땡이 등의 농기구가 바닥이나 벽면에 보관되어 있다.

라) 방앗간

방앗간에는 도구통, 디딜방아 등의 도정기구와 함께 매통, 풍구와 같이 목재 농기구가 있다. 대개 방앗간이 따로 있는 집은 드물고 농기구나 디딜방아가 처마밑에 있는 경우가 많다.

라. 기타

가) 모구(모기)부채

여름에 모기를 쫓는 부채인데 왕대를 얇게 절어서 만든다. 종이는 붙이지 않으며 모기가 물면 때려서 잡기도 한다. 방안의 모기를 쫓아내는 방법으로 화로에 불을 붙이고 생풀로 덮어 연기가 많이 나면 방안에 옮겨둔다. 방안에 연기가 자욱하면 모기가 스스로 도망가는데 옷이나 냇잎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나) 두데(거적)

토방에 곡식가마니 등을 쌓아놓고 비가 오면 가마니에 비가 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리는 물건으로 짚이나 밀대로 만든다.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자기집에서 적당하게 만든다.

마. 가옥의 사례

가) 임자면 대기리 478(구산마을) 전복수 가옥

· 소재지 : 임자면 대기리 478(구산마을)

정확한 건축연대는 알 수 없고 100년 이상된 가옥이라고만 마을 노인들이 전한다. 현 소유자는 약 20년 전에 본 가옥으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건물은 대지의 중앙에 甲坐庚向으로 앉힌 안채와 그 전면 우측으로 죽담구조의 측간채 1동이 있다.

안채는 약 23.1평 규모의 초가집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다. 평면구성은 좌로부터 차례로 마래, 안방, 정지, 사랑방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정지 앞쪽으로는 모방을 드리고 그 옆으로는 나란하게 외양간을 두었다. 각 실은 뒷퇴를 모두 이용하여 넓게 꾸몄고 마래와 안방전면의 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구조는 전후와 좌우로 퇴를 둔 2고주5량가로 초석은 막돌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전면 퇴주만 크고 잘 다듬어진 직경 20cm의 두리기둥을 썼고 나머지는 방주를 사용하였다. 도리 역시 두리기둥위에만 직경 18cm 굴도리를 걸었고 나머지 도리는 12×15cm 각의 납도리를 걸쳤다.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이며 지붕은 우진각 초가지붕으로 되어있다.

나) 임자면 대기리 472(구산마을) 남면희 가옥

· 소재지 : 임자면 대기리 472(구산마을)

19c 말경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본 가옥은 이웃한 전복주씨 가옥과 같이 안채와 측간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서남면향으로 배치한 일자형 초가집으로 그 규모는 전후로 퇴를 둔 5칸 홑집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정지, 안방, 대청, 마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지 앞쪽으로는 정지 일부분과 전퇴부분에 모방을 드렸다. 대청에는 우물마루를 깔았고 마래는 흙바닥으로 처리하였다. 본 가옥은 조사가옥 100채 중 몇 안되는 대청이 있는 가옥으로 마래와 대청의 바닥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가옥이다. 또한 모방의 전면이 전퇴선과 일치하게 모방을 정지 안쪽으로 배치한 사실에도 주목된다.

구조는 막돌초석 위에 10×10cm 크기의 방주를 쓴 2고주5량형식 집으로 비교적 각 부재의 손상이 적고 짜임새가 아직도 완전하다. 기단은 막돌로 바르게 구축되어 있으며 그 상면은 흙바닥으로 처리하였다. 창호는 정지의 전·후면 판장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띠살문을 달았다. 창호 중에는 비교적 크게 짜여진 안방의 봉창이 눈에 띈다.

다) 임자면 대기리 478 이순동가옥

• 소재지 : 임자면 대기리 478(구산마을)

한국 농촌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인 배산임야의 지형에 입지한 구산마을은 비교적 여러채의 고가(초가)가 있다. 본 가옥 역시 그 중의 하나로 정확한 건축연대는 알 수 없고 다만 약 100년 가까이 된 가옥으로만 전하여 진다. 행랑채는 없고 안채와 그 전면 아래쪽 가옥 입구에 죽담구조의 측간이 1채 있다.

안채의 평면은 좌측으로부터 흙바닥구조의 마래, 안방, 정지 순으로 기본을 형성하고 다시 정지 좌측으로는 외양간을 꾸몄다. 그리고 정지와 외양간앞쪽으로는 모방과 갓방을 들였다. 뒷마루는 마래와 안방 앞쪽의 전퇴부분에 설치하였다.

구조는 전·후로 퇴를 둔 2고주5량가로서 기단은 막돌로 거칠게 쌓았으며 초석은 막돌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12×12cm 크기의 방주를 사용하였다. 각 실의 창호는 띠살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마래의 문은 본래 판장문에서 새로 교체된 것이다. 벽체는 흙벽이며 지붕은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다.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전라남도, 신안군, 1987.

### 3) 민속신앙과 민속생활의 활용방안

본 보고서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임자도의 민속신앙과 생활민속은 잔존하고 있거나 그 관념 자체가 매우 희박해진 상황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와 함께 다루어지는 지도와 증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활용방안을 거론함에 있어 유형무형의 토대가 건재한 사례는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세월동안 지녀온 민속 관념이 현대의 생활 문화 이면에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정도로 활용방안에 대한 조언을 갈음하도록 하겠다. 특히 생활문화의 경우에는 이미 그 기능이 정지 된지 오래이며, 흔적 또한 명료하지 않은 까닭에, 망실된 문화자원을 복원하거나 복원에 준하는 특별 운영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활용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생활문화의 활용방안을 거론코자 한다면 생활문화를 복원하고 그 복원된 자원을 토대로 활용을 거론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망실된 세시풍속을 복원할 뵈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활문화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기능되어야 하는 까닭에, 이미 망실된 생활문화를 복원 시행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임자도의 민속문화 중 민속신앙과 생활민속은 그것을 대상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객관화시키고 이벤트화시키는 콘텐츠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신앙민속과 생활민속을 대상

화시켜 문화 상품화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 보고서가 목적하는 하는 바의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또 그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범주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 중의 목록을 간단하게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곧, 지표조사의 활용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임자도에서 실현 가능한 신앙민속과 생활민속 중의 키워드를 제시하는 셈이라고 하겠다.

#### (1) 민속신앙과 민속생활의 지표자료 분석과 전망

민속신앙의 경우 당제와 어로신앙, 무속신앙, 상승 등이 조사되었다. 당제의 경우, 특별한 이벤트나 축제화 방안과 연결되는 구도를 찾기는 힘들다. 당제 자체가 미약해진 상황이며 주민들의 고령화 및 참여의지의 불충분으로 그 전승력 및 유지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을마다 이루어지던 마을축제로서의 당제는 조사된 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단되었다.

당제는 하우리 도구당과 하우리 타리당이 조사되었다. 2000년에 필자를 포함한 주강현 등이 조사한 기록이다. 이외 진리마을 진리당제가 소략하게 보고된 바 있고, 수도마을 산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된 바 있다. 장동당제나 광산리 당제에서 금고에 대한 기록들이 눈에 띈다. 다만 당에 대한 기억들은 대개 도서지역 당제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별한 것은 타리당의 경우에, 무타리섬에 들어가면 덕을 보지 못한다는 등의 신성불가침 권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 정도이다. 이것은 당집이 신성시되는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으나, 향후 무타리도(소태이도)를 관광자원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험담과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험권의 범주를 경정하고, 경관조경 및 관광자원화 방안들을 강구한 뒤, 선별 체험시키는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당집을 가지고 있거나 복원 가능한 일반 섬들에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자도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뱃고사의 경우는 재원마을 뱃고사와 삼두마을 뱃고사 등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임자도의 신앙민속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이다. 왜냐하면 전장포의 풍어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뱃고사와 풍어제를 현대적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파시와 산다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7월 7석 무렵에 큰 풍어제가 있어서 그무렵에 각 주막에 있는 화류계 여자들, 기생들까지 포함하는 풍어와 상가의 변영을 비는 곳이 있었다. 줄타기, 활쏘기, 씨름 등 풍어와 상가의 변영을 비는 것으로 주점의 주인들이 주관하는 큰 연희판이 벌어졌었다. 주민들중에서는 그때 불러졌던 일본노래나 산다이와 관련된 연희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밤달애의 경우에는 이흑암리와 장동리에서 조사되었다. 전자는 전통식의 장례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는 교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임자도의 장례풍속이 어떻게 변천해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다만 이 또한 활용가능성의 측면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세시풍속의 경우에는 이미 고래의 풍속은 사라진지 오래이므로 생활문화체험 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례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다. 정월에서부터 12월까지 보다 자세한 정보를 기왕의 조사에서 수집된 바 있으므로 후술하는 활용편을 참고하여 테마마을 등의 활용성을 기술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 (2) 민속신앙과 민속생활의 활용

가. 전장포 용왕제와 타리파시축제를 활용한 임자도 풍어제

가) 키워드: 전장포 용왕제와 타리 파시축제

축제화 방안: 현행되는 전장포 용왕제를 주민 참여의 대형축제로 개발한다. 구전되고 있는 타리파시의 축제판을 타리도에 만들어 연결시킨다. 뱃고사의 경우는 재원마을 뱃고사와 삼두마을 뱃고사 등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임자도의 신앙민속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이다. 왜냐하면 전장포의 풍어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뱃고사와 풍어제를 현대적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되거나 복원 가능한 것 중에서 임자도의 신앙민속적 활용성이 높은 항목은 뱃고사와 풍어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축제는 다시 그 유명했던 타리파시의 맥락과 연결되는 구도로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장포와 타리도를 파시 및 용왕제를 중심으로 권역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축제의 범람에서 예견될 수 있는 것들은 주민 참여와 자치력의 향상이 전제되지 않는 축제는 정책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그 생명력이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파시와 산다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7월 7석 무렵에 큰 풍어제가 있어서 그무렵에 각 주막에 있는 화류계 여자들, 기생들까지 포함하는 풍어와 상가의 번영을 비는 곳이 있었다. 줄타기, 활쏘기, 씨름 등 풍어와 상가의 번영을 비는 것으로 주점의 주인들이 주관하는 큰 연희판이 벌어졌었다. 주민들 중에서는 그때 불러졌던 일본노래나 산다이의 관련된 연희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기억하는 사람들의 구술을 토대로 전장포 용왕제와 타리 파시를 새로운 임자도의 축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임자도 풍어제의 의의 및 목적

첫째, 임자도의 대표적인 파시인 타리파시를 축제화한다. 이것은 민속문화를 가능한 범주에서 복원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전장포 용왕제와 타리파시를 복합시킨 풍어제를 관광자원화 한다. 이것은 복원된 민속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화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셋째, 현행되는 전장포 용왕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승화시킨다. 이는 본래 파시나 당제가 가지고 있던 주민 주체의 민속을 복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다) 임자도 풍어제의 예상 개요

축제에 소요될 향토생산물: 갯갈, 민어, 상어, 새우 등

기간: 정월 대보름에서 2월 초하루 사이

범위: 임자도 전역으로 하되, 전장포, 타리도 포함

주최: 전장포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임자도민 전체

행정적 지원: 임자면사무소

기술적 지원: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프로그램 개발: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풍어제와 병행될 마케팅 장소: 임자도 독살, 전장포 포구, 타리와 하우리 갯사장 등

#### 라) 축제화의 과정에서 고려될 항목들

민어철이 끝나면 상어잡이를 시작했고 겨울 한철은 휴식을 취한후 봄부터 홍어잡이를 했다. 상어도 옛날에는 주낙으로 잡았다. 참상어는 보통 300근이 나갔다고 하는데, 한발정도의 철사로 낚시를 만들고 굵은 철사로 개줄처럼 고리를 만들어 낚시와 연결하였다. 상어의 이빨과 크기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상어는 시커먼 점이 있는데, 임자도 사람들은 이것을 점백이라고 부른다. 이 상어은 젓을 담아 먹기도 한다. 먼저 소금간을 했다가 간기를 빼기 위해 맑은물에 우려서 회로 먹기도 한다.

새우잡이의 주산지는 전장포이다. 한때는 전국 새우젓의 70%를 생산했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알만하다. 지금은 녹슬은 양철지붕밑에 20여개의 새우젓통만이 찬란했던 이전 역사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을 따름이다.

새우젓은 5젓 6젓이 최고라고 하는데, 5월과 6월에 잡은 새우젓을 이르는 말이다. 5월은 새우가 알

을 품기 위해서 살이 찌는 계절이고 6월은 알을 뱀 계절이어서 암새우가 잡힌다. 이후 7월은 대떼기라고 해서 새우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게 된다. 김장시기에 사용하는 추젓은 6월에 부화된 새우가 잡히는 것을 이른다.

민어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잡힌 것은부서(부세)인데 질적인 면에서 민어가 우선할 따름이다. 그 다음으로는 병치, 준치, 꽃게(이당시 꽃게는 흔해서 먹지않고 버렸다고한다), 장대, 서대 등이 주로 잡혔다.

하우리의 경우 풍어제가 그리 오래 된 것같지는 않다. 봄 2월에 동네회의를 거쳐 생기복덕을 보고 시행하는 것등이 주요 골자인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같다.

배서낭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행해지지 않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다수가 모셨던 것으로 보인다. 선실 방장에 모시는데, 성주 또는 조왕이라고 한다. 고삿날은 열마, 세마로 정해져 있고 이날은 항상 제사를 지낸다, 음식은 물고기를 익혀서 쓰고 술잔을 따르며, 향불도 지핀다. 임자도 사람들은 장날 배서낭 모신다고 하면 삼색실, 삼색천, 바늘 등의 재물을 장사들이 알아서 챙겨주었다고 한다.

독살의 복원 및 체험공간으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타리파시가 서던 모래사장 건너편으로 타리도와 소태이도가 있는데, 소태이도 중간에 독살이 있다. 지금은 명확한 형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독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

나. 임자도의 세시풍속과 생활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테마마을의 지정

세시풍속의 현대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자도의 대표적 마을이 이른바 테마마을 등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체험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등의 실제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생활문화와 더불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소포리의 경우는 강강술래, 소포농악, 닳배노래, 진도복놀이 등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생활문화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도 체험관광이 가능하다. 이런 사례 외에는 거의 모두 테마마을 등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자도의 세시풍속과 기타 생활문화를 가지고 문화자원화 혹은 활용한다는 맥락에서는 테마마을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한 테마마을의 기본적 구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테마마을의 목표

마을의 도서해양 인프라를 활용한 변별성, 임자도 마을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립성과 역동성, 친화성,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가져오는 생활문화, 갯벌체험 등의 도서해양관련 특화 테마 등을 통해서 어촌 전통테마 마을의 입지와 계승·발전을 통한 소득증대 및 관광산업 역량강화와 자립경영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 나) 개발 원칙 및 방향

- 임자도 고유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임자도 고유의 어촌문화를 상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고유한 임자도의 어촌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임자도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 타지역 혹은 타 도서와 변별적, 차별적 요소가 강한 프로그램
- 사계절에 고루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어로 혹은 농업 외 소득 창출과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농번기, 농한기 혹은 어로기 어한기 등 어촌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임자도의 고유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프로그램
- 임자도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는 프로그램
- 과도한 기반 시설이나 필요시설이 요구되지 않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 신안군과 연관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관광협력의 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어촌 전통테마마을사업은 인적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소프트웨어사업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런 형식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일정과 무관하게 바뀌는 일반 조직(예컨대 이장, 어촌계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보다는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다고 본다.

우선은 어촌 전통테마마을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는 제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 선출된 마을 주민들을 각자의 특기에 맞춰 직능별 소위원회에 배속하고, 각 직능별 소위원회에 소속된 주민들은 교육훈련과 현장경험을 통해 담당 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어촌 향토 음식팀을 신설한다고 하면 기존의 새마을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민박의 경우에는 이 음식팀을 활용하여 식사 등을 지도 관리하고 마을회관의 합숙 등은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박집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민박 자체가 각각의 가정생활을 체험하는 것이므로, 가정에서 먹는 그 대로 제공하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임자도에서 나는 어촌 특산의 음식들을 꼭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계절적 미각을 살릴 수 있는 음식들이 좋을 것으로 본다. 임자도의 특산인 것갈을 비롯해 민어, 새우 등이 특별요리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으로 본다.



<그림 1> 입자도 전장포의 멸젓독과 새우젓독  
(오른쪽 한 개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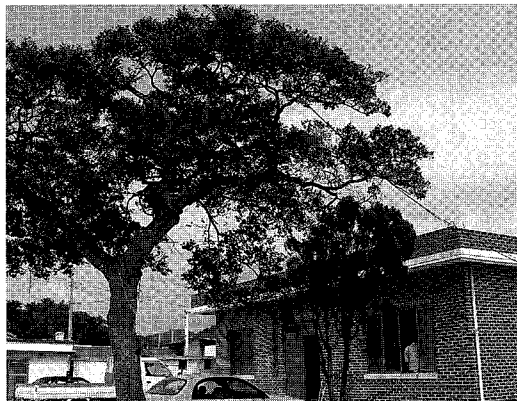
<그림 2> 입자면 삼두리 마을회관의 제보자들  
-박덕예, 최금자, 고문심, 김순예(왼쪽부터)



<그림 3> 입자면 삼두리 노인정의 제보자들  
-한처자, 김형임, 김행엽, 박덕예(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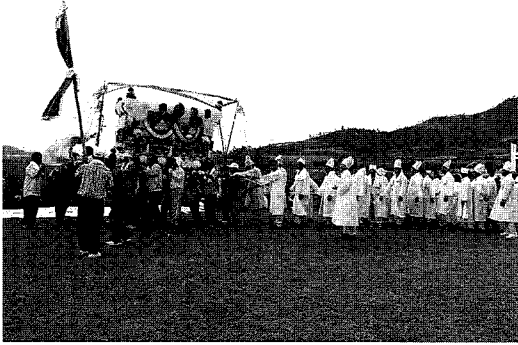
<그림 4> 입자면 재원리 재원마을 당산나무



<그림 5> 입자면 삼두리 노인정 전경



<그림 6> 입자면 이흑암리 상여



<그림 7> 임자면 이흑암리 상여행렬



<그림 8> 임자면 이흑암리 상여 천돈걸기



<그림 9> 임자면 이흑암리 상여 뒷질베



<그림 10> 임자면 이흑암리 상여운구



<그림 11> 임자면 장동리 영결식 상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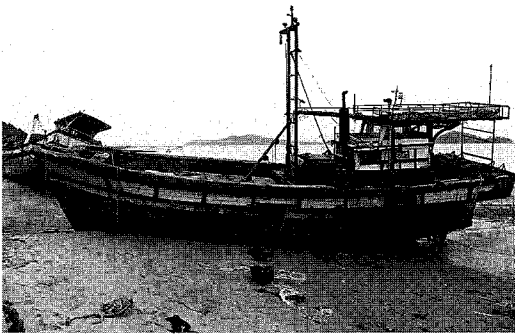
<그림 12> 임자면 장동리 영결식 상여 판 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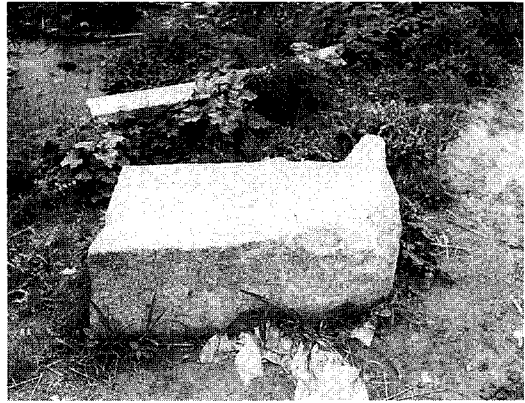
<그림 13> 입자면 장동리 영결식 추도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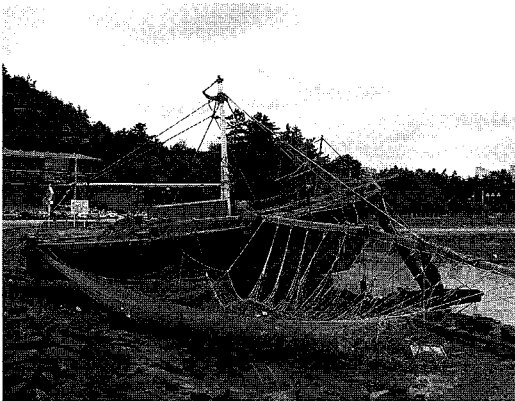
<그림 14> 입자면 장동리 영결식 전경



<그림 15> 입자면 전장포 폐증선



<그림 16> 입자면 조삼리 마을앞 입석(87.7.5)



<그림 17>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전시된 입자도 전장포 젓중선

## IV. 사회문화자원-파시와 포구-

### 1. 사회문화자원 목록

- 민어파시와 타리섬
- 타리와 민어파시에 대한 기록과 기억
- 최후의 파시 흔적 - 재원도
- 손으로 돈을 만드는 사람들 - 새우잡이 포구 전장포

### 2. 사회문화자원 현황

#### 1) 민어파시와 타리섬

임자면은 체도 임자도, 수도, 재원도 등 3개의 유인도와 육타리, 섬타리, 부남군도 등 60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전남 신안의 작은 섬이다. 이곳은 모래밭이 발달해 외대파의 최대산지이며, 1종 어항인 전장포를 중심으로 전국 최대의 젓새우잡이 지역이다.

‘민어파시’는 임자면 체도(임자도) 하우리와 동쪽 ‘타리섬’ (섬타리도와 육타리도) 사이 모래밭에서, ‘부서파시’ 임자도 하우리 동쪽 작은 섬 재원도의 재원리 마을 앞 모래밭에서 이루어졌다. 민어와 부서잡이는 임자도를 둘러싼 영광낙월도, 허사도, 부남군도, 자은도 인근 어장에서 이루어졌다. 이곳 어장들은 지금도 재원도와 임자도 전장포 새우잡이 배들에 의해 젓새우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타리파시’는 하우리 뒤 ‘나박바우’에서 ‘육타리도’ 앞에까지 임시 ‘막’ 들을 말하며, ‘부서파시’도 재원리 앞의 형성된 임시촌락을 칭한다. 대부분의 파시들은 조기파시, 고등파시, 강달어 파시 등 주요 어종을 앞에 붙인다. 그러나 ‘민어파시’만은 ‘타리’라는 지역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은 타리섬 인근에서 가장 많은 민어가 잡혔으며, 맛이 좋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름철이면 인근 지역 배들은 낚시와 그물을 이용해 잡은 민어를 인근 송도 어판장에서 거래하고 있다.

민어는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자산어보》에는 표어(鰲魚)라고 하며, 《동의보감》에는 회어(鱠魚)라 했다. 남도에서는 큰 민어를 ‘개우치’라 부르고, 법성포에서는 30cm 내외인 민어를 ‘홍치’, 완도에서는 작은 민어를 ‘불등거리’, 서울과 인천에서는 네 뺨 이상을 ‘민어’, 세 뺨 이상을 ‘상

민어', 세 뺨 내외를 어스래기, 두 뺨 반을 '가리', 그 미만을 '보굴치'라 했다. 평남 한천에서는 '민초'라고 부르고, 전남이나 경기에서는 소금에 절인 것을 '암치(岩峙)라 했다. 서울일대에서 민어를 구분하는 이름이 다양한 것은 그 만큼 민어를 많이 먹고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약용의 제자 이청은 민어(民魚)는 한자 표기로 '면어'에서 온 이름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고급 어종에 속하지만 옛날에는 백성들이 즐겨 먹고,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르는 고기였다. 이곳 민어는 방망이로 두드리면 육질이 솜처럼 부풀어 올라 일제강점기에는 정종과 맥주의 최고 안주로 사랑을 받았다. 《자산어보》에는 민어는 '큰 놈은 길이가 4-5척에 달한다. 몸은 약간 둥글고 빛깔은 황백색이며, 등은 청흑색이다. 비늘과 입이 크고 맛은 담담하면서도 달아서 날 것으로 먹으나 익혀 먹으나 다 좋고, 말린 것이 더욱 몸에 좋다. 부레는 아교를 만든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흑산 바다에서는 희귀하지만 간혹 물 위에 뜬 것을 잡고, 나주 여러 섬 서북쪽, 지금의 신안군 일대에서 음력 5-6월에는 그물로 잡고, 6-7월에는 낚시로 잡는다고 적고 있다. 여기의 나주 여러 섬은 임자도를 비롯한 목포와 신안인근의 섬을 말하며, 지금도 이곳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어어장으로 꼽히고 있다.

타리섬과 재원도는 임자도에 딸린 작은 섬으로 어종이 풍부하고 먼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타리의 민어파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고문헌에서 민어가 백성들이 즐겨 먹었다는 기록과 일제강점기의 조사자료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조기파시'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도의 '부서파시'는 '민어파시'와 달리 해방 이후 형성되어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서남해역에서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파시였다. 어종도 초기 민어잡이로 시작해, 파시가 가장 활발했던 부서잡이 그리고 최근에는 병어잡이와 젓새우잡이로 바뀌었다. 임자도의 두 파시가 파시 혹은 파시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동일한 어장에서 통시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파시가 특정 시기에 어류의 회유로를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



임자도 인근 파시와 섬

지만 임자도 파시는 일제강점기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같은 어장에서 어종이 바뀌면서 가장 늦게 까지 유지된 파시였다.

## 2) 타리와 민어파시에 대한 기록과 기억

임자도 파시에 대한 기록은 1936년 시부자와게이쵸 일행이 서해 도서지역을 공동조사한 『조선다도해여행각서』라는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임자면의 진리, 수도, 대허사도, 하우리, 영광군의 상낙월, 하낙월, 이동부락파시, 전등도, 우전도 등을 중심으로 마을전경, 생업, 복식과 민구, 노동, 통과외례, 세시풍속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임자도에 속한 작은 섬 태이도는 대태이도(섬타리), 소태이도(물타리섬 = 물타리 = 육타리) 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1908년 기록에는 임자도는 533호, 재원도는 28호, 그리고 태의도는 4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타리에 ‘막’이 세워졌던 곳은 <그림>과 같이 임자면 하우리 솔숲 뒤쪽 모래밭이며, 앞에는 섬타리와 물타리의 두 섬이 바람과 파도를 막아주고 있는 음팍 들어간 공간이다.

島名	호수	인구	적요
崔子(임자도)	533	1,136	
在遠(재원도)	28	112	
大老鹿(노룩도)	7	28	
臺耳(태의)	4	5	갈도포함
計	572	1,281	

갈도 포함자료 : 한국수산지 3권(1908), 368-369

전국 제일의 민어파시로 알려진 임자도 타리는 파시가 열리기 전에는 한 채의 집도 없는 모래사장 에 불과했다(김영희, 1999, 296-309). 민어파시는 매년 6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약 5개월간 열리며 최대 성어기는 8월이다. 파시가 서기 전에는 한 채의 집도 없으나 파시가 서면 기둥을 들성들성 세우고 거적과 이엉을 두른 초막이 수백 호씩 생겼다. 이곳에 정박한 어선들의 불빛은 불야성을 이루었고, 초막에서는 어부와 고기를 사러 온 어상들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타리의 민어파시는 1925년 7월과 8월 신문에 몇 차례 기사화 될 정도로 유명하였다. 당시 동아일보에는 타리에 166척의 선박이 조업 중이고 684명의 선원들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들 선원들을 상대로 임자도와 타리 사이의 모래밭에는 116개의 상점이 있었다. 이곳에 몸담은 타리기생의 수가 일본 창기를 포함 1백30여 명이 기거하고 있었다. 당시 타리에는 조선인 상점 100개, 일본인 상점 16

개가 있었는데 이들 중 61개가 음식점, 18개가 요리점으로 대부분 유흥업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5일자 동아일보에는 전북순창군 면화시찰단 일행이 전남의 산업기수 신기훈, 면작조합기수 조철수의 인솔로 임자도를 방문하여 모범 면화재배 마을과 타리의 민어파시를 시찰하였다고 쓰고 있다.

구분	계	잡화상	옥탕	세탁	이발	음식점	요리점	선구점	병원	중계업
계	116	14	1	4	5	61	18	6	2	5
조선인	100	6	1	4	4	61	14	4	1	5
일본인	16	8			1		4	2	1	

자료 : 동아일보 1925. 8.11

1928년 8월 17일과 18일 동아일보의 임자도와 그 일대의 도서에 관한 기사 중 타리의 민어파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타리어장은 몰타리가 활과 같이 휘어져서 우긋한 앞에 섬타리가 놓여 있어 서해안에서 몰려오는 바람을 막는다. 그 주위는 그다지 크지 못하나 어선 5백 척 가량은 댈 만하다. 내가 당도하였을 때에도 고기를 사러 온 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모선과 종선이다. 모선은 수심관계로 타리항에 들어오지 못하고 항구 밖에 대어두고, 종선들만 항내로 들어온다. 종선들이 들어와 고기를 사서 모선에 갖다 주면, 모선에서는 얼음을 채워서 오사카와 도쿄 등지로 가져간다 한다. 타리어장이 개시된 지는 지금으로부터 3백여 년 전이고 현재의 어획방법은 개량식이라 하며, 일본 어부들의 왕래는 30년 전부터라 한다. 어업자의 7할은 조선사람이요 3할은 일본사람인데, 매년 일본 어업자의 수는 줄어들고 조선 어업자 수는 늘어간다고 한다.

타리어장은 민어어장으로서 조선에서 제일 큰 곳ियो, 그 다음이 굴업어장(인천광역시 굴업도)이라 한다. 산물 중에는 민어 외에 가오리·부서 등을 합하여 연산액 30만원의 고기가 잡힌다고 한다. 파시기일은 6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약 5개월 동안인 바 산어지점은 타리항을 떠난 2, 30해리 내외라 하며, 제일 많이 잡히는 달은 8월이라 한다. 고기 시세를 시시로 알기 위해 흥양수산주식회사에서는 혜산환(惠山丸)이라는 큰 배 안에 무선전신을 설치해 놓고 제주와 일본 각지, 인천·목포 등지와 항상 연락을 취하고 있다 한다.

하우리를 비롯한 임자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얼음을 가득 실은 무역선이 항시 떠 있어 잡아온 고기를 싣고 일본으로 운반했다고 한다. 당시 민어잡이 배들은 작은 조선 배이며, 보선은 30톤이 넘는 일본 배들이었다. 민어잡이 배들은 기계배는 없고 대부분 풍선배들이었으며, 인천, 군산, 서해안의 모든 배들이 전부 모였다. 이때 사용한 배들은 면사그물로 일본에서 수입한 것들이었다. 타리에는 주재소는 물론 보건소와 쌀집이 있었지만 선박수리소는 없었다. 당시 지어진 ‘막’은 <그림>과 같이 판자

로 전부 집을 짓고, 마람을 엮어서 지붕을 덮거나 판자로 막았다.<sup>26)</sup>

1930년대 시부자와게이조와 함께 타리를 돌아본 사쿠라다가츠노리(櫻田勝徳)는 ‘臺耳島見聞’을 ‘移動部落波市’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고 있다(에티박물관, 2004, 115)

타리섬에는 수산과 하야시가네(林兼) 회사 소속의 생선창고를 가진 [일본수산]의 선박이 있고, 이 배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얼음으로 채워 도다(일본 후쿠오카현 북규슈) 등지로 운송선을 이용하여 보내고 있다. 이곳은 요즘이 어업근거지가 되는 시기인 모양이다. 모래사장에 가건물 이동부락파시가 2, 30 채 늘어서 손님 기다리고 있다. 타리섬이라는 지명을 따서 ‘타리파시’라고 부른다. 한 시간에 약 5엔의 임대료를 낸다. 파시는 선술집, 여관(遊女屋), 요릿집, 잡화가게, 이발소, 선구점, 소금가게, 목욕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타지어부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이동부락은 영광군 위도를 근거지로 하고 있다. 위도 근해에서는 4월부터 5월 하순에 걸쳐 조기가 잡힌다. 파시 때에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패는 어장을 쫓아서 6월에 연평도로 간다. 나머지 장사꾼들은 위도 뒤쪽에서 7월 내내 머문다. 위도 뒤쪽 부근에서 갈치와 삼치가 잡힌다. 위도 뒤쪽에 머물던 사람들은 이 생선을 가지고 타리섬으로 이동한다. 연평도로 갔던 패 중에서도 어획기를 끝낸 먼 곧바로 타리섬으로 오는 사람도 있다. 또 천년동(千年洞)이라는 곳에서 잠시 돈벌이를 하고 나서 타리섬으로 합류하는 사람도 있다. 타리섬에는 7, 8월 내내 체류하며, 다시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나누어서 한 패는 추자도로, 다른 패는 어란진으로 간다. 그리고 군산, 목포, 위도 뒤쪽 등 근거지로 철수하는 사람도 있다. 겨울에는 흑산도에서 고래잡이를 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파시를 따라 이동하는 사람은 집을 접어서 배에 싣고 간다. 가재도구는 물론 집도 접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운임을 받고 실어 보내는 사람도 있고, 배를 특별히 마련하여 가족 모두와 함께 이동하는 사람도 있다. 파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출생지는 일정하지 않다. 목포 부근 출신, 영광군 출신, 그 중에는 일본인도 이 무리에 참여하고 있다(이상의 상황에 관해서는 金剛丸 동승자에게 들은 바가 많다.)

민어파시가 형성되는 백사장에서는 칠월칠석날이면 ‘제사’를 지냈다. 유흥업소 ‘막’의 여성들에 의해서 치러지는 제사에는 임자면 사람이 대부분 참석했으며, 목포에서 두 차례씩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올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타리에서 행해진 의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미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풍어제와 결합된 의례이며, 다른 하나는 억울하게 죽은 화류계 여성들의 넋을 기리는 의례이다. 일반적으로 풍어제와 달리 기생들과 점포 주인들이 지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다. 해방을 몇 년 앞두고, 이곳 백사장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서 제를 지내고, 연회패를 불

26) 하우리 허영식(1932년생) 인터뷰

리 줄타기와 활쏘기를 하며 지화자소리는 물론 씨름판도 벌여졌다고 한다. 평소에 파시 구경을 가려고 하면 어른들이 야단을 쳐 단속을 했지만 이 날만은 구경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아이들 특히 여자들이 파시에 가까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sup>27)</sup> 타리에서 행해진 의례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증언자들은 ‘제사’로 기억하고 있다. 파시가 잘되길 기원하는 풍어제의 성격은 일본순사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도입한 의례적 성격의 가능성이 짙으며, 기생의 낚을 기리기 위해 칠월칠석으로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sup>28)</sup>

### 3) 최후의 파시 흔적 - 재원도

#### ○ 재원도 부서파시의 형성

해방 후에도 낙월도-허사도-재원도-중도-자은도-비금도 밖으로 이어지는 어장은 민어, 부서, 꽃게, 새우 등 서남해의 최고의 어장이었다. 특히 임자도 인근의 허사도 뒤와 재원도 뒤를 ‘풀너매’, ‘각시풀’, ‘나홀로풀’, ‘상풀’ 등으로 어장 지명이 세부적으로 불릴 만큼 고기가 많았으며, 지금도 이곳에서 새우잡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어장은 ‘풀치’, ‘느지’, ‘결밭’, ‘뚝뚝’ 등으로 구분된다. ‘풀치’는 모래가 쌓여 있는 곳이며, ‘느지’는 바닥이 평평해서 그물을 쳐도 걸리지 않는 곳이다. ‘결밭’은 바닥에 장애물이 있어 그물질 어려운 곳이며, ‘뚝뚝’은 섬 사이에 깊게 파인 곳을 말한다. 주낙은 ‘결밭’과 ‘뚝뚝’에서 하며, 유자망은 ‘결밭’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재원도 밖 노록도 인근 어장에서는 대형 민어가 잡히고 있다.<sup>29)</sup> 1960년대 중반까지 재원 앞 바다에서 조기가 잡혔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부서가 많이 잡혔다. 그리고 부서도 사라지고 민어잡이도 시원찮게 되자 젓중선(명탕구리배)을 이용한 새우잡이가 시작되었다.

27) 임자면 대기리가 고향이며 18살에 하우리로 시집은 조옥순(1929년생) 할머니는 타리에 ‘계집’에게 고추를 몇 개 따가지고 가져다주려다 할머니에게 들켜서 혼이 났다고 한다. 그리고 조씨의 남편 허영식(1932년생)은 파시에서 놀이와 서남해 어촌의 ‘산다이’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파시에서 논다는 것은 ‘남녀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산다이’는 흥분 일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28) 타리 기생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사연은 살펴보면, ‘한일합방 직후 일본인 한 패가 타리에 들려 조선기생을 불러서 놀다 잠자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기생이 “창이나 글이라면 모르나, 조선의 여인인 우리가 당신들에게 몸을 허할 수 없소”라며 거절하였다. 이에 술에 취한 일본인 1명이 칼을 뽑아 그 기생을 후려쳤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기생을 두고 일본인들이 임자도를 떠나자 50여 명의 기생들이 모래밭에 앉아 울다 저녁에 머리기생의 초막에 모여 양젓물을 마시고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들의 주검은 하우리 쪽 모래밭에 묻혔다’고 알려지고 있다(김영희, 1999, 300-301). 이외에 1896년 6월 말경 정박 중이던 일본의 창고선의 선원들이 지도군에서 임자도에 파견한 관리를 피살한 사건(『지도군총쇄록』 1896년 6월 23일, 7월 7일), 일본인들에 의해서 한국인 어부를 집단폭행한 사건(동아일보 1920.7.29), 주재소 순사가 지나가는 한국인 어부를 폭행한 사건(동아일보 1925.9.16) 등 타리에서는 일본인과 갈등은 많았다.

29) 장승부(1940년생, 하우리 이장) 인터뷰, 2004.6.28

해방 후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고기잡이 배들도 동력선으로 전환되고 안강망을 비롯해 그물어업을 본격화하여 민어와 부서 등 어획고가 높아졌다. 타리의 민어파시가 소멸된 것은 단순히 해방으로 민어를 일본으로 유통하기 어렵기 때문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조기와 마찬가지로 해방 전 전통어업방식이 변하면서 타리포구는 더 이상 포구(시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타리의 민어파시 임시가옥들(출처, 조선다도해여행각서) 뒤의 섬이 타리도(물타리)이며, 막이 지어진 곳은 하우리 술 숲 뒤 백사장으로 지금 대량해수욕장의 남쪽 끝에 해당한다.

부서가 잡히는 것은 곡우 후 한 달 남짓으로 5월 그림사리에는 민어와 부서가 함께 잡히며 이때부터 민어사리가 시작되어 8월까지 계속된다. 이후 장어를 비롯한 잡어들을 잡지만 가을이면 고기잡이 배와 파시를 형성한 외지인들은 모두 철수한다. 조기나 부서, 민어는 골이 있는 곳에서 우는데 바닥에 엎어져 있다가 낮 11시 정도 되어야 온다. 이들 고기들은 드는 물에 우는데 유자망을 이때 끌어야 잡을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골에 엎어져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1970년 경 이곳 어장에서 사라졌던 민어들이 1990년대 다시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

재원도의 어장을 개발한 사람들은 여수사람들이었다. 해방 후 일찍부터 안강망 그물을 가지고 병어, 민어, 부서 등을 잡았고, 무안 청계 복길지역의 어민들이 따라서 그물질을 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에 더 이상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서 파시는 소멸되기 시작했다. 당시 배들은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한 달에 두 번씩 세 물때에 돼지고기와 술을 준비해 지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작은 배들이 고사를 많이 지냈는데, 배 선왕에는 조그마한 함이 있고 그 안에는 색실, 여자신, 골무, 바늘, 천 등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다. 세 물부터 여섯 물까지는 어장에서 돌아온 배들로 마을 포구가 500여 척의 배들로 꽉 찼었다.

재원도 일대의 어장에서는 3월부터 5월말까지 병어를 잡고, 6월부터 12월까지 새우를 잡았다. 1970년대 재원파시가 성하던 시기에 부서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신 닻배를 이용해 병어와 새우를 잡았다.<sup>30)</sup> 재원

30) 어민들의 구술을 종합해보면 부서가 사라진 것은 1970년대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부서가 사라진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 자료는 없다. 다만 최근 한 현지조사에서 1960년대 중국 주산군도 일대 목범선이 기선으로 대체되고 동력이 등장하면서 이 일대에서 유행하는 대황어(부서)의 대량포획이 이루어졌다(나승만, 2005)고 밝혀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문화대혁명의 대약진운동과 결합되면서 소황어(조기)와 대황어(부서)가 남획되어 이후 주산군도의 일대에서 부서의 어군이 형성되지 않았다.

도 어장에는 여수배가 많았고, 인천, 강화, 평택, 진도, 청계, 군산 배들이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무역선’이 떠서 배에서 직접 얼음을 만들어 잡은 고기를 갈무리해 일본으로 수출을 했다고 한다. ‘배에서 직접 얼음을 만드는 무역선’은 당시 주민들에게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던 모양이다. 1960년대에 고기들이 지천이었지만 절이거나 말리는 방법 외에 산지에서 냉동 보관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관한 싱싱한 선어들은 대부분 여수상인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 ○ 파시촌의 구조와 일상들

재원도 파시 막은 타리와 달리 임시막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고기를 따라 파시가 생기고 고기가 떨어지면 빈집만 두고 모두 철수하는 점에서 타리와 다르지 않았다. 재원파시는 1960년대까지는 민어잡이 배들에 의해서, 1970년대는 부서잡이 배들에 의해서, 이후에는 병어, 부서잡이 배들에 의해서 지속되어 왔다. 당시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민어를 잡아 타리파시로 모이던 배들이 재원도로 몰려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포구에는 다방과 상회를 비롯해 주점이 20-30여 채가 가건물로 들어서고, 아가씨가 2백여 명이 되었다. 당시 상회들은 ‘지도집, 처갓집, 또또외집, 아리랑주점, 진주관, 영락관, 법성관, 서울 주점, 화신관, 여로집, 영란점’ 등의 주점과 병원, 이발소, 대도상회(어구, 술, 과자 잡화), 친절여인숙, 목포여인숙, 영진여인숙, 목포상회, 진도상회, 서남상회, 조도상회, 신앙상회, 대합상회, 은하다방, 철공소(4채) 등이 즐비했다. 이들은 대부분 겨울에 흑산도에서 파시를 보고 여름에 재원도에서 민어와 부서파시를 본 후에 9월 갈바람(하늬바람)이 불면 철새처럼 사라졌다(최길성, 2004).

부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6월 중순이면 5백여 척의 어선이 몰리고 다방이 생기며 70여명의 철새 같은 여자들이 들어온다. (1971년 7월 재원도를 방문했을 때) 바테리 전기가 켜지고 어구집, 잡화상, 철공소 등 10여개의 임시점포가 문을 열며 술집여인들에 기생해 살아가는 건달과 깡패가 발을 들어놓는다. 맥주 1병에 3백 원 - 4백 원을 받고 안주는 토마토 1접시에 4백원을 받았다. 술을 파는 여자들은 월급은 5천원에서 1만원이지만 빚이 10만 원 이상 있어서 이 생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며, 5천원어치 이상 술을 마셔주면 하루 밤을 서비스한다(김정호, 1991, 191).

다령이를 잡는 파시 때 대략 천여 척의 배가 모이고, 80여 명의 철새, 즉 기생들이 찾아왔다. 재원도는 67호 정도의 작은 섬이지만 여성들이 있는 술집이 20곳, 여관이 10곳, 다방이 5곳이나 보인다. 한 술집마다 5-10명의 여성이 고용되어 있고 교성이 아침까지 계속된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풍속이 어린이들의 교육에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물이나 야채를 팔면서 꽤 이익을 보고 있다. 파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은 번성하였던 것이다(광주일보, 1982.4.23)

1987년 섬을 방문했을 때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조잡한 술집이 수십 곳, 다방이 네 다섯 곳, 기생집도 상당수 있었다. 여성이 어민을 상대로 하룻밤을 보내는 좁은 방, 판자 벽 하나로 나누어진 집의 지붕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카바레로 여겨지는 가게 안에는 의자가 겹쳐진 채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다. 파시가 열리는 것은 6-7월 2개월 뿐 ‘반짝파시’라고 했다(최길성, 2004,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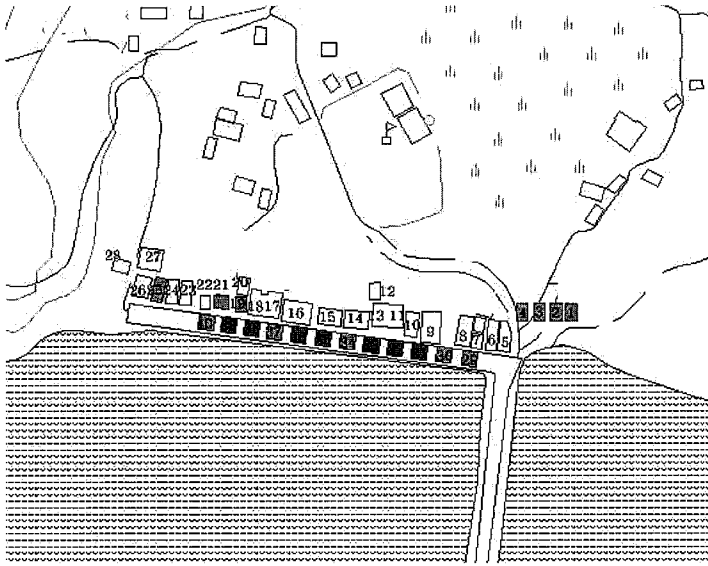
최근 조사한 결과 1986년 재원파시에는 다방이 7개, 술집이 30집, 어구점(잡화점 포함)이 7집이었으며, ‘색시’들이 모두 126명이었다.<sup>31)</sup> 다방과 술집들은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며, 목포의 보건소에서 나와 여성들을 검사했다. 당시 재원 앞에는 50-60톤 규모의 무역선 7-8척이 상시적으로 떠있었으며, 잡이 배들은 모두 외지 배들로 주민들은 고기잡이에 나서지는 않았다. 마을 앞의 가게들도 대부분 외지인들이 경영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뗏목을 타고 다니며 선원들에게 필요한 식수와 나무 등 생필품을 공급해주고 고기나 돈을 받아 생활했다.

재원도 마을 앞에 지어진 ‘막’들은 모두 ‘브로꾸집’으로 지붕에는 스텔트를 얹었다. 보통 가게는 2평 짜리 방이 3-4개가 있으며 아가씨들이 6-7명 정도였다. 이들 집들은 재원도 주민들 소유였기 때문에 파시에 참여한 외지인들은 한철 장사하는데 2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집주인들에게 지불해야 했다. 당시 재원파시에 아가씨들의 연령은 25-30세가량이며 월급은 5만원 정도였다. 재원파시에 유흥주점은 마을 앞 선착장을 따라 <그림 7>과 같이 분포하였으며, 업종은 <표 4>와 같이 주점, 잡화, 다방 등이 대부분이었다. 주점은 여자(작부)들을 두고 술을 파는 곳이며, 다방도 커피 외에 밤이면 주점으로 변하였다. 잡화점은 생필품에서 어구까지 선원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하였다. 이들 ‘막’은 모두 현지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데, 진도(조도)와 목포에서 많이 들어왔다. 진도와 조도는 일찍부터 조기잡이 닻배들이 성했던 곳으로 많은 어민들이 칠산바다를 비롯해 서남해역에 진출해 활동하였다.

1970년대 재원파시가 한창일 때 수백 척의 배들이 2000-3000 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재원도에서 임자도 목섬까지 꼭 들어차 건너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흔히 어민들이 파시의 규모를 말할 때 정박한 배를 밟고 이웃 섬으로 건너갈 정도로 배들이 많았다는 것과 아가씨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한 어부는 재원도와 노륙도 사이에서 한 번에 요즘 돈으로 300-400만원어치 고기를 잡기도 했다.<sup>32)</sup> 당시 부서잡이를 하던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대로 ‘막’에 들러 아가씨들과 술을 먹기도 했다.

31) 재원도에 거주하는 함근산은 당시 조합의 책임자(조합장)를 맡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2004.6.29).

32) 하우리 유대두(60)의 증언(2005.8.1)



- 주 1) 번호는 파시촌에 형성된 임시 '막' 입,
- 2) □표시는 지금도 남아있는 건물이며,  
■ 표시는 없어진 건물임.
- 3) 각 건물의 번호의 상세내용은<표 4>를  
참조

재원파시의 공간배치

재원파시의 유흥업종과 출신지역(1970-80년대)

구분	업종	출신	기타	구분	업종	출신	기타
1	주점			21	잡화	진도	
2	잡화			22	다방	임자	
3	주점			23	잡화		정○○
4	주점	재원도	최○○	24	주점		
5	잡화	재원도	함○○	25	주점	목포	
6	주점	재원도	강○○	26	다방	임자	
7	주점	목포	차○○	27	주점	목포	박○○
8	철물점	진도		28	주점	위도	부부 운영
9	다방	진도		29	주점	진도조도	
10	잡화	재원도	김○○	30	주점	진도조도	
11	다방	진도		31	잡화		
12	주점			32	잡화	진도	김○○
13	다방	목포		33	주점		이○○
14	식육점	임자	임자대거리	34	주점		상호 처가집
15	주점	목포		35	다방	목포	선○○
16	이발소	지도	주○○	36	주점		여자인
17	주점	목포	여자인	37	주점		여자 둘 운영
18	주점			38	잡화	진도	
19	주점	임자도		39	주점	목포	부부 운영
20	잡화	자은	최○○	40	주점		대포집

#### 4) 손으로 돈을 만드는 사람들 - 새우잡이 포구 전장포

잠길 듯 잠길 듯,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뱃사람의 질긴 명줄 마냥 이어져있다. 오죽했으면 읍내사람들이 ‘한 삽거리’라고 했겠는가, 삽질 한 번하면 ‘섬놈’인데 까불지 마라는 의미일 것이다. 무안에 이르러 현경과 해제 방향으로 접어들어 지도에 이르는 길 좌우로 바다와 갯벌을 볼 수 있다. 임자도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곳은 한반도에서 새우젓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지만 전쟁 중에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아픈 기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간나이 맵기로 뿌옇게 이쁘요임자도에 사람이 북적됐던 적이 있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민어파시로 유명한 ‘타리파시’와 새우잡이 멩텅구리배들이 백여척씩 있을 때였다. 임자도 ‘민어파시’는 ‘섬타리’와 ‘육타리’ 두 개의 작은 섬과 본섬(임자도) 사이 모래밭에서 일제강점기 이루어진 파시로 일 본사람들에게 ‘타리파시’로 잘 알려져 있다. 전장포 포구에 들어서자 기대했던 것과 달리 조용하다. 빈집들이 눈에 띄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예외 없이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멩텅구리배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상당수 어민들이 섬을 빠져나갔고, 배를 탔던 사람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빈집이 더 늘었다.새우잡이 전장포. 그곳에 배들은 새우잡이를 닷 그물과 팔랑개비 그물을 이용해서 잡는다. 닷배를 마련하는데 1억 원가량 든다면, 팔랑개비는 5-6천만 원이면 가능하다. 여기에 닷배는 몇 명의 선원이 필요하지만 팔랑개비는 가족노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팔랑개비를 선호한다. 특히 멩텅구리배가 모두 사라지면서 많이 들어선 것이 팔랑개비 그물이다. 문제는 닷배는 새우를 중심으로 어획하지만 팔랑개비 자루그물은 잡어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뒷손질(새우추리기)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포구에는 잡아온 새우를 추리는 일로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 손놀림이 바쁘다. 꽃젓과 육젓을 추려 내던 할머니 ‘보기도 안 이쁘요. 간나이 맵기로 뿌여가지고’ 육젓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작은 통 ‘꽃젓’이 몇 천 원일 때 ‘육젓’은 오만 원에 이른다니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손으로 하나씩 추려내는 것이다.자꾸 말을 거는 필자가 귀찮았던지 한 마디 불쑥 내 던진다. “손으로 돈을 만든다니까. 기계화가 안돼요. 너무 식구 데리고 하면 돈이 얼마나 남겠어요. 기계화를 못하고 인력으로 하려니까. 식구대로 이것을 하려고 생해요.” 금요일은 인근 송도에서 보고, 화요



오젓과 육젓을 만드는 일에 많은 손길이 간다.(임자도 전장포구)

일은 목포에서 위판을 본다. 육젓 한 드럼에 가격을 잘 받을 때는 700여만 원까지 받았다고 한다. 서울 사람들이 젓갈하면 광천새우젓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젓갈이 모두 이곳에서 올라간 것들이다.



갯 잡아온 북새우에서 잡어를 추리고 있는 모습(임지도 하우리 포구)

2시간 일하고 4시간 잔다다른 수협은 적자를 봐도 신안수협은 흑자란다. 모두 새우 덕이다. 작은 새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은 변

화시키는지 대견하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은 육지에서나 어울리는 말이지 섬에서는 맞지 않다. 새우는 조류를 이용해 드는 물, 나는 물 네 번 그물을 올린다. 그래서 하루에 ‘너 물 본다’고 이야기한다. 이것도 부지런한 사람들 이야기이다. 하루에 너 물을 보려면 2시간 일하고 4시간 자는 자투리 잠을 차야한다. 그게 쉬운 일인가. 팔랑개비 그물은 자루그물로 되어 있어 물 보는 시간이 좀 늦어도 이상이 없지만 닳그물처럼 물 보는 시간이 늦어 조류가 바뀌면 그물에 걸린 새우는 영영 놓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그동안 지내지 않았던 용왕제도 정월이면 성대하게 지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바다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어민들과 지자체간에 실랑이도 있었다. 이들 새우가 서식하는 곳이 모래갯벌이기 때문에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새우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새우는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새우잡이를 금하는 나라들도 있다. 새우추리는 일은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일손이 많을 때는 걱정 없는 일이었지만 돈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일당을 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새우잡이 배가 들어오면 가족들이 모두 새우추리기에 나선다.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 스스로 ‘고무다리’로 생각하고 일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추린 새우는 신안의 특산물 천일염과 만나서 오젓이 되고 육젓이 된다. 오월에 잡은 새우로 만들어 ‘오젓’ 이고 유월에 잡은 새우라 ‘육젓’이다. 이들은 젓갈에 최고봉이다. 겨울을 난 봄 새우가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좋다. 추젓보다 높이 쳐주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기에 달고 고소한 맛의 신안 천일염은 오월과 유월 소금을 최고로 쳐준다. 바람이 좋고 햇볕이 좋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봄 별에 머느리 내놓고 가을별에 딸 내놓는다고 했겠는가.

### 3. 사회문화자원의 활용방안

#### 1) 신안의 갯벌과 섬을 활용한 사계절 테마 [섬생태여행]-임자도

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섬' 과 '갯벌'이다. 최근 섬과 바다를 자원으로 한 지역축제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내용은 갯벌체험 프로그램에도 못 미쳤다는 평가다. 이는 단순한 접근성의 문제를 넘어서 신안지역이 갖고 있는 차별화 된 자원을 충분히 프로그램화 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도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부모와 함께 하는 계절별 섬 테마 여행을 기획하는 것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구성에서도 어민들의 일상생활, 고기잡이, 갯살림, 갯벌생태, 특산물 등을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여 어촌생활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체험프로그램에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부모와 함께하는 섬여행”을 기획할 경우, 봄 - 갯벌생물 관찰하기, 어부체험, 여름 -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소금만들기 체험, 가을 - 갯벌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 겨울 - 철새와 함께하는 테마여행, 그림 및 글쓰기 등으로 프로그램 등은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

## V. 임자도 문화관광 진흥방안

### 1. 임자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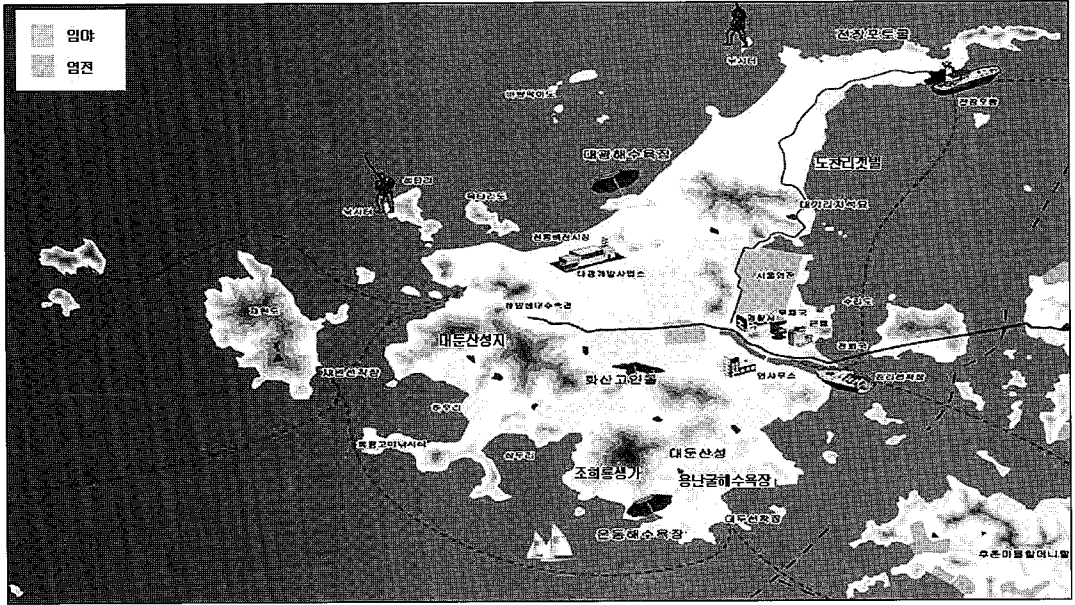
(고운 빛깔의 모래와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젊은 섬)

#### 1) 임자도의 지리적 특성

- 임자도는 목포에서 서북쪽으로 약 66.6km 지점에 있다.
- 임자도는 모래가 많고 사구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모래의 영향을 받아 깨(임자)가 많이 생산된다  
고 해서 임자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다.
- 주위에는 수도, 재원도, 대태이도, 육타리도, 대섬 등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동쪽으로 지도읍, 남쪽으로는 자은면, 북쪽으로는 바다 건너 영광군 낙월면과 이웃하고 있다.
- 선착장에서 5km정도 떨어진 곳에 대광해수욕장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규모인 길이 12km, 폭 200m의 국민관광지 대광해수욕장의 백사장이 펼쳐져 연간 1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 2) 임자도의 사회문화적 특성

-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에 종사하며 넓은 면적의 경작지가 분포해 벼, 보리 등 전통적 농작물 재배와 양파, 외대파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이 대량 생산된다.
- 연안의 해역에서서는 새우잡이가 성행하며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어획물로는 병어, 부서, 민어, 꽃게 등이 있다. 또, 천일염과 규사도 생산된다.
- 문화유적으로는 조희룡선생 생가터와 대둔산 성지, 화산지석묘 등이 있다.
- 예전에는 목포에서 6시간 걸리는 뱃길로 왕래가 어려웠으나, 무안 해제~신안 지도 간 연육교가 건설되고 지도 점암과 임자간의 철부선이 운행하여 승용차를 이용한 당일관광이 가능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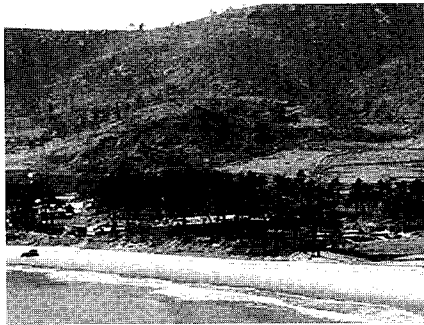


임자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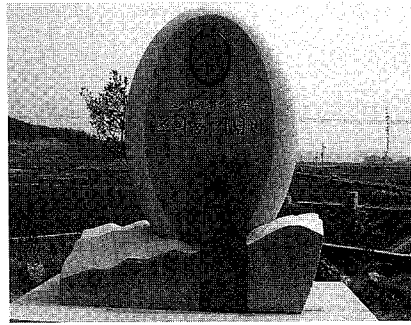
## 2. 관광자원 현황

### 1) 조희룡선생 생가터

- 조희룡은 1815년 조정의 예송논쟁에 개입하였다가 이곳 임자도 이흑암리로 유배되었다. 그는 유배지 오두막에 '만구음관'이라는 편액을 붙이고 그 속에 칩거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 당호가 있는 그의 그림 19점 중 8점이 이 당시에 나올 정도로 활발한 작품 활동이 있었고 묵죽법(墨竹法)과 괴석도(怪石圖) 등, '조선 산수화' 특유의 감각미를 강조하였다. 유배 시기 조희룡의 기량은 이론의 정립과 기량의 완숙으로 절정의 경지에 올랐다고 전한다. 1853년 조희룡은 3년



은동 해수욕장



조희룡 기념비

간의 임자도 유배생활을 마감하고 서울에 돌아올 수 있었다.

- 임자도 이혹암리에 조희룡선생의 유업을 기리기 위하여 마을 회관에 비석을 세웠으나 조희룡선생이 살았다고 하는 집터는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하게 되었다.

## 2) 용난굴 해수욕장과 용난굴(일명 : 어머니 해수욕장)

- 용난굴 해수욕장은 마을 남쪽 약 1.7km 떨어져 있으며 앞에는 확 트인 서해안의 바람을 맞을 수 있으며 조용하고 넓은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다.
- 용난굴은 해수욕장을 들어서면 좌측으로 약 500m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 150m, 폭 7m, 높이 8m의 굴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정면으로 들어가서 반대로 나오면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 장관을 볼 수 있다.
- 용난굴해수욕장은 아직 개발이 미흡하여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한적하고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대시설은 현재로서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 주변에 인접한 은동해수욕장과 더불어 임자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대광해수욕장보다 오히려 우수한 관광자원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어머니 해수욕장 맞은 편 해상은 중도의 해저유물 발굴 해역과 마주하고 있어 하나의 대규모 해상관광권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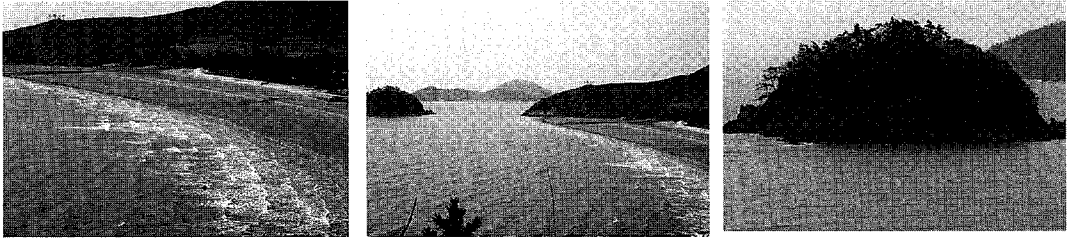


용난굴해수욕장

## 3) 은동해수욕장

- 이혹암리에서 대둔산 산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돌아가면 산에 둘러 쌓인 조그마한 백사장이 펼쳐진 은동해수욕장을 볼 수 있다. 길이 1km, 폭 100m 정도의 아늑한 백사장과 다도해의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은동해수욕장 뒤편 동산에서 조희룡선생은 달을 보며 유배생활 중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고 할 만큼 저녁달의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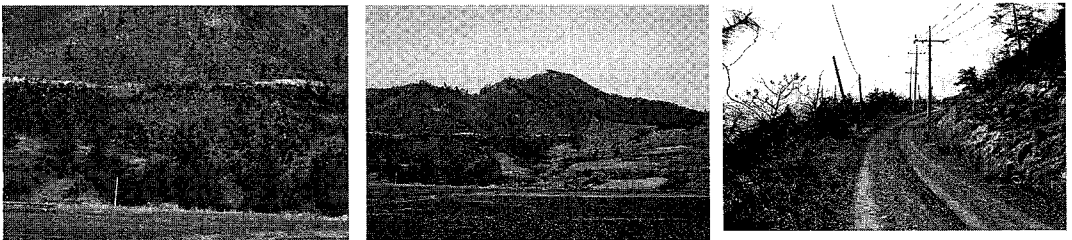
- 해수욕장의 접근성과 주위 부대시설의 개발을 볼 때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희룡선생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를 부여 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은동해수욕장

#### 4) 대둔산 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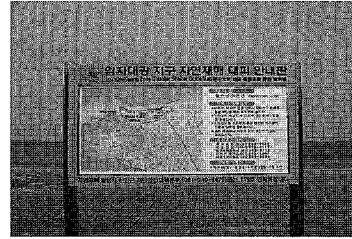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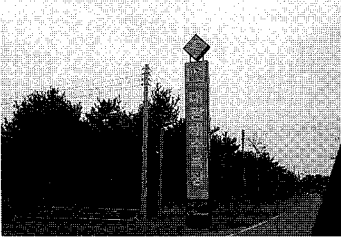
- 대둔산성은 조선 숙종 37년(1711년) 임자진이 설치될 당시에 조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 산정에는 헬기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성축의 훼손 정도가 심한 편이다. 대둔산성의 서쪽으로 재원도, 동쪽으로는 지도, 남쪽으로는 바다, 북동쪽으로는 진리(진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대둔산 정상에서는 이들 섬들이 한눈에 조망된다.
- 대둔산에는 임도가 산등성이를 따라 휘돌아 정비되어 있어 섬 속에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출발 지점에 따라 대둔산 정상까지의 거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산행 코스를 제공한다.
- 산행코스의 정비와 함께 대둔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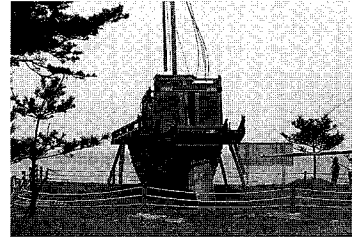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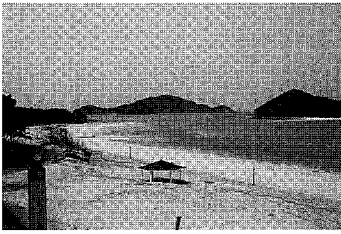
대둔산 성지

#### 5) 대광 해수욕장

- 우리나라에서 규모면으로 볼 때 가장 큰 해수욕장으로 길이 12km, 폭 300에 이르는 대규모 해수욕장이다. 90년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완만한 경사와 따뜻한 수온, 광활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안내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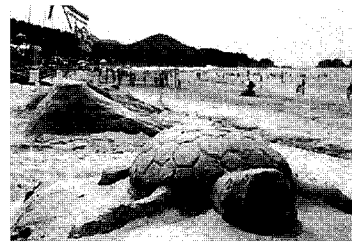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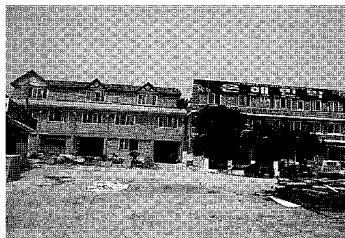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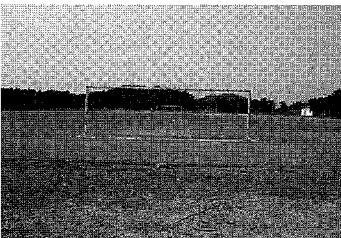


해수욕장 전경

취사장

전통배 전시장

- 부대시설로는 넓은 야영장과 천연잔디운동장, 체육시설, 샤워장, 주차장,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 단위의 피서객은 물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M·T 및 운동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 손색이 없다.
- 백사장 뒤로는 해당화, 해송, 아카시아나무가 숲을 이루어 야영장 및 한낮의 폭염을 식혀줄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제공하고 있다.
- 매년 여름철 임자도를 찾는 15만 명의 관광객 중 해수욕객 대부분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 대광해수욕장에는 신안군 청소년 수련관이 정비되어 있어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와 함께 저렴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흥미롭다.
- 대광해수욕장 맞은편에 위치한 옥타리도는 간조 시에 모랫길이 열려 접근할 수 있고 고운 모래와 자연경관이 우수한 자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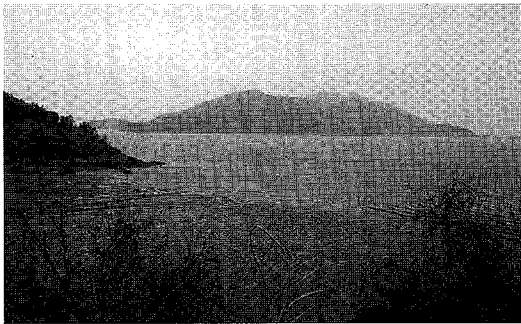
잔디구장

민박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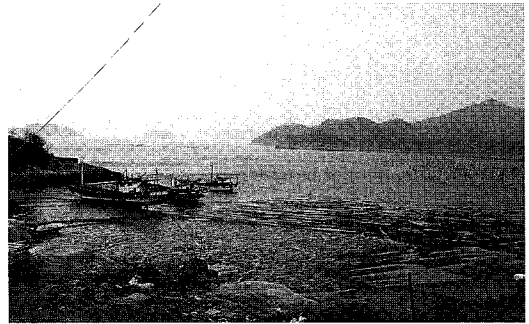
모래 축제

## 6) 희룡고미

- 재원도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희룡고미”는 아름다운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 현재 매우 비좁은 접근로를 정비하고 희룡고미 끝자락에 전망대를 조성한다면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희룡고미 끝자락에는 현재 인가 두 채가 있고, 해안가에는 양식장과 소규모의 포구가 마주하고 있어 전형적인 어촌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임자도의 부속도서인 재원도를 마주보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재원도에 접근할 수 있는 나룻배나 뗏목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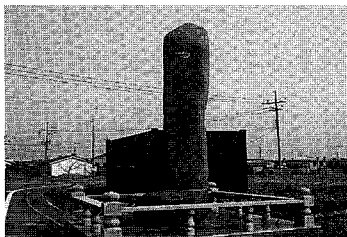
희룡고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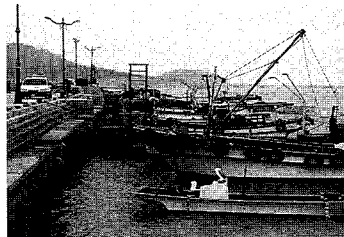
희룡고미 앞 부두

## 7) 전장포

- 전장포는 해마다 1천여 톤의 새우를 잡아 전국 새우젓 어획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 마을 뒤 솔개산 기슭에는 길이 102m, 높이 2.4m, 넓이 3.5m의 말굽모양 토굴 네 개가 있다.
- 현재 전장포에서 잡혀 생산되는 새우젓은 대부분이 지도대교 밑에 위치한 신안군 수협 북부지점 (송도 공판장)으로 운반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장포 표지석



전장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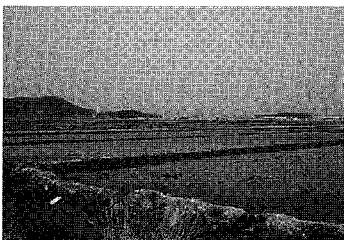


전장포 새우젓

- 예전의 전장포의 명성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아쉬움을 남긴다. 전장포 항에서 어획된 새우젓을 보관 저장하던 토굴의 관광자원화 방안과 항구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관광객 접객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 전장포 항을 지나 방과제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삼봉 끝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다. 접근로는 정비되어 있지 않지만, 해안 절경과 주변에 양식장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 8) 서울염전과 도찬리 갯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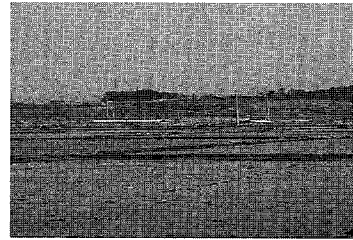
- 넓은 염전과 갯벌을 동시에 만나 볼 수 있고 임자도 앞바다에 떠있는 섬의 절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다.
-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로도 알맞은 곳이며, 아이들의 체험관광에도 적합한 곳으로 보인다.
- 825번 지방도를 타고 배미곶을 지나 도찬리 쪽으로 접어드는 지점에는 도찬리 갯벌 전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 지점과 함께 작은 규모의 도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벤치와 꽃밭이 조성되어 있어 드라이브 중간에 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정비되어 있다.
- 임자도 진리 선착장에서 전장포 끝자락에 위치한 삼봉 끝까지는 825번 지방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염전과 갯벌, 대하 양식장, 포구 등이 정비되어 있어, 하이킹 코스나 도보 코스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 지방도 주변에 펼쳐진 논과 밭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임자도 북쪽과 남쪽에 펼쳐진 해수욕장이 하계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면,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자원은 일 년 4계절 내내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라 하겠다.



서울 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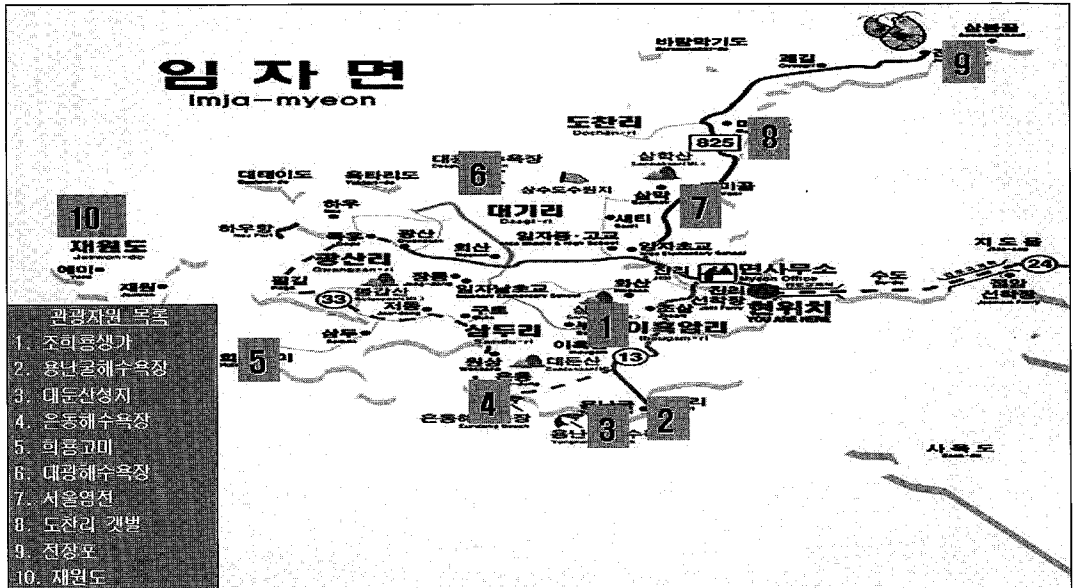


도찬리 갯벌



서울 염전

## 9) 관광자원 목록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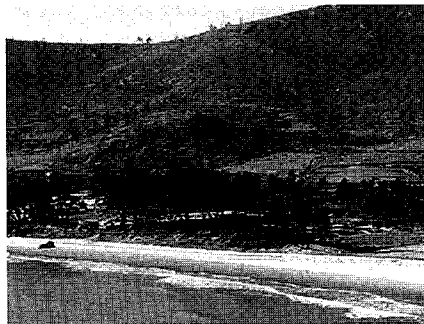


관광자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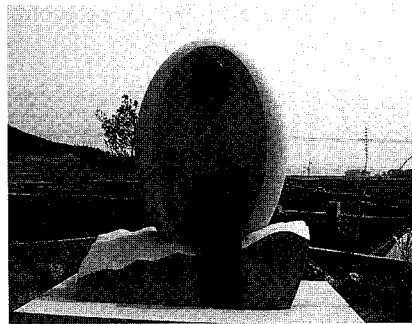
## 3. 관광자원화 방안

### 1) 조희룡선생 생가터

- 이흑암리에 위치한 조희룡 생가터는 현재 터만 남아 있고 건물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 볼 수가 없다. 마을 회관 앞에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만이 남겨져 있다. 조선 문인화의 대가로서 역사 문화자원의 훼손이 아쉽기만 하다.
- 선생의 생가터를 복원하여 예술학도들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큰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은동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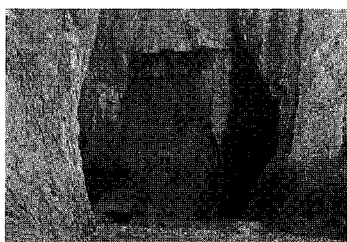


조희룡 기념비

- 은동해수욕장과 용난굴 해수욕장 (일명 : 어머니 해수욕장) 일대는 중도의 해저유물 발굴해역과 마주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해양관광 루트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신안의 해저유물 찾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임자도에서 출발한 유람선을 타고 중도 도덕도 해역 앞에 떠 있는 해상 부표에서 스킨스쿠버 또는 스노클링 장비를 갖추고 신안의 보물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용난굴 해수욕장과 용난굴

- 이흑암리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넓은 해수욕장과 용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생겼다는 용난굴이 함께 위치하고 있다.
- 좌측에 산등성을 넘어가면 조그마한 은동해수욕장이 나오는데 이곳에 조희룡선생과 얽힌 전설이 구전되기도 한다.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의 유입이 적은 곳이지만 임자도의 주민들은 조용한 이곳을 찾곤 한다.
- 부대시설이 많이 미약하고 해수욕장 관리가 미흡하여 백사장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해수욕장을 정비하여 해수욕과 함께 조희룡선생의 문화 체험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용난굴은 만조시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기암절벽으로 주변이 이루어져 물때를 잘못 맞춘 관광객은 접근조차가 불가능하다. 관광자원을 감상하러 온 관광객들이 접근 할 수 없다면 자원의 가치는 하락한다.



용난굴 입구



용난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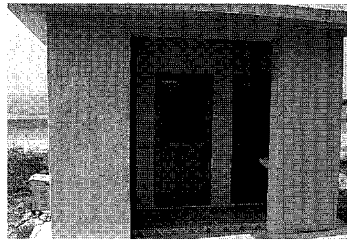
용난굴



취사장



사위장



화장실

-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용난굴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현재 방치된 샤워 시설과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겠다.

### 3) 역사문화 유적 자원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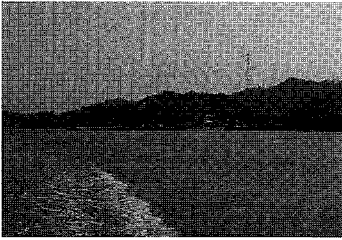
- 이흑암리에 위치한 대둔산성지를 복원하고 조희룡선생의 생가터를 건립하는 등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높은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전남의 인근지역을 표적시장으로 하여 수련회 또는 M.T를 유치한다면 적지 않은 관광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면적인 개발과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기획한다면 전국적으로 수학여행단의 유치도 예상할 수 있다.
- 조희룡 생가는 미술학도들이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체험관광을 실시하고 다른 자원들과도 연계하여 관광수익을 증대한다. 현재 원형상태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자원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하다.

### 4) 자연생태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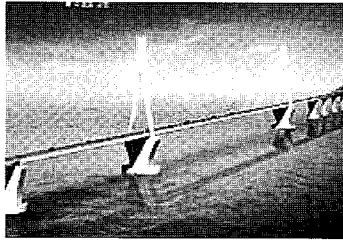
- 임자도는 모래와 각종 수산물로 유명한 곳이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광해수욕장 모래 작품전을 알리는데 힘을 쓰고 도찬리 갯벌에서 각종 어패류, 전장포항에서 새우젓 토굴 체험, 희룡고미에서 해상 낚시와 낙조 감상 등을 연계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인한다면 많은 관광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5) 향후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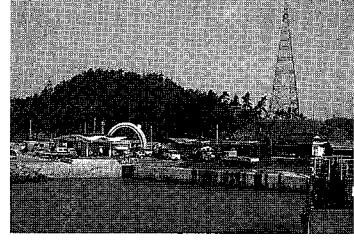
- 지도-임자간 연도교 계획으로 향후 관광객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향후 신안군 지역 이미지 구축 및 관광자원 브랜드 개발 사업으로 신안군의 각종 교량에 조명 시설 설치와 연도교의 명명,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거나 연도교 밑 공원 조성을 통해 가족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 임자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전반적인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상품의 개발 및 보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점암 선착장 전경



연도교 조감도



선착장 전경

#### 6) 대광해수욕장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관광

- 인근 육타리도의 모래길 (沙道) 체험관광이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한다. 현재 신안군 청소년 수련관이 주도하고 있는 래프팅과 서바이벌 게임 등 다양한 해양레저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하다.
- 또한 간조 시에는 갯벌 체험과 백사장이 관광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 청소년 수련관은 학생들을 유도하여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잠재능력 개발과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서바이벌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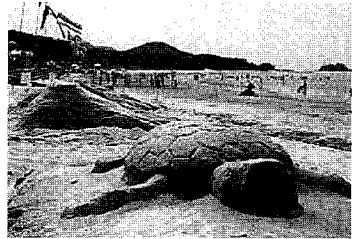
청소년 수련관



래프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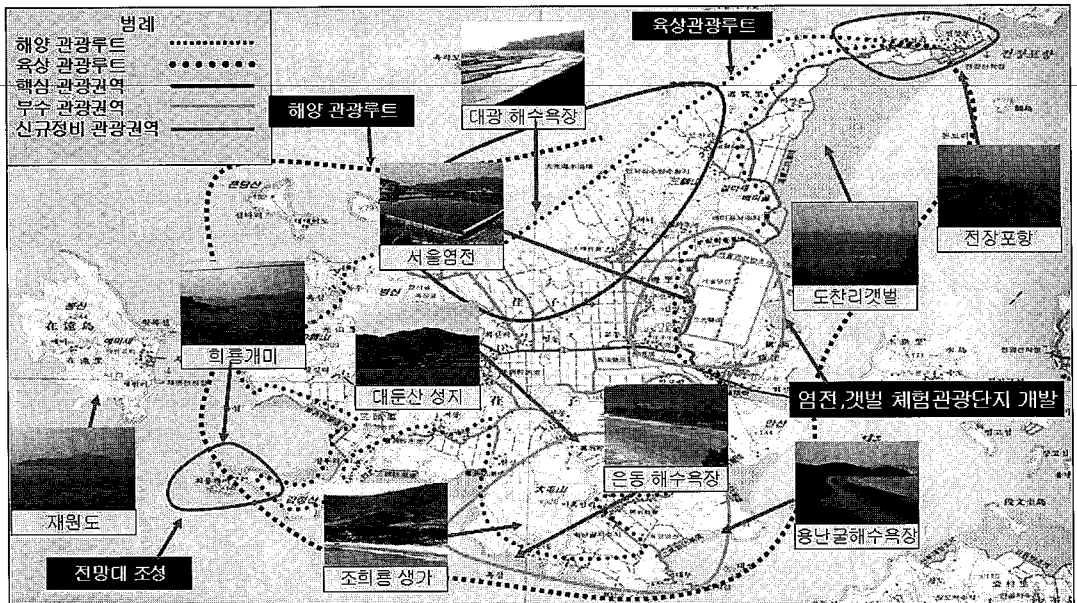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축제



### 7) 신안군 청소년 수련관 체험 프로그램

활동영역	프로그램 현황
심성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공동체 · 종합인성훈련(도전! 인내! 극기) · 파워! 미팅</li> <li>· 촛불어울림한마당 · 한마음 사랑체험 · 꿈 갖기 활동</li> <li>· 심성테마체험활동 · 신문활용능력(NIE)</li> </ul>
자연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도 탐험(수상활동) · 보행캘리 · 오리엔티어링 · 서바이벌</li> <li>· 물 로켓발사 · 미니올림픽 · 삼림욕 · 야간하이킹 · 래프팅</li> <li>· 창작도미도교실 · 크로스컨트리 · 종합형 BASE활동</li> <li>· 상황극복관문놀이 · 자연공작 · 추적활동 · 개척물통과 · 모의전투</li> </ul>
문화예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공예 · 풍선아트 · 댄스스포츠 · 수화교실 · 포크댄스</li> <li>· 문화유적지탐방 · 복공예 · 신나는 창작놀이 · 전통 고기잡이</li> <li>· 모래조각</li> </ul>
대동놀이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닥불놀이 · 이색도전 · 퀴즈한마당 · 어울림마당</li> <li>· 이색장기자랑 · 긴급과제활동 · 탐위크! 우리 반 최고</li> </ul>
전통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타 · 전통 예절 · 원시 체험 · 민속놀이 · 국궁배움터</li> <li>· 민속창작놀이 · 도전! 역사놀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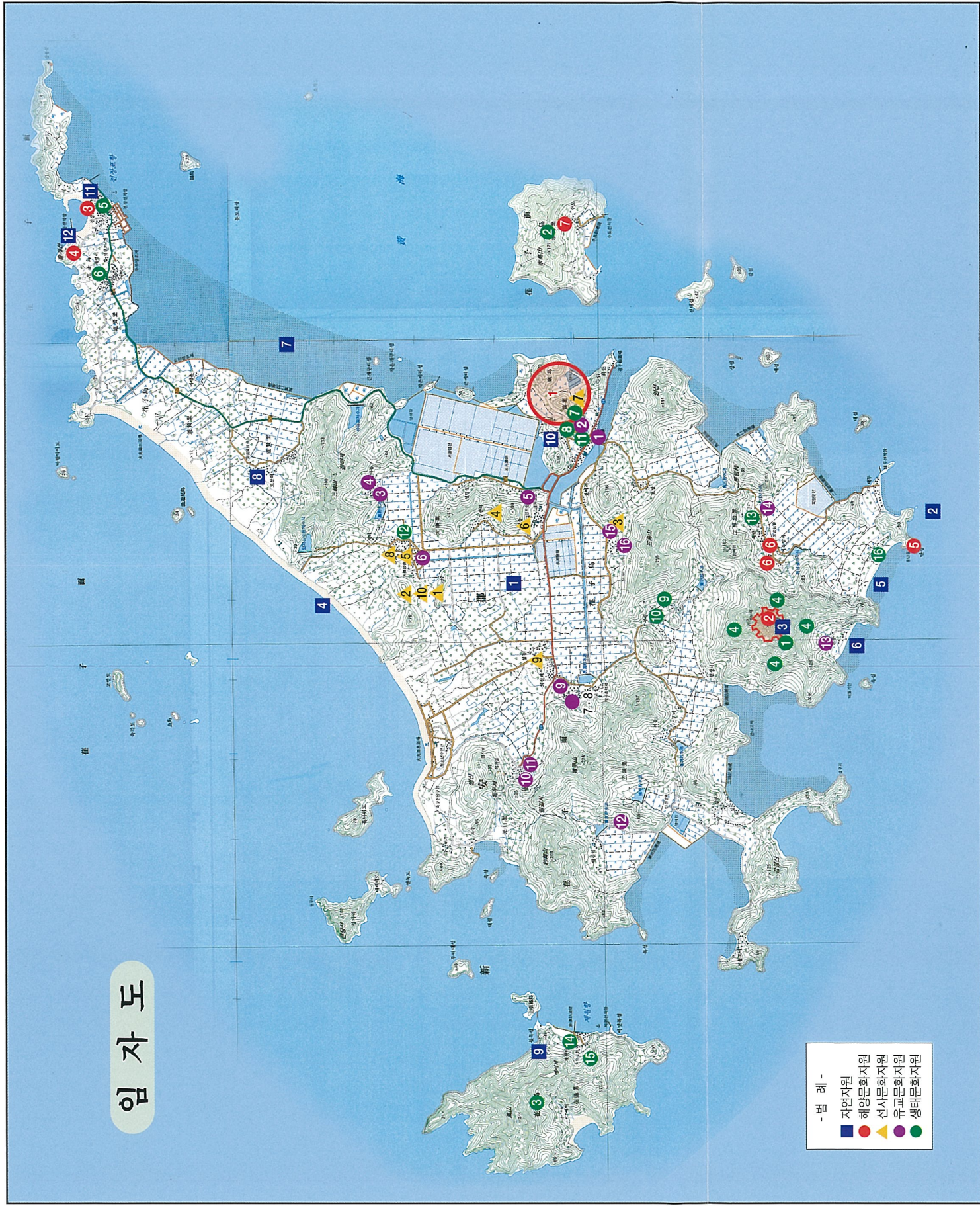
### 8) 관광자원화 지도와 관광 진흥 방안



관광 진흥화 방안

- 임자도의 해양관광루트는 다양한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수려한 절경과 잔잔한 파도로 인해 도서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해안에 용난굴, 희룡고미, 재원도 등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원이 많아 해양관광을 즐기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 임자도의 해양관광루트는 체험 관광 크루즈 항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겠다. 특히 용난굴 체험, 살굴지 일대의 갯벌 체험, 재원도의 어획체험과 무인도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형 크루즈 개발이 가능하다.
- 이흑암리 일대에 대둔산성지, 조희룡생가, 용난굴과 함께 국민관광지 대광해수욕장, 희룡고미의 재원도 절경 등을 묶어 핵심관광권역으로 정비한다.
- 현재 터만 남아있는 조희룡생가와 대둔산 성지를 복원하여 인근 은동해수욕장과 함께 해수욕을 즐기면서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체험 현장으로도 만들 수 있다.
- 핵심 관광 권역 안에 있는 신안군 청소년 수련관은 임자도의 자연을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직 홍보가 미비하여 목포인근의 학생 단체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국적인 홍보와 더욱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전국단위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임자도의 또 다른 특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다는 점이다. 용난굴 해수욕장, 은동해수욕장 등 대광해수욕장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절경은 어느 해수욕장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해수욕장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백사장을 정비하고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 시설을 마련하여 대광해수욕장으로 집중되어지는 관광객을 분산 수용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 도찬리 갯벌 일대와 전장포항, 삼봉 끝 등대, 서울염전 등은 또 다른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넓은 도찬리 갯벌의 갯벌체험현장, 전장포항의 새우젓 토굴체험관광, 서울염전에서의 소금체험 현장, 삼봉 끝 등대 체험 등 신규체험 관광루트의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임 자 도



- 범 레 -  
 ■ 자연자원  
 ● 해양문화자원  
 ▲ 선사문화자원  
 ● 유교문화자원  
 ● 생태문화자원

## 자연자원

1. 임자도의 간척지 모습
2. 기암괴석 '용난굴'
3. 임자도의 명산인 대둔산(한동산)
4. 대광해수욕장
5. 어미리해수욕장
6. 은봉해수욕장
7. 도참리갯벌
8. 오아시스 '모래지'
9. 기암괴석 '군마우'
10. 진리마을 풍경
11. 전장포구 전경
12. 새우젓굴 풍경

## 생태문화자원

1. 대둔산
2. 수도
3. 재원도
4. 대둔산 소나무-참나무 군락
5. 새우젓
6. 임자-페길마을 노거수(소나무)
7. 임자-농협 노거수(벚나무)
8. 임자-파출소 노거수(은행나무)
9. 임자-부동마을 노거수(은행나무)
10. 임자면 부동마을 노거수(동백나무)
11. 임자 면사무소 노거수(벚나무)
12. 임자면 대길리 노거수(이팝나무)
13. 임자 이쪽암리 노거수(은행나무)
14. 임자 재원도 당숲 팽나무군락
15. 재원도 진씨 선상 동백나무군락
16. 임자도 용난굴해수욕장  
방풍림곰솔군락

## 선사문화자원

1. 대가리리석묘군
2. 대가리리석묘나군
3. 화산리리석묘군
4. 구산리리석묘
5. 대흥폐출
6. 교동폐출
7. 진리유물산포지
8. 대흥유물산포지
9. 화산유물산포지
10. 대가리유물산포지

## 해양문화자원

1. 임자도전(지)
2. 대둔산성
3. 전장포
4. 새우젓 저장도굴
5. 용난굴
6. 조희룡 적거리 및 기념비
7. 장조단

## 유교문화자원

1. 金亨培紀念碑
2. 金鍾熙追慕碑
3. 晋州姜氏烈婦碑閣
4. 崇慕齋
5. 南起元遺墟碑
6. 新安朱氏三孝子碑閣
7. 永思齋
8. 道林壇
9. 農山先生遺墟碑
10. 南陽洪氏烈婦碑
11. 任東宣墓蹟碑
12. 錦城羅氏孝烈碑
13. 鄭蔚源遺墟碑
14. 永嘉齋
15. 延日鄭氏烈行碑
16. 華山壇